



남양주의 숨은 비경들

명소

365열린도서관



B46804

남양주를
기린다



남양주²를
기린다



명소
남양주의 숨은 비경들



한발만 내디디면 다다른 남양주의 숨은 이야기

남양주는 서울의 이웃 동네입니다.

서울을 벗어나 차마가 곧바로 만나게 되는 일 동네치고는 도심과 훌쩍 다른 풍경들을 선보입니다. 심산유곡을 사나운 남북의 장대한 한강 물기가 한곳으로 모이는 부릉미리를 비롯하여, 조선의 이태조가 활시위를 당기며 사냥을 즐기던 천마산과 옥령산의 고봉준엄이 어찜하고, 천혜의 자연 장관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는 고봉이다 수레님이 고개, 광대동, 세우정호, 돌보부처런 등기만 해도 정감이 가는 풍경들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서 깊은 봉선사와 수종사의 그윽한 풍경 소리가 귀를 맑게 씻고, 풍류상과 사당을 비롯한 왕조의 돌연에서는 솟아날 소리가 유장한 어사의 시연들을 고조시켜 들려줍니다. 크샤트리 보글자리를 들린 광릉 수목원에서는 도심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아름드리 소나무들과 기화요초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농내의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에선 지금도 책 읽는 소리가 아련히 들릴 듯하고, 여류밤이면 반딧불이들이 한 줄 줄 걸치런 유일한 물결의 정경은 광활하지만 합니다.

이제 서울과 이태를 잇대고 있으면서도, 너무 가까이 지나쳐 버리기 쉬웠던 남양주의 숨은 이야기들을 한자리에 모아 봅니다. 그간 향토의 역사를 담은 책들이 없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낱말 명승에 치우쳐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아 남양주의 사람과 통근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새 권의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우리동네 바람났네>라는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새 권의 책들은 남양주 시민들이 널리 알려진 명승지나 관광지보다는 사람 냄새가 나는 '마을'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에 뜻을 모아 일 년이 넘는 기간 기획부터 취재와 편집을 감당한 집에서 뜻이 깊다 하셨습니다.

그간 귀한 시간을 내어 취재와 기록에 열의를 다해 주신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깊고 지났던 일과 정감을 뜨거운 성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은 남양주시 향이소동과 일꾼들, 귀한 사진과 활영을 도와주신 남양주시 풍양사진연구회 회원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처음의 서무원으로 끼워 넣기지 못한 남양주의 명인, 명품, 명소들에 한터까움을 느끼며 이만한 자랑이 그 모두를 아우르

는 단초가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마을 이야기들을 한자리에 모으며,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남양주의 소중한 아름다움을 들을새김하고, 남양주를 찾는 분들에게 작은 김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둘고 모자란 이 세 권의 책들이 서울에서 한발만 내디디면 다다르는 이웃 마을 남양주의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오롯이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갑오년 깊어가는 늦은 가을에

'우리동네 바람났네' 프로젝트 시민 일꾼들



남양주의 숨은 비경들

명소_ **시민취재**

- 08 관야리 아홉살을 하다_남양주의원 이름들 찾아서
- 16 사후 치는 것에 대한 그리움_미륵나무에서서
- 22 기쁨까지 일게하다_전철 여경수 가운
- 28 비로 숨결을 찾아서_주석동 석실서펜터
- 36 21세기 서양_태동고현연구소(지곡서당)
- 42 동방에 발을 밟하라_공도학원
- 48 그곳에 가면 남양주가 보인다_남양주역사박물관
- 54 일사구치를 찾아서_갈피박물관
- 62 저미린 참요한 숲이죠_주말거미박물관
- 68 10억년 지구의 신비를 만나다_우석원자연사박물관
- 74 제3세대 조가자름을다_모민미술관
- 80 장키스런의 후예를 만나다_용궁문화촌
- 86 달오리면 비취야 한다_보광사와 수채로 흥포기는 길
- 94 나를 찾아 가는 길_천년의 고찰내원암
- 98 직천의 맑음은 높다_후박산 3층도
- 102 내 무덤에 불을 사용하지 마라_세조의광릉
- 108 시간을 거슬러 다현을 만나러_다현유적지
- 114 '불공자들 노래한 고리의 승진_내문변인행과 묘역
- 120 첫 번째 태원군_덕흥대원군묘
- 126 아리도 남해있는 문_홍천대원군묘역
- 132 정복과 시인을 기다리다_초지촌 묘역과 서비
- 138 죽었지만 죽지 않은 이들의 공간_머슴모란공원(죽안주영시묘역)
- 146 목한길, 애인이 댕기다_물과향원

남양주의 숨은 비경들 명소_ 시민공모전

남양주를
기린다



- 156 그곳에 가면 향기가 난다_양지리 향나무
- 164 산토끼 할아버지 길
- 170 백봉힐링숲길을 다녀오다
- 174 나의 왕숙천벼락소 사랑일기
- 180 삼패동 평구마을을 다녀와서
- 184 인간미 넘치는 장현의 장
- 188 어머니의 마석 5일장
- 192 한글법당 봉선사

남양주의 숨은 비경들 명소_ 전문가집필

- 200 남양주의 정자목과 당산목을 찾아서
- 208 조선 왕릉의 도시, 남양주
- 232 남양주 3·1운동사
- 244 한음 이덕형 선생, 시의 세계



남양주²를
기억한다



남양주의 숨은 비경들 명소_

시민취재

팔야리 이름값을 하다_남양주의 땅 이름을 찾아서
사무치는 것에 대한 그리움_미음나무에서서
기쁨까지 설계하다_전집 여경구 가족
미호 숨길을 찾아서_수석동 석실서원터
21세기 서당_태몽고전연구소(지곡서당)
동방에 빛을 밝하라_경동학원
그곳에 가면 남양주가 보인다_남양주역사박물관
실사구사를 찾아서_실학박물관
거미란 참 묘한 놀이조_주필거미박물관
46억년 지구의 신비를 만나다_우석헌자연사박물관
제3세대 조각가를 품다_모란미술관
징키스칸의 후예를 만나다_몽골문화촌
담으려면 비워야 한다_보광사와 수채골 폭포 가는 길
나를 찾아 가는 길_천년의 고찰 내원암
직선의 말쑥을 듣다_수락산 3폭포
내 무덤에 돌을 사용하지 마라_세조의 광릉
시간을 거슬러 다산을 만나다_다산유적지
'불굴'가를 노래한 고려의 충신_대은변안렬과 묘역
첫 번째 대원군_덕흥대원군 묘
아직도 닫혀있는 문_홍선대원군 묘역
청록과 시인을 기리다_조지훈 묘역과 시비
죽었지만 죽지 않은 이들의 공간
_마석모란공원민족민주열사묘역
북한강, 애인이 생기다_물의 정원





팔야리 이름값을 하다

남양주의 명미움을 찾아서

1392년 7월 17일 개성 수창궁은 새로운 왕을 맞이하느라 분주하다. 역성혁명, 51명의 개국공신을 포함한 반(反)고려 문부백관에 의해 왕씨의 나라 고려가 475년 만에 막을 내리고, 이씨의 나라인 조선이 되는 순간이다.

태조의 명화는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재위 6년 4개월 만에 1차 왕자의 난으로 둘째 아들 방과에게 양위를 한다. 그가 조선 2대 정종이다. 정종은 아버지인 태조가 정성스럽게 세운 한양을 떠나 개성으로 도읍을 옮긴다.

2년 2개월 뒤 태조의 넷째 아들 방간이 왕좌의 꿈을 버리고 당시 실세였던 다섯째 아들 방원과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 반란을 일으켰으나 제압을 당하고 이를 계기로 방원이 조선의 세 번째 왕위에 오른다. 태조는 태상왕, 정종은 상왕, 태종은 주상, 왕이 셋이나 있는 나라가 된다.

개국 후 나라가 안정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벼락같은 사건이고,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댄 듯한 죄인공노할 사건이다.

태조의 불행한 말년 '함흥차사' 이야기

태조는 1차 왕자의 난(1398년)에 평소 가장 아끼던 두 아들 방면, 방석과 정도전 등 심복을 잃고는 삼심한다. 정사에 뜻을 버리고 정종에게 양위를 한다. 두 차례 자식들의 전쟁에 선물이 난 태조는 노여움을 한보파리 먹고는 고향인 함경도로 발길을 옮긴다.

그가 태어난 함길도 화령부 동북면 흑석리에 도착을 한다. 그리곤 뒷마루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참으로 고약한 일을 당했지만 변방의 동네에서 왕이 셋이 나왔으니, 고향의 이름이나 지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대, 내 고향이여! 영원히 흥하라.”라 하고는 영흥(永興)이라 지었고, 그가 성향한 귀주리로 가서는 “내 고향과 더불어 흥하라”라는 함흥(咸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함흥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며 태종은 아버지께 문안드리는 문안사인 차사를 시절에 따라 보냈다. 태조는 그들을 문전박대했고, 신기에 가까운 활승씨로 그들을 좌 죽였다고 한다. 함흥에 가면 들



왕숙천의 겨울

아오지 않는다 해서 생긴 시대어가 바로 '함흥차사'이다.

*실록을 포함한 기록에는 6명의 차사 중 박신이라는 사람만 조사의의 난을 평정하러 갔다가 그에게 죽었을 뿐 나머지는 살아 돌아왔다.

여덟 배미와 왕숙천 이야기

태조는 친구처럼 지낸 무학대사의 권고에 못이기는 척 한양으로 돌아온다. 개성을 통해 돌아가면 쉬운 길을 놔두고 뺨 돌아 왕산탄이라고 부르는 백사장에 짐을 킌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덟 밤을 지낸 태조는 "내가 여기서 여덟 밤을 지냈구나."라고 해 '여덟 밤이'→'여덟밤이'→'여덟배미'라 부르게 된다. 한자로 팔야리(八夜里)로 적는다. 팔야리는 진접읍의 행정마을이다. 1963년 행정개편이 되면서 포천지역은 신팔(新八), 남양주지역은 팔야리로 남는다. 태조가 묵었던 내를 왕이 잠을 자던 곳이라 왕숙천(王宿川)이 됐다고 한다.



천마산의 여름

천마산, 축령산, 오득산은 태조의 사냥과 얽힌 산 이름

태조가 이튿 밤을 지내면서 눈앞에 높은 산을 발견한다.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던 그는 환갑을 지낸 고령임에도 사냥이나 활 양으로 그 산을 오른다. 산 아래서 본 것과는 달리 산세를 살펴보니 산이 높고 아주 험했다. 마침 지나가는 농부에게 산 이름을 물었다. "소인은 무식하여 잘 모릅니다." 하고는 흥연히 사라졌다.

산 정상에 오른 태조는 혼잣말로 "인간이 가는 곳마다 청산은 수없이 있지만 이 산은 매우 높아 푸른 하늘에 흠(筋)이 꽂힌 것 같아 손이 석 자만 더 길었으면 하늘을 만질 수 있겠다."라고 한 데서 '하늘 천(天), 만질 마(摩)', '천마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산은 '하늘을 만질 수 있는 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태조 일행이 사나흘 지나도록 사냥을 했지만 토끼는 커녕 평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근심어린 태조의 얼굴을 본 근시 중 한사람이 동네로 내려가 용한 만신에게 산신제를 지내달라고 부탁을 한다. 뒤 부탁이라 거스를까, 만신은 산에 올라 정성스럽게 기원을 했다. 이 산은 산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하여 축령산(祝靈山)으로 부른다.

축령산에 기원을 하자 신봉하게도 뱀돼지를 다섯 마리나 잡았다. 그 산이 바로 축령산 아래 오득산(五得山)이다. 남양주시를 대표한 산 이름이 노왕의 사냥에서 나왔다니 이를 재미로 볼 것인가 우연으로 볼 것인가 땅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점점 흥미롭다.

*사실 천마산의 지명유래는 이 시기가 아니라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방문한 것이 맞는 이야기다. 또한, 야사에 나오는 무학대사, 남제와 얽힌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앞서는 이야기다.

토원, 도제원, 퇴계원의 시작은 퇴조원

태조가 말아리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태종의 귀에 들어갔다. 그렇지 않아도 한양의 경계인 삼각산 세봉우리를 바라본 태조는 '칼까 말까' 마음은 편치 않았다. 태종은 조관들을 보내 문안을 드렸으나 이곳 지금의 퇴계원까지 물러나 있으라 했다. 조화를 물렀다하여 퇴조원(退朝院)이라 했다.

실록에는 조선초기에는 토원(兔院)이라 하다 중기에는 도제원(道濟院), 고종조에는 퇴계원(退溪

축령산의 봄



處)으로 기록돼 있다. 대개 嶺(嶺)이라고 하는 지명은 여러 각 시이에 두는 관사로 삼개동의 평구이
과 건원읍의 병수역 사이를 연결하고 관장하던 터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원동과 광
릉에 계사를 치내려는 후대왕의 행렬이 삼사 머물러 있는 휴게소 역할을 하던 주정소(晝停所)가 아
로 되제원이다.

*주정소는 왕의 살레나 재량을 위해 늘으로 참하던 일행이 많이나 긴 휴식을 취하면 대주정소, 잠
시 쉬는 곳을 소주정소라 한다. 남양주 지역에는 피계원, 풍양궁 불이 거기에 배설한다.

건원릉과 근심을 잊은 고개

오래 머물 수 없었던 태조 일행은 8일 만에 평을 부려 한양으로 향한다. 태조와 부하대사는 태조의
별자리(능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조: 그래, 대사에서 봐 문 내 별자리가 양주에 있다하지 않았소. 우리 그곳에나 들렀다가 한양으
로 들어갑시다.

부하대사: 대상황 전하. 별자리는 이 큰저입니다.

일행은 지금의 동구릉 건원릉 터를 답사를 하고 한양으로 향한다. 그리곤 고개에 올라 능터를 바
라본 태조는 조소하게 탄식대를 던진다.

태조: 오호라! 내가 이제 근심을 잊는구나!

남재에 불망기를 써주자 근심을 잊은 고개

다른 이야기로는 꽃아리에서 살날을 마친 태조는 한양으로 가는 길에 개곡공신 남재야 조말행을
대동했다. 그리고 자신의 능자리를 찾아보자고 했다. 지금의 동구릉에 이르러 세 혈(血)의 명당을
알려준다. 그런데 지금의 건원릉 자리는 남재가 미리 마련한 자리로 태조 자신의 별자리 보다 훌륭
했다.

태조: 그대의 별자리가 나보다 훌륭해 보이니 바꾸는 것이 어떤가

남재: 왕릉 예정지였던 곳에 여씨 신을 매갈 할 수 없겠습니까. 이는 불경할 뿐 아니라 후일이 두
렵습니다. 또한 후손에게는 중죄를 지은 것이니 불가하옵니다.

태조: 그렇다면 내 그대에게 후권이 없도록 불망기(不망記)를 써 줄 테니 이것을 중표로 삼으면
되지 않겠소.

들은 별자리를 바꾸었고, 남재는 한양으로 가는 길에 고개에 올라 '오호라! 이제야 근심을 잊는구

다" 했다고 전한다.

이 고개를 "맛을 땅(土), 근심 우(憂)" 땅우로개라 부르게 된다. 그래서인지 그 근방에는 1950년대 부터 살아생전 근심을 일으키는 1만 3천여기의 땅자가 모인 땅우라곰동요지가 있다.

"저 산은 건원봉이 하문의 후근이던 김인귀의 후원으로 신장했다는 것이 태종실록에 걸린다.

남재에 속은 태조의 평사냥

남양주 별내동 파원리에는 개국공신 남재의 묘가 있다. 묘역 건너에는 그가 모신 태조의 건원봉 이 있다. 남재와 태조 등은 각별했다.

이야기를 다시 함흥차사로 돌리자, 아무튼 함흥에 가면 술이오, 차 붓겠다는 흥흥한 소문이 들자 누구는 선입을 끼려했다. 태종은 제가 많은 남재에게 부절을 보쳐 오도록 했다. 남재는 수 십 명하 태 사냥꾼을 대동하고, 함흥으로 떠나 태사냥과 등대를 했다.

태조: 오랜 말일세, 그래, 어찌 지내시나

남재: 비슬에서 불리나 그지 선전을 음담하던 중 댤 매사냥 때를 만나 그 때비에 불리 여기까지 왔 습니다.

태조: 얼마나 흥이풀기에 제까지 왔는가. 그렇지 않아도 무고했는데

이때 매사냥꾼들이 쫓을 한 아룡씩 얻고 남재를 찾아왔다.

태조: 잘 됐다, 나가서 함께 그 사냥 구경이나 가세.

수 십마리의 매가 신호에 따라 뿔다 잡혔다 하면서 쫓이미 작은 동물들을 뒤야채는 모습에 혼이나 간 태조는 천원 넘하하여, 관아리에 이르러 여덟 말이나 목을 끌도로 매사냥에 흥이 빠졌다. 관아리 에서 20리를 떨어진 내각리의 뒷산에 이르러 한양의 삼각산이 보이자 태조는 깜짝 놀라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남재를 추궁했다. 남재는 죽음을 각오했고 아룡일 태종과 화의할 것을 간청하여 결국 한양 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관아리 동남방 산봉우리를 매상산, 서북방 산봉우리를 매립산이라 부른다.

태조와 연관된 지명을 찾은 후 관람기

조선을 개국한 태조와 관련된 많은 지명이 관아리에서 출발한이런 이야기를 듣고 무척칭 김을 사 졌다. 승용차를 용고 47번 국도를 따라 포천(일동) 방향 광릉 숲으로 갔다. 권원강에 관아리라는 표 지판이 나타났다, 관아리 입대를 어느 코스로 어떻게 들어가서 할피 볼 것인가 미리서리 궁리해 왔 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를 타고 가다 일단 광릉 4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관아리로 진입했다. 진입



진접읍팔아리

그래서 지나가는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을 붙들고, '여기가 팔아리가 맞느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타 지역에서 이사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싱거운 대답을 해줄 뿐이다. 이런 대답을 듣고 보니 팔아리 지명의 원천지를 찾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자기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시큰둥한 표정이다. 묻는 걸 단념하고 팔아리 일대 산세와 지형을 직접 살펴보며 혹여나 왕이 머물만한 왕기가 서린 곳이 있지 않나 하고 살펴보았다. 갑자기 내 자신이 풍수지리가가 된 기분이었다. 풍수지리에 소질이 없는 탓인지 눈에 속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에 옛 시위가 미릿속에 떠올라 왔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물은 간 데 없네." 이를 "산천은 의구하되 임금이 머물고 잔 곳을 모르겠네." 라고.

마을 사람들도 무관심인데 태조와 얽힌 이야기를 전해 준 함보사학자가 연지 존경스럽기까지 한다. 함보사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번 기행으로 이성계로 부르는 태조와 관련된 남양주의 지명유래를 깨닫게 된 것은 아주 큰 수확이었다. 비록 산천경계는 가름하여 보지는 못했지만. ■

시민취재·박경주

하여 약 3-5km 쪽 안쪽으로 들어갔다. 계속 직진하면 부평리 쪽으로 가고 좌회전하면 팔아리 방향이다.

도서관에서 찾아본 옛날 지명은 팔백리로 나와 있었다. 이성계 왕이 8일간 머물렀다고 해서 불인 지명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천천히 주변 산천경계를 예의주시해 보며 앞으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4-5km 위쪽으로 올라가도 그럴만한 지형이나 위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대신에 이 일대는 팔아리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팔아리 지명유래를 확인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마을의 원로를 찾아보기로 했다.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둘러봐도 마을의 원로들은 부재하다. 웬지 마음부터 썰렁했다.



사무치는 것에 대한 그리움

미움나루에 서서

고등학교 2학년 무렵으로 기억된다. 당시 삶의 양태야 어찌됐든 서울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으스스했던 것임에 틀림없는 일이었다. 나는 학교 방송만으로 한창 의기충천하여 팝송을 즐기는 사치를 누리며 여고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갑자기 어려워진 형편으로 우리 집은 망우리 고개를 넘어 생경하기만 했던 경기도 땅으로 이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단지 또래 친구들과 반대 방향의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것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내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더 방송 일에 몰두했고 방송노음을 핑계 삼아 귀가를 늦춰 친구들과 사뭇 다른 하교시간대를 선택해야만 했다. 학과 공부를 등한시한 것도 어찌면 부모님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고 이후 그것은 나의 청춘을 내내 알게 될 음악과 문학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으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진로 또한 바뀌었음을 한참 뒤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당시 망우리 고개 너미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웠으며 도시와 다른 부적절함이 내겐 거름 냄새처럼 귀위했다.

이제는 이미 도시의 정취를 풍기는 이곳 남양주에 두 아이의 엄마로 시간을 지나온 나와 마주한다. 세월이 거저 안겨주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세월이 용서가 아닐까. 나는 이미 이곳을 고향처럼 애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움나무에서 서서 말이다.

나는 나뭇에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몸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 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

그러나 당신의 언행은 각 오산들만을 향하고

네는 남산을 기다리면서 남이타 남이타

남이 갑니다

나는 다뭇애

형님은 영인

-한용운의 다뭇애와 영인 형님-

미음나루에서 강을 보다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 이대는 이 나라에 지경이다. 호사를 향하던 사람들이 주팔이다 선으로 강으로 바다로 걸음 싸고 본다. 걷는 것이 미세이요 사정기 라이팅이, 풍산이 그야말로 르네상스인 시대가 됐다.

더 이상 세차거리의 도시에 사는 것이 크게 자랑도 아닌 세상. 반가워해야 할지 시운해야 할지 같이 쉽지 않으니.

이곳 남양주는 북한강 줄기를 따라 야트막한 산이 오복조복 어우러진 살기 좋은 땅이다.

어느 곳이든 강이 흐르는 마을에는 그들만의 정서가 있다.

바닷사람들이 고깃배를 타고 새활을 낚듯 강가에 사는 이들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따라 건너 바유로 오고가며 걸음 나르고 사람을 나르고 서간을 나르는 삶을 살았다.

새활은 새활을 어찌 흐르는 강이 다 끌어놓을까. 그저 머무르지 못하고 흐르게 사람살이를 이어주고 있을 뿐. 굽이치 흐르다가 잠시 정착하는 교묘하면 언제나 나무터가 있다.

'삼주삼산각'을 다시 그려보다

장기도 남양주시의 수석동 계곡의 마을에는 미음나루가 있다. 남양주 일대와 허남의 커사리를 건너다보니, 지금은 강 건너 마을로 통하는 길은 여러 개의 다리가 대신하고 있지만.

남양주시에는 북한강 상류로부터 하류로 사기막나루(화도읍 구암리)-금남라나루(화도읍 금남리)-용진나루(조안면 송촌리)-관남나루(화북읍 관당2리)-미음나루' 행렬이 이어진다. 동국여식승람에 '미음진(湫津)은 주의 동쪽 70리에 있어 광주로 통한다.'라 기록했다. 미음나루는 조선시대에 광주 비사리를 건너으며, 광나루(廣津)에 비유했다. 직선시원에 필요한 볼썽을 건너했으며, 풍물이 뛰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칠선의 전성산수에 합니타난다.



미음나무의 배 모양의 조형물

강을 건너 광주로 간다. 진경산수에 나타난 그림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그림과 같은 풍광은 아니지만 잠시 배를 타고 유희자적하던 정선의 눈으로 바라본다.

김창협이 살았다는 '삼주삼산각'도 그려보고, 거칠매 너머 '석실서원'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할 뿐 250여 년 전의 모습은 아련하다.

뗏사공의 회노애락과 들병이를 찾다

미음나무는 강원도와 충청도 산간지방에서 별목한 나무들을 묶어 배로 만든 뗏목 행렬의 정류장이었다. 뗏목의 행렬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강원대에서 1986년 현지 조사한 "인제뗏목"을 살피면, 인제에서 춘천을 거쳐 서울로 오는 길목에 정류처와 주막이 28개 있었다. "봉안구비-관당-미음-토막나들아-우미내-광나무"를 거쳐 "죽심-서빙고-노랑진-마포"로 이어졌다.

뗏목을 운반하는 이들을 뗏사공이라 부른다. 아라리를 부르며 줄지어 내려오던 뗏목은 두물머리



풍속마을 전경

부터 정체가 된다. 그래서 뱃사공에게 술과 음식을 팔던 선상객주가 생겼다. 가장 유명한 주점이 '석정네'라고 한다. 석정네는 뱃복을 오가며 술을 팔던, 할병이름 10명 안팎을 두고 정사를 했다. 여름철 이곳 큰 북새통을 이뤘고, 많은 뱃사공들은 할병이의 눈물음에 풀려 술값과 두전(노름)으로 자신이 들고 온 뱃복을 당전하기도 했다. 뱃사공의 희로애락을 담은 인계와 정선의 아리랑에도 그 시연이 시려 있다.

뱃길은 끊기고 풍속마을로 남다

뱃길이 끊긴 지도 수십 년, 나무터 앞은 옛 뱃사공들의 먹거리 장터를 대신해서 음식문화촌이 화려하게 터를 잡았다. 옛날에는 북한강을 누비며 전성기를 누렸을 나무는 이제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지금은 이곳이 나무없다고 조형물만이 조용한 외침을 하고 있다.

사람살이는 변하는 게 당연하다지만 거기 있어야 할 곳에 미부르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혹은 변질되는 것은 언제나 서덜기 마련인가보다.

마침 뭍출기는 웃고픈 풍고 누운 새색시처럼 사뭇 속살거리는 듯하다.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의 선



미음나무의 자전거길

보통 음식의 종류 또한 다양하게 채미하여 명실공히 남양주의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는 나무로 변신한 셈이다.

세월을 거슬러 고스란히 터를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게으름이요 때로는 미학이다. 여기 미음나무의 뱃길은 이미 한강을 따라 건설된 많은 다리를 통해 채 역할을 잃었지만 사람이 드는 곳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듯 여전히 북적거린다.

일몰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긴다

한강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 북한강에 서서 일몰을 감상하며 천천히 강가를 걷다보면 미음나무터에서 숨을 고르는 풀쭉기와 만난다. 한 컷의 사진으로 담기에 모자란 기쁨이 강가를 완하듯 걷기 시작하면 새벽바람을 찾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든다. 새벽녘은 아직 차다.

강을 따라 걷는 묘미는 바람에 있다. 남들이 채 만나지 못한 바람을 강물이 먼저 물어주고 저만치 아침햇살을 맞을 채비를 시작한다.

미음나무를 따라 강변을 걷다보면 산책로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쉼지에서 굵이돌고 다시 높은 고갯마루로 나타나는 강변의 살아있는 맛 또한 미음나무 길의 재미다.

그렇게 한나절을 강과 조우하며 사색을 즐기고 나면 풍물거리로 들어서 맛집과 만날 수 있다. 마치 조선시대의 뱃사공인양 주막에 걸터앉아 주린 배를 채우는 풍미를 느낀다면 그 또한 놓치지 아까운 경험이라. 술을 마시기에 이른 시간이어도 좋다. 누구에게나 남루한 추억 하나쯤 있는 법. 지나리뽕점 풀듯 그저 쾨히 자신을 풀어보기에 여기 미음나무만한 곳이 또 있을까. **■** 시민취재·박희영

기쁨까지 설계하다

진접 여경구 가옥



갑자기 답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원 오후에 선악이 있는 오늘말이다. 빙새 사진 조사를 했지만 켄지 머리가 허얏다. 부차철 카메라만 믿고나섰다. 황사가 끼어 잠시 미봉하 했지만 한옥에 대한 향수와 궁금중이 답석 마음을 품었다.

눈만 뜨면 고층빌딩이 늘어가는 세상이다. 전망 좋은 곳은 터를 사들어 지은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늘어나니 정부의 시급한 대안이지만 가끔은 숭봉이 막힐 지경에 다다를 때가 있다.

옛날 대가족이 모여 살던 한옥이 이제는 명소로 지정되어, 관광지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답장이 있고 넓은 마당이 있는, 정겨운 집들이 그리워져 반질을 재촉한다.

서둘러 별내역 방향의 전철에 올랐다. 귀퉁냥으로 비스를 갈아타고, 내곡리에서 내린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그제 어디서 본 듯한 골목이다. 산 밑자락에 여경구 가옥이 보인다. 마치 마을의 시적인양 재벌 너른 터에 까만 기와지붕이 보인다. 그치만같다.

여경구 가옥은 남양주시 내곡리 286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목조 기와집으로 이 집의 소유자였던 여경구의 이름을 따서 부른 것이다. 여경구의 장인인 이덕승의 7대조가 약 250년 전에 지었다고 전해오나, 실재는 18세기의 건축 기법과 형상을 이루고 있어 중요한 민속자료로 여겨, 1984년 1월 10일 국가 중요민속자료 제120호로 지정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한안 이씨의 동관덕'이라고 부른다.

한옥, 우주를 담다

우리 조상의 지혜가 숨어있는 한옥의 장점은 얼마나 있을까.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것이 현환경 건축이며, 자연 소재로 집을 지으니,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아닐까. 더위와 추위를 고려한 가장 과학적인 건축이라는 것일까. 한옥의 지위드는 원지인(人地人)을 의미하는 원방각(圓方角)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동그란 원은 지붕의 내림과 치마에 있다. 직선으로 곧게 뻗은 듯

하지만, 모든 시기에 따라 달리 보여주는 은은한 곡진이 아름답다. 내모란 땅은 맥이여 못이다. 세모란 작은 저물 못이다. 뽕은 하늘이고, 밤은 땅이며, 작은 사람층 의미하니 사람이 사는 밑에 큰 우주 가 넘기 있다.

어디 그랬어야 내모란 마당에 동그란 경천이나 원뿔을 만들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내모라는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도 고스라니 우주대 황으로 전기하더.

여경구 가옥, 전체를 바라보다

남양주시 시대주의 한옥을 대표하는 여경구 가옥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원천 경계에진다. 마을 안길로 들어와 하늘을 본다. 마름드라나무 가지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다. 가지의 아래리들이 피고 진남글이나 새 고래과 마을의 의지도 모이고 흩어졌으리라. 사시된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돌아 고택을 바라본다. 자정의 한쪽 귀퉁이거 보인다.

느린 발걸음에 재촉하라고 개들이 걸릴러 짖어댄다. 고요한 마을의 양문새를 앉잡아 보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나온다. 가파른 언덕을 따라 오른다. 숨이 차오른다. 등나무 문턱이 어우러지는 곳에 고택이 있다. 조희만 별 번이고 무너지야 비요소 땅이 지는 것임을 다시 깨운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까,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볼까, 작은 감동이 생긴다. 전체를 먼저 보기로 했다. 고택의 탑상을 돌아 언덕을 오른다. 가운데 옥있던 방에는 어느새 초록새까 음단이 깔렸다. 석봉과 마당 한 귀퉁이만 보인다. 아치밭을 해 보지만 의무적이다. 전체를 본다는 것은 허허하지 않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오른다. 고고한 자태에 마을은 사라지고 일숙원과 함께 한눈에 들어온다.

여경구 가옥, 언덕에서 풍수를 논하다

여경구 가옥은 피복산을 주산으로 하고, 천마산을 안산으로, 일숙원을 수구(水口)로 하는 전형적인 배산양수 가옥이다. 흔히들 풍수는 집자리인 양택과 뒷자리인 음택으로 나뉜다. 그리고 마을과 도읍이 길서를 양기(陽氣)라 한다.

여경구 가옥은 양택이며, 가옥 아래 마을은 양기로 형성됐다. 길 한 개가 던지는 풍수적 의미로 한 마을을 끼안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또한, 굽티는 뒤가 높고 앞이 낮아야하며, 허벅이 높고 철축이 낮으면 좋다고 한다. 남북이 길면 가장 길하지만, 동서가 길면 최음엔 나쁘지만 나중에 좋다.

가장 나쁜 것은 동으로 길을 길하고, 서쪽을 향하거나 북쪽을 향하는 것이라고 풍수학 저명한 '주재필용(朱載堯)'에 소개하고 있다. 여경구 가옥의 연면을 향하면, 책상사의 모든 초간을 갖추었다. 하지만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것이 좋지만, 차음이 길을 차은이는 본인인 운보다는 자손의

문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위로해 해본다.

여경구 가족, 부분을 살피다

여경구 가족의 배려의 소소함과 배려를 먼저 생각한 건축의 고민이 많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도판 수도 불리는 복수(대복장)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건축에 관여했던 주인의 인품을 엿볼 수도 있다. 조선시대 가족은 주인과 복수가 뻗뻗 선다는 것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길안으로 들어간다. 리제부터는 부분층 봐야 한다.

산자락이 맞닿은 지점에는 마필마당이 나뉘어져 있다. 마당을 풀며, 말을 흥취던 하인도 보이고, 행당 재 밭으로 심부름을 가는 여종도 그려본다. 그리고 안마당으로 들어선다. 마당이 사랑채보다 넓다.

채는 양미요 마당은 음이나 채의 규모에 맞게 마당이 어울리는 왜야 한다. 고도완수와 담관을 벌이는 집주인의 집에 대한 애착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사랑채를 살핀다. 높은 기단 위로 대청 대신 빗마루를 두른 겸소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사랑채로 오르는 기단과 계단은 상등로 마감했다. 빗마루 아래 공쪽 큰 침실에 앉아 한참을 머물러본다. 참 전 양이 좋다. 여경구 가족은 주산 외외산을 기준으로 남동쪽에 안채를, 서쪽에 사랑채, 행당채를 배치했다. 출입문은 행당채의 가운데 위치한 솟을대문이다. 원래 사랑마당 아래에 소가로 된 툇간채가 있었다하나 지금은 없다.

사랑채는 큰사랑방과 대청, 작은사랑방과 빗마루가 있고, 뒤쪽에는 쪽마루와 쪽밭이 있다. 큰사랑방은 방을 둘로 나누었으나 필요하면 머시기문(머세기문)을 열어 하나의 방으로 사용하게 한다.

여경구 가족, 안채를 훑쳐보다

사랑채를 나와 곳간채로 향한다. 일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곳간은 사랑채에 두 칸, 안채에 세 칸이 있다. 곳간채에서 안채로 들어가는 증문은 굳게 잠겨 있다. 문 틈새에 고개를 빼꼼 내밀어 안채마당의 일부를 살펴본다.

문득 안채 뒤편이 궁금해진다. 고살을 이루는 담장에 비해 담장은 차라로 낮다. 꽃씨기 날아와 꽃이 피어있는 곳이 여인의 공간이다 싶다. 담장을 넘어보려 했으나 고하게 건물을 맞붙여 차 결국 넋지 못했다. 이쪽하다.

안채를 훑쳐보는 것을 모기하고 곳간채 옆쪽에 이른다. 안채로 드는 작은 문이 보인다. 안채는 모두 세 개의 문이 있지만 도저히 들어설 수가 없다. 향만가 안채 주인의 빈기로움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주었을 것이라 인정하고 싶다.

여경구가옥, 유교 관념을 논하다

여경구가옥의 공간 배치는 풍수와 오행설 그리고 유교적 관념으로 배치했다. 계층 위계와 권위를 이 가옥에 표현을 했다.

첫째가 부부유별이다. 남녀의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했다. 사랑채가 남자의 공간이면 안채는 여자의 공간이다. 사랑채가 공개의 공간이라면 안채는 폐쇄적 공간이다. 그래서 남상 측에 담장을 쌓아 이중으로 여성의 공간을 보호하고 있다.

부부관계나 혼족 등으로 남녀가 만나야 한다. 여경구가옥은 사랑채에 퇴칸과 쪽문을 만들어 소통의 통로로 사용했다. 음식이나 주안상은 사랑채와 안채에 붙은 담장의 휘문으로 이동을 하게 했다.

둘째는 상하구분이다. 사랑채는 행랑채보다 높게 위치한다. 사랑채는 양반(兩班)의 행랑채는 영환(貞宦, 하인)의 공간이다. 그래서 사랑채는 마당에서 다섯 차 정도 높게 계단과 서단을 설치해 만장(萬兩)을 구분했다. 그래서 마당이 저주공간인 하인을 시냇말로 아당처라 부르는 것이다.

여경구가옥, 사당(祠堂)을 살피다

여경구가옥에는 성리학 예의 백미인 사당이 있다. 사당의 앞 벽면에 설치된 솟담은 여경구담사의 중요한 포인트로 알려져 있다. 이 사당을 가(家廟)라고도 한다. 나라의 사당인 종묘와 배치되는 것이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다. 그래서 종(宗)과 효(孝)를 중시했다. 나라님께는 충성동이, 부모님께는 효자동이, 동기간에 우애동이, 나가서는 귀염동이 권력자장기의 한 부분이다. 향아시는 나라에는 충을 부모에게는 효를 강조하는 유교교육이다. 중요사당이 마지막은 예(禮)이다. 예는 여러 가지 의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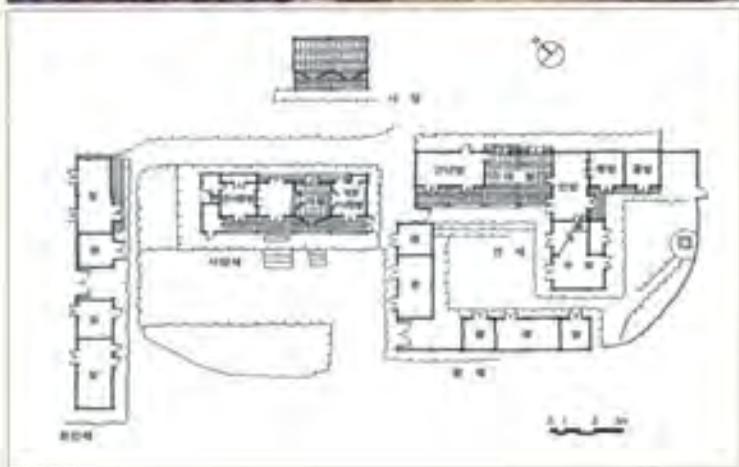
가정에도 4대 의례가 있다. 바로 관혼상제다. 이중 제례는 평생을 이어가는 예의 근본이다. 조선 초기에는 불교와 무속신앙이 벽성에 뿌리박혀 아주 친밀히 위로부터 아래로 보급된다. 16세기에는 4대 조상에 제사를 지내는 봉사(奉祀)와 재산을 나누는 상속(相傳)제도가 정착되고 보편화 되면서 주거건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선 초기에는 사당을 설치하지 않은 사대부는 문책을 받았으며, 신조이후 사대부는 참은 양반가에 일반화 되면서, 서인(庶人)들도 이 제도를 따랐다. 기난하거나 어의적 많은 사람은 내창 구석이나 헐편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세웠다.

집을 지을 때 사당을 먼저 세웠으며, 사당에서는 3년살(27개월)을 마친 신주를 모시고 가문에 따라 4대, 5대, 2대의 가계(家系)를, 5대 정실과 4계첩에 시제(時祭)를 올리기도 했다. 사당은 가택 동쪽 가장 높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만드시 북쪽에 신주를 남쪽에 문을 내야 한다.



여경구 가옥의 사당은 일반 사당의 배치와는 조금 다르다. 다른 한옥은 안채 깊숙이 사당을 두고, 담을 둘러 별도의 공간에 배치를 하는데 반해 여경구 가옥은 사랑채 바로 뒤편에 배치를 했기 때문이다. 뒀란에 사당을 지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여경구 가옥, 떠나다

26
27

문득 '고유한 문화란 최초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조지훈 시인의 말이 떠오른다. 여경구 가옥은 물담을 다시 쌓고 지붕을 올리며 역사는 지금도 수정되거나 보태어 지고 있어도 남양주의 사대부 가옥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에 이의는 없을

것이다.

여경구 가옥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누군가 화단에 어린 나무와 원추리를 심었다. 참 여유로운 모습이다. 왕숙천과 천마산이 맑아 보인다. 황사가 걷히고 있다. ■

시인취재 - 이미란, 김정란



미호 숨결을 찾아서

수석동 석실서원 터

바야흐로 자녀의 성공이 인생 최고의 보람인 시대가 됐다. 적어도 이면 대치동 학원가는 교육계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서울은 물론 인근 지역의 아이들까지 대치동의 명문학원가를 찾아 자동차 행렬이 줄을 선다고 한다. 개편에서 온 나던 시절이 부세하다. 급로벌이라는 명분 앞에 우리나라 교육은 갈피를 못 잡고 휘청거린다.

아이들은 그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신음하고 있다. 그 안에 내 아이도 있다. 서울을 벗어나 사는 것이 공기 맑고 교통도 한가로운 데다 나름의 여유를 즐길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지만 아이 교육에 서만쯤은 열세라는 판단을 쉬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끄럽지만 내 아이도 특별해지길 바라기는 마찬가지, 같이 이런 나를 누가 속물이라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남양주는 명문 고등학교를 몇 배출하지 못한 교육 현실과 맞닥뜨리고 있다. 게다가 비평준화라는 명예까지, 기실 초급학이 마음을 옥죄다.

미호기슭 서원에 오르다

사실 비옥한 땅과 맑은 물, 산세 어우러진 명당으로 꼽히는 이곳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학문의 요람이었다. 주자학의 도량이며 정음의 청신을 이어가겠다는 굳은 의지의 학자들이 모여 가르치고 배우던 삼아의 요람, 그곳은 바로 미호(洑湖)의 기슭에 자리 잡은 식실서원이다.

남양주시 수석동 45번지 고선보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양주 조씨의 사당인 영요재 입구가 있고, 그 서쪽에 고트머리 단장 아래 있던 서원이다. 1930년 이후 다소 허실마을에는 안동 김씨의 재장지인 이곳으로 묘경비를 옮겨 놓았다고 전해진다. 숭시일이 글을 쓰고 김수증이 글씨를 썼다는 식실서원 묘경비는 현재 식실서원 터에 없다는 얘기가.

마치 호수처럼 고요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저 같은 예가 우리 손을 가르치고 배우던 서원의 터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미호가 가장 잘 보이는 모장꾼선의 자리였던 식실서원은 김삼

용, 김상헌 형제의 충절과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 석실서원터 표지석 앞에 서서 한강을 바라 보며 서원의 역사를 더듬어 본다.

현종 4년에 세운 대표적 충절서원(태동기)



석실서원터 표지석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선원(仙源) 김상용은 강화도에서 정나라에 항거하다 자결을 하였고, 김상헌은 병나라와의 의리를 표명한 당대 초야(朝野)의 추앙을 받고 있었다. 김상헌의 서원 건립 논의가 일자 형 김상용과 함께 배향되며, 충절서원이 된다. 김상헌은 중년 이후 스스로 석실산인(石室山人)이라 불렀다.

현종 4년(1663)에 석실사(石室祠)라는 사액(현판)을 내린다. 4년 뒤에 출판된 "경기지" 서원조에는 원생 20명, 재직 10명, 모군(募軍-위군) 30명의 규모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 서원은 지금의 서원터가 아닌 담양주시 삼패동에 위치했었다.

김창협 미음촌 정착... 겸재의 진경문화 만개(발전기)

숙종 대에 점차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해간 서인들은 당시 명분 확보를 위해 각지에 서원을 건립하기 시작한다. 숙종은 양주 도봉서원에 우암 송시열을, 석실서원에는 김수항, 이단상, 민정중 등 3인을 배향한다.

이 시기에 앞서 김수항의 아들인 농암(農巖) 김창협과 삼인(三隱) 김창흡 형제는 을사원국으로 아

비지 김수함을 비롯해 서인계가 축출되자 관직을 버리고 은둔지를 양평의 백운산으로 삼는다.

김창협은 삼부연(三叟淵)에, 김창협은 백운산 농바위에 농암서실 3칸을 짓고 은거하였다. 1694년 의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여 그의 부친이 선원되었고, 농암이 호조참의로 복직할 즈음하여 가족과 함께 선산이 있는 석실촌(남양주시 삼패동)의 부근에 머문다.

먼저 금촌(경구-삼패동)으로 이사했다가 석실서원 부근의 마음촌(수서동)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강학을 펼친다.

이 농암, 삼연 형제는 숙종조에 벼슬을 버리고 선대의 기반이 있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와 수석동 일대에 머물며 서원의 후학을 양성했다.

농암 김창협은 “심(心)을 이(理)라고도 하지 않고 기(氣)라고도 하지 않으며, 이와 기의 중간에 처하여 이기(理氣)를 겸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겼다. 이는 이황의 주리설과 이이의 주기설을 절충한 학설이다.

많은 학자들이 찾아든다. 농암은 순수성리학자와 실학자를 배출하기 시작한다. 이 서원의 중심이 정신을 비롯해 이명연, 조영서 등이다. 그들은 농암의 학설을 답습했고 이에 따라 진정산수화를 발전시켜, 18세기에 시작된 진정문화(眞正文化)가 꽃을 피우게 된다.

김원행의 강학 재개… 북학의 산실(성숙기)

숙종 내에 강학서원으로 다져진 석실서원은 정종 내에 들어오면서 한 차례 파란을 겪게 된다. 이 시기 노론은 숙종의 복대에 의한 특별 부락이라 하여 세가의 내리침정을 보편하는 한편 숙빈 최씨의 소생 연영군(영조)과 연령군 두 왕자를 보호하였다. 소론은 노론이 그들에게 불리한 왕세자를 교체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노론을 감시하고 있었다. 정종이 즉위하자 노소론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는 정쟁으로 불거진다. 노론이 일시에 축출되는 산축옥사로 노론 4대 대신 김창집, 이현명, 이건명, 조태제를 비롯해 60여명이 죽임을 당하거나 징계에서 몰려났다.

석실서원은 김창협의 후손인 미호(後湖) 김원행에 의해 강학이 재개되었다. 김원행은 당대 노론의 산립학자로 추앙받았고, 개방적 문인관으로 기호지방은 물론 영호남에서 온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이후 미호의 문사들은 그의 학풍을 재수한 북학(北學)으로 발전시킨다. 북학은 뒤에 실학사설의 근간이 된다.

안동 김문의가묘로 변질… 철퇴 맞아(쇠퇴기)

순조양금 이후 안동 김씨의 김조순이 주도한 70년 세도창치가 시작된다. 석실서원에 안동김씨의



김성현묘(남양주시 외부묘)

인물 5명이 들어가므로 당시 학계를 주도하던 석실서원의 선전학문과 개혁신문은 사라지고 김문(金門)의 가묘(家廟)로 변질되어 결국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거되어 원색에 이른다.

계정 인물 가문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석실서원은 그렇게 사라지고 없다. 서양과학을 받아들이고 선전학문의 경향을 시도한 학자가 있었음은 물론 시대의 정신과 혼을 불사르던 문인들이 정치적 문화적인 재충전의 요지를 잃은 셈이다.

다시 말하면, 1672년 현종 13년에 건립하여, 1871년 고종5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폐원되기까지 노론학자들의 정신적인 요람이었으며, 서울 경기 일원의 김충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진경산수화의 귀재인 김재 정선도 이곳 출신이다. 그가 그린 석실서원도와 삼주삼산각은 그곳을 그리는 이들에게 밋바랜 추억처럼 절절하다.

김재의 진경산수에 나타난다

석실서원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숭시열에 의해 세운 '석실서원묘정비'의 기록과 사실상 서원의 후계자인 김창협이 세자인 정선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33점 중 '석실서원도(石室書院圖)'와 '삼주삼산각(三州三山閣)'에 '미호(溪湖)'라는 부제를 달았다. 여기서 삼주는 농암 김창협, 미호는 김원행의 아호이다. 김재가 얼마나 이 둘을 동경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정선의 석실서원도

삼주삼산각은 농암이 비슬을 버리고 미음촌에 머물던 삼산각 강변에 모래톱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삼주(三洲)라 했고, 아호로 삼았다.

미음나무가 있는 마을로 추정되며, 그림 왼쪽에 왕숙천이 합류되는 모습까지도 표현했다.

석실서원 그림은 마을의 안산인 모장암산 중턱에 있는 기와집이 서원이고, 민가를 왼쪽에 담았다. 그림 오른쪽에는 너른 밭을, 미호에는 배한 치을 그렸으며, 앞쪽의 바위는 봉바위, 바위를 따라 거친 물줄기가 거혈매(황곡)로 추정되며, 계곡과 백사장도 현실적으로 그렸다. 두 그림은 불과 30년 전에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풍경이다.

서원의 향기를 잃고 묵묵히 미호 흐르다

새삼 책철을 명한 흥선대원군의 횡포가 새롭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이 어디 이곳뿐이라 전쟁이 불태우고 사람이 훼손하고 깎아내린 명지가 아직 이 땅 곳곳에 숨 쉬고 있다. 우린 몇 년 전 국보1호를 그렇게 잃었고 전쟁으로 사람만큼 값진 보물을 빼앗겨왔다. 그래도 묵묵히 흐르는 것은 세월이요 강물이다.

미호의 높은 자락 언저리에 소나무 한그루 몇 삼고 서 있는 석실서원 터는 비록 서원의 향기를 잃었으나 그곳에 왜 술한 인재들이 모여 들었는지 왜 그곳이 명당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석실서원에서 바라본 미호(한강)

한 시대를 풍미하는 것은 권력과 명예뿐만이 아니라,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적당한 산자락에 포옥 쌓인 채 미호를 목전에 두리며 전국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시대를 논하고 의식을 채워나가던 이곳 석실서원은 말없이 바람만 맞고서있다.

조말생 묘역이 석실서원에 온 이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없애고, 아들 고종이 금곡에 명성황후의 흥릉터로 삼으면서 석실서원터마저 사라졌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사연은 이렇다. 조선초 문신이었던 조말생의 묘는 원래 금곡 흥유릉에 있었다. 하지만 그가 죽고 453년이 지난 광무 4년(1900) 9월 21일 고종은 명성황후의 천장지와 자신의 능터를 조말생과 양주 조씨 묘역으로 선택을 했다.

1926년 6월 15일 자 매일신보에는 "조말생의 묘지가 능침이 된 유래"라는 제하의 기사에 특별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광무 4년 고종이 정한 흥릉터가 5백 년 동안 이어온 자신의 선산으로 결정되자 양주 조씨 일문은 대궐문 밖에 거적을 깔고 일가가 복저대명(伏地待命)을 하였다.



조말생 신도비

일단 왕릉으로 결정되면 사방 10리의 민가와 묘를 옮겨야하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고종이 문종의 대표를 불러 천하의 명당이라 하니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고 했다. 그들과 친히 가보니 과연 명당이었다. 고종은 무슨 기적이 있을지 모르니 땅을 파보자 제안을 했고, 땅을 파니 '오백년 후 이조 능참지(五百年後李朝陵寢地)'라고 새긴 큰 돌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왕이 '보라 하늘의 뜻이다. 이 자리는 짐에게 주고 그대들은 마음에 드는 사재지를 내 주리라'해서 꼼짝없이 금쪽의 천산을 고종에게 양보하고, 석실 마을로 대대적인 이장을 했다고 전한다. 석실 서원의 구름에는 조말생의 묘와 그의 후손들의 비석들로 즐비하게 서있다.

미호를 떠나며 석실서원을 되새기다

비토르 위고는 일찍이 '고향땅이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행복아리다. 모든 나라를 자신의 조국처럼 느끼는 사람은 이미 강인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혼을 상실한 채 덩그러니 석실서원 터로 명명되고 있는 이곳이 내가 사는 내 터전이기애 우리나라 곳곳이 학문의 요지로 탈바꿈한 교육의 요새라고 한들 벼 반갑지만은 않다. 양주 조씨 묘역 입구부터 가지런히 놓인 돌계단을 오르며 아직 깨끗한 땅 내음을 간직한 미호의 언덕이 그저 안타까울 뿐...

자전거를 타고 가다 한번쯤 쉬어 가는 고갯마루에서 자전거를 뒀어두고 석실서원을 둘러보자. 아직도 사르지 못한 우리 고장 남양주의 청운의 정신이 그곳에서 푸르게 빛나고 있다.

정신이 되어 석실서원지에 자리를 펴고 앉아 유유히 흐르는 미호를 좌측에 담는다면 그날이 아마 도가장 멋진 산책길로 인생 한 편에 스며들지도 모르리라. ■

시민취재 박희영

아직 대학생인 나에게 한하(漢學)이란 생소하기만 하다. 어린 시절 만화가 윤승권 선생의 맹꽁이 서당을 즐겁게 본 적이 있다. 공자와 맹자의 순서를 바꾸자 맹꽁이가 된다는 것을 안 것은 최근이다.

고리타분하게 여겼던 공맹을 가르치고 배우는 수련의 장이 있다는 것 또한 처음 알게 됐다. 그곳이 바로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에 위치한 한림대학교 배동고전연구소(지곡서당)다.

첫 만남은 설렘이라고 했던가, 봄볕이 따스한 날, 21세기 서당으로 향한다. 도로를 따라 수동개곡을 거슬러 오르다보니 선미를 상징하는 학 한 마리가 개곡물에 팔을 담그고 유유자적이다.

이 연구소 김만일 소장을 만나 서당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김 소장은 5기생으로 1983년부터 86년까지 수업을 받았다. 여기서 배운 경험과 저력을 토대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41년 지곡서당의 역사를 듣다

36
37

지곡서당은 정명(肅冥) 임창순(任昌淳, 1914-1977) 선생이 서울 종로구 수표동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문강좌를 1963년에 개설한 것이 출발이다. 1979년 9월 이곳 지둔리에 자리를 잡았고, 1985년 8월 한림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부설연구소가 된다. 동양고전 문헌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뚝 선다.

국역서로 심호 이익의 심호필서(心湖疾書 논어·중용·맹자)를 출판했으며, 맹자필서, 사경필서, 주역필서 등을 번역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옛 편지 낱말사전>도 편찬하였다. 연구사업으로는 한국고전번역원 중부권 기립연구소로 선정되어 번역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심호 정본화 사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230명 한학자들 지곡서당을 졸업하다

지곡서당의 선발과 입학은 독특하다. 매년 12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선발 출고를 낸다. 전국대학에 포스터를 붙이고, 인터넷



지역서당의 책

을 통해 소분을 내지만, 입소문이 먼저다. 한학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마음을 굳히고 찾아온다. 해마다 10명씩 신입생을 맞이하고, 교육 기간은 3년간이며 재학생은 전액 장학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 졸업생들이 230여 명에 이르고, 졸업생들은 대학은 물론 같은 부류의 연구소에 활동하는 교수나 강사가 많기에 자동으로 입소문이 난다는 것이다. 공고문보다는 선배들의 묵시적인 추천에 의해 입학할 결심하는 이가 대부분이다.

일단 입학하면 1인 1실의 연구실을 배당받고,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게 한다. 기본 과목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이다. 사서삼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논어·맹자·대학·중용과 시경·서경·역경(주역)을 말하며, 여기에 춘추와 예기를 더하면 사서오경이 된다.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마음으로 생경한 학문에 뜻을 두고 도전을 하지만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무조건 소리 내어 읽고 외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이럴 수 없이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교과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걸 못 따라 오면 그만둬야 해요. 내보내요.”

‘내보내요’라는 김만일 소장의 냉정한 한마디가 귀에 땀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의 교육방식의 특징은 암기에 있다. 조선시대 왕의 수업을 받는 세자나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양반가의 자제들은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덕성을 중시했다.

“먼저 마음을 잘고 닦은 후에, 책을 읽으라.”는 주자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1권의 책을 배면 떡과 음식을 만들어 책거리 잔치도 벌였다. 우리의 전통교육방식은 암기에 있었다. 궁궁했다, 암

기법적인 교육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우분을 던진다.

“우리 인초들은 무조건 외웠죠 여기 졸업생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한살이라는 것은 문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외워서 몸에 익어야 해요. 많은 문장의 용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서삼경을 익지도 피우게 하지만 전통사의, 즉 옛사람들은 동서대 서답들의 글을 기본적으로 다 피우고 썼어요. 사서삼경은 사권이나 미관가지예요. 인용된 단어나 구절을 책에서 내면 찾으려면 힘드니까 내용을 다 알기하고 있어야지요.”

문자도 파자지도 밭고 무조건 외워야 이곳에서 살아남는다고 김 소장은 한마디로 정리한다. 맹자 한권 외우는데 4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맹자에는 3만4천자가 들어있으니……

이 때말과 같은 글을 피우려면 엄청난 집중력과 페티가 바탕이 되어 한다. 맹자가 술술 풀리면 손동자도 풀리고 자신은 풍중에 떠있는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 이것이 하문의 카타르시스기 아닐까. 이문을 졸업한 240명은 사서삼경의 참맛에 빠졌었다고 한다.

지곡서당의 교육방식 중국으로 수출하다

지곡서당은 3학년제로 운영을 한다. 3년 동안 여기에서 먹고, 살고, 공부한다. 이렇게 공부에 전념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김만일 소장은 힘주어 말한다. 이 서당이 가지고 있는 창견과 교육방식을 중국의 인민대학에서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인민대학이 여길 와서 보고 그대로 베껴갔어요. 지금 우리는 3년 과정에 10명의 뽑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요즈음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지금 중국은 100명의 뽑아 5년간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못 따라가서, 우리나라는 인력을 안 키워요. 키워 놓은 인력은 데려다 쓰려고만 하지, 이렇게 키우는 곳이 없어요. 지금 나라에서 민역 사업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하지. 민역을 하려고 하면 한학기공부를 이어도 10년 이상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민역만 하려고 하지, 민역할 민물을 키울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지요.”

한학의 원산지라 할 수 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뒤떨어진 인프다가 있지만, 요즈음 중국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 이유는 역시 인문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과감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징어 씹듯 해야 한학의 제맛이다

우리 대부분은 고전을 천하게 품이한 한권의 책을 읽고 몇 줄을 그어 인용하며, 마치 많은 지식을 얻은 듯 떠벌리곤 한다. 고전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고, 세계적인 습득이 있어야만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이 이 서당의 교육체표이기도 하다.

“고전을 너무 쉽게 폄하하고 하나씩 순회해가면 배우는 거지요. 고전의 문장은 꼭 배울고 이야기들 하나씩 해가면 수밖엔, 오징어 다리 같은 것은 처음에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하지만 내 힘으로 오래 놓아내면 그 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고전도 시간을 들여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컴퓨터 배우듯이 휘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중에 고전이만 무엇이냐. 전부다 너무 쉽게 접근하려고 하나씩 제대로 핵심을 못 보여주세요.”

사피옹과 사제가 가벼운 것을 원하고 가볍게 가려고 하고, 고전을 자세중로 인성을 하고, 아직 무슨 비법이 있는 영 현상시 하는 것도 여기서는 배워야 대상이다.

지곡서당 남양주시민과 만나러 밖으로 나가다

지곡서당에서는 남양주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고전강좌를 6년째 이어오고 있다. 한학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관의 무관심에 비해 주민의 열망은 컸다. 사설학원, 도서관 등을 정선하며 강좌도 열었다. 시청 평생교육원에서 반듯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곡서당까지 거리가 멀어 도서관으로 출장강의를 시도한 것이다.

“현문예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 때문인지, 4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강의실에 40명이 난게 찾아 왔지요. 그냥 쳐두라고 했지요. 현 강좌가 끝나니까 반으로 줄더라고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지. 3어는 보통 15개월이 걸리는데, 두 달이면 논어의 맛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정했던 거지요. 두 달이 지나자 남은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그게 어느새 6년이 됐지. 핵심법비가 된 거지요. 지금은 캠퍼스처럼 할 정도로 준비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그들은 쉬운 순두부 들어까지듯이 고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수준에 올라 있지요.”

갈만발 소절은 참 쉽게 맛을 본다. 사서삼경은 물론 광범한 고한을 두루 섭렵하고, 추자를 가르치는 스승이지만 그 흔한 사자성어, 고전분구 없이 친한 대화 이어졌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밀려 왔다. 도시는 편안히 말하는데, 듣는 이의 머릿속엔 한자공작할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곡서당을 한 바퀴 둘러보다

지곡서당이 위에는 한바퀴 둘러볼 수 있고, 아래는 측량한 수동계측이 둘러지는 배산임수의 명당에 자리를 잡았다. 서당 정문으로 이어지는 바깥길 오른쪽에는 정방 칠층의 선방이 있어 정원과 생활공간인 대안리가 자리하고, 앞구에 들어서면 3층 벽돌건물의 본관이 있다.

연구소 앞벽으로 직각의 살철인 석주실사와 정유헌이 옛 서당의 정취를 품고 있다. 앞길무늬 내려서는 길 한 칸에 일출선 선생을 기리는 비가 있다. 아 끼는 흙으로 밧이 구웠으며, 사방에 칠갈임을



지곡서당 풍경

그였다. 비의 앞면에는 선생의 초상이 있고, 나는 앞으로 이 건물에서 남북의 젊은 학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조국의 장래를 함께 의논하는 전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선생의 소망을 적었다. 이 글은 지곡서당 상량문에 새긴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서당은 선생이 세운 청명문화재단에 오롯이 전해진다. 청명 선생께서 생전에 책도 보고 글씨도 쓰시던 서재인 열경부, 장서를 보관하는 문장각, 휴령산을 한 눈으로 품고 흐르는 계곡물에 시름을 달래는 정자인 귀이정, 그리고 배덕단련장과 신비 수택의 상징인 연못도 있다.

지곡서당을 떠나는 길 학이 날다

지곡서당을 졸업하면 한 식구가 된다. 수시로 만나 학문을 공유하기도 한다. 각종 학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가 설전도 벌인다. 또한 국학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 포진돼 끈끈한 인연을 자랑한다. 이곳을 거처 간 사람들은 국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및 각계각층에 두루 있어 학문적으로 단단한 끈을 이어간다. 고전을 쉽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너무 쉽게 고전을 대하면 우리가 있을 수 없다. 김만일 소장의 우리 청년 앞에서 지곡서당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살감하고 그 존재에 감시하는 마음이 앞선다. 지곡서당을 나서는데……, 수동계곡의 학이 날아오른다. **서민취재·복가득·이호정**



동방에
빛을 발하라

광동학원

윤석열

사람은 과제가 있어야 관심이 생긴다. 나 역시 과제를 안고 2월 말 광동학교를 찾는다. 콰우 살가 건물에 가려진 동하고 길이 생각보다 가파르다. 스스로 깨우치는 첫 장소이다.

정문을 들어서니 잔디가 눈에 들어온다. 추위 때문인지 유난히 더 파랗다. 침교육이 저 색을 닮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즐기는 이들의 몸에서 김이 서린다. 어깨를 세워 교정 이곳저곳을 살펴본다. 빨간 벽돌과 파란색 잔디운동장, 학교 주변을 두르고 있는 야산이 조화롭다. 건물 5층과 옥상 벽의 고덕체 간판도 한몫을 한다.

교사(校舍) 뒤편 언덕에는 남양주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재배하는 너른 포도밭이 있다. 갈 조성해 놓은 중학교 환경 숲에서 아이들은 매일 한그루의 정서를 키운다.

본관 앞에는 설립자 운허 스님의 동상이 그윽하게 앉아 있다. 동상 바로 뒤에 새겨진 건학이념에서 불교계 학교임을 짐작한다.

학교가는길

이 학교의 건학이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자아발견, 민족정신이 투철한 참된 예국인 육성, 이타행을 실천하는 자비로운 인격완성”이다. 이는 설립자 운허스님의 교육철학이다.

운동장에는 교가를 새긴 조형물이 있다. 교가의 작사자는 춘원 이광수이며, 작곡은 가곡의 아버지 현제명이다.

춘원은 해방 후 남북되기까지 재종간(8촌간)인 운허 스님의 권유로 이 학교에서 잠시 교편생활을 했다.

1절

운마산 구름 속이 우리를 배우는 길
솔백수 푸른 그늘 맑은 물 흐르는데

2절

구름이 자고 간들 산이야 울적이지리
눈서리 되게 쳐도 솔백은 한 밭일세

5월
바다보 물리 물리 된 없는 대와 같이
광동의 밝은 빛이 이 나라 빛 내소서
후렴
광동 광동 광동 우리와 모교

교가를 읽어 내려가며 순민에 대한 상념에 잠긴다. 준원은 해방이 되자 봉선사와 송동리 김필터를 오가며 진일행각에 대한 감회로 둘째계를 배고 잠을 잘 못했다 한다. 봉선사 인구의 문화비가 잘리고 서로 보인다.

항존주의 교육철학을 담다

17세기 독일의 교육철학자 라이프니츠(G. W. Leibniz : 1646~1716)에 의해서 "항존철학"이라고 부르는 교육용어가 나왔다. '항존'이라는 용어는 일 년을 통해 계절마다 계속 피어나는 꽃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영원불변을 의미한다. 그 영원성 속에 변화의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철학이 '항존주의(恒存主義 perennialis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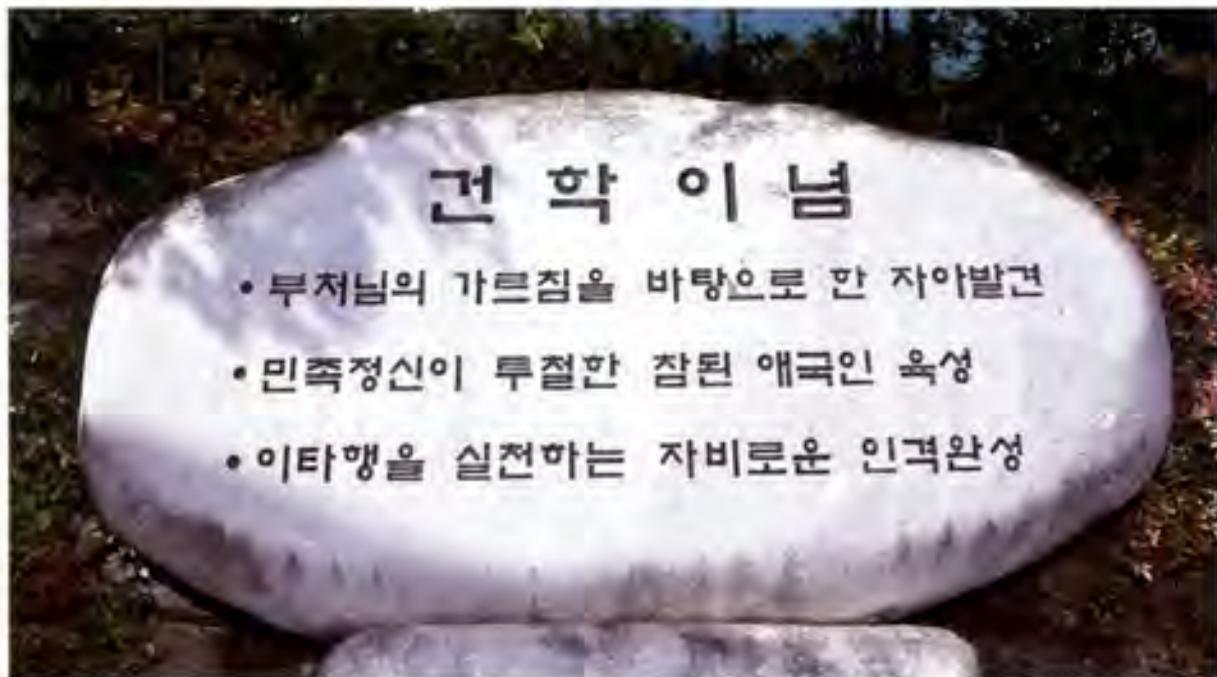
항존주의는 교육의 중요한 원리는 변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재생하는 것이다. 교육용어의 세속의 시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영원(永遠)주의라고도 부른다.

항존주의는 전보주의 교육이념과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교육사조이다. 현대 교육의 맹목인 세속주의, 물질주의, 현실주의, 사회일차주의, 활동술매주의 등을 배제하고, 입상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넘어선 도덕성, 지성, 이성, 일흔을 사니아 한다는 이념을 지니고 있다.

광동학원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利他行)을 진학이념으로 삼았기에, 17세기 독일의 교육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주창한 이념과 부합하고 또 이와 같은 항존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를 더듬어 보다

광동학원의 이원운 "빛을 동방에 밝히는(光臨東國)"에서 따왔고, 광동학원의 설립자는 이학수다. 이학수는 1892년 평안북도 철주에서 태어났다. 일제의 국권 강탈로 학업을 중단하고, 중국 남만주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항상 우리의 치욕은 국가의 힘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다.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훌륭한 교육이 밑바탕 돼야 한다고 말하며 실현 했다. 그리고 만



광동학원건학이념

주에서 보성학교 교장도 역임 했다.

1921년 30세의 독립군 열혈 청년 이하수는 국내로 들어 왔다가 체결에 쫓겨 불가에 입문한다. 강원도 봉인사, 금강산의 유점사를 거쳐 남양주 봉선사에서 홍원초(洪源初) 스님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운허(耘虛)라는 법명을 받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던 날, 전국민이 기쁨 속에 흥분하고 있었지만 운허스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했다." 운허스님은 그해 9월 10일 봉선사 말사의 주지스님들을 봉선사에 모이게 했다.

이 모임에서 운허스님은 "학교를 세워 부처님의 이름으로 인재를 길러냄으로서 나라와 지역에 이바지 하자"고 제의했다. 이로서 봉선사 말사의 도지 45만평, 입야 1600정보를 광동학원 재단에 기증키로 하고 이듬해인 1946년 4월 8일 봉선사의 건물을 빌려 광동(보통)중학교를 개교했다.

광동학원은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중생을 구제하고자 설립된 학원, 대한민국의 수립보다도 2년이나 먼저 출발한 학원, 고난과 영광 속에서 꾸준히 성장 발전해 온 교육의 요람지, 영광된 미래를 비추주는 등대 역할을 하는, 중생을 자비로 구제하고 교육문화를 꽃피어온 학교다.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건밤의 어두움이 사라지듯, 운허스님과 마을 사람이 하나로 만든 광동학원이야말로 동방의 빛으로 밝히고 있다.

1946년 광동초급중학교로 출발해 1953년 광동산업보통중학교, 1979년 광동실업고등학교, 1984년 광동종합고등학교를 거쳐 2000년 광동고등학교로 교명(校名)이 바뀌며 오늘에 이른다.

광동고등학교는 2014년 제(X)회 졸업식을 거행했으며, 최상급 교장을 취시해 (X)명의 교직원과 1천 199명의 학생에게 수업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4만 1천 6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60년사에 배인 이(利)와 원(願)의 교육철학

68년 된 교육의 불모지인 경기 동북부지역에 학교를 세운 윤하스님의 날 다들 교육 열정과 선각자 학재안으로 설립된 광동학원. 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은 2000년에 발간한 <광동 60년사>에서 잘 정리되어 드러난다. 이 책은 윤하스님의 교육이념이 '이(利)와 원(願)'의 사상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학교로 자신의 열정과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이(利)'라 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더 많은 이와 사회,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더 큰 포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을 원(願)이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배(對)의 원(原)을 가지고, 꿈과 희망의 미래지향적 교육의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웃과 사회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 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우는 윤하스님의 교육이념과 철학이야말로 좌우로 내리하고 있는 위층층한 우리의 교육계에 던지는 화두가 아닐까 한다. 광동학원은 직업교육을 통해 내하이서 위주의 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에 맞는 재능을 갖게 하고 바람직한 인격체를 양성하고 있는 바람직한 학교임에 틀림이 없다. 작은 사내철이 귀 없이 흐르고 흘러 큰 강이 되듯이 광동은 그렇게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40여 년 전 다니던 교장을 가릴 듯 두리번거리며 광동중고등학교를 찾았다. 본관 전입로에 게시되어 있는 2014년도 대학 편이 현황을 슬심히 바라본다.

교교장의 로망인 서울대 입학생도 있었고, 건국대와 동국대 사범대로 '안-서울' 대학을 비롯하여 합격생들이 꽤 많이 있다. 이 정도로 합격생을 배출했다면 지역학교치고는 아주 좋은 진학율을 나타낸 명문고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교장 한 쪽엔 시업고시에 합격한 동문의 현수막도 게시해 있다. 학교 내부는 어떻게 꾸민을까. 요즘은 아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교사(敎書)도 들어가려 했으나 현관이 굳게 닫혀 있다. 하필 토요일에 방문을 했을까.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학교하듯이 교문을 나간다. 윤하스님의 성결고 단호한 목소리가 또 다른 과제를 주고 있다.

"배야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어 무엇일까." **■**

시민취재-박갑주



설립자
윤허 큰 스님 상

남양주역사박물관
1007-1 남양주역사박물관

그곳에 가면 남양주가 보인다

남양주역사박물관



버스나 전철을 타고 남양주의 명소 곳곳을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양주에 명소가 많기도 하지만 넓은 땅을 다닐 대중교통의 시간 배차도 그렇고, 왕복 시간은 꽤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승용차보다는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니는 편이 더 낫다. 특히 덕소나 금남리 방향은 그렇다. 잔잔히 흐르는 북한강과 예봉산의 울긋불긋 곱게 물든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남양주역사박물관 주변에는 주차중인 차들로 빼곡하다. 트래킹과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의 행렬 때문이다. 과연 저 많은 사람들 중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역사와 문화는 관심을 주는 만큼 자란다. 저 행렬이 산과 들로 나서기 전, 돌아가기 전 박물관에 발길이 닿기를 기원해 본다.

문화해설사에게 듣는 박물관 이야기

48
49

박물관 주차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종류의 로비와 상설서물이 반긴다. 박물관 로비에는 남양주시민이 제공한 귀한 나눔의 증표인 기증품이 첫눈에 들어 온다. 인심 후하게 뒷바침을 하던 퇴와 밀대, 담뱃대와 나전담배합, 백자사발은 물론 50년대 수침 등 생활용품이 친근하게 반긴다. 이 박물관은 역사와 문화, 금석문, 민속품, 기증과 기타 등 4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와 함께 자주 들렀던 남양주역사박물관인데 처음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박물관을 돌아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28년 전 '남양주금석문박물관'이자 '향토사료관'으로 개관되었다가 2010년 3월에 남양주역사박물관이 새로운 건물로 들어섰다. 과거에는 이 자리가 덕소초등학교 한당분교였다.

한 학교가 인구의 축소로 인해 폐교가 되어 아쉬웠을 것인데, 그래도 남양주를 대표할 만한 박물관이 이곳, 이 자리에 생겼다는 것도 뜻 깊은 일 아닐까 싶다.



1층 기증품 전시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남양주 역사를 한 눈에

1층 역사문화관은 '남양주에 들어서면, 한눈에 보는 남양주, 선사시대이야기, 왕실과 학문의 고장, 생활이야기, 기증전시' 등 6개의 전시공간으로 꾸었다. 남양주시의 역사를 대듬볼 수 있는 유물과 과거 생활사가 담긴 모형과 실물을 만날 수 있다.

'남양주에 들어서면'은 남양주시에 산재한 문화재들이 푸른색의 지도 위에서 반기고, 화이트 스크린을 통해 남양주시의 역사의 순결과 느낄 수 있다.

'선사시대이야기'에는 70만 년 전의 구석기시대, 1만 년 전의 신석기시대, 3천 년 전의 청동기시대, 2천 년 전의 초기철기시대까지 망라한 선사시대의 유구와 유물을 만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조선왕실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의 보고이다. 사릉, 광릉, 홍유릉, 순강원, 휘경원은 왕실의 강래문화를 대표한다. 봉선사, 수종사, 흥국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도 집할 수 있다. 석실서원터와 다산유적지는 실학의 꿈을 실현한 곳이다.

남양주 호평동에서 발견된 석관묘를 가지와서 1/4로 축소해 만든 묘, 부장품인 엽문거리는 고인들이 저승에 가서 이승에서처럼 사용하라고 관에 함께 넣은 찻잔과 받침 등 야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명기 등등 전시되어 있는 것은 모두 실제 유물로 조상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들여다 볼 수 있기에 중분했다.



2층 그릇 전시관(시민의기증품)

고 임병규 소장의 손때가 묻은 탁본전시실

2층의 전시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금석문 전용 전시실이다. 아니 탁본 전시실이라는 것이 더 어울린다. 이곳의 탁본은 얼마 전 작고하신 고 임병규 향토사학자가 20여년 동안 산으로 들로 다니며 직접 탁본한 것이라 더욱 뜻이 깊고, 고개를 숙이게 한다. 금석문은 철이나 청동 같은 금속성 재료에 기록한 금문(金文)과 돌에 새긴 석문(石文)을 이르는 말이다.

금석문은 해당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모습이나 생각들을 직접 남긴 역사적 산물이며 살아있는 기록이다. 대부분 당시 최고의 문장가가 글을 짓고 최고의 명필가들이 글을 쓴 것이라고 하니 그 가치는 더하다. 이 금석문들 중에는 남양주시에 산재한 묘표, 능원표, 신도비 등 무덤에서 볼 수 있는 비석문과 개국, 폭포 등 암벽에 새긴 암각화와 암각문도 있다.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위치한 대은 변안련 묘역에서 보았던 신도비, 삼죽오와 달 문양을 이곳에서 탁본으로나마 다시 보게 되니 무척이나 반가웠다.



2층 옥상



2층 금석문 전시관

마을의 역사를 지키는 사람들

남양주역사박물관의 독특함은 2층 작은 전시실에서 만난다. 한쪽 벽에 19명의 명패가 있다. 집안 대대로 선조들에게 물려받아 고이고이 모셔왔던 유물들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곳에 기증한 이들이다.

그들은 개인의 큰 보물을 나라의 보물로 세상 밖엔 빛을 보게 해 주었다. 500여 점 이상의 유물을 기증한 최종원 문화해설사의 사연은 특별하다. 6·25 전쟁도 겪었고, 피난민이 되어 삶의 터전도 옮기면서 대관절 저 많은 보물들을 어떻게 지키냈을까.

전주 최씨 집안 대대로 사용하던 유물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피난길에 오르며 우물이나 산에 숨겼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대부분의 유물을 찾아 보관해 오던 것들을 선뜻 의미 있는 일에 내놓은 것이다. 분명 쉽지 않은 결단이었으리라. 그들은 분명 남양주를 사랑하고, 남양주의 역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5주년을 준비하는 박물관의 비전

박물관 5대 기능 중 가장 비중이 큰 전시 기능은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로 나뉜다. 상설 전시의 경우 한번 전시물을 게시하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예가 많다.

남양주역사박물관은 수시 교체 전시를 통해 관람환경을 최적화시켜 관람객에게 유익하고 대중 친화적인 전시기능을

감화하고 있다. 전시물의 입체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는 의미장을 공간을 제공하고 전시유물의 정
기적 교체로, 관람객에게 더욱 다양한 전시유물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예
팀에서는 남양주출토발굴유물의 찾기 데이와 지역민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기증받기 위한 다양
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기증에서 전시까지' 기획전을 준비하고 실현하고 있다. 참여자가 직접 가정이나 개인의
소장품을 기증하고 이를 전시하여 직접 설명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공유프로그램이다.

전통마을의 흔적을 찾아나선 박물관

남양주역사박물관은 전통마을의 생활과 민속을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한 마을조사사업을 실행하
고 있다. 2012년에는 박물관 주변의 농내리 봉안마을 역사와 생활사 이야기를 담은 "새마을운동의
산실-봉안(奉安) 이상촌(理想村)"을 경기문화재단과 합동으로 출판했으며, 2차 작업으로 진접읍 일
대를 조사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마을민속조사는 단순히 그 마을의 민속적 요소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이를 근거로 새로운 전시와 그와 연계된 체험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차원저도로의 개통 이후 점차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다산길 주변의 마을 조사를 통해 민
속과 생태, 문화재가 어우러진 새로운 전시와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지역으로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층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두미강

2층 테라스에서 보는 풍경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박물관 뒤편으로는 강원도로 가는 길손들
이 이곳에 올라 임금님께 예를 갖췄다고 해서 불린 '예봉산'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등산 코스
이기도 하다. 박물관 앞쪽에는 집단산이 있고 그 앞으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미강이 흐른다.

어느덧, 석양에 가을빛이 더욱 물든다. 남양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 그리고 이곳을 지키고 이
곳을 찾는 이들이 있어 남양주는 든든하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한강과 함께 흐르고 있다. 남양주역
사박물관 그곳에 가면 남양주의 역사가 보인다. 



실사구시를 찾아서

실학박물관

조선사회의 변화

조선사회의 변화

덕소에서 양정 방향의 한강변을 따라 가면, 조안면 다선로 한강변에 실학박물관이 있다. 그곳으로 가는 경치는 혼자 감상하기에 아까운 여정이다. 산줄기 감줄기가 가는 곳마다 내게 따라오며 손짓하는 듯하다.

내가 가는 곳 끝까지 안내라도 하려는 듯이 높은 하늘과 가을 못갈아 입는 산, 그리고 침묵하며 흐르는 한강이 나를 이끈다. 이렇게 자연과 가까이 있을 때 인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듯이 편안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욕심 없이 배낭 하나 짊어지고 길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

조선말 생필의 학문을 주장한 실학. 그 실재의 행로를 찾아 나서는 마음이 쉼지 그 어머니의 품속 같다.

계절에 따라 변신하는 '실학박물관'

가을의 실학박물관. 주변엔 어느 새 단풍이 깔고 있다. 강바람이 예까지 날려와 제법 쌀쌀하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강산이 새 옷을 갈아 입듯이 박물관도 울봄에 찾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

실학박물관이 남양주에 있다는 것은 큰 의미로 다가온다. 박물관 바로 앞에는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와 묘역이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과 다산류직지 주위를 사색하며 카야를 돌아보고, 다산의 숨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때 그렇다.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1층 특별전시관은 '유배지의 제작들 - 다산학단' 특별전시가 종료되고 새 단장을 하고 있었다. 다산과 관련된 전시였는데 이렇다.

우리나라 실학을 한 눈에 보려면 2층으로 가야 한다. 제1전시실 실학의 형성, 제2전시실 실학의 전개, 제3전시실 실학과 과학, 제4전시실 실학과 문예로 구성되어 있다.

백성을 위한 개혁의 바람 '실학'

조선의 초기와 중기는 실리학이 지배적인 체위를 차지했다. 상



실학박물관 입구

리학이 학문으로 발달은 했지만 이론에 치중된 학문으로 요즈음 말로 박살공문에 불과했다. 성리학은 인간의 도리를 말했으나 배고픈 백성에게는 그런 사상은 소귀에 걸림기였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조선관도는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졌다. 나라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재건할 수밖에 없었다. 식구분분을 경험했던 학자들에 의해 총체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로 실학이다.

실학은 조선후기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교경전을 재해석했으며,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14세기 서양의 문예부흥과 맞먹는다.

실학은 성리 이이를 중심으로 한 '경세치용파(경농학파)',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이용후생파(중상학파)',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 '실사구시파'의 세 사상과 학풍을 모아 다산 정약룡이 집대성한 것이다.

토지개혁 '경세치용' 성호 이익

이익은 기존 주자학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문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재자들에게 스승의 말

을 따르지 말고, 스스로 터득하는 공부를 하라고 권유하였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라는 스승의 권유는 제자들이 다채로운 학문적 심취를 가능하게 했다. 바로 실학사상의 발전 과정이었다.

특히,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실리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 개혁과 농민 생활 안정을 중시했다. 이들을 중농학파(重農學派)라 한다.

이 학파는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성조화과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유형환-이덕정-야옹'으로 이어졌으며, 실학 제1기 세대다.

북학의 출발점 '이용후생' 연암 박지원

실학은 우리나라 시대상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학문이지만 연암 박지원 일행이 청나라 인행사로 가서 보고 온 것을 정리한 '일허일기'가 교과서 역할을 했다. 연암의 많은 문집 중에 일허일기를 백여로 뽑는 이유는 당시 실생활에 적용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연암의 사상을 한마디로 '이용(利用)이다. 이용이 있어야 후생(厚生)이 되고, 후생이 있어야 정도(正道)라 할 수 있다.'로 요약된다. 이용후생은 백성들이 일상적인 생활에 이롭게 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실리적인 학문을 말한다.

연암은 조선에서는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건, 비늘을 만드는 사람이건,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건 모두 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 하여 시대부들이 관심을 겨냥한 상태이니 '정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탄했다. 연암의 이러한 사상을 따르는 학사들을 중농학파(重農學派)라 한다.

연암의 이문사상과 박제가의 '북학의'는 한 순서에서 나온 것 같다(如出一轍)라 할 정도로 북학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 북학은 곧 실학이 된다.

이 학파는 18세기 후반에 나타났으며, '박지원-홍대용-박제가'로 이어졌다. 이는 실학 제2기에 해당된다.

근대적 학문연구 '실사구시' 고산자 김정호

실학자들은 절충적인 학문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유교 정권과 삼척산, 역사 등을 연구했다. 이들은 실학사상이 개화사상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활동했다. 사회개혁의 방안 등은 그다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철저한 고증과 분석에 기초한 근대적인 학문연구 태도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실사구시 학파는 19세기 전반에 활동했으며, '김철화-이규경-최한길'로 이어졌다. 실학 제3기로 보고 있다.



실학박물관 내부

실물경제로 바뀌기 시작한 '신분제도'

다산 정약용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정조가 살아있던 당시만 해도 실학사상이 받아들여졌으나 정조가 죽은 뒤에는 실학이 묻히는 듯 했다. 그러나 박지원의 후손 박규수가 개혁을 일으켜 실학사상이 다시 일어난다.

여러가지 사회 혼란으로 사회제도 개선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에서는 백성들에게 공물을 걷어 들이는데, 가난한 백성들에게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 백성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 특산물로 내던 공물을 쌀로 바꾸었다. 이때부터 잡시가 활발해지고 화폐가 생겨나게 되었다. 당시 사회에서 지주와 백성과의 거리도 있었다. 양반은 신분제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서서히 사회제도가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58

59

운수 좋은 날... 김시업 관장의 안내를 받다

2층 전시실 사진도 찍고, 꼼꼼히 보고, 메모에 일중인데, 누군가가 '이곳에 무슨 일로 왔느냐고' 말을 건넨다. 아마 내게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보인 모양이었다.

본인을 밝히지 않고 박물관 전구가 나간 게 없는지, 조명이 어둡지 않은지 둘러보기 위해 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그분과 여러 번 마주쳤기에 박물관 관계자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뒤늦게 알고 보니 실학박물관 김시업 관장이었다. 우연한 만남으로 실학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세조전사실 천문관

실학은 제도와 가치의 개혁이다

김 관장은 실학을 '제도와 가치의 개혁'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그 당시 나라의 정책이 백성들의 현실과 생활적 소망과 제도적 가치가 생활에 가까워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부정과 부패, 탐관오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바로 실학이다."라고 강조했다.

"실학자들은 비술도 나가지 않고 학문에 대한 욕심도 없이, 오로지 생활과 관련된 학문에만 몰두했다. 신분사회라 학문은 유지되었으나 심각한 학문을 생활에 가깝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바로 실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백성들이 잘 먹고 살아야 한다는 미관적 사고를 통해 사회제도 개혁을 일으켰고,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역사인식이 생활과 품격을 올려준다

김시업 관장과 짧은 시간 독대였기에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곤 조용히 당부의 말이 이어졌다.

"문명사회에서 우리의 생활과 품격을 올리려면 우리는 역사의식을 바로 가져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우리 실학박물관의 전시를 설명이 어렵고, 학술적이어서 관람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보다 쉽게 설명되어야 할 것 같다."고 비전도 제시했다.

문헌의 신뢰도 있는 세 직접 전시장을 통해, 사실도 권리하고, 방문객에 역사관을 견하는 모습에서 21 세기의 실학자를 만난 것 같이 생각 신선했다.

실학의 변화를 한 눈에 '상설전시관'

제1전시실은 조선 후기 실학의 형성과 발전을 위선에만, '병서호란 이후 개항과 농상공업의 발전'으로 변화된 조선사회의 모습과 남·북·일본에서 들어온 서양문물 등에서 실학의 형성과정을 찾아 볼 수 있다.

또 실학의 탄생에서는 실학의 선구 역할을 한 어리 실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18세기 실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실학의 출발로 평가되고 있는 만계 유형인의 '만계수해'를 중심으로 초기 실학자들의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개혁론을 조명하고 있다.

제2전시실은 성호 이익에서 출발하는 실학을 증능학과, 증상학과, 실사구시파로 나누고 각 학파에 속하는 실학자들의 저술과 함께 초·중·등학교 교과서 전 과목에서 실학 관련 내용을 찾아 정리했다. 또 이를 그림, 애니메이션 등 영상자료로 리우 활용해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춰 실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실학시대의 차이 발견을 소개하는 '조선학' 공간은 역사, 지리, 언어생활, 백과사전으로 나누었다.

제3전시실은 실학의 특성 중에서도 과학이라는 주제를 부각시켰다. 서양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실학자들이 당시 천문학과 지구의 자연 문제, 구형의 지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각종 천문도와 원운관측기구, 마테오리치의 천이만국천도, 평상기·갑정표의 동국지도와 대동여지도를 통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전시실 천정을 바라보면 밤하늘의 별을 보듯 천문도로 꾸며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한다.

실학자의 정신을 담고 박물관을 나서다

실학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방문인이 아닌 살아 움직이고, 역사의 흐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곳이다. 실학자들이 미·나·다 백성을 위해,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밤새 이리를 맞대어 고민했던 곳이자 그 진심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다.

이 박물관은 역사의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선교육의 장소로 충분하다. 박물관 내에 학생들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을 통한 한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요즘 세대의 학생들에게 역사관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취재·이미린, 김정민

The image shows the interior of a spider museum. The room is filled with various terrariums and informational displays. On the left, there is a long row of small terrariums. In the center, there are larger terrariums with blue and red lighting. On the right, there are more terrariums and a display case. The ceiling is decorated with large green leaves. The floor is made of wood. The text "거미란" is written in white on the left side, and "참 묘한 놈이죠" is written in white in the center. The text "주필거미박물관" is written in white at the bottom left.

거미란 참 묘한 놈이죠

주필거미박물관

마야호로 현대는 디지털 시대이다. 아날로그는 원시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된다. 언뜻 디지털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움직이는 아날로그의 큰 틀 속에 잠시 정지된 화면이 디지털로 현상되고 보관되고 있는 게 모른다.

페이스북에 '레벌레'라는 그룹이 있다. 얼마 전 그룹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질문은 종이책과 전자책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느냐는 것이었다. 그 질문에 전자책의 편리함을 언급한 사람도 많았으나 대부분은 종이책 자체가 주는 감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세상이 변화를 요구하고 빠르게 돌아갈수록 향수라는 반대급부가 상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효과적인 권리와 영혼,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선 '주빌거미박물관'에서 권잉한 아날로그의 감성을 갖게 됐다.

거미의 신화를 풀다

윤길선역에서 40분 정도를 걸어 '주빌거미박물관-아라크노피아'에 도착했다. 입구에 써어있는 '세계 최고, 세계 최대'라는 문구에서 박물관 주인의 자부심이 느낀다. 복리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아라크노피아로 천천히 입성했다.

'아라크노피아' 참으로 생소한 단어다. 아라크노피아(Anachnopia)는 직조기술이 뛰어난 거미를 뜻하는 아라크네(Arachne)와 유토피아(Utopia)를 이 박물관을 개설한 김주빌 박사가 합성하여 만든 '거미천국'을 말한다.

아라크네(Arachne)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민물로 리디아의 콜로폰에 살던 염색(染色)의 명인 이드몬의 딸로 길쌈과 자수의 명수였다. 사람들은 아테나여신이 직접 그녀를 가르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라크네는 자신의 솜씨가 여신보다 더 나을 거라고 자랑했다. 그리곤 아테나에게 도전장을 냈다.

아테나는 존엄한 신들을 묘사한 직물을, 아라크네는 신들의 애정행각을 묘사한 직물을 완성했다. 아라크네의 작품을 본 아테나는 칼기갈기 떨어버릴 정도로 격노했다.

아라크네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했다. 아테나는





거미박물관 1층 거미코본

그녀를 불쌍히 여기 빗줄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빗줄은 거미줄이 되고 아라크네는 거미로 변했다는 신화의 주인공이다. 거미류가 속해 있는 아라크니다(Arachnida)는 주형강(蛛形綱)이라고도 하는데 그녀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거미를 통해 이상향을 만든 이곳이 궁금해진다.

사육실의 거미들… 아이들을 울리고 웃기다

오랜 시간을 걸어 온 만큼 차분한 마음이 됐다. 거미사육실(5관)로 향했다. 그런데 각고 특이한 공간이 눈길을 끌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김주별 박사의 제자인 '고 김병우 박사 기념관'이다. 그가 생전에 쓴 책들, 연구록, 연구내용들이 정갈하게 전시되어 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자를 기리고자 마련한 스승의 배려였다. 이곳에서 열정을 쏟았던 그를 잠시 추모하고, 다시 거미사육실로 발길을 돌렸다. 사육실에 들어서자 연두색 조끼에 '자연자원조사'라고 적힌 모자를 쓴 조사원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열심히 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살아 있는 거미를 보자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다 깔깔거리다. 아이들은 거미에 익숙해진 모양이다.

거미를 저아이들보다 더 경그럽게 이겼기에 호기심은 더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다.

무시무시한 거미를 발바리, 향단이로 친근하게 부른다

눈이 커진다. 사각 통 속의 표본인줄 알았는데, 꿈틀거린다. 보기에다 꿈포의 대상이자 거미계의 황제로 부르는 타란툴라다. 모작하다. 저렇게 무시무시한 녀석이 요즈음에는 애완용으로 인기가 높다니 아이러니하다. 거미의 견모습과 습성에 따라 골리앗비드이터를 '뽕보', 윌리안크즈에어를 '순향이', 인디언오너멘탈을 '발발이', 엔트라리오스를 '향단이', 청겨울 별명을 적었다.

거미집은 포스트잇을 이용해 아끼자기한 실명문을 붙였다. 박물관 중앙 한쪽에 설치한 한국망거미 표본이 있어 잠시 발길을 멈춘다. 서양의 덩치 큰 녀석들을 보다가 작고 친근한 우리의 거미를 보니 경칩다. 7관은 거미를 관찰하는 공간이다. 규모는 작지만 아끼자기하게 꾸었다. 쟁치 마술이 펼쳐진다. 고등학교 과학실이 마음았기 때문이다. 돋보기와 현미경을 통해 거미의 실체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다.

거미 박사 김주필을 만나다

박물관을 둘러보다가 김주필 박사와 마주쳤다. 아주 편안해 보이는 분이다. 이왕 마주한 김에 선물 하나를 던졌다.

"박물관이 교육과 연관이 깊은 거 같아요."

"당연하지. 내가 교수니까."

박사는 당연하다는 답을 던진다. 밀봉해진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노력한 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호기심이 생긴다. 김 박사는 전 세계를 누비며 거미를 채집하고 연구를 해온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존재다. 거미학자로 한국거미연구소를 통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 한국의 거미 연구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예봉산에서 만난 땅거미다. 한국땅거미(학명: *Atypus Coreanus* KIM, 1985) 학명으로는 김주필의 이름을 최초로 새기게 했다. 이 땅거미는 김 박사가 이곳에서 30년간 거미에 미치게 한 원흉(?)이다.

1998년에 발견된 연철 풀거미사식지를 원년기념물 제412호로 지정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김주필 박사의 이름이 들어간 거미의 학명은 140종이 넘는다. 김 박사가 처음 거미에 관심을 두었을 때, 우리나라 거미의 종류는 170종 정도만 학계에 발표되었지만 지금은 700종을 웃돌고 온난화와 아열대성기후로 바뀌는 시험에 아직 미발견된 종까지 합치면 1,000종은 넘는다고 한다.

김 박사는 거미를 알게 된 이후 100여 개국을 다니며 거미를 채집했다. 국내외의 거미 표본을 40만점이나 보유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이만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거미박물관은 없다고 한다. 놀

란다. 어느새 거미줄과 연속해지고 호기심도 하나씩 생기란다.

거미 생활과학과 미래과학을 창조하다

자연과 생태는 늘 진화한다. 그래서 이를 연구하는 과학도 실증생태학, 나노생태학, 유전공학으로 나뉜다. 그중 분자생태학과 실증생태학은 배려야 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 중심에 거미가 있다. 핵심은 거미줄에 있다. 거미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소재 중 하나다. 이미 거미줄을 이용한 방탄복도 나왔고, 미사일도 막을 수 있는 최첨단소재 역시 거미줄이다. 거미는 미사일도 막을 소재를 생산하는 대단한 능이다.

거미의 독은 전혀 부작용이 없는 천연마취제도 국부마취로도 사용된다. 거미의 소화기관의 분비물은 소화제로 개발하고 있어 의학에도 아주 유용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밭꼬마거미, 선왕거미, 검황거미, 갈거미, 농발거미'는 생활과학이다. 농발거미는 바퀴벌레의 천치이며, 나머지들은 모기와 파리를 박멸하는데 최고다.

우리나라의 거미 중 독을 품은 녀석은 아직까지 단 한마리도 없다. 거미줄이야 말로 사납에 아무런 태클 주지 않는다. 하지만 파리, 모기는 물론 바퀴벌레까지 퇴치하는 천병이다. 거미줄이 집안에 있는 것이 좋지 아니라는 것도 이곳에서 깨우친 큰 성과다. 주렁거미박물관은 기초과학, 생활과학, 미래과학을 말하고 있다.

거미 외에는 무엇이 있을까

박물관 1층에는 거미 외에 박제된 개구리, 뱀, 거북이도 있었다. 그중 수로(水踏) 생태계의 교란자인 황소개구리가 눈길을 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황소개구리를 싹쓸 크기로는 처음이다. 크기는 정말 크다.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를 잡아먹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한참을 머무른다. 포식하는 순간 포식을 초 단위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참으로 심세하다.

박물관 2층의 곤충표본은 어지러울 정도로 백백이 전시되어 있었고, 어패류, 곤충화식물도 눈여겨 볼만하다. 우리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채집해온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도감이나 싹물로 짐해서인지 친숙해 보인다. 여기의 설명문도 한글이다. 서울지니나미에는 '서울'을, 지네들을 모아 '지네'라고, 개구쟁이의 서랍 속 보물 분류처럼 보여 웃음이 난다. 아닐로그다. 깔끔하고 보이지 않는 그냥 깔끔함이 배인 순수함이다.

왜 이번 방식으로 구성을 했을까. 거미는 물론 전시된 모든 전시물들을 김주필 박사가 자신이 이야기 하듯 써놓은 옛 방식의 스토리텔링이다. 이 박물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함이다.



아외조각공원의 대형 거미 조각품

66
67

힐링을 하며 돌아오다

박물관 야트막한 언덕에는 아외 조각 공원이 있다. 여러 소재의 조각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그곳엔 '김주필 교수의 상'이 있다. 악력을 읽으면서 괜지 모를 경외감에 빠진다. 거미만을 바라보고 산 그의 삶과 마주했기 때문이다. 자신만을 위해 공부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고, 알리려 했던 모습에서 겸손함을 배운다.

함께 간 일행 중 한명은 거미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흥족해 했다. 돌아오는 길 40분의 길은 별지 않았다. 번 길을 다시 되돌아나오면서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주변을 둘러보니 산도 있고, 물도 흐르고 있었다.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삶을 부정했지만 사실은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썼는지도 모른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들이 보내준 감정을 되돌리며 걷는 길은 아날로그적인 힐링이었다. 



46억년 지구의 신비를 만나다

울석헌자연사박물관

퇴계원에서 진접으로 향하는 국도 47번 길을 가다보면 커다란 공룡모형이 보인다. 우석헌자연사박물관이다. 사립박물관이고 자연사 박물관이니 별로일 거라는 편견을 가졌던 터라 처음엔 시큰둥했다. 하지만 박물관 이름의 뜻을 알고 나서는 호기심이 생겼다. 우석헌(鵝石軒)의 우석은 '우직하고 아름다운 돌'을 의미하니 니 말이다.

우직하고 아름다운 돌은 어떤 모습일까. 그 길에는 어떤 독특한 석구들이 살까. 내심 궁금증은 더해간다. 버스를 타고가다 '현장마을'에서 내린다. 박물관 입구에는 커다란 공룡 모형과 기린, 하마가 방문객을 맞는다.

우직하고 아름다운 돌이 있는 집

우석헌박물관은 진접읍 내각리 현장마을에 위치한다. 2003년 12월에 개관했으며, 지질시대의 고생물화석과 광물을 주요 테마로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는 고생대-중생대-신생대를 잇는 대표 화석과 광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백(골격)화석은 물론 공룡의 DNA를 추출한 초기단계부터 공룡의 태아화석까지 진본화석류를 2000점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

박물관이 문을 연 목적은 광활한 우주공간 속에 한 점으로 존재하는 지구를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흔적을 담은 화석에서 갖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어떻게 꾸몄나

우석헌자연사박물관은 생명의 역사관, 지구과학관, 동물 생태관 등 세 테마로 꾸몄다. 생명의 역사관은 다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관찰하면서 생명의 기원과 지구의 역사를 배워가는 곳이다. 고생대부, 중생대부, 신생대부, 한국의 화석부로 나누었다. 지구 과학관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암석, 아름다운 광물, 보석과 지구 밖의 물질인 운석 등이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함께 느낄





1층 광물전시관

수 있는 곳이다. 광물, 암석, 보석, 한국의 광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동물 생태관은 공룡을 중심으로 공룡의 생태와 진화와 멸종에 대해 이야기 한다. 본격적으로 박물관 탐방을 시작한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사람 키만한 자수정

1층 전시실로 들어가자 조명이 어둡다는 것을 동공이 먼저 알고 있다. 연극의 막이 오른 듯 조금씩 밝아진다. 바로 눈에 들어온 것은 개년식의 유리진열대이다. 전시물을 집중해서 관찰하기에 좋았다. 게다가 색선으로 나뉘어 아주 편안하게 관찰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눈은 잠시 쉬고, 큐레이터의 설명에 귀를 기울인다. 그동안의 상식이 깨지기 시작한다.

남업종이 곤충처럼 가로로 3등분이라는 내 상식이 깨졌다. 몸(軀)이 세로로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공룡의 발자국과 공룡의 똥은 흔적화석이라 부른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시작부터 흥미로워진다. 눈이 휘둥그레진다. 키만한 자수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수정은 현무암 안에서 보았듯이 자란다. 커다란 물에서 발산하는 보습기는 너무 활발하다. 저 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이 전시장에는 공룡알을 비롯해 2천 7백점의 진본과 진품을 만날 수 있다.



1층 고대의바다 전시관

전시물을 때론 화려하게, 때론 은은하게,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것은 조명이다. 또한 전시물을 관람자가 효율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높낮이는 물론 180도로 회전이 되고 4면에서 관찰하도록 연출했다. 이 4면 관찰 기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다. 관람객이 궁금증을 느끼고 질문을 하게끔 의도적으로 공간을 꾸민 것이다.

특별하지도 진귀하지도 않은 공룡공원

기획전시실을 관람하고 2층으로 향했다. 야외 계단을 통해 올라간 'Dinosaur is on air'는 테마공원이다. 육식공룡 8종 초식공룡 7종, 전체 19마리의 공룡모형을 전시했다. 공룡의 독특한 움직임을 살필 수 있도록 재현했다. 들어서자 공룡이 전부를 한다. 육식공룡이 또 다른 육식공룡을 잡아먹는, 제법 잔인한 장면을 그대로 표현했다. 미적으로는 아름답고 따뜻한 장면은 아닐지라도 교육적으로는 분명 필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석현은 매우 진귀하거나 특별한 전시품을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학습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오류 없이 전달해 줄 수 있는 표본들을 전시하고 있는 특이한 공룡공원이다.

레마공원 안에는 '영상학습실'이 있다. 겨울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학습실 내부는 마치 인시 동굴 속에 들어간 느낌이다. 커다란 스크린에는 공룡의 일생을 다룬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영상은 딱딱한 학습의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교육의 장소다.

12만 점을 공개한 수장고

레마공원을 지나 도착한 곳은 수장고였다. 이곳에 오기 전부터 가장 기대했던 곳이었다. 우석헌은 일간의 심장격도 같은 수장고를 2007년 국내 최초로 개방을 했다. 수장고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는다. 눈을 떠보니 정말 장관이었다. 2층에서 통유리로 내려다 본 수장고에는 갖가지 암석들이 즐비했다.

우석헌 설립자인 김정우는 30여 개국을 직접 발품을 팔아 유물을 수집해 12만 여 점 진본을 모아 공개한 것이다. 이곳의 표본은 원하면 간단한 절차를 걸쳐서 빌려주기도 하고 무상으로 교육도 한다. 이곳의 교육방법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비형식 과학교육으로 진행된다. 한 마디로 자유분방한 교육을 통해 우주와 지구의 신비를 풀어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육부로부터 상도 받았다.

수장고에는 15톤이 넘는 통유리도 있었다. 이는 사면 개화에 2년, 정단에서 이동하는 것만 3년이 걸렸다고 한다. 통유리를 이동할 때 상하지 않도록 진본 크기에 맞게 레를 끼고 옮김을 맡았다고 한다.

김정우 설립자를 만나다

이렇게 수집한 유물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허언 이어일까. 우석헌의 설립자 김정우 선생은 브라질, 이 아바존 정글은 물론 아프리카, 인도, 마다가스카르,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세계 30여 개국을 돌았다. 비행기를 탄 횟수만 800여 회에 이른다. 죽음의 상황에 접한 일은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 인도네시아에 큰 나무화식을 구하러 갔어간 예기는 스펙터클 이드벤처 영화를 방불케 한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오지로 들어간 이유를 물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일본보다 더 좋은 유물을 보여주겠다는 생각과 후손들이 그런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집을 하고 있지요. 박물관 한자 시장에서 구입하려면 우리가 일본, 독일 등 강대국과 경쟁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지를 찾을 수밖에 없지요. 좋은 자원을 찾기 위해선 오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한글을 쓰지만 기준과 화은 아직 소원합니다."

이 분야 학자들 사이에건 이런 얘기가 있다. 박물관 있다 못 찾으면 우석헌에 가봐라. "그만큼 말 대한 양과 권력 가치를 지닌 소장품을 사랑하고 있다."

설립자가 수집품을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했다면, 학자들이며 일반인들이 이런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구경조차 못했을 것이고, 소장품은 어느 정도인가 참들어 있었으리라.

국내의 자연사박물관은 대부분 건물을 완성하고 전시물을 나중에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석헌은 전시물의 수집을 먼저 하고, 박물관을 나중에 건립한 가장 이상적인 순서를 따랐다.

광물을 사랑한 석공이야기… 디스커버리샵

수강교의 감동을 뒤로 하고 어느덧 마지막 전시장인 '디스커버리샵·광물을 사랑한 석공이야기'로 향했다. 이곳은 5개의 고등학교 학생, 교사, 박물관이 삼위일체로 참여한 결과물의 공간이다. 2012년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복합 공간 구성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다.

'광물을 사랑한 석공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역사와 과학을 결합하여 꾸몄다. 예를 든다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 속의 비녀와 노리개 등 장신구는 어떤 광물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광물의 속성까지 심화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저 장신구들을 세공한 석공은 이 광물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까. 혹 저사거리에서 그의 작품을 장식한 여원집 아낙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괜히 신이 난다.

72
73

누구와 무엇을 체험할까

2층 전시관 통로 한쪽에는 필당댁에 사는 물고기도 전시했다. 남양주시 고등학생들이 직접 수집했고 꾸며했다. 청소년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채집하고 생태를 관찰하며, 새 손으로 문체청과 보완 내용을 적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온근히 부럽다. 과학과 생태를 직접 경험하니 어느 누구도 흥미롭지 않을까.

우석헌은 배려의 공간이다.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공간.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그렇다. 전시장 벽에는 창같은 서랍이 있다. 그 서랍을 열면 설명문과 함께 광물의 나이, 습성 등을 알 수 있다. 공간은 크진 않지만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인다. 가장 인상 깊었던 디스커버리샵 또한 유리로 막아놓지 않고, 자연 그대로 관찰하도록 배치했다.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이외에도 '화석리플리카만들기', '화석지우개 리플리카' 색션이 있다. 모두 다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학습공간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흥미를 느낄 만한 프로그램도 있다.

우석헌에 가면 46억년의 지구의 신비를 풀어 주는 속 시원한 광물이 가득하다. 미련한 돌들이 사는 집이다. 흥미롭게 짜인 프로그램으로 과학의 광장으로 인도하는 박물관이다.■

시민주재·북가득, 이호정



제3세대 조각가들
품다

모란미술관

모란미술관에서 첫 작품을 마주한 건 정문 앞에서였다. 칸전을 옮길 필요도 없었다. 프랄스의 대표적인 조각가인 알베르토 구즈만이 1994년에 만든 작품 '문'이 미술관의 정문이었다. 알베르토 구즈만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입장과 동시에 작품을 마주한다는 것은 문화의 승격이었다. 정말 제대로 된 미술관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즈만의 문을 뒤편하고 걸음을 옮기자 너른 잔디밭과 하얀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다. 미술관 입구로 들어서면 미술관을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산등성이가 보였다. 산등성이가 건물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넓은 야외, 여유롭게 자리한 야외 전시물까지, 우리는 정신없이 카메라를 들어 찍어야 했다.

경기도 지정 조각 전문 미술관

모란미술관은 경기도 지정 테마미술관으로 선정됐고, '조각 전문 미술관'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모란미술관은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에서 위치한다. 미술을 통해 문화예술정신을 실현하고, 수도권 지역임에도 문화적으로 소외된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의 향수를 보장하기 위해 1993년에 문을 열었다. 이 미술관의 안주인은 이연수 관장이다. 8천 6백 평의 야외조각전시장에는 국내외 제3세대 조각가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160평의 실내 전시실에는 평면작품은 물론 실험적인 입체작품을 수시로 바꾸어 전시하고 있다.

비슷비슷한 조각 미술 용어들

처음 '조각 전문 미술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리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조각과 미술 모두 낯선 것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미술 용어들. 조소는 무엇이고, 조각은 또 무엇인가.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다. 조소는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나무나 돌로 다듬거나 칼끝으로 빗어서 만드는 작품, 무조는 한쪽



도란미술관

평면에 입체로 구성된 작품, 환조는 앞뒤좌우에서 보아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 조각은 대개 목조, 돌, 금속, 살아 동물을 재료로 하여 이것을 다듬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파내서 완성한 작품, 소조는 말뚝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속에서 길로 붙이는 작품, 재료는 오브제……, 되뇌이고, 되뇌였지만 아직 햇갈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함에 미 혼이라도 품고 가리라 결심을 한다.

하지만 관디발을 따라 몇 걸음을 옮기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기분 상적으로는 조각상들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와 같은 미술 문외한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도구가 없었다면……,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이 문명의 이기(利器)의 도움을 받으며 작품 한 편 한편을 감상해 본다.

최만린 작가의 생명의 에너지 '작품 O95-9'

8천 6백 필이라는 감도 오지 않는 크기의 야외전시장에는 이곳저곳에 작품들이 우뚝 우뚝 전시되어 있었다. A부터 D zone으로 구분되어 있는 야외 전시공간을 전전하 둘러보았다.

최만린 작가의 '작품 O95-9'가 첫 눈에 들어온다. 이 작품은 '땅에서 뻗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하늘로 뾰족하게 올라가는 형상으로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고 설명한다.

하늘로 뾰족뾰족 솟은 작품 앞에서 나는 한동안 해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도 나름 해석해보려 애썼다.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그저 막막한 뿐이다. 그러나 한참을 들여다 보니 '생명의 에너지가 돋보인다. 이 정도면 약가의 의도와 어느 정도 가깝게 느낀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함을 안고 다음 전시물로 향한다.



최만린작_작품 005-9

김영선작_사람들-오늘

구상조각의 진수 '이대리의 백일몽'

어디서 본 듯하다. 매일 아침이면 동문길이 뚝딱 바쁘고 댄서리 서두르는 내 모습이다. 넥타이를 풀이해치고 발걸음도 부족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어디론가 달리가야만 하는, 저 모습은 아침이면 보는 일상이다. 차라리 하루가 아닌 미래를 향해 저렇게 달리 왔다면 좋으련만, 게으름을 맞는다. 이런 주저리 주저리를 떠오르게 한 작품은 구본주 작가의 '이대리의 백일몽'이다. 이 작품은 구상조각이라 한다. 이 작품을 처음 대했을 때 그저 현대인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다.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작품 자체에서 뿜어져 나온다. 플렉스로 빠져 들어가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구상조각은 중세의 초상화 같은 인체조각의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작품경향이 출발이라 한다.

76
77

돌과 스틸의 앙상블 '사유'

한 작품에 발이 붙었다. 아주 오묘한 느낌을 주는 돌과 쇠붙이가 만난 앙상블 작품이다. 황광현 작가의 'the space of thinking(생각의 공간)'이다. 이 작품의 오브제는 자연석과 스테인리스스틸의 결합이다. 둘 다 차가운데 돌보다는 스테인리스가 더 차가워 보인다. 하지만 햇살이 비치자 스틸은 걸은 따스한 빛을 되쏘지만 속은 더 차가워 보인다. 둘은 느낌 그대로인데 말이다. 나의 권견일까, 돌을 갈라서 스테인리스스틸을 붙인 이유가 될까. 이렇게 미술작품 앞에서 고민의 시간을 가진 것이 처음이다. '자연석을 반으로 절단한 단면에 스테인리스스틸을 붙여 대상을 반사시켜 다시 자연의 물

집안을 바라보게 된 작품은 자연과 인간문명의 조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라는 해설을 듣고 나서야 부름을 된 것 수밖에 없었다. 자연과 인간문명의 조화를 얘기하려 했더니,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모란미술관의 취지가 와 닿는 순간이었다.

현대인의 자화상 '사람들-오늘'

8명의 남자들이 최고상에 발을 붙인 채 기대한 원뿔을 어깨에 매고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 기괴한 모습이다. 시간이 흘러 녹색 더미를 달았다. 발걸음을 또 걸어냈다. 그저 멍하니 바라 볼 뿐이다. 허필이면 여덟 명의가. 마치 말의 모습 여덟 장면을 묘사한 판아문도가 생각난다. 여덟 마리의 말이 말의 표정을 대신 했듯, 이 여덟 명의 표정과 움직임은 인간의 대표적 모습이었던지.

이 작품은 일명전 작가의 '사람들-오늘'이다. 현대인의 자화상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최 필름과 최고상은 현대인의 힘과 존재라는 공감을 작품으로 일게 했다.

미술작품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희망적이어야 한다는 편견에서 새로운 현실과 동떨어진 기괴한 작품에서도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이다.

숨은 작품 찾기 '수장고'

조각이란 수리를 많이 들은 곳 같다. 그 뿐만 내가 관람했던 서양화와 동양화를 평면작품이라 부른다는 것을, 조각 작품을 입체미술이라 구분하는 것도 이해가 일게 됐다. 잘 모르는 게 많다. 어니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다. 아티스트와 대화하면서, 조각은 눈사람과 같게 있다는 것을 일깨우게 됐다.

큐레이터를 만났다. 그동안 궁금한 것은 나중에 분기로 하고, 모란미술관의 비밀실으로 향했다. 수장고다. 이 건물은 3층으로 6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수장고는 마감인에게서 맨앞에서는 개방하지 않는다. 행운이다. 수장고에는 국내의 유명, 유명작가들의 작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비공개 작품이거나 박물관 소유의 귀한 작품들이다. 모두 안전장치를 뚫기에 결국 숨겨놓은 그림만 바라보았다.

의도적으로 기울인 '모란사탑'

이곳엔 모란탑이 있다.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 편, 이 탑이 기울어는 25m에 달한다. 피사의 사탑은 오랜 세월 지각의 변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기울어진 탑이지만, 모란의 사탑은 건축가의 계산에 따라서 예닐초 기울어 높은 탑이다. 기울어졌다는 것은 곧 풍동을 의미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위

다. 조물주 작품인 주변에 산과 수목과 건주고 있는 모란사람은 어느 의미에서 인간이 창조해 낸 또 하나의 존재다. 내부로 들어간다. 로댕의 '발자크'를 보기 위해서다. '생각하는 사람'의 로댕은 초등 학교만 다니도 다 아는 조각가가 아닌가. 내부는 뿔 뿔러 하늘이 보인다. 발자크상이 보인다. 왜일까 한기가 느껴진다. 폐쇄되어있지만 개방되어있는 공간 안에서 편견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었다. 모란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에 모란사람 내부를 꼭 방문하라고 권하고 싶다.

파푸아뉴기니 원시 부족의 '배어난 예술적 감각'

야외 전시 감상을 마치고, 실내전시실로 향한다. '파푸아뉴기니의 부족미술'전은 모란미술관의 소장전이다. 전시물은 직접 찾아가 '빅맨(마을의 족장)'에게 구입하거나 현지상인들에게 사온 것이라고 한다.

멀게만 느껴졌던 파푸아뉴기니 부족이 한 뼘으로 가깝게 느껴졌다. 우리는 일단 부족의 미술품을 보기 전에 그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그들의 대표적 축제는 '심상'이다. 이 축제는 원래 전쟁에 나가기 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었으나 지금은 이 공연상품으로 개방되었다고 한다.

'파푸아뉴기니 전사상'을 시작으로 관람을 했다. 전체적으로 미술품을 둘러보면서 부족의 미술품은 실용적이면서 주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예술적 감각이 배어난 직품이다. 먹을 것을 상하지 않도록 걸어두는 '현수꼴'과 토기가 그러하다. 토기의 손잡이 부분은 꼭 형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파푸아뉴기니 부족 또한 세계화 바람에 합류해 가고 있다. 영상실에서는 파푸아뉴기니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문화, 음식 등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미술관 관람을 정리하는 공간 '백련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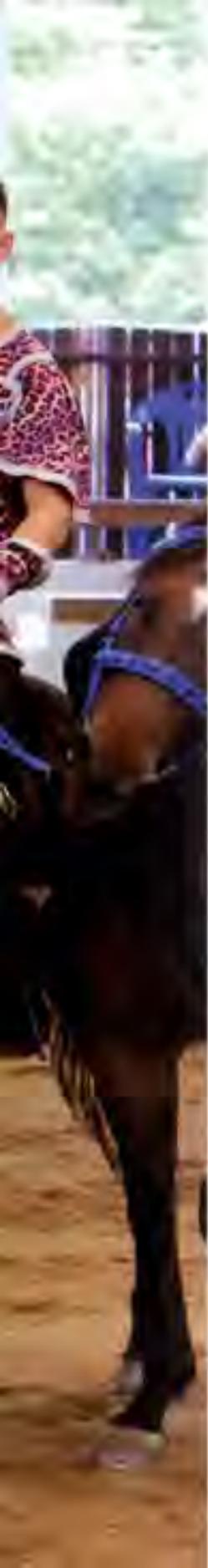
두 시간을 넘게 미술관 안팎을 관람하고, 큐레이터를 따라 백련당으로 향했다. 백련당은 세미나와 카페의 용도로 지어진 공간이다. 아늑한 카페였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 감회를 정리해 본다. 넓은 부지에 넉넉히 자리 잡은 야외 전시물과 충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 독특한 구조의 모란사람, 멀게만 느껴지던 원시부족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파푸아뉴기니 부족의 전시까지. 아무리 예전보다 문화를 향유하는 층이 넓어지고, 문화와의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해도 미술과 조각에의 접근은 아직 자연스럽지는 않다. 나 또한 낯설고 어렵게 느껴던 영역이다.

모란미술관을 둘러보고 난 후 남양주 시민은 행복할 것이란 느낌이 들었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개관을 했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미술관이 지역의 문화발전에 공헌한 것은 무형적으로 얼마나 많을까.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저질로 업(UP) 됐으리라. 미술관을 나서는 데, 알베르토 구즈만이 바람에 빠러거리며 배웅을 한다. ■



징키스칸의 후예를 만나다

몽골문화촌



많은 사람들이 어학연수를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 좋은 콘텐츠는 나날이 늘어가고, 국경을 초월한 많은 교육적 자료가 즐비한 데도 외국에 가는 이유는 비단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언어를 넘어선 그들의 문화와 정서까지 접하고 싶기 때문이리라. 유장하게 회화를 잘한다고 해서 그 간증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들의 문화에 스며있는 언어 뒤의 울림까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를 시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다는가 혹은 와이파이 콘으로 절은아들이 보이는 것 또한 문화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문화들은 출처를 구할 때 내기가 까다롭다.

그래서 문화를 옮겨오는 것보다 현지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쉽고 정확한 통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과 경제력을 필요하기에 바쁜 현대인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몽골문화촌은 존재 자체로도 대단했다. 몽골문화촌은 우리나라보다 7배나 큰 조원의 대륙에서 발달한 몽골의 문화를 친절히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동택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렸다. 굵이굵이 좁은 길을 달려다보니 '똥밭'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그 속에 들어가면 나는 이말인이다.

우리와 너무나 닮은 '그들'

몽골은 다른 민족보다 우리와 닮은 점이 많다. 우선 외모도 비슷하고, 몽골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알타이어 계통이다. 주어, 서술어의 순서가 우리나라와 같다.

몽골과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다름과 화해의 외교를 펼쳤고, 고려시대엔 한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았기에 그들의 문화가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고 있다. 새해시가 연식과 곤지를 썬 것, 한복 덧웃으로 마고자를 입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처음 몽골문화촌을 만들고 진입로를 징키스칸로라 부르려다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몽골문화촌이라 바꿨다는 일화는 역사적 자존심이 강한 우리



몽골 문화촌의 '게르'

민족을 대변한다. 아무튼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현실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다.

여성이 주인인 '게르'

몽골문화촌에 들어서자 이방인을 반기는 것은 '게르'다. 추위나 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이 집은 1시간 이내에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어서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인에게 적합한 이동식 주택이다.

그것이 눈앞에 있다. 들어가 본다. 한 가운데 난로가 있고, 내부의 벽은 양털로 덮여 있어 안락한 느낌이 든다. 부엌도 있고 가구도 배치돼 마치 넓은 원룸인 것 같다. 먹고 자는 것을 중심으로 단출하면서도 여유로운 유목의 낭만을 느낀다. 게르에는 침대가 두 개다. 왼쪽은 여성전용, 오른쪽은 남성전용이다. 부부관계는 왼쪽의 여성침대에서만 이루어진다. 여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몽골인은 남녀 구분 없이 자존심이 강하고 내외하지 않는, 자유로운 성격이기 때문이다. 몽골은 남성보다 여성의 지위가 높으며 지금도 아들보다 딸을 중시하는 여성이 상위인 사회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조차 자유로운 부부관계를 맺는다. 오랫동안 내려온 풍습으로 어려서부터 동물의 꼭짓기를 보고 자란 탓이다.



몽골민속예술공인단의 모습

82
83

와 닿지 않는 생소함을 풀어준 '수태차'

'몽골민속전시관'에는 몽골문화를 이해하기에 좋은 자료들이 풍성했지만 금세 와 닿지 않는 생소함이 있다. 한걸음으로 체험실로 향한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만지고 보는 것만큼,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는 것이 진리며, 진짜 체험이다.

수태차가 그였다. 수태차는 우리의 송남이다. 누른 밥을 끓여 파스하고 구수하게 마시듯, 몽골인은 그들의 주식인 양고기 요리를 하고난 뒤 그 냄비에 우유와 차, 소금을 넣어 끓인 몽골 전통차로 이른바 '기름진 우유차'다. 우유에다 고깃기름을 섞어 거북할 수도 있겠다는 선입견이 부색하다. 마시면서 그 진가를 알게 됐다.

몽골의 전통의상 '델'

몽골의 전통의상은 매우 화려하며 독특한 모양의 장신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몽골의 전통의상은 '델'이다. 보통 델은 칭나라의 복식으로 보이지만, 혹독한 추위를 막기 위해 두꺼운 원단으로 소매는

중개 기원이며, 주로 노년층 취미자를 위한 것이 특징이다. 평상시에는 희색, 권색 등 허수용 색이지만, 생경에는 푸른색, 옥색, 황색색 비단으로 화려하게 입는다.

몽골은 이미 부족으로 어우러진 나라다. 그래서 부족의 특성상 지역에 맞게 전통의상이 발달되어 있다. 몽골문화촌 민속전시관에는 몽골의 대표적인 의상을 비치하여 입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작은 방에는 온트 콘도 설치했다. 색색별로 의상이 준비되어 있고, 모자와 장신구도 있다.

'몽골문화촌'은 이처럼 몽골에 직접 가지 않고도 최대한 몽골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친절한 곳이다.

신비의 소리 '허미'

의상 체험을 마치고 공연장으로 간다. 무대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들리는 신비한 소리가 나를 빼앗는다. 이 풍소란 소리가 바로 '허미(호미)'다. 한 사람 입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음을 내는 독특한 풍명이다. 허미의 함께 연주하는 현악기는 모란호르라는 마두금이다. 허미는 몽골인들조차 배우기가 무척 어려워 1,000명당 1명 정도가 아주 오래 시킨의 특화된 연습을 해야 하는 소리다. 이 음악은 자신의 말과 양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기 시작했고, 마두금은 두근 두근 고양의 초원을 생각하면서 연주하는 민항가이기도 하다. 허미 말이 짙어 부족할 때 이 악기를 연주하면 신기하게 짙어 풀 풀이 매고 큰 새끼에게 배물과 먹인다는 속설도 있다. 태학자들은 가장 중부인들의 문명에 가까운 이 소리는 단절과 삶의 허밍함까지 들려 있다.

초원을 달리는 '마상공연'

몽골 전통 공연시 아룬을 만났을 때 마상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어둠이 양이 몽골의 서초인 양 봉과 오징 새들까 보물인 태양을 풍치하자, 열재들이 힘을 모아 있어바란 태양을 되찾아 오는 가정을 달았다. 아룬아룬한 고공시 카스의 스텝과 박진감 넘치는 마상기술이 스토리와 함께 펼쳐진다. 마상공연은 기마기술, 활쏘기, 고공뿔꽃모기 등이 펼쳐진다.

남양주와 울란바토르의 우호의 상징 '몽골문화촌'

몽골문화촌은 남양주시와 몽골 울란바토르가 우호 협력관계를 1986년에 체결하고, 몽골에 14년간 인민속대순과 교류하기 위해 2001년 개관한 이국적 체험공간이다.



2002년에는 몽골민속예술공연단이 이곳에서 칭기 공연을 시작했고, 2010년부터 마살공연단이 운영되고 있다.

1관 몽골전시관은 몽골의 사냥 도구, 문장산, 낫쇠와 구리로 된 접시, 붓, 은주전자 등의 식기와 몽골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무당옷, 화려한 전통의상, 앙터로 만든 수예공품 등 생활용품과 아기, 하베늘이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2관 몽골역사관은 우리나라와 몽골의 역사를 시대별 연대표로 나열하여, 비교해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며, 13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지난 일천년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칭기스칸을 비롯한 5대 칸의 활약상과 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다.

3관 몽골생태관은 몽골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야생식물, 동물, 곤

충을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막에서 발굴된 공룡의 화석과 그 자취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다.

4관 어린이 몽골체험관은 양의 목숨아빠로 만든 놀이인 사가이, 몽골의 체스인 사타르, 퍼즐 등을 조립하고 나열할 수 있다. 전통악기 소리를 듣고 연주해 볼 수도 있다. 그 외 몽골민속의상 입어보기,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상품 전시실, 남양주시 홍보관, 한국어 강좌실, 도서관 등도 있어 한몽간의 경제교류 전진기지로도 이용하고 있다.

몽골인의 정신과 감성이 담긴 춤과 기예, 노래의 현악당 및 몽골 전통 기마단의 박진감 넘치는 마상쇼와 아슬아슬한 고공서커스가 남양주시 몽골문화촌에서 펼쳐진다. 생활풍습 등 살아가는 모습이 한민족과 너무 닮아 그들을 대하면 우리 가슴에 마치 친근한 선 햇고향이 거기에 있는 듯 아련하면서 포근하게 되살아나는 곳이 바로 몽골문화촌이다.■

담으려면 비워야 한다

보광사와 수채골 폭포 가는 길



내 기억 속의 사찰은 간수가 적은 두부 맛이다. 또한 나의 종교 의식도 딱히 불사도 기독교인도 아닌 질체성 없이 그들의 비움과 매려, 또는 헌신을 존경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종교의 질체성을 잘 알지 못하는 범인의 종교관은 때론 오만하기도 하며, 모릿함을 시키하기도 하며, 비판의 칼을 세우기도 한다.

종교에 대한 시선은 내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다. 명찰(名刺)은 물론 작은 암자까지도 화려한 연등으로 유혹한다며 비웃었고, 사찰 곳곳을 휘도는 향내도 지독하다고 빙그리기 밀수었고, 빗장을 처음기로 연속 틀어주는 것도 삼엄적이라 폄하했다.

예닐곱 살쯤으로 기억된다. 그때 아버지는 농협에 재직했는데, 강원도 양구로 발령을 받았다.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그곳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울에서 뿔래도 하고, 산길을 넘나들 때, 뱀을 만나도 호들갑을 떨지도 않게 됐다.

그즈음 엄마는 산사를 찾아 불공을 드리곤 했다. 엄마는 외로운 관중을 기도로 풀곤 하셨다. 엄마를 따라 나선 나는 이 낯선 산사에서 한 두 시간을 보내곤 했다. 기억 서편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철에서 먹던 철밥 뿐이다. 엄마가 기도드리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땀을 쬐는 것이었다.

이느새 오십 즈음, 소위 살림의 고수라 지어하는 나의 장거리에 서 만나는 땀이는 그 때의 철밥단 나뭇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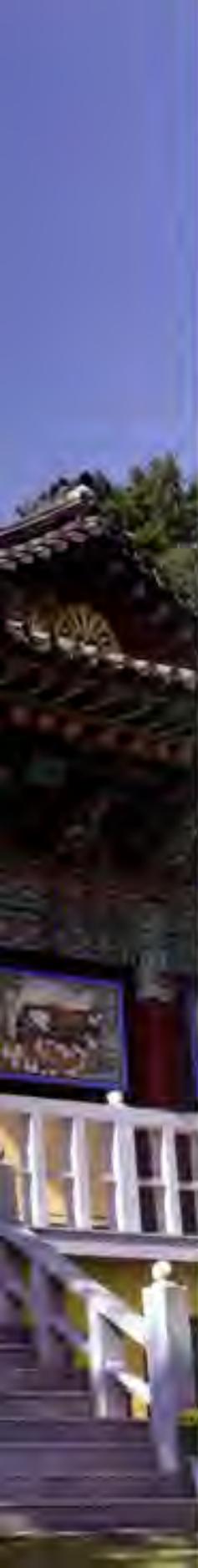
○ 나의 아름다운 집... 500년 은행나무를 만나다

이른 봄, 나는 작은 과제를 안고 이곳을 갈 이는 안대자와 사진 작가와 함께 남양주시 화도읍 보광사를 찾아 간다.

"우리가 지나칠 마을이 가오실(嘉老室)입니다. 조선 말기에 영 의정을 지낸 이류원 대감이 이곳에 철학을 하면서 99칸 집을 짓고 살아대요. 산세와 어울린 집을 보고 '오! 나의 아름다운 집'이라고 스스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말을 던졌고

"저기, 저 나무는 은행나무데, 실종 때 십여 500년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일행이 맞장구를 친다.

봄인데도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 있는 은행나무 가지에서 잎눈을 띄우는 소리가 들린다. 눈을 들어 바라본다. 그 위용이 대단하다. 여름의 푸름과 가을의 노란 모습은 어떻게 상상해 본다.



하늘을 만질 수 있는 산… 천마산 아래 보광사가 있다

부들부들 마을길을 지나 천마산이 병풍처럼 두른, 아늑한 곳에 산사가 있었다. 산사 입구 등턱에는 주춧돌로 새박이 덮고 있었고 계비꽃, 연호색, 숲쇠별꽃, 눈에 익은 들꽃들이 자리다툼을 한다.

“여기 꽃이 엄청 많아요! 저 꽃 좀 물어갈래요.”

갑자기 유년의 양구 산사와 숲밭이 머리를 스친다. 나도 모르게 뛰그리고 앉아 어린 꽃을 한 움큼씩 뜯는다. 그리곤 주머니에 여기저기에 부서 넣고 있는데, 일행은 나의 추억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야에서 멀어진다. 꽃을 캐고 권전히 오라고 잠시 발길을 멈추더니 이내 무엇인가 숨겨진 사연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양구의 기억을 뒤로 한 채 조금씩 앞서가는 그들에게 다가간다. 고개를 한참 들어야 산의 정상이 보인다.

“민간이 가는 곳마다 정산은 수없이 있지만 이 산은 매우 높이 푸른 하늘이 품(髀)이 꽂힌 것 같아 손이 적 자만 더 길었으면 하늘을 만질 수 있겠다.”

이성계는 혼잣말로 이렇게 ‘천마산(天馬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웃집 아이의 이름을 부르듯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천마산이라고 불렀다. 하긴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사연이 있는 마을과 산 이름, 땅 이름이 어디 있을까.

‘하늘을 만질 수 있는 산’ 그 하늘을 만지러 가는 길 북쪽 길목에 천년고찰 보광사가 학수를 대영하며, 달든 심신을 오롯이 맞이한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것… 보광사 뜰에서다

보광사 앞뜰로 들어서자마자 카메라부터 들이치는 동행한 사진작가에게 묻는다.

“사진을 잘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해요?”

그는 피식 웃는다.

“버려야죠. 마음을 잡는 두 개 중에 하나를 버리고 단 하나만 찍으세요. 사진은 버리는 작업입니다.” 멋진 철학이다. 보광사 대웅전 앞이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것. 그것은 비단 불교철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 적어있는 바탕인 것을.

나는 사진 찍는 일을 잠시 걸기로 했다. 비우기에 힘껏 넣히는 보광사이 품닉이 박차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의 앞뜰에는 이곳의 보물이자 보호수인 반송이 나무를 기고 서 있다. 반송은 하늘을 향해 치솟는 일반 소나무와는 달리 땅을 향해 굽을 벌리는 특별한 소나무다. 반송과 소나무, 잣나무가 어우러진 활을 한 바퀴 거닐어본다. 이 나무들은 눈보라에도 미바람에도 꺾이지 않은 우리네 혼처럼, 작은 사물을 곳곳하게 지켜주고 있다.

보광사를 찾은 날이 음력으로 초하루다. 사찰에서는 초하루와 보름 두 차례 석방례를 지낸다. 주

지스님은 법문에 비백 이론 필성 공양을 받는다. 일행은 석화로 갖는 배미 중 하나가 정원공양이라고 즐기려 한다. 콩나물과 무나물, 콩철이를 고추장과 찹기름과 비비백으로 다져 유년의 양구 설사가 머러늘스진다, 주지스님은 절명승이라 폭포에 다녀와 만나기로 했다.

바위 계곡을 지나 폭포를 만나다

원아산 수재폭포로 발길을 돌렸다, 봄꽃이 지천이다. 일행은 정원 깊은 계곡으로 발길을 내른다. 물안로도 인던 듯 계곡의 바위가 기암괴석위었고, 사나운 나뭇가지들이 사람 손을 타지 않아 풀이 싱가웠다. 그이만으로 명사답그 차례다.

“이간 길이 아닌 가 같어요 저쪽인가?”

일행은 이곳저곳 살펴다가 바윗길을 선택했다. 보령사에서 명성공양 후라 측도 기록하고 내내 가을 같이 쌀쌀잡았다.

“이런 태를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와요? 이런 문음과 풍 경관은네——”

나는 두터내며 계곡 오르막을 지냈다. 드디어 폭포가 보인다. 일행이 알한 수재폭포다.

“여학생 계곡물이 크게 붓어나요. 폭포의 위용은 대단하지요. 세상에 우리 길 애들과 여기서 물놀이 켜나 했습니다.”

이질 보여 주려고 그리 성화였구나 싶다. 하고 넘치는 영포다 스스하고 알뜰하게 바위 틈새를 골라 내리는 계곡물이 어떤지 더 걸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이면 특별히, 여름 물놀이해 빠져본다. 물놀이 계주 전마함으로 걱정습 한다. 기침소리에 절안이 편척 들었다. 조금 더 오르고 싶었지만 계사 멈추는 것도 좋다 싶어 멈춘다.

“수재폭은 하늘부터 땅까지 3폭입니다. 명소에는 큰 바위들이 불규칙하게 놓여있지만 비 오는 계절에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명소에는 종종종 흐르지요. 물놀이는 꼭대기에 있는 1폭에서 펼쳐요. 어느 선더당치릴 큰 웅덩이가 있었고, 나를 지금보다는 원시정연했었는데……, 임년이 담연물 겁니다. 큰 비가 내리셔도 지탱하고 있던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지모습이 됐습니다.”

나는 2폭이라 부르는 중간 폭포에 머물기로 했다. 하늘 돌아보며 계곡 사이로 원아산이 하늘에 들어오고 햇살은 온통 내 가슴을 이루만치고 있다.

일행은 폭포의 암벽을 따라 꼭대기로 모른다. 치맛이 권정한 참사인가 보다. 나는 그해 그들을 지키지 않았다. 주말을 돌아본다. 종종종 흐르는 물이 있다면 고인 물도 있는 법. 작은 웅덩이에는 개구리 얹어 큰 부더기로 햇살에 반짝이고 있다. 암벽에는 햇살에 입들은 무자개 새을 연다. 신비스런 세이다.



폭포에서 옛사람의 글씨를 만나다

폭포 위로 오르는 두 사람은 서로 신호를 하며 소리를 지르며 무언가를 찾는다. 양쪽에 오대천 둑근 가새된 글씨를 찾는 것이다. 밀행과 쌍사 편이 폭포의 바위 세 곳에 암각문이 있어 그것을 찾는다. 아아기를 생었고 비위에 불기가 많아 위험하니 오르지 말라고 한 특시기 있었기에 처참히 분주한과는 달리 불기운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찾았습니다. 여기 암각이 있네요. 여기예요. 여기...”

길에서 한 사람이 글씨를 지었다. 호기심이 반동했다. 세들이 찾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튼 나는 그의 말감에 눈을 등었고 큰바음을 먹고 폭포에 오른다. 이끼에 비끄러지며 길과 두둑에 생채기가 생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포 중간에 도착했다.

“개지동(溪之洞), 물이 흐르는 물내라는 바위글씨가 흐르는 물줄기 속에 숨어 있었다.”

“우! 기후 좋았네요. 화도와 수동이 불꽃만 죽물이 많은 물내라는 글씨 같네요. 왼쪽 바위에 다른 글씨는 없습니까?”

한때를 맞은 일행은 이 암각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글씨인 것 같다는 좋아야 한다. 이렇게 두 시간 동안 함께 수채를 폭포 담사를 바치고 주지스님을 만나리 전을 내리온다.

새가 지사한다. 직박구리라 한다. 바위 계곡을 내려오는 길 순의별꽃을 가베라에 탄는다. 갈새 꽃술이 끝말에 분신을 새긴 듯하다.

부족해야 믿음이 깊어진다

보광사 주지스님과 마주 앉았다. 몇몇게 자를 내오시는 종사가 예사롭지 않다. 스님은 요즈음의 자살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다. 기도하려 오시는 선도들이 린히 다리 편을 뽕긴 하나 제대로 바련하기 어려운 것이 보광사와 같은 암사들이 겪는 고충이리라. 사찰은 그저 산속에 있어 보기 좋고 멋스럽다.

규모가 이렇건 오랜수목 경건하여지고 선도는 아니지만 보광사를 바끼는 주지스님의 발음을 듣다보니 편듯한 일주분도 없이 승정된 원년 고향의 명백을 이어 온 것이 편지 안다았다. 앞뜰에 놓인 손막한 서남지방 보광사가 바람과 시절에도 흔들릴까 염려된다. 오색한관함이 님해야 믿음이 깊어 진다는 작은 전리를 깨달자 그동안 종교에 대한 권력이 좌송스럽다.

내일이 끝나자 주지스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생이 있다고 안내를 한다.

“봄이 좋아 이곳에 부임하고는 여러 날 이곳에서 기도를 했지요. 바깥사람에게 봄이 보너 이 쉼을 주고 있고 많은 생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지스님의 호탕한 말씀과 달리 오랫동안 권리를 하러왔다 쉼 주변엔 터베가 끼었지만 봄은 영동

이다. 일행이 고여 있던 물을 퍼내자 맑은 물이 금세 채워진다.

보광사를 알아보다

보광사는 화도읍 가곡리 419번지 관마산 자락에 자리한다. 1천 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찰이지만 많은 전란으로 인해 온전하게 지켜오지 못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다. 지금은 대웅전터 다른 이름인 사각보전(佛堂寶殿)을 가운데로 하고 서너 개의 묘사재를 거느린 그럭저럭 조망하고 고즈넉한 절찰이다. 재 밭실할 세도 없어 전란에 깨허가 되기를 몇 번, 절금의 모습으로 가꾸어진 것은 최근 10여 년의 일이다. 격변기를 지나오는 동안 보광사학 지역(學域)은 어느 틈엔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 있어, 사찰을 유지하는 것은 불전등화(佛堂) 위태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화담당 유덕(和潭堂 兪德) 스님의 노력으로 잃어버렸던 보광사의 일부분을 찾아내었기에 중간의 발판이 마련됐다. 화담 스님의 유지를 이은 선부(善友) 스님은 두 발을 걸어 부처고 직접 글 작가를 운전하며 중수와 중건에 나섰다. 관마산 보광사를 내려오는 길 내 가늘썬 하나의 화두가 생겼다. '때는 험한 길, 마나 않고 담으려면 비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배와 바철까지로 약속을 한 바 가치로 정갈해진 나를 본다 ㉞

시인취재·박희영, 복기복



나를 찾아가는 길

천년의 고찰 내원암

마음을 찾아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자리한 도량 외에 행로까지 포함한 깊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 절이라 함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행로라 함은 마음을 찾아 간다는 뜻이다.

결국 길을 찾아 나서는 순간은 모두가 구도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일상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산을 찾다보면, 뜻밖에 초목에게서 살아있는 실법을 듣기도 한다. 마음을 열지 않았으니 아직 듣지 못할 뿐이다.

이런 의미로 길을 찾아 나서는 행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화려한 절보다 깊은 산에 위치한 작은 절이 마음을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파른 긴 돌계단 길을 숨차게 걷다보면 바위 같은 마음의 무게는 사라지고 마음이 새털같이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하리 수락산 계곡은 겨울에도 여전히 아름답다. 원경으로 보이는 산 위에는 흰 바위들이 큰 얼굴들을 내밀고 있다. 초입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명산과 똑같다. 수락산도 예외 없이 위치 좋은 계곡은 벌써 상인들이 차지해 버렸다. 그렇게 점유한 등산로에서 그들은 과감하게 호객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내원암의 첫인상

주차장에서 내원암까지 꽤 먼 거리를 숨 가쁘게 올라갔다. 아침 공기와 함께 화강암 돌계단 등산로 위로 사뿐사뿐 전진해 나갔다. 무성한 나무를 뚫고 햇살은 눈부셨다. 공해에 찌든 마음이 발길을 옮길 때마다 한 근씩 빠져 나가는 느낌이였다.

그리는 사이 멀리 내원암이 시야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내원암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약수로 복을 축였다.

서울근교에 아히 청정한 약수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정진스님 계신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른 아침 공양을 마친 절은 평안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했다. 총무스님도 정중히 마중하며 합장 배례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경건하여 영겁절에 따

라 배례했다. 스님의 첫 원정은 부드러우면서도 감히 떨칠 수 없는 공기가 엮혀있다. 그 동안 내는 스님들을 만나 보았지만 칠진스님이 진짜 풀가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도에 숨어있는 뜻

총무스님의 안내를 받아 스님이 거처하는 암자이 큰 방으로 들어갔다. 방안 벽력은 총하고 고실한 건 정도의 넓이었다. 중간에 탁자를 두고 서도 마주보고 있었다. 스님께서는 손님들에게 절대할 만한 차를 끓여 내는라 잠시 준비되어 볼수했다. 정면으로 바라보는 맞은편 벽에 있는 책꽂이에는 할 수 없는 귀은책 기부의 두터운 봉영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책꽂이 한 칸에는 손을 들고 가부좌를 풀고 재신 부처님이 미소를 띠는 방안을 읊어 살펴보고 있었다. 필로만 눈썹 풀가가 바로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안에서 풍기 나오는 향기조차도 얼룩하면서 순순하였다. 삶인 차를 다기에 부어 재속 편하시는데 재속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진하시도 없지도 않은 오묘한 맛이였다. 불결과 청선의 경계는 불은한림의 경계까지 허무는 만연의 과정이 맛에 숨어있는 듯 했다.

내원암 주변이야기

스님들은 1년에 2차례씩 겨울에는 동안거, 여름에는 하안거를 하기 때문에 긴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안거를 한 후에는 다리를 풀어주기 위해 산을 오르내리며 걷기를 많이 한다.

이야기는 시원스럽게 승승 전행되었고 찾아온 복희와 취지를 굳이 설명해드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총무스님이 먼저 방문을 열었다. 수학산에 내원암이 자리 잡고 있지만 등산객들은 주변에 있는 차인 청석굴 더 좋아한다고 하면서 수학산 3대폭포 이야기를 꺼냈다.

수학산 3대 폭포란 금강폭포, 큰류폭포, 옥류폭포를 지칭하는데 냇 아래쪽에 위치한 옥류폭포는 이미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어 폭포로서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했다. 많은 등산객들이 오지만 필자 내원암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 스키가 기반 한다고 했다. 확실한 물자 외에는 특별히 그곳을 찾는 사람은 없지만 이 깊은 산중에 내원암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든든했다.

내원암 스님들

내원암에는 도솔원에서 석가모니불이 입적한 후 57일 삼위안년 뒤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승왕들을 구제할 기래불이 있다. 즉, 내원암은 미래불인 미륵불에 의해 구원을 얻는 사찰인 것이다.

또한, 대한 불교조계종 총무원 25교구본사 봉선사의 말사라고 한다. 총무스님은 불가에 입문한지 23년째이며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젊고 건강한 편이었다. 내원암 살림은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본사에서 불자들의 시주를 받아 지원한다.

산사에 오르다보니 삼민스님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6·25 동안에 불에 탄 내원암을 복원하신 공덕을 기리는 비라고 적혀 있다. 내원암은 삼민스님의 제자인 재문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총괄하시고 그 아래에 총무스님, 종무스님, 포교스님과 원주보살님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계신다.



내원암을 둘러보다

불가에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중생'이라고 한다. '보살'은 세속 일반인 여자 모두를 칭하며, '처사'는 세속 일반인 남자 모두를 말한다. 또한 부처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자는 '나한'이라고 한다. 마음먹기에 따라 매순간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다.

주요 건물로는 대웅보전이 있고 영산전과 산성보전, 요사, 식물관상, 캐불, 칠성각 등이 있다. 이곳에서도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부채가 잘 치유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원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비탈을 골라 마련한 사찰 공간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수락산 7경에 속하는 내원암은 아담하면서도 꼭임새 있는 유수한 사찰 중에 하나이다. 무엇보다, 내원암을 오카미 마을 확장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보았다.

내원암 담사를 마치고 남양주시청에 실종경고 팻말과 위치 안내 표지판 설치를 건의했다. 아울러 등산로 근처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까지도 부탁했다. 과손원 등산로의 복원도 잊지 않고 청했다.

삶은 언제나 과정이고 이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 마음이다. 거울에 자신을 비추듯 마음 거울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 "부지런히 깨어있으라"는 청진스님의 말처럼 거듭 깊이 보는 일을 계속 리 하지 않아야겠다. 그것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서툰 길이다. ■



직선의 말쑤름을 듣다

수락산 3폭포

항주라 수락산을 애 들고 이제 오니
 아홉담개 솟은 불(峰)이 구름 속에 잠깐 일개
 청학들 찾아들어 옥류폭(玉流瀑)에 다다르니
 작은 맑은 맑은 물이 수칭같이 흘러가네
 푸른 송림 바위 길을 다듬어 밟 옮기니
 백운동의 은류폭(銀流瀑)이 그림같이 내려 쏘고
 차운동에 돌아들어 금류폭(金流瀑)을 바라보니
 선녀 내려 뚝뚝할 듯 오색서기 영롱쿠나
 비록물의 원구름은 하늘가에 실려있고
 향로봉의 맑은 바람 시원하기 짝이 없네
 칠성대 기암괴석 금강산이 부채하고
 송곳불긋고 온 단봉 그림인 듯 선경인 듯
 내원암(內院巖) 풍경소리 저녁연기 물소리에
 불로경 맑은 악수 람로수가 이 아늑가
 선인봉 영락대에 선선 선녀 놀고 가니
 철하 백하 간곳 없고 구름만 이 오고 가네.”

연대미상의 정허 스님이 쓴 '수락 8경'이다. 수락 8경 중 3경이 폭포다. 폭포는 바로 물이다. 산속에 물이 없다면 상상 만으로도 벌써 마음 삭막해진다. 폭포가 있어 그 흐름으로 구름은 능선을 뜯고, 운이 좋은 날이면, 한 폭의 산수화를 번 말치서 만나기도 한다. 물소리의 낙차를 듣고 나무와 천년의 암석이 자라고, 그림처럼 사람들은 산 아래 저마다의 마음을 이룬다.

수락산에 대한 고증은 근처의 천년 고찰 내원암에 나타나 있다. 사찰의 칠성과 선전기에 보면 수락산은 산세가 웅장하고 석벽과 암반으로 된 기암괴석이 많다고 적었다.

또한 바위가 벽으로 둘러치고 있어 굴러 떨어진 물(水)과 떨어질 약(瀑)이 합해서 수락(水落)이라 전한다.

하얀 기암괴석 들 속에서 물이 생성하여 흘러내리고 있으니 골짜기 물이 맑아 구슬 물이라고도 부른다. 유래처럼 석벽과 암반의 속에서 만들어진 물이 굴러 떨어진다는 구절에서 수락이라는 이름을 되새겨 본다.

가파르고 좁은 정상에서 사람을 만나

수락산은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산이라고 할 수 있다. 양지훈의 책한도시 2006에 남양주는 면적의 8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죽령산, 서리산, 예봉산, 운길산, 수락산 등을 일컬어 '영혼 없이 시간은 존재할 수 없다.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영혼이다'라고 피력했다.

다른 산에 비해 수락산의 정상은 유난히 가파르다. 오르는 길목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예상대로 직룡길과 가파른 코스이다. 우회하는 코스를 택해 느리게 걸어 올라간다. 서울 쪽을 바라보는 능선에 오르자 한 차례 강한 바람을 만났다. 꽃샘바람이다. 따뜻한 봄날은 그냥 오지 않는다. 북병을 예상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살임을 산행에서 다시 배운다. 해발 638m 바로 밑의 계단을 기치 드디어 정상에 오른다. 정상은 예상보다 험소하다. 등산객들로 발 디딜 틈이 별로 없어 추락의 위험도 다분하다. 최정상 바위 위에는 태극기가 꽂혀 있다. 오늘은 북서풍으로 날린다. 638m의 고도에서 수락산 주봉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실명이다.

자운동 금류폭포

정상을 렌즈에 담고 다시 하산 길에 오른다. 내려오는 길이 역시 조심스럽다. 험하다고 방심하면 미끄러지는 게 참사 우리 생과 닮아 있다. 등반사고의 90% 이상이 하산할 때 일어나는 것처럼, "낮은 산은 있어도 쉬운 산은 없다"는 명구를 떠올려 본다. 수락산은 낮은 산도 아니고 더욱이 쉬운 산도 아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내려왔는데도 시너 차례 아깝하다. 마쁘게 서둘러 오르느라 미처 살펴보지 못한 수락 3폭을 살펴보기도 한다. 내위암 아래에 위치한 금류폭포는 아주 웅대하다. 칼줄로 막아 놓아 깊은 어리웠지만 계절 왕성한 여름날의 장관은 충분히 연상이 된다.

금류동천(金流洞川)이라는 글씨가 암각에 도렷하게 새겨져 있어 유심히 살펴본다.

폭포는 위에서와 아래쪽의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무슨 차이일까 한참을 망설여도 대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바로 옆 가파른 절벽을 45도 각도로 눕혀 놓은 돌계단에서 앉았다는 듯 혼자 고개도 끄덕여 본다. 금류폭포 옆 저명한 대결 일을 지난다. 빗빛 등산객들이 절경의 감정을 이곳에서 휘기로 불고 있다. 자연에게서 배운 질재를 슬그머니 떠올린다. 괜히 즐겁다. 꽃샘의 쉼이라 폭포수가 떨어지는 장관을 보지 못했다. 아쉬움을 안은 채 험소한 등산로를 타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간다.

백운동 은류폭포

중간 저임함에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표지판에는 몇몇 저경 위치 표시와 함께 은류폭포도 나타나



옥류폭포 정상

이 기기궤던 형막이 눈에 들어온다, 무조건 전입해보니 작은 표지판이 옥류폭포라고 적혀 있다.

내내 아쉬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가까이서 보니 울달이라 흰 얼음 덩어리로 폭포를 감싸고 있었다. 여름철 그 많은 수량을 이 산 어디쯤에 다 저장해 놓았는지 무심히 지나쳤으면 큰 손해 볼 뻔 했다.

청학동 옥류폭포

내전길에 옥류폭포도 찾아 나신다, 옥류굴 주변 사람들도 폭포의 소리를 모른다. 몇 사람에게 물고기로 물어 직침한 곳에 와보니 폭포 흔적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나 가치화 의미는 이미 상실한 상태이다. 주변에는 이미 식당과 가게들로 가득 차 있고 시멘트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다. 흉측한 모습이다.

본래의 자연경관이 파괴되어 그 흔적과 자취를 찾아 볼 수 없으니 애석하기 그지없다.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수락 3폭포"의 명소라고 여기겠는지, 흔적이라도 찾아보려고 가게 사이를 뚫고 개작으로 접근해 본다.

랜즈에 잡히는 것은 가게 간판과 위험하다는 경고일 뿐이다. 그것이 옥류폭포의 마지막 흔적이다. 수락산에 이런 명소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기억으로만 재생이 가능하다.

수락산 명산에 있는 3폭포를 모두 살펴보고 난 후에 폭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진단해 본다. 산과 물이 스스로 이루는 조화와 생명수로서 역할을 다하는 모습에서 나서 한 번 숙연함을 느낀다. 위대한 시연은 매순간 고요한 작용으로 지금도 소리 없이 우리의 삶을 세줄전 해주고 있다. ■

내 무덤에 돌을 사용하지 마라

세조의 광릉



광릉의 2월은 수상하다. 때 아닌 폭설소식은 무관하게 이곳엔 벌써 겨울이 그치고 있다. 그 옛날 왕들이 넘지 못한 시차가 축, 높은 심벽은 아니었는지, 여전히 흐트러짐 하나 없는 능 주변을 몸종처럼 아른 봄이 서상이고 있다. 능으로 가는 길은 늘 마음이 단청하다. 간단한 필기도구와 차분히 가라앉은 날씨까지 잊지 않고 행진다. 도보로 진입로를 따라 걸으며 잠시 머릿속에 폭군과 성군을 떠올려본다. 얇은 역사와 기록을 남겨놓고 광릉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세조, 조선왕릉을 개혁하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는 광릉은 조선 세조와 정희왕후(貞肅王后) 윤씨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사적 제197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조 14년(1468)과 성종 14년(1483)에 조성했다. 이 능은 세조가 “원릉의 석실은 유해무익하니 석실과 병석(屏石)을 쓰지 말라”고 한 유언에 따라 병석을 없애고 석실은 회다지(회리 灰泥)으로 마무리 꾸몄다. 능 배치는 두 언덕을 한 필자각(丁字閣)으로 묶는 동원이강(同原異岡)의 양식을 수립해 조선 왕릉제의 근대 개혁을 이루었다.

1468년 6월 세조가 여기에 묻히자 조선 왕실은 이곳을 ‘광릉(光陵)’이라 하고, 사방 15리에 이르는 숲을 ‘능림’으로 지정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이때부터 광릉은 출입금지의 숲이 되어버린다. 500년 이상을 사람의 발길이 통제된 까닭에 온전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광릉,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다

그런 이유로 광릉 숲에는 식물 983종이 자라고, 동물 2881종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 종이 서식한다. 밀재 깔림기 때 일본인은 우리 땅 곳곳에서 아름드리나무를

형자각을 중심으로 왼쪽이 세조릉이고 오른쪽이 정희왕후의 능이다



술하게 배어갔지만 광릉 숲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한국 전쟁 때에도 국군과 미군 모두 광릉 숲 근처에서는 포탄을 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다. 광릉 숲의 생태계보존을 위해 진입로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2010년 유네스코에서는 광릉 숲을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포했다. 우리나라에서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대표적인 희귀종으로 식물은 광릉요강꽃, 동물에는 하늘다람쥐, 장수하늘소, 까막딱다구리 등 20여종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

역사 문화관, 세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이다

세조의 치적은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섬뜩하게 다가온다. 혈육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그 부분을 역사는 상영하듯 계속 되돌리본다. 그 날의 현장을 우리는 아직도 눈 시켜렇게 뜨고 보고 있다. 영상물 광릉은 조선의 새로운 왕릉제도를 적용한 첫 작품이다. 왕릉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능침의 주인

인 세초에 대한 불리한 살기도 그대로 노출된다.

재실, 능참봉을 만나다

역시 한화관을 나와 능참봉이 비릇던 재실로 자리를 옮겨 본다. 능참봉은 궁중의 하급 관직이면 서도 업무 특성상 부리움을 사는 직업이다. 그러한 이유로 왕권이 쇠퇴하기 전까지 특별히 재미를 얻다, 그러나 유교국가에서 조선왕가의 능을 관리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다. 인가 한 세 없 는 이곳에서 그는 끝내 적막이 되고 만다. 하지만 능참봉은 외롭지 않았다고 한다. 외로운 시간이 없 었다고 한다. 매일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야망 재라는 제사도 쟁기야 하고, 5일 단위로 관리대장을 관찰사에게 보고도 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가 부리는 수하가 20명 인파이 된다.

어느 왕 때인가 69세에 과거에 참가한 노선비가 있었다. 수십 번 과거에서 떨어진 것을 안 왕은 그 를 능참봉으로 차용했다. 1년 뒤 70살 먹은 선하를 보아 관차를 법이던 왕은 그를 불렀다.

왕: 그래 능참봉은 할 만한가

능참봉: 전하, 맹렬남도 귀지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능참봉 아무니 할 것이 아닌 듯 싶습니다.

공터, 정2품송 후계목 3형제를 만나다

세실을 나오니 빛빛 초형철을 갖춘 공터에 이른다. 성 밑 댕지파 태풍에 쓰러진 소나무 사이에 조 각은 특별해 보이는 어린 소나무 세 그루가 서 있다. 세초가 비습을 내린 정이품송의 후계목 들이다. 정이품송과 그해 부인인 정부인송 사이에서 인공수정을 해 어렵게 얻은 씨앗으로 키운 2세대들이다. 광릉에도 여타 알뜰서업 소나무가 많았다. 그러나 문화재 인식이 낮은 사람들의 도둑 별제와 실상 자살 송잇록파의 피해까지 겹쳐 대부분 고사했다. 저 어린 소나무들이 하루빨리 자라 왕릉 조경의 상징이 되어주기를 기원해 본다.

하마비, 왕도 말에서 내려라

금천교를 건너기 전 하마비를 본다. 일반적으로 왕이 능을 참배하고자 할 때는 홍살문까지 가거나 말을 타고 이동했다. 땅을 밟고 터질 일이 없는 왕은 홍살문까지 이르는 길에는 구태이 바석을 걸지 않았다. 광릉은 다른 왕릉에 비해 홍살문까지의 길이 좁고도 길거에 오히려 앞대개 말에서 내려 걸 어가라고 한다.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하야미다. 이 하야미는 다른 조원왕릉에는 없고 왕릉에만 있는 유일한 비석이다. 차승의 피이 된 세조가 권사관의 영역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에도 한 번 손들이 든다. 홍살문에 이르는 길은 좁고도 깊다. 좁은 길 카살사리로 빳들어진 소나무 대신 깨끗대로 서한 잔나무들이 풍성하게 들어와 있어 마치 오래된 숲 속을 걷고 있다는 착각이 온다. 길 끝으로도 왕릉은 보이지 않고. 기괴하게 엉긴 잔나무들 사이로 대롱 끈과스래 흐리산 거석들이 널부러져 있다. 과연으로 최귀 중이된다. 홍살문에서부터 좌안주위를 강조했던 세조의 능역이 시작된다.

정자각, 세조와 정희왕후를 만나다

정자각에서 보면 왼쪽이 세조의 능이고, 오른쪽이 정희왕후의 능이다. 정자각을 가운데에 두고 왕과 비의 능침이 나란히 한 건축기법이다. 세조는 살아생전 정치적인 나라에 정희왕후를 대동한다. 왕이 되는 과정뿐 아니라, 그 후 당권계 아들을 먼저 보대고도 끈끈히 수위정상을 한다. 정치 감각 또한 뛰어났다. 하나의 갖(北 언덕) 안에 생분이나 하나의 봉분에 합을 하지도 않은, 각자 독립된 언덕을 가진 동원어강식의 황릉으로 조성한 것은 세조의 유명을 따른 것이다. 세조가 정희왕후를 어려워도 인정행동을 감히 유추해 본다.

한들 생각을 해보니 이곳은 신이로가 깔려 있어야 할 곳이어닌가. 그러고 보니 정자각에서 홍살문까지 신이로도 없고 전디도 없이 순통 흙바닥이다.

얼마 전 할머니 두 분이 나누시던 얘기가 떠오른다. 한 할머니가 아로리 과부염을 앓고 있는 손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다른 할머니가 위로하듯 하시는 일말이 흙을 밟으면 낯는다는 것이다. 흙을 밟는다는 것이 불리적으로 병을 다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끈근없이 마직이 깔리지 않은 신이로에서 세조의 과부염이 떠오른다. 흙이 편들 묻은 태사베를 신은 애중이 말자국을 찍으며, 정자각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언덕, 세조를 만나다

정자각 왼쪽으로 좁고 가파른 길을 올라 세조의 능침이 있는 언덕(사조지)에 오른다. 장엄한 석인의 뒷모습이 보인다. 석상의 그림자를 덮고 있는 흰 눈이 석상으로 하여금 흰 그림자를 가진 심비로 운 존재로 만들고 있다. 장엄한 석상에 비해 세조의 능침이 왜소해 보인다.

능침에 명동석을 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동석을 두르지 않은 이유가 능침 내부를 석신이 아닌 피적으로 만들게 되면서 능침의 훼손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왕릉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본 경험이 없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능침 조성행



광릉 하이비와 사자비

되리라고는, 가파른 구릉 위에서 파스한 햇살을 독차지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세조와 정희왕후의 뒷자리가 좋아 그의 후손이 500년 왕조를 이어갔다는 이야기는 남설이 아닌 듯하다. 깊은 시선으로 정희왕후의 유해를 건네다 본다.

광릉, 떠나며

광릉은 형자각을 사이에 두고 왕과 비의 능이 나뉘어져 있다. 능역의 배치는 같으나 방향이 다르다. 이 속에 풍수지리의 비밀이 숨어 있다. 명당에 각각 나뉘어 무부의 요를 쓰면 자손이 두 배 번창하고 부귀영화가 훨씬 많이 누릴 거라는 세조의 믿음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수를 굳게 믿은 세조는 육달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병풍석을 쓰지 말라는 유연도 잊지 않는다.

세조의 세자명은 본래 진양대군이다. 수양대군은, 아들의 성품을 염려하던 아버지 세종이 수양산에서 철개를 지키다 굶어죽은 백이와 숙계처럼 살라는 의미로 다시 지어준 이름이다.

온화한 아버지(세종)보다 공포정치를 하던 할아버지(태종)를 더 많이 따르던 그는 훗날 자신의 권력을 위해 조카인 단종과 동생인 금성대군, 안평대군, 사육신 등과 친족신하를 숙청한다.

백이난 정관 속에 비의 정치를 하던 세조와 그의 부인 정희왕후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돌아오는 내내 발길이 무거운 하루였다. ❷

석이 백성들의 부역 부담을 제법 덜어 주었을 거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겠다.

광릉 능터가 지리적 이권이 새로운 왕릉제도를 창안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있는지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광릉 조성 과정에서 왕릉제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무석인의 발치에 앉아 시선을 멀리 던져본다. 능역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잔디밭 끝으로 시야가 갈도 없이 이어진다. 숲길을 걸어 광릉을 찾아 들어올 때 이런 전망을 보게



시간을 거슬러
다산을 만나다

다산유적지



이른 봄 햇살이 짙푸른 북한강 물결 위에 부서져 출렁거린다. 봉길폭, 다산을 만나러 간다. 굽이굽이 북한강 물줄기를 따라가노라면 등산복을 차려입은 등산객들이 갈개를 따라 트레킹을 즐기고 있다. 그 북한강 위에 다산의 바울 마재. 마현이 한 눈에 들어온다.

경기도의 동북부 한강유역에 위치한 조안면은 북한강과 남한강 물줄기가 만나는 그 부근에 오롯이 자리 잡고 있다. 삼국시대 우리 조상들은 한강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수 세기 동안 전쟁을 치렀다. 각 나라들은 한강을 차지하고서 그 시대의 전성기를 누리지 않았던가. 그 어느 누구라도 이곳에 와 산과 강줄기에 넋을 놓고 보노라면 떠올릴만한 생각이 일 것이다.

다산을 품은 '마재'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 한강을 여유롭게 마주하며 쉼은 듯, 다산유적지가 그곳 마재마을에 있다.

이 마을은 다산유적지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할마산이 드리워져 있고 남쪽에는 실학 생태공원과 실학 박물관이, 동쪽에는 한강이 흐른다. 이곳에 오는 방문객이라면 서너 시간 걸을 수 있는 마을의 여유를 가지고 오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산유적지 안에서 다산의 사당 문도사와 정약용을 기념하기 위한 다산기념관과 다산문화관 그리고 정약용의 생가와 묘소, 정약용이 정조를 위해 만들었던 배다리 모형 등을 볼 수 있다.

다산과의 교감 '여유당(興猶堂)'

다산유적지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정약용이 살았던 생가 '여유당(興猶堂)'이 눈에 들어온다. 내가 살았던 시대는 아니지만 잠시나마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른다. 다산이 살았던 곳이자, 같은 하늘 아래에 지금 내가 서 있기 않은가. 시대를 초월한 교감을 나누며 여유당을 둘러본다.

나는 너의 약점을 스스로 알고 있다. 용기는 있으나 일을 처리



어유당

하는 지모가 없고 착한 일을 좋아하는 하나 선택하여 할 줄을 모르고, 정에 끌려서는 의심도 아니 하고 두려움도 없이 곧장 행동해 버리기도 한다. 일을 그만 두어야 할 것도 참으로 마음에 내키기만 하면 그만두지를 못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에 담겨 있어 깨운지 않으면 기필코 그만 두지를 못한다.”

어유당은 1925년 대흥수로 유선되었다가 1986년에 복원한 것으로 당호인 '어유'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이 집은 원래 다산유적지 입구 주차장 부근인데, 현재 위치에 복원한 것이다. 어유당은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된 아주 소박한 중부지방의 양반집의 표준이라 한다.

정조의 사랑 들푃 '다산'

다산 정약용의 나이 스물두 살에 진사과에 합격해 일찍부터 정조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정약용이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하던 무리들의 시샘으로 결국 정약용은 스스로 벼슬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약용은 정조의 곁을 떠났으나 그런 자신의 행동이 미감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정조의 곁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정조의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정조의 죽음 이후



다산 정약통 생가 여류당에 재현된 매다라모형

매서운 시련의 시작과 동시에 유배 길에 오르게 된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 그러나 그 마음을 전할 길 없는 정약통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비루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산을 아끼던 정조가 죽고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권주교를 박해하는 신유교옥(辛酉敎獄, 신유사옥)이 일어난다. 이때 3백 명이 넘게 순교를 당하고 유배지로 향한다. 이때가 다산의 나이 40세였고, 이로부터 18년간 유배생활을 한다. 다산은 이 기간 동안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대학자'로 남는다.

그의 불신인 두 아들과 혈육,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로 달리 부른다. 다산은 당시 지배층이 주장하는 지배논리인 효와 충라는 달리, 모든 학문의 근본은 효(孝)와 제(弟)에 있다고 했다. 효와 제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하겠다는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자세,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성취, 사람을 기본으로 하지 않은 학분은 뿌리 없는 나무라 위험천만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효와 제를 갖춘 뒤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라는 것이 편지 곳곳에 배어있다.



다산상

“요즈음 학문 가운데서 오로지 이름을 붙이고 위모를 단정히 하는 것을 허식이라고 지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약삭빠르며, 말달하게, 마음을 풀어놓고 살기를 좋아하는 젊은 이들은 이러한 풍조를 밟고 제 세상 빈난듯 받아들이며 예절을 제멋대로 한다. (중략) 비록 하늘에 통달하는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학견을 가졌다더라도 결국은 말끔치를 땅에 대고 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비스듬히 누워서는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오로지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올바르게 하는 것’에 우선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두 아들에게 부친 편지(1803년 정월 오하루) 중에서



거준기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꽃 피운 '실학'

당대 어떤 위인이나 학자도 다산처럼 의학·역학·물리·기계·지리·역사·법률·정치·문학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는 단연코 없을 것이다. 유배지에 있던 18년간 당시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500여 권의 책을 남겼다. 유배지였던 강진에서 실학사상의 바탕을 이루는 '목민심서'를 완성하였고 '경제유표'도 이곳에서 저술하였다. 특히 유배생활을 통해 가난한 농민과 어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직접 겪으면서 실학사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시대적 상황으로 힘든 시기에 경야용은 다방면으로 공부하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애

쓴 학자이다. 현대의 우리 삶에 다산과 같은 분이 있다면 우리 세상은 어찌 되었을까. 문득 아쉽고도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것은 잠시였다. 정약용의 삼과 업적이 인정되어 2012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지정되었으니 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열수(한강) 부근에서

정약용이 국가 개혁을 위한 다산학을 형성한 곳은 바로 그의 고향 마재이다. 그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유배생활을 끝낸 뒤 돌아와 삶을 마감할 때까지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정약용의 생가에서 동쪽으로 300미터쯤 가면 북한강과 남한강 물줄기가 만나는 한강이 있다. '열수'란 조선시대에 한강을 부르던 이름으로 정약용의 별호이기도 하다.

거울잠에 들었던 산이 다소 생기 잃은 모습이지만 그 앞을 흐르는 강은 과거와 현재를 말없이 이어주고 있다. 그곳은 산과 나무, 하늘, 강뿐이다. 다산 정약용은 자연에 묻혀,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염려하여 실용적인 학문에 힘썼으며 그의 삶의 전반적인 흔적을 글로 남겼다. 정약용이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늘 그리워했던 열수 한강.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곳에서 편히 잠들기를 바란다. ■

112

113

“한강 물 삼각산 아득히 높은데
산과 강은 옮기고 변하여도
꽃된 무리 나쁜 짓 그칠 날 없네,
한 사내 독충 짓을 하면
책망하는 부류들이 서로 번갈아 옮기네,
편파적이고 사특한 자들이 득세하니
정직한 사람이 밭 불일 곳 어디인가
외로운 난생는 깃털이 약하여

가시 돋친 나무에 살 수 없듯이
애오라지 외로운 뚝단애 타고
아득히 멀리 서울을 떠나네,
방랑하는 일 좋아하지 않지만
사나운 침승처럼 임금을 지키니
무슨 수로 나의 충정을 알리겠나?
옛 사람의 옳바른 가르침이 있으니
향원은 도덕의 정이라고”

고려 말 역성혁명을 두고 긴박하던 시간, 이방원이 '하야가'로 고려에 대한 충심을 띄보려했을 때, '불굴가'로 자신의 뜻을 보여준 이가 내은 변안렬이다.

고려의 충절을 대표하는 폭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아은 길재 등 삼은과 건줄만한 충신이있기에 대운이라 부른다. 애석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가 남양주시 전전읍 용정리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간다.

기운을 뒤로 하고 이르게 내민 풀 햇살은 남양주 너른 땅에 암컷 내리전다. 인생의 삼분의 일을 인과가 폭적이는 도시에서 보냈다. 어린 시절 잠시 머물렀던 시골에서의 전원적 삶은 성인이 되어 가끔씩 향수에 젖어들지만, 어느덧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도시적 삶에 더 익숙해 졌다. 누구나 그러듯이 나이 들어서엔 시골에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 자연을 벗하며 뒷밭이나 일구며 살겠노라는 지나가는 바람을 갖기도 한다. 어쩌면 남양주의 넓고 웅운한 땅이 우리에게 그던 소망을 들어줄 충분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 이 땅에 희망을 걸어본다.

따스한 봄기운을 느껴니 더욱 그렇다. 밭밭의 땅 내음이 그렇게 말하고, 내 시선에 머무는 산과 들,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그렇게 말한다.

과거 현양과도 가까웠던 남양주시에는 왕릉과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묘역, 유적지가 곳곳에 남아있어 이 도시는 내겐 아주 특별하다.

통역관 변안렬, 공민왕의 수족이 되다

변안렬(邊安烈, 1334 - 1390)은 중국 원나라 심양 출신으로 고려 말기의 문신, 무신, 문인으로 호가 대운(大運)이다.

아버지는 증판삼사사 변양이다. 원래 황주(黃州)를 본관으로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변순이 1268년 원나라로 들어가 심양후에 봉해졌고, 아버지가 이를 이어받을 정도로 원나라의 세도가였다.

변안렬은 일찍이 제5대 심양왕 왕달발불화(王脫脫不花)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 1351년 원나라 부파에 장원급제를 하고, 현부상서에 올랐다. 이때 원나라 말기 병란으로 불모로

평양에 있던 공민왕과 혼인한 노국대장공주가 1352년 고려로 돌아올 때, 공주를 보호하는 수호대장과 동역사로 함께 왔다.

공민왕은 평안벌을 의사촌인 원주 원씨 원의와 딸과 혼인시키고, 원주를 관향(官鄕)으로 내었다. 이로써 평안벌은 원주 변씨의 시조가 된다. 우리나라 변씨의 90% 이상은 평안벌의 후손들이다.

이후 평안벌은 공민왕의 수족이 된다. 노국대장공주(인덕원후(仁德元后))가 사임한 뒤에도 고려의 황제 대한 공은 충절을 굽이질 않았다. 공민왕이 원나라에 버림 당서 원나라의 정세가 좋지 않았고, 고려 또한 마찬가지였다. 기약후의 오라비 거침을 중심으로 한 인원과와 반대 입장인 공민왕의 행방만 지켜본은 그야 말로 일족구발의 혼란 속에 있었다. 이 와중에 공민왕은 개혁정치를 꾀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궁에서 자객에 의해 비명횡사했다. 공민왕은 원미(노국대장공주)와 세자를 얻지 못했고, 공민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신돈이 소개한 원미 낳은 자식을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그러나 종교사상에 심취한 선진학자들은 그어이가 권위에 오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어이가 부왕이다. 결국 부왕이 오래지 않아 왕위를 내려놓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부왕의 왕좌를 지키려고 태반된 인물이 바로 변안벌이다. 부왕은 변안벌이 있었기에 내시건 왕좌에 있을 수 있었다.

장군 변안벌, 동북면 호랑이 이성계와 맞서다

변안벌은 이성계와 맞서는 막강한 힘을 가진 위인이었다. 고려의 해구보명사에서 최대의 천자로 꼽히는 지리산의 광산대첩에서도 승리를 거뒀고, 최영장군과 함께 탐라를 정벌하는 업적을 쌓기도 하였다. 광산대첩에서 이성계, 이지란과 함께 변안벌은 양광도원주(楊光都元州)로 참가해 험악한 공노새였다.

탐라는 삼별초의 난(1370년)에 이후 원나라의 직할령으로 원에 말을 보급하는 무장을 만들었다. 탐라는 원의 소유가 됐다. 원의 육군(陸軍, 육로(陸路)의 첩포기 식에지자 이후 최영 장군과 함께 보벌해 되받았다. 공민왕(10)1(1361) 동경직을 물러쳐 이등공신이 되고, 이듬해에 재성을 수복하고 일등공신이 된다.

이성계는 위대 고려 자란이 아니었다. 그의 고조부 이안사가 본향인 원주에서 산성별감과 이인문 재로 도망갈 가 원나라 직할지역인 평성출판부로 들어가, 원나라의 신하가 되기 때문이다. 공민왕 2년 이성계의 부친 이자춘이 별성출판부를 결별하여, 공민왕에게 마치고 고려에 충성을 맹세한다. 그때 이성계의 나이 22세였고, 3년 뒤 아버지 이자춘이 즉자 원로장군이 되어 동북면 호랑이로 명실 올린다. 이성계는 1388년 위화도에서 회군을 한 후 익실하명을 피한다.

장군 변안벌은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할 때 현상에 있었다. 그렇기에 이성계가 고려를 위태롭게 할 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우왕의 복위와 이성계를 없앨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어 이원, 우원보, 이색 등과 함께 한양으로 유배되었다가 처형 당했다. 그는 뒷날 고려 말에 들어와 호로지 왕해 대한 충성을 다하다가 1400년 3월, 57세에 유명을 달리했다.



변안렬 묘역

이방원의 하여가 VS 변안렬의 불굴가

116
117

태은이 고려와 왕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깊었던가에 대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변안렬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성계는 자신의 생일잔치에 초대하였다. 이방원과 정몽주도 함께한 자리였다. 이방원은 정몽주와 변안렬을 떠보기 위해 시 한 편을 읊었다. 누구나 한번 씩 읊을조렸던 '하여가'다.

이방원:
 이편들 어떠하리 지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림같이 얻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얻어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그러자 정몽주가 '단심가'로 화답하였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배골이 진토되어 님이라도 잊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에 변안렬도 그 자리에서 '불군가'를 읊었다.

가슴과 구멍 틀어 동아줄로 부추 맺어
앞뒤로 끌고 덩기 갑자리고 쫓임방정,
일 향한 그 굳은 뜻을 내 뒤리고 굽히라

이방원의 '하어가니 정몽주의 '단심기'는 널리 알려졌지만, 변안렬의 '불군가'는 그렇지 않다. 이성계가 어쩔 수 없이 변안렬을 도려냈지만 그의 자식들에게 관직을 내리고 돌보아 주었다. 이성계도 그의 충절에 대한 화여의 제스처였으리라. 대역죄를 지은 자에게는 3대를 멸하던 추상같은 상황에서 서도 만이다. 태조는 조선을 개국하고 변안렬이 개국공신 이봉공신에 버금간다고 해 포상을 했다.

변안렬 묘역 주변을 돌아보다

변안렬 묘역은 남양주시 권간읍 용정리 산 197번지에 있다. 묘역입구에 있는 변안렬 상군과 그의 후손 묘역임을 알리는 안내도에는 모두 13기의 묘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 묘역은 최근까지도 후손들이 묘역을 잘 정비해 고려시대 원주 번씨의 위상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입구에 있는 신도비는 고유문으로 고유제를 드리는 곳이다. 나라나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 사당에 알리듯 이곳에서 고유제를 드린다. 한 가지 눈여겨볼만한 것은 1980 박정희 대통령도 직접 변안렬 묘역에 고유분을 올렸다. 이를 기념하여 새운 비석이다.

대은 변안렬의 치적을 적은 신도비는 선조 4년에 세워진 것으로 앞면에는 토끼가 방아를 찧는 모습의 문양이 있고 뒷면에는 태양 안에 삼죽오(三竹烏)가 새겼다. 삼죽오는 태양을 상징하고 토끼는 달을 상징한다. 오랜 세월의 흐름으로 신도비에 새긴 글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바랬다.

글이 따져 볼자면 세월의 흐름을 탓해야 할까, 아니면 바랜 글자를 탓해야 할까. 그러나 그 바랜 글자에서 장군 변안렬의 충심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은 어찌 바랄 수 있을까,

묘역에는 아주 특별한 표석이 둘 있다. 경북 문화문화원에서 1980년에 이곳을 방문해 기념식수를 하고 새운 비석이다. 두 도시의 문화 관계자들이 고려의 충신을 함께 기렸다는 것이 괜지 정겹다.

변안렬의 묘역에 오르다

변안렬의 묘역은 그의 부인과 함께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묘의 주변에는 양석, 문인석, 망주석, 향명등, 표갈등이 세워져 있다.

묘갈과 망주석만이 오랜 세월을 건디어 온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양석과 문인석, 장명등 등은 후손들이 새롭게 만들어 놓았다. 묘 앞에 두는 묘갈에는 '원원부원군변공지묘(原川府院君邊公之墓)'라는 글자가 간신히 알아볼 정도로 비바람에 벗기어 갔다.

부인의 묘와 함께 쌍분으로 묘가 재조성되면서 묘갈의 위치도 대은의 묘인 오른쪽으로 옮겨 놓은 듯하다. 돌로 조각한 양(羊)은 좋은 기운은 지키고 나쁜 기운은 뿔로 받아 내뿜으라는 의미로 새웠다. 망주석은 영혼이 밖에서 나갔다가 새 자리로 찾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장명등은 명당을 밝히는 석조물이다. 어느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다.

제사를 준비하는 재실… 추원재를 찾다

변안렬의 묘역에서 내려와 왼쪽 포장길에 이어진 후손의 묘들이 찾아 온 이를 반기듯 고개를 내밀고 있다. 묘역의 모든 제사에 제물을 준비하고, 제의를 담당하는 건물인 '추원재'에 도착한다.

추원재 정문은 삼문으로 된 솟을 대문이 있고, 숭모문이라 적은 편액이 있다. 이 재실 주변에는 대은 선생의 불굴가를 적은 비석이 있다.

추원재 담장 밖에는 소박하나마 작은 건물에서 조상과 묘역을 돌보는 후손이 살고 있다. 그 후손의 안내로 추원재 내부를 돌아본다. 종친들의 모임인 '화수회'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1일 원주 변씨의 시제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변안렬의 묘역을 떠나며

1990년대 전후로 변안렬 장군을 기념하는 '대은문화예술제'가 매년 봄에 열렸다. 현재에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독립 후 '다산문화제'가 열리면서 사실상 '대은문화예술제'가 폐지되었고, 그 명맥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 사람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기' 심상인데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땅 남양주시의 위인이 이 땅 위에서 잊혀져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땅의 위인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시민 스스로 역사지킴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원주 변씨와 대은 선생의 후손들이 그나마 작은 문화제를 열어 보전하고 있다니 우선은 안심이다.

고려말 충신의 대명사 복은, 포은, 야은에 비견가는 충신 대은 변안렬이 있어 남양주시가 충렬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대원군

덕흥대원군 묘



조선조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조선의 근본은 적장자이다. 적장자는 무조건 '원자 - 세자 - 왕'이 되는 수순을 밟는다. 왕비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거나 쫓겨나면 왕은 빠른 시간 안에 새 왕비를 맞이해야 한다.

왕과 처음 가례(황실의 혼인)를 올린 왕비를 원비, 뒤를 이은 왕비를 계비라 하며, 이들은 정비(正妃)로 중전이 되며, 내명부의 수장이 된다. 왕비의 아들은 대군, 딸은 공주가 된다. 반면 후궁이 낳은 아들은 군, 딸은 공주가 된다. 이성계가 1372년 조선을 개국한 이래 13대 명종까지는 중전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왕통을 이어왔다. 명종이 후사(왕을 이을 왕자) 없이 승하했다. 명종은 인순왕후와의 사이에 유일한 아들 순희세자가 있었으나 13살에 죽어 왕통을 이을 왕자가 없었다.

왕의 아버지 대원군

소위 종사(宗社,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주관할 세왕을 궁궐 밖에서 찾았다. 종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는 원소 명종의 사랑을 받았던 명종의 이복동생 덕흥군의 3남 하성군을 선택한다. 하성군이 바로 제14대 선조다. 조선 최초로 후궁의 손자가 왕좌에 오른 것이다.

선조는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大元君)이라 올렸다. 조선에는 덕흥대원군을 시작으로 16대 인조의 아버지 정원대원군, 25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 26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등 4명의 대원군이 있었다. 남양주시에는 덕흥대원군과 흥선대원군의 묘역이 별내동과 화도읍에 있다.

조선 최초 대원군 묘를 찾아서

이름의 길목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덕송리(덕물마을)에 위치한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 묘역을 찾아 나선다. 덕흥대원군의 묘역은 덕송리에서 노원구 상계동으로 넘어드는 고개에 위치한





덕흥대원군 신도비

다. 덕릉마을을 지나치자 덕릉예비군훈련장이 길게 늘어선다. 오른쪽 언덕에 "덕흥대원군 묘"를 알리는 갈색 바탕에 흰 글씨로 적힌 표지판이 130m를 가리킨다.

입구에는 허름한 과일가게가 자리를 잡고 있다. 과일보다는 포대로 쌓은 견봉무더기만 눈에 들어온다. 이런 곳에서 무슨 장사가 될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산불조심'이라 쓴 붉은 깃발이 가게 지붕에 걸렸다. 나중에 알 일이지만 대원군의 묘역 산림을 지키는 사람의 초소 겸 휴식처였다. 작은 정보라도 얻고 싶어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려도 인기척이 없었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됐다.

묘역으로 들어선다. 아브막한 언덕에 콘크리트로 만든 계단이 있고, 오솔길이 있다. 어디로 갈까 인공적인 계단보다는 오솔길을 선택한다. 밖에서 보았을 때 우거지기 시작한 신록으로 감렸는데, 눈이 시원할 정도로 흰한 묘역이 들어온다.

덕흥대원군 묘 어떻게 꾸었나

능선 중간에 거북이가 받치고 있는 신도비를 경계로 위아래 2기가 있다. 위쪽이 덕흥대원군묘이고, 아래쪽이 대원군의 장남 하원군의 묘다.

방분 가운데 서있는 비석을 살펴보니 "덕흥대원군, 하동부대부인정씨(河東府大夫 人鄭氏) 지묘(之墓, 아래 가운데)"라고 새겼다. 바라보는 이의 위치로 남편이 왼쪽, 부인이 오른쪽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런 종류의 비석을 묘표, 묘갈이라 한다. 이 묘표는 세월을 밀해 주듯 전반적으로 짐게 변하고 있다. 묘표(비석)는 어느 오래된 묘소에서 보듯, 위는 둥그렇게 마감을 했으며, 네모난 받침돌 위에 새운 방부원수(方趺圓首)형이다.

묘역은 상계, 하계 2단으로 꾸었다. 상계에는 봉분, 묘표, 혼유석, 상돌(상석)이 있고, 하계에는 무인석, 말주석, 장명등을 갖추었다. 이 석물들은 선조의 명에 의해 만들어져 그런지 어느 석물에 비해 안정감이 있고, 섬세하고, 입체감이 뛰어나다.

특히 무인석은 왕과 왕비의 능에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곳에 새웠다는 것은 왕의 아버지였기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무인석이 키는 2m가 넘는다. 왕릉에서 본 모습 그대로다. 묘소 10m 아래에는 덕흥대원군의 일생을 새긴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 남쪽에 생분이 있다. 묘표에 "현록대부하원군, 남양군부인홍씨, 지묘"라고 새겼다. 하원군은 덕흥대원군의 장남이다. 하원군의 신도비는 묘역 동남방향 숲속에 있다.

덕흥대원군은 누구인가

덕흥대원군은 조선 11대 중종과 장빈 안씨(莊嬪安氏) 사이에 태어났으며, 중종에게는 7번째 아들이다. 장빈은 중종과 2남(영양군, 덕흥군) 1녀(정신옹주)를 낳았다. 덕흥대원군의 이름은 이초(李紹)로 중종25년(1530)에 태어났다. 9살에 중주부관사를 지낸 정세호(鄭世虎, 해주)의 딸과 혼인 하원군, 하룡군, 하성군 등 3명의 아들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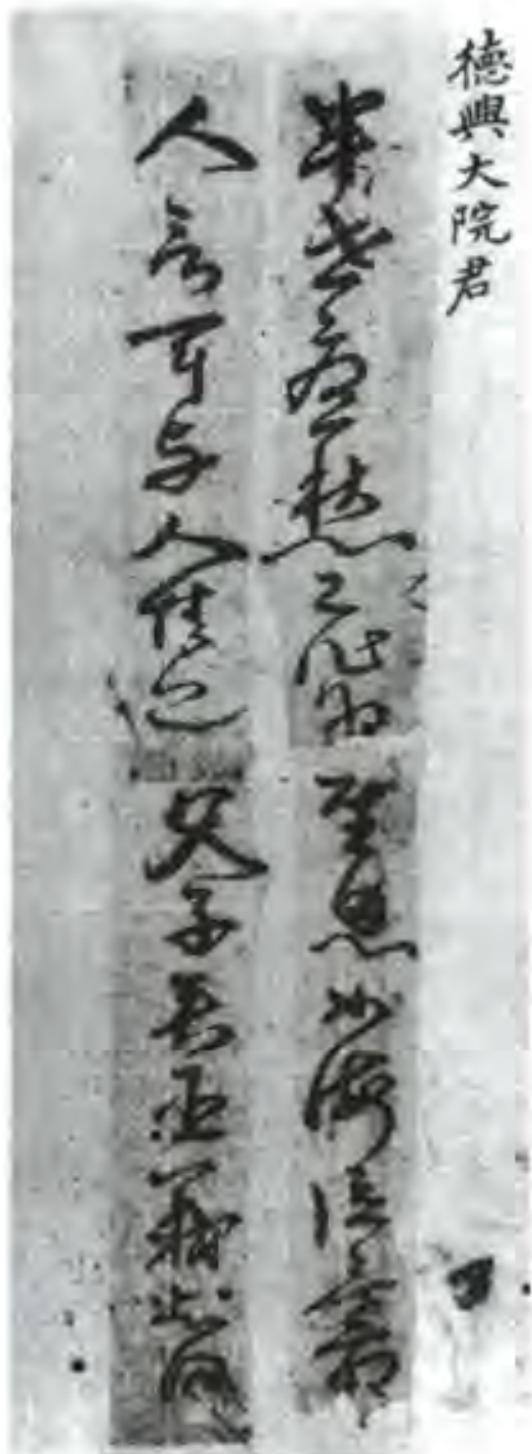
부인 정씨의 아버 정세호의 증조부가 영의정을 지낸 정인지이다. 병종14년(1559) 30세의 나이로 평범하게 인생을 마치고, 수락산 아래 이곳에 매장하여 오늘에 이른다.

그의 존재와 무덤은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수많은 왕족과 마찬가지로 자칫 잊혀질 존재가 될 뻔 했다. 천운이 그들 부자(父子)에게 닿았는지, 마네아들이 명종의 양자로 들어가 왕이 되면서 능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음은 물론 조선 최초의 대원군이란 상징적인 의미까지 지니게 되면서 일약 유명해진다.

덕흥대원군에 대한 시시콜콜한 삶의 이야기는 크게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종친에 따르면, 호방하지는 않았지만 예외병점을 잘 지켰던 왕실가족이었다. 다행히 그의 글씨가 한점 전해지고 있어 그저 왕손으로 반듯한 선비였음을 알 수 있다.

선조, 후궁의 소생 불만... 덕릉으로 올리자

선조는 부친이 후궁 소생이라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왕족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



德興大院君

지면 시일이라 정통성이 크게 떨어진다
 큰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약점을 극복
 하고, 왕권을 강화할 전략으로, 생부에 효
 도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여, 즉
 위 이듬해인 1568년 대원군 제도를 시행
 한다. 이에 성이 차지 않은 선조는 부친의
 묘역을 왕릉으로 높이려고 했으나, 신하
 들의 반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선조가 아버지의 묘를 능으로 올리지 못
 한 예뜻함이 담긴 이야기 한 편이 권한다.
 상심에 빠져있던 어느 날, 내관이 좋은 방
 도가 있다며 속삭이듯 아뢰다. “동대문 밖
 에 숲을 사코파는 시탄전에 사람을 보내
 나무와 숲을 치고 온 나무꾼들에게 어디
 서 왔는지 물어서 덕흥을 지나왔다고 하
 면, 밥과 술을 대접하고 값을 두하게 쳐주
 십시오. 금세 덕흥대원군의 묘가 아닌 능
 으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내관의 건의에
 미소를 띤 선조는 바로 동대문 시탄전에
 막대한 돈을 뿌리기 시작했다. 예나 지금
 이나 돈이면 안되는 게 없는지라 돈을 뿌
 린 만큼 효과가 나타나자 선조는 기뻐다.
 나무꾼들의 입소문은 수락산 인근은 물론
 한강이 흐르는 경기도 서남부 지역은 물론
 멀리 강원도 지역까지 퍼져 나갔다.

정말 덕흥대원군 묘역이 어딘지도 모르
 고 근처에 갈 일도 없던 강원도와 타 지역
 나무꾼들까지 한몫 챙기고자 햇복에 나무
 를 바리바리 싣고 올라와 너도나도 덕흥
 을 지나왔다고 하니 순식간에 덕흥대원군
 의 묘는 ‘덕흥(德陵)’으로 자연히 격이 높
 아졌다고 한다. ‘덕흥’은 그 시절 최대의 유행
 행어가 되었다고 한다.

덕흥대원군 초서한시



덕흥대원군 묘

덕흥마을은 덕흥대원군과 관련이 있어

이런 이유로 수탁산 덕흥대원군묘역 아래 마을은 자연히 덕흥마을이라 불렸다. 횡하리와 상계동을 넘나드는 고개도 덕흥고개가 됐다. 선조는 덕흥의 관리를 위해 1568년 흥국사(흥국사)를 원찰로 정하고 탁대한 제정을 지원했다. 민초들은 이 절을 '덕절'이라 불렀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덕흥'으로 부르는데 성공은 했으나 선조가 세상을 본 후에는 다시 '덕흥대원군의 묘'로 부르게 됐다.

묘역에서 마을을 내려다 본다. 현대와 과거가 잘 어우러진 마을이다. 흥국사를 먼저 찾는다. 대원군을 위해 세운 절답게 건물 내림마루에는 왕실건물의 상징인 잡상을 설치했고, 대웅전 둥근기둥에는 왕릉 정자각에서나 볼 수 있는 백분칠과 청띠를 들였다.

덕흥 마을의 중간에는 덕흥사(德興寺)라는 덕흥대원군의 재실이 있다. 이곳에는 장빈 안씨(음 10월 8일, 동작동 한충원 소재), 덕흥대원군(음 5월 9일), 하동부대부인 정씨(음 5월 18일), 하원군(음 10월 3일), 남양군부인 홍씨(음 10월 17일, 하원군의 첫 번째 부인), 연안군부인 이씨(음 1월 11일, 하원군의 두 번째 부인) 등 6위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낸다.

이처럼 덕흥대원군과 그 일가들, 더불어 흥국사라는 천년 고찰과 마을 전체가 한 사람 덕흥대원군의 숭경로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운 따름이다. 마을 밖을 나선다. 길가에 칠썩이 떠나는 이의 여운처럼 살랑인다. **■**

시민취재·채규중



아직도 달혀있는 문

홍선대왕군 묘역

어느 여름날 휴가철에 경춘국도를 따라 강원도 방항으로 차를 몰다 무연히 본 갈색 바탕에 흰 글씨로 적힌 표지판 흥선대원군묘. 그때 '야! 그 양반 묘가 이 근처에 있나보다.' 라고 생각하며 무시로 지나쳤다.

흥선대원군이 누군인가. 조선왕조 역사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물. 왕도 아니면서 왕 못지않은 족적을 남긴 거인(巨人). 구한말 아들과 며느리, 외세에 의해 과탄만장한 삶을 살았던, 몇 해 전부터는 명성황후에 밀려 자연스레 우리나라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진 이가 아니던가. 그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거인을 만나러 가다

화도를 장현리의 거인을 찾아 절춘국도로 나선다. 화도를 장현지구 시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첫 이정표를 만나고, 내어쉴 곳에 위치한 화살표를 찾느라 차창으로 고개를 바끔히 내놓기도 했다. 이리 묻고 저리 물어 일림주택이 들어선 골목길로 들어선다.

묘역 입구를 알리는 표지석이 보인다. 드디어 찾았다. 입구는 돌문으로 가로막혀 있다. 마치 대원군의 왜국정책의 상징인 석화비를 만난 느낌이다. 차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여기서부터는 발품을 팔아야 한다.

돌문으로 들어서자 오른쪽에 묘지를 관리했던 너른 집터가 보이고 오솔길이 펼쳐진다. 산책을 하듯 여유차려하면서 꼬부랑길을 걷는다. 건너 산아래 은행나무가 어느새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다. 낮선 나그네를 부끄럽게 맞이하듯 이파리들은 햇살 속으로 숨는다. 200m 쯤 올라갔을까 도토리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초행길이라 멀게만 느껴진다.

국태공원소(國太公園所)라 새긴 표석이 보인다. 신도비도 보인다. 표지판도 보인다. '이제, 도착 했구나.' 안도의 숨을 내린다. 살아서 대원군이 된 이의 묘에 도착한 것이다. 국태공, 함하, 대헌의 대강이라고 불리었던 역사속의 풍운야. 그가 잠든 묘역은 지나느니 바람소리, 새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하고 고즈넉하다.

끊어진 왕통을 이어라

조선 후기를 장식한 24대 순조, 24대 현종, 25대 영조 3대는 칸들 김씨의 새싹이었다. 단종 김판(金判)은 1842년 6월 6일 현종이 후사(後嗣)없이 국자, 대왕대비 순위왕후(순조의 비)는 강화도영 위병을 19세에 순조의 아들로 삼고 알위에 올랐다. 그의 아버지가 조선 세 번째 태위군인 전계대위군이다. 할아버지 당시 왕실의 유일한 비둘기였다.

영조는 재위 14년간 세도정치로 소용들이 속에 있었다. 그리 무능해 보이는 왕은 이색에 빠져 정치를 바로잡지 못한 채 33세에 승하한다. 현종왕후와 6명의 후궁을 통해 5명의 왕자를 생산했으나 모두 어리서 죽고 영세유군만 남는다. 물주는 궁궐 밑에서 초생으로 발명효에게 길들였다.

당시 궁중 최고의 어른인 조대비(신정왕후, 현종의 어머니, 추존왕 문조의 비)가 태일리에 종전을 부른다. 그리곤 둘째 아들 재황을 양자로 들인다. 종전은 살아서 권좌에 오른 마지막 태위군이 된 것이다.

정권을 위해 파락호가 된 잠룡

종전태위군 이하응은 '영조-실초(사도세자)-은진군-남연군-홍산군'을 잇는 세력으로 순조 20년(1820) 남연군과 이흥 밑에서 태어났다.

어리서 김창희의 제자가 되어 시에, 그림, 글씨 등을 두루 배운다. 그러나 어머니, 만행, 아버지가 연속으로 사망하면서 고아가 된다. 1834년 장3촌 홍천도정으로 증직할 위에, 현종 11년(1836) 장자의 작위인 종신군이 되었다. 후에는 별 영향력이 없는 직책을 지냈다.

현종이 승하하고, 실종이 임금이 오르자 종신은 먼저 안동김씨 세력에 속해 그날의 권세를 이용해 왕을 한다. 왕족의 재변도 밟아 버리고 서경왕매들과 어울리며, 상감된 개가 되어, 세도가의 호만 받지만 분사거나 하인에게까지 비웃음과 멸시도 아다하지 않았다.

승급이나 팔이라도 떨어지면 붓을 잡고 된 초를 그려 고관대각의 깊은 찾아가 용돈이라도 췌다. 세 도가의 눈을 피해 스스로 파락호가 되어 정권공급했다.

그는 이인 후보를 죽인 잠룡(潛龍)이었다. 1835년 실종이 죽어 12살여러 둘째 아들 재황이 어종(순조의 아들 효명세자, 문조의장제)이 양자로 입적시켜 왕위에 올린다.

고종의 태자가 어리고 왕의 수입을 받지 않았다는 전래에 따라 조대비가 수렴집정을 했다. 그러나 태정(太政 임명)을 함란하게 했다. 는 명분으로 종신은 조대비의 입정을 이어받는다. 10년간 영조 하였던 정권을 하나의 화내 필치는 현실적인 통치자가 된 것이다.

대원군 대대적 개혁 단행… 독단적 결정 쇄국주의의 원흉

김권 초기에는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복원했고 안동 김씨 세도정치를 종식시키고, 당쟁의 원인이었던 시험을 철폐하고, 말재를 초침해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국가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아울러 권주교를 단입했으며, 서양세력의 침략에 대비하여 풍신요정을 거부하고,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겪기도 했다. 일본이 국교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등 강력한 대외정책을 폈다.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 흥선은 김권 11년 만에 은퇴한다. 고종이 22세 되던 해인 1873년 11월 원정출신포행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은 바로 명성황후에게도 넘어갔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왕권을 되찾았으나 지나가 군대에 남치되어 원정에서 3년간 불교생활도 하였다. 1885년 귀국한 후에도 윤현궁에서 재기를 노리던 중 원세개와 합력하여 장남 '세민(홍권왕)'을 왕으로 세우려다 실패하였다.

1895년에는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흥선은 이 사건에 간여되었다고 피살을 받았다. 이때다 싶어 흥선은 아들 고종과 대적하면서 정권을 다시 찾으려 했으나 1896년 1월 부인의 죽음을 먼저 보고, 그도 2월에 사망한다.

고종은 정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을미사변(1895년)에 흥선이 개입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을미사변 2년 만에 명성황후의 상제가 천영 중이라는 고종의 핏계도 동원할 것이다. 사후 1907년 순종 황제는 대원왕(大元王)으로 숭했다.

흥선대원군은 쇠비한 국운, 피폐한 국성, 실추된 국력을 일으킨 개혁정치와 상성, 또는 근세화를 가로막은 쇄국주의의 원흉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흥선대원군 묘는 어떻게 꾸몄나

흥선대원군 묘역은 조선시대 능원제도를 따르는 듯하나 대군에 맞도록 간략하게 조성됐으며, 서향을 하고 있다. 상하 2단으로 나뉘어진다.

상단에는 봉분 바깥쪽으로 5개의 곡담을 둘렀고, 봉분 아랫부분에는 호석으로 받쳤다. 봉분과 곡담 사이에는 석양 1쌍을 배치했다. 묘 앞에는 장석이 있다. 장석에는 나머지 두 분암을 새긴 받침돌(고석)이 1개 있다. 하단에는 당주석, 문인석, 석마가 좌우에 각 1쌍이 있고, 묘 앞 중앙에는 사각으로 만든 장명등이 있다.

국태공원소라고 적은 표석은 광무 9년(1905)에 세워지며, 이외비의 글씨다. 예서체로 적은 표석 뒷면에는 원장과정출 기록했다. 묘의 좌측 15m 쯤에 신도비가 있는데, 치석이 모습을 한 귀부인을 바



홍선대원군신도비

침들로, 팔각지붕의 옥개석을 모자로 쓰고 있다.

마문에는 “대한헌의대원왕홍원신도비명”이라고 새겼다. 이 비석은 을미 21년(1927)에 세워지며, 김학전이 전서체로 비명과 글 내용을 짓고, 이재극이 글씨를 썼다. 6.25전쟁 당시 탄흔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홍선대원군 묘역에는 원권 언덕에는 증조할아버지 낙천군(사도색자의 6남), 할아버지 남연군, 장남 이재면(홍천왕), 이재면의 아들 이준, 이우, 이정, 이준의 아들 이종의 남쪽묘와 비석이 있다.

홍유몽이 고종과 관련된 황실 무덤군이라면, 이곳은 홍선대원군과 그의 일가 무덤군이다. 홍선대원군 묘역은 1978년 10월 20일 경기도 기념물 제 48호로 지정했다.

죽어서도 세 번 옮긴 영원한 풍운아… 아들과 며느리 홍릉 근처로

광무 2년(1898년) 2월, 대원군이 서거하자 경기도 고양군 공덕리(현 마포구 공덕 4동)의 운현궁 별장 아소당 뒤뜰에 묻혔다. 아소당은 구한말 개혁의 의지를



홍선대원군 묘

130

131

별쳤던 곳이다. 10년 뒤 조정은 그의 묘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로 옮겼다. 하지만 문산 일대에 미군 군사시설이 들어서자, 1966년 4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세 번째 만년 유해를 잡는다.

최화비까지 세우며 완강하게 외세를 배척했던 채국주의자 이하응은 죽은 후에도 외세에 밀려 설 곳을 옮겨야했다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어쩌면 그의 권력발판이었던 아들 고종이 누워있는 남양주시 금곡동의 홍유릉을 따라온 것은 아닐까. 살아서는 왕을 아들로써 대하지 못했던 정이 죽어서 더욱 애뜻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홍선대원군의 묘역은 생전 그의 고집처럼 보인다. 나라의 문을 굳게 닫아걸었던 것처럼, 그의 묘역도 외부인들에게는 숨겨져, 발길을 막고 있으니 말이다. 한때 세상을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했던 한 사내의 봉분 앞에 서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태공왕(太公望)의 혜안을 느껴본다.

홍선대원군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116년이 흘렀다. 지금도 운현궁에서 긴 담뱃대를 물고 정국을 바로잡고자 동분서주하는 거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묘역을 나서는데 백봉산으로 해넘이를 한다. 묘역을 비치는 햇살이 예사롭지 않다. 조선말 외세와 머느리와 아들과 가졌던 긴장감을 이제는 잊고 편히 쉬라는 암시와 백봉산 너머에 있는 아들(고종)의 능침을 그육이 해와 같이 넘어가는 듯해 웬지 측은함이 가을바람을 타고 가슴으로 안긴다. **■**

시민취재·채규중

漢陽趙公東阜之墓

청록과 시인을 기리다

조지훈 묘역과 시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역으로 간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시비(詩碑)가 하나 있다. 우리나라 서정시를 대표하는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풀잎단장'이다. 이 시비가 이곳에 왜 있을까, 그 연관성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서정시의 효시(曉示)로 부르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묘소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역 뒤편 언덕에 고즈넉이 자리해 있기 때문이다.

이 시비는 바쁘게 역을 오가는 이들의 쉼의 영혼을 맑게 하고 고단한 삶으로 여된 영혼을 어루 만져주는 한 편의 시이기에 충분하다. 시비 앞에 서서 풀잎단장을 읽어 내려간다. 내 영혼을 위해……

“무너진 성(城)터 아래 오랜 세월을 불철(風雪)에 휘어흔 바위가 있다.

아득히 손짓하며 구름이 머무는 언덕에 말없이 올라서서

한 줄기 바람에 초콜릿 젓가락은 풀잎을 따라보며

나의 풍가림도 또한 철오리 같은 바람결에 흔들리노라.

아, 우리들 태초의 생명의 아름다운 분신(分身)으로 여기 내이나
고달픈 얼굴을 마주 대고 나직히 웃으며 애가하노니

때의 효유(效유)이 조용히 불결치는 곳에 그윽히 피어오르는 한 열기
영혼이여.”

-1952년 발표한 시집 '풀잎단장' 전문

조지훈 묘역을 찾아가는 길

옛날 우시장이 있던 마석장의 아련한 기억을 더듬으며, 수동으로 향하는 일방통행 길을 따라 간다. 왼쪽에 “시인 조지훈 선생 묘” 팻색 표지판이 보인다. 이곳을 풀방구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지만 선생의 묘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들었으니 내 무심함을 먼저 탓한다.

들뜬 마음으로 상가 골목을 지나 계단을 오르며, 동산을 30이분 헤맸다. 참나무 숲속에서 타인의 묘, 몇 기 발견했을 뿐, 선생의 묘역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침석중고등학교 뒤편에 있다는 지인의 말에 그저 막연히 부지런한 총부에게,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고교생에게 물었지만 선생의 묘소를 아는 이가 없었다.

"얘들아, 조지훈 선생의 묘소가 어디 있니?" "저희 학교에는 그런 선생님이 안 계시요." 고교생과 우문우답을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안내대로 마석교회 뒤편 운동장으로 간다. 눈앞에 보이는 갈 다듬어진 묘소, 갠걸음으로 갔으나 영일 정씨의 각리다.

다시 동산으로 올라가 동료와 좌우로 나누어 찾았다. 그렇게 또 10여분이 흘렀고 환히 내 눈에 들어온 두 봉분. 감철재 화강암 묘갈에 "지훈 한양 조공 동탁 지묘(芝薰 漢陽 趙公 東卓 之墓)"라 적혔다.

선생의 묘소는 일한 유교의 집안에서 늘 인자하게 대해주었던 어머니 문화 유씨 묘를 뒤에 두고 있다. 선생의 묘역 전경은 흰히 트인 농지 앞에 마석역이 보이고 백봉산이 덩그러니 지키고 서 있었다.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쉰다. 지훈(芝薰)은 호이고 본명이 동탁(東卓)이란 사실도 다시 새겼다. 시인에게 묵념을 하고, 분후의 명작 '송무'를 읊조린다.

맑은 사(沙) 하이안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파르라니 짙은 머리
박사(博士) 고깔에 갈추오고
두 봉에 흐르는 빛이
정차으로 고하서 서러워라.
번대(番臺)에 황축(黃犢)불이 말없이 하는 밭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들어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피씨보신이어
까만 눈동자 샅보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시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별꽃이어
새사에 시달려도 번쳐(緋緋)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뺨이 붉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함장(含量)인 양하고
이 박사 귀포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맑은 사(沙) 하이안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1946년 청북집에 수록된 조지훈의 '송무' 전문

지훈과 마석의 인연을 풀다

우리고장의 인물을 주은 할 때 흔히 생거(生居), 우거(寓居), 사거(死居)로 구분한다. 생거란 한 고장에 태어나고 성장한 이를, 우거란 벼슬 또는 귀양으로 머물며 죽적을 날긴 이를, 사거란 죽어 온 이를 말한다. 조지훈은 사거에 해당된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시세계를 지켜온 시인, 확고한 나라정신으로 후학에게 귀감이 된 사학자, 그가 어머니 곁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유언을 자손들이 받아들였다. 1968년 남양주시와 가까이 있게 된다. 48세의 길지 않은 삶, 시인으로 수필가로 국어학자로 역사학자로 그가 이 땅에 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거래는 물론 그가 누워있는 남양주시 마석의 족보를 그 어디에 미한까.

남양주시 문인들 지훈을 기리다

남양주시에는 크고 작은 문인들의 모임이 여럿 있다. 각 모임마다 조지훈을 기리자고 화자 되었지만 이를 실천한 단체는 (사)한국문인협회 남양주시지부다.

2011년 봄, 당사 이용호 지부장은 '조지훈문학제 집행위원회'를 결성하고, 8월 28일 추모제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면서 남양주조지훈문학제를 실행했다. 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제2회 조지훈문학제는 2012년 9월 20일에 열렸다. 마석의 광장에 사바를 새우고, 조지훈을 남양주시의 대표문인으로 알리기에 나섰다. 이

날 행사는 고유재, 전국청소년백일장, 조지훈시낭송대회, 대표시 '승부' 창작부흥, 창작국악공연, 남양주문학 발전을 위한 토크콘서트 등으로 하루 종일 조지훈을 말하고, 조지훈을 기렸다.

제3회 조지훈문학제는 2013년 9월 10일에 있었다. 이날은 시인의 장남 조광렬의 아버지 조지훈, 시인의 제자 오달번 고려대 명예교수의 '스승 조지훈'을 주제로 문학 강좌를 열었다. 이시백 소설가, 이동근 시인, 전형철 시인에게 문예창작지원금도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던, 시인의 동상제막식은 관계기관과의 의견차로 불발로 끝나는 아쉬움도 있었다. 네 번째 문학제는 올 11월 8일에 개최했다.

조지훈문학제에는 시인의 유족과 제자, 경량각지의 문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남양주시의 문학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제4회 조지훈문학제 모습

지조의 시인, 조지훈

“지조(志操)란 것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생철한 확신(確信)이요, 고귀한 투쟁이거까지 하다.”

조지훈 시인의 ‘지조론’에 나오는 말이다.

흔들림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일인가. 비록 되지 않는다는 불혹의 나이에 이르러서도 가끔은 그 고독을 내려놓고 부리 속에 들어가 있음에 스스로 위안이 되지 않던가, 조지훈은 가까이 고독을 감내하는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였다.

특히 지훈을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칼아버지 조인섭(趙寅錫)에 관한 얘기이다. 조인섭은 구한말에 사헌부 태간을 지낸 사람으로 학문과 문장에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유림의 중추에 있던 가문에서 자란 그였지만 교섭적이지 않았으며, 일제식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 아들을 모두 일본에 유학시킨 현실주의자였다고 한다.

조인섭의 사색관은 “인불차(人不借), 문불차(文不借), 권불차(錢不借)”라는 가훈으로 대명된다.

조지훈은 수태에 걸려 한양 조 씨가 동족을 이루어 온 경복 영양군 일원면 주곡리의 종대에서 17살이 되어 당경하기 전까지 조부와 함께 살았다. 이후 시련 삶이 되어 조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조지훈의 직제는 조부의 뜻 아래 있었을 것이다.

탄압에 굴하지 않다

조지훈이 태어난 것은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12월이었다. 당시 봉안에는 각종 동인지가 발간되고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발표되면서 현대문학이 대중의 문화로 자리 잡던 시기였다.

문학 작품의 원형 속에서 조지훈은 서민 지향적이던 형 등진과 어울려 다니며 시를 짓고 동인지를 발간하면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조선 어린이의 삶 역시 일제 치하에 있는 것이었기에 파울 소년이 만든 동인지는 일제의 검열을 피할 수 없었다.

1940년대에 이르러 조선어로 된 모든 신문과 잡지의 발행이 중지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당하는 등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문학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1937년 문장(文聲)지 창간을 계기로 본격적인 문예활동을 시도하려던 조지훈은 일본의 일제 선전물이 요구를 거부하고, 오대산으로 들어가 수개월 동안 동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후 오대산에서 내려와 조선어학회의 국어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이 일로 인해 일제의 심문을 받게 되면서 해방이 될 때까지 일제의 심문을 피해 탈탈과 살생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였다.

청록파 시인, 조지훈

조지훈이라는 이름에 청록파라는 말이 자연스레 따라붙는 것은 학창시절 국어 선생님의 거듭되는 강조가 있었기 때문이리라. 당시 낯선 시인의 작품을 두고 형식과 시어를 과해치는 일에 골몰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졌었다.

시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시인의 경서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시를 통해 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때 훨씬 감동적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시를 짓기보다는 감상하는 사람의 입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화가 일지 않고 있다.

죽은 형의 몸을 짊어지고, 굶어오르는 피를 억누르며 일제의 눈을 피해 오대산 월정사로, 고향 주실로 몸을 숨겨야 했던 그 울분과 수치의 시간을 견뎌내고 해방을 맞았을 때, 지훈은 비의 상한 몸으로 폭발하듯 민족혼을 표출하였다.

일찍이 “원소리에 대한 일 고찰”을 발표한 경험과 국어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조지훈은 해방 직후 조선어학회의 ‘중등국어교본’ 편찬 작업과 진단학회의 ‘국사교본’ 편찬 작업에 참여하는 등 민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러나 관희와 기쁨을 맘껏 누릴 새도 없이 불화계는 이념의 대립이라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쳐 문학의 기능을 두고 첨예한 갈등에 부딪치게 되었다. 당시 조지훈은 민족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분투하는 가운데 박두진, 박목월과 함께 청록집을 발간하였다. 당시 청록집은 주상적인 논쟁에 치우쳐 있던 문단에 모범적인 표현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질근 감상자이나마 필자 역시 청록집의 덕을 토틈히 보고 있다. 너무나 함축적이거나 너무나 뻔해서 감정을 이입시켜 볼 수 없는 다른 그것과는 달리 조지훈의 시를 읽을 때만큼 지루함은 없지 않은가.

조지훈 묘역을 떠나며

조지훈은 자신이 처한 사회에 대해 관심을 놓아 본 적이 없다. 나날 때와 물러난 때를 가렸을 뿐 그는 언제나 사회의 주역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 그의 강한 민족애는 그의 역경 속에서 견고해져 그의 내면의 일관된 가치가 되었다. 그런 그의 시선이 꽃에 이르렀다고 그의 마음이 꽃에만 머무른다 말할 수 있겠는가? 미칠 것 같은 마음의 토로가 그저 혼자만의 닢두리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의 시를 읽으면 개인의 서정이 잔잔하게 울리면서도 민족에 대한 연민으로 울려하는가 보다.

조지훈 시인이 사후 마석으로 온지 올해로 46년을 맞이한다. 48년 그의 생과 암먹는다. 스무 살 안팎에 지은 시들을 청록파라고 남들이 인정한 서정시인이요 묘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무한 행복이다. 



죽었지만
죽지 않은
이들의 공간

마석 모란공원민족민주열사묘역

남양주에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꾸린지 어느새 강산이 변한다는 할 수 년이 지났다. 마치 아니 화도읍의 중심인 마석우리를 찾은 것은 마석5일장을 구경삼아 빛 차례 갔던게 고작이었을까.

마석장터에서 승용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직항속에 있었던 민족민주열사의 묘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비르다 모란공원민주열사공원을 찾았다.

이순(李順)을 남긴 삶을 살았지만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지랖 넓게 한위나 찾으며 지나온 세월이 부상해진다.

언제부터 여기에 모였나... 1970년 전태일이 처음 찾아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원산리 606-1번지가 모란공원의 대표 명지다. 이 공원은 1966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묘지로 조성됐다. 1969년부터 경향각처의 주검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사설 공원묘역이다.

일반인들의 묘역과 동떨어진 입구에 민족민주열사의 묘역이 된 동기는 전태일이 처음 찾아왔기 때문이다. 전태일은 1970년대 노동운동의 키워드가 아닌가. 이후 그와 비슷한 사면을 지낸 희생자들이 그의 곁에 묻혀졌노라 하나들 모이기 시작했다.

전태일이 이곳에 온 사연은 단순하다. 당시 서울에서 먼 거리로 이기 풀요와 혼란을 막으려는 공안당국의 써에서 비롯됐다.

아무나 여기에 들어올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저금은 그러한 절차를 밟은 109위와 그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들을 포함 130여위의 넋이 모여 생전에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노라 힘찬 합성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묘역 중간 중간에는 솟대가 있다. 솟대를 지탱하는 장대에는 109위의 명찰이 있다. 이 명찰을 따라가면 무덤을 뒤 찾을 수 있다. 그들의 묘소에는 문홍색 꽃말을 새워 열사의 사진과 이력을 적었다.



못 이룬 꿈 하늘에서라도... 민주주의자들의 국립묘지

"만인을 위한 꿈을 허늘 아닌 땅에서 이루고자 한 청춘들 누웠나니, 스스로 몸을 바쳐 더욱 푸르고 이슬처럼 살리라던 맹세는 더욱 가슴 지미누나. 의로운 것이야말로 진실임을, 싸우는 것이야말로 향심임을 이 비 앞에 서면 새삼 알리라. 이두운 세상 밝히고자 세 자신 바쳐 태방의 등불 되었으니 꽃 닳들은 눈산 차의 빛이요 별된다. 지나는 이 있어 스스로 빛을 발한 이 불멸의 영혼들에게서 삼가 불 피를 구할 지어니."

묘역에 설치된 추도비의 비문(碑文) 전문이다. 이 비는 1997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서 세웠으며, 서해성이 글을 짓고 박용길과 천용복이 판석을 했으며, 홍성단이 설계와 조각을 했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의로운 진실과 싸우는 양심이었던 저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비문이다.

직업병, 산업폐해, 고문고사, 서면살인, 이혼자 등 죽음의 종류도 다양하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최후탄과 봉동이에 저항하던, 자신의 몸에 불을 사르고 민중, 민주, 민족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들이 보였기에 "민주주의자들의 국립묘지"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암울한 근로자... 15세 소년 문송면

묘역 제일 높은 곳에 15살 소년 문송면의 무덤이 있다. 문송면은 수은온도계 공장에서 2달간 일했던 소년 근로자였다. 그러곤 힘없이 죽었다. 사인은 수은중독. 화려한 개발시대 뒤에 숨겨졌던, 열악한 작업환경 현실과 직업병 문제가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재중과 난청만이 유일하게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던 사실이다. 1986년 소년의 죽음과 비슷한 시기 원진레이온의 아황산탄소(SO2) 집단중독사건은 걸 세계가 경악했고, 우리사회의 맞이슈로 떠올랐다.

1970년 원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 외치고 몸에 불을 살렸고, 노동조합을 지키려다 회사 측에 의해 피습을 당해 죽음에 이른 22살의 김진수, 회사의 불을 단지 말라고 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던 중 옥상에서 불을 뿜던 21살의 Y11여성근로자 김경숙. 이들이 노동권과 근로기준법으로 싸웠다면, 80년대에는 작업환경문제가 노동자의 외침이었다. 그 한 가운데 있었던 노동자들이 이곳에 모여 그들이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직업병 전문병원을 세우게 한... 원진레이온 김봉환

남양주시에는 원진레이온이란 미스코스 화학사 원년공장이 있었다. 지금 남양주시 도농동 부일



전태일 동상

140

141

아파트자리다. 원진레이온은 도농동은 물론 구리시까지 메케한 냄새를 풍긴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공해업체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직업병으로 죽은 노동자 김봉환. 그는 이 공장에 7년간 근무를 하던 중 몸이 아파 1983년 퇴사한 후 직업병 관정을 받았다. 회사나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해 결국 1990년 1월 5일 사망했다. 그의 장례절차에 문제가 생겼다. 직업병을 인정하라는 근로자 측과 인정할 수 없다는 회사 측은 팽팽히 맞섰다. 결국 회사는 장례식을 폭력으로 막았다. 헌직, 퇴직 근로자들은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직업병을 인정하라' '김봉환을 살려내라'는 호소와 투쟁으로 137일간 장례를 미뤘다.

원진레이온은 1964년에 화신그룹의 중수 박흥식이 일본 동양레이온(현 도레이)의 중고기계를 들여와 1966년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비스코스 인견사를 생산했던 공장으로 1993년 폐업했다. 29년간 호황을 누렸지만 안전설비가 미비했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신경독가스인 이산화탄소에 노출되어 중독 증세를 보였다.

김봉환 역시 아황산가스에 중독되어 정신분열을 일으키다가 사망했다. 노동자들의 이유 있는 시위와 농성은 국내외에 핫 이슈가 됐다. 근로자들은 1988년 '원진레이온 직업병피해자가족협의회(일가협)'를 결성했고, 1993년 원진재단을 설립했다. 결국 1989년에 29명, 1993년에 257명이 직업병 판



직업병노동자 김봉환의 묘

정을 받았다.

김봉환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병 전문병원인 원진녹색병원을 구리시에 세우게 했다. 또한 원기협을 통해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하다 힘없이 죽어간, 또한 같은 이유로 죽음을 기다리는 근로자와 직업병 환자에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게 했다. 원진레이온의 김봉환도 이 공원에 누워있다.

민주주의 운동의 선각자들

20대에 일제의 학병을 거부하는 항일운동에 참여했고, 1950년대 말 소위 진보당사건으로 위축됐던 민주화운동진영을 복원시킨 민주운동의 1세대, 4·19의거 당시 학생운동 아버지, 사회운동가로 높은 권 고부신을 신었던 계훈제 선생도 여기에 잠들어 계신다.

두 해 전 64살 아쉬움이 많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민주주의자'라는 묘비명이 그의 일생을 대신하고 있는 김근태 의장. "나보다 어린 너희들이 먼저 여기에 왔느냐"며 외치던 민주와 통일운동의 대부분이한 독사와 영원한 썩지 박용길 장로. 이들의 긴 인연을 2014년 봄 들녘에서 만난다. 문 목사가



모란공원 민주열사 추모비

142

143

‘꽃뚱, 박 장로가 ‘봄길’이기 때문이다.

31년 전에 읽었던 한 권의 책이 있다.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전태일 평전”이다. 이 책의 원작자가 조영래 변호사라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 조 변호사는 7, 80년대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인권을 대변하고, 꽃은 입을 뒤에서 도맡다가 1990년 43세로 하늘의 무를 올랐다. 조 변호사는 그 시대 젊은이들의 멘토였다. 근로자의 어머니이자 전태일에게는 영원한 언니 미소선 여사도 이곳에서 영면하고 있다.

전태일과 박종철... 이들의 닮은 점은

박종철의 묘소는 북쪽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다. “타치니 일하고 죽었다”는 시내어의 주인공이다. 1987년 23살 그의 죽음은 세상을 뒤집었다. 6월 항쟁의 기록제가 됐고, 노래부 6.29선언이란 항복을 받아 냈으며, 대통령직선제를 되찾았다. 이곳 묘지에는 그의 시신이 없다. 공안경찰의 갖가지 고문 중에 목숨을 잃었고, 시신은 화장되어 임진강에 뿌려졌다. 그의 누나가 짜준 스웨티가 그의 주검을

대신하고 있다.

이 둘이 광동형은 부정일까. 권태일은 산업의 시대에 인위운동의 시의이고, 박종철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을 만들었다. 이 둘은 우리나라 노동과 민주화운동의 실지에 물을 붙이게 한 밑바탕이다.

민주화의 밑거름 인세인 강인가...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민주, 민족, 민중의 회복을 위해 아무리 멋진 단상을 하고 강부회 치열한 투쟁을 펼쳐도 이들의 주장을 대변할만한 인물이 없었다면... 세진인제 칼민기 대표와의 만남은 색다르다. 민주화운동이 한화산처럼 피어오르던 그 시대, 충음을 부릅쓰고 인제기를 들었던 그의 용기와 유산은 민주화운동의 큰 밑거름이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통일운동 1세대 조용승 평화협 고문, 김남식 아사히 문화연구소장, 백명길 구한말법안두회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정의투쟁 두드린 권광희 선생, 민중중심의 사회 이론을 펼친하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낸 김진균 서울대사회학과 교수, 한국 노동운동의 선구인 김갑봉 제14대 국회의원, 태방 전 독립운동을 하다가 남조선해방준비당을 조직하고 자유당 정권에 조작시찰을 당한 권재하 선생, 한미FTA반대를 외치다 분신한 이세욱 택시기사, 유서대 원상전으로 귀결된 한국판 트레키스 차건의 주인공인 김기철, 용산 남영동에서 김재원씨에 상의하다 용 죽여서 찾아오지 못한 5인도 이곳에 나란히 누워있다.

성역화는 힘들더라도 매년 위령제라도

과거 뉴스 속에 뜨거운 감자로 여겼던, 해상을 밟아 튀길었던 사진들의 주인공들은 생생한 가슴과 뜨거운 가슴을 동시에 지닌 사람들이었으리라

150여 회소를 한 번에 다 들이볼 수는 없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에 화사하게 웃고 있는 사진에 발을 걸쭉다. 35세에 비승을 떠난 최영아 노동운동가다. 그녀의 미소가 행복발견음을 가깝게 한다.

지인(知人)에게 들은 이야기다. 몇 해 전 몇몇 뜻있는 남양주시의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모란예술제를 두 차례인가 시행하다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이(19)로써, 남일동민주묘역과 더불어 3대 민족민주열사의 국립묘지로 불리는 이곳을 성역화시키는 힘이 필요하다. 복수를 하지 저키고자 했던 수위있는 자들의 민주, 참정, 인권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위령제라도 정례화 했으면 하는 소망이 일컫나. **■**

천세용
김태환
배동복
박용길
문익환
엄성준



북한강, 애인이 생기다

물의 정원

가끔은 허한 마음을 감싸 안아 줄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 때나 가도, 언제든지 반겨주고, 쓸모없는 하소연마저도 즐겁게 들어주는 그런 애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푸른 숲길과 부드러운 손길을 주는 그런 애인이 있었으면 더더욱 좋겠다.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계 '물의 정원(庭園)'이 그런 애인으로 다가왔다. 나에게도 애인이 생긴 것이다.

계절은 어느새 나뭇잎의 엽록소가 빠져나가고 있다. 10월의 운길산은 엽록소가 빠져나간 자리를 안토시아닌과 카로티노이드로 붉고 노랗게 문뚱 물들이고 있다. 운길산 역 앞으로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은 늘 말없음이다. 때론 가녀런 시인(詩人) 같고, 때론 장부(丈夫) 같다.

운길산역을 빠져나오는 군상을 바라본다. 가을을 담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눈다. 중년의 그들이 소년과 소녀로 돌아가 재갈거린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광장이다.

북한강 자전거길

물의 정원의 입구는 북한강 자전거 길의 입구와 같다. 물의 정원과 북한강 자전거 길은 남양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다. 한강의 삼패지구에서 출발한 자전거 길은 두물머리(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남한강 물길이 만나는 것과는 반대로 북한강철교에서 남한강 자전거 길과 북한강 자전거 길로 갈라진다.

북한강철교는 1939년에 세워져 청양리와 양수역을 오가던 철마(鐵馬)의 다리였다. 이 다리는 시간이 흘러 1970년대에 이르러 동해바다 여행길 절경(絶景)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철교는 최근 자전거 길로 변신을 했다. 이 자전거 길은 북한강 철교에서 춘천의 신매대교까지 자그마치 70.4km나 된다. 바람을 가르며 두 바퀴로 달리는 가을여행, 이 낭만을 함께 하자고 새 애인이 손짓한다.

물의 정원 - 프롤로그

물체는 내 가지 덕(德)이 있으니

이 땅의 모든 자연물을 꿰뚫어 찢어주고
만물을 통하게 하여 흐르니 인(仁)이며

맑은 것을 추구하고 탁한 것을 꺼리며
적당기와 너러운 것을 끌어버리니 의(義)이고

부드러우나 뱀파가 어렵고
아하지만 강한 것을 능히 이기니 용(勇)이며

강이나 바다도 흘러 나아갈데
나쁜 것을 쓰들지만
그로써 힘이 강하하니 지(智)이다

『시자(尸子)』의 『군치(君治)』원 중에서

물의 정원 - 물 마음 길

‘물 마음 길’은 물의 정원 입구의 오른쪽 강변을 끼고 있는 길이다. 북한강 차전거길 입구와 같다. 차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했다.

물의 마음은 어떨까. 길목에 들어선다. 낙엽송에서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노라니 마치 붉은 읍단 위를 걷는 은막의 스타가 된 느낌이다. 작은 소리도 내지 않는 폭신평신햀이, 아주 부드럽게 발바닥을 간질인다.

사랑하는 이의 선홍빛 입술처럼 붉게 물든 복자기의 단풍을 바라본다. 잠시 사색에 젖는다. 숲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흙을 밟을까. 물결 갈대가 사라져간다. 갈대의 머릿깃에서 습한 갈내음이 스친다.

빛녘의 날이 가 흰 꽃을 피우고 만들레는 남작 엷드려 수줍어 한다. 계절은 가을인데 참 철을 모른다. 갈변에는 바람막이로 수양버들을 신었다. 수십 년 강파람과 비와 서리 그리고 눈발을 버텼다. 수양버들은 새에게는 쉼터를 물고기에게는 그늘을 준다.

천은 관석으로 길을 내고 자연식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북한강철교를 바라본다. 오고 갈, 이동하

는 삶. 그속에 있는 나. 물마음 길에서 나를 되돌아본다.

물마음 마당에는 노루오줌이 지천이다. 잎사귀를 비비면, 지린내가 나서 부르는 꽃 이름이 재있다. 분홍색의 변이를 보여주는 이 꽃은 7, 8월이 절정이다. 그곳을 다시 보기 위해 내년을 기약한다.

물의 정원 - 물빛 길

'물빛 길'은 물의 정원 입구의 왼쪽에서 시작하는 길이다. 오래전부터 강물에 밀려나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습지다. 연(漣)을 심었다. 이 연밭을 '진중리 습지'라고도 부른다. 강과 연결되어 있지만 호수 같기도 하고, 넓은 언뚝 같다. 물오리 메가 유영을 한다. 그들이 물질을 치며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결은 행복한 청춘의 모임 같기도 하고 물 나들이 나온 다복한 가족 같기도 하다.

때에 따라 차태를 뽐내는 부처꽃, 부들, 석잠, 참나리와 물닭, 나뭇배…….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소박함이 조화를 이루고 그저 바라만 봐도 행복을 느끼게 하는 길이다. 어스름 어둠이 오면, 물빛과 달빛의 앙상블. 애인의 손을 살포시 잡아도 좋다는 듯 물안개가 스멀 스멀 실루엣을 만든다.

물의 정원 - 물 향기 길

'물빛 길'의 끝은 '물 향기 길'의 시작이다. 연인들을 위한 '하트 존'에 있다. 물의 향기는 바람결에 따라 애인의 숨결로 휘돌고, 실실이 꽃 코스모스의 얇은 흔들림에 우유의 비릿한 향으로 맴돈다. 그리곤 물결 들끓의 소곤거림도 들린다.

누구의 손길인지 모르나 군데군데 쌓은 정든 돌탑은 애절한 사연과 열핀마저도 풀어 줄 듯하다. 여름 내내 그늘을 책임지던 느티나무가 제 역할을 마치고 낙엽을 준비하고 있다. 좋은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는 '물 향기 길'은 자연생태학습장이기에 충분하다. 흰색과 보라색 꽃으로 파고라를 뒤덮는 등나무는 여름날 낮잠 즐기기에 알맞은 곳이다. 길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가 잘 자라고 있다. 봄이면 열릴 딸기축제를 기다리고 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가슴이 시원하다.

물의 정원 - 강변 연가길

물향기 길의 마지막 길은 '강변 연가길'이다. 칠월 칠석이면 전우와 처녀가 만나는 길에 노뭇들을 깔아놓듯, 강변 연가 길에는 화강석이 깔렸다. 이 길 끝에는 수양버들이 물에 잠겨 있다. 그 가지 사이로 물총새가 수다를 떨고 있다. 이곳이 뱃목 정류장이었다고.



불의정원 습지

1969년 소양강댐 건설로 정선과 영월에서 서울의 광나루와 마포나루로 뱃목을 나르던 뱃사공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지나간 행렬로 뱃목을 젖던 그 모습이 상상만 해도 장관이었을 텐데 잃어버림이 아쉽다. 나뭇배에 술을 팔던 들병이와 뱃사공의 애환은 노랫말로 남아 기억으로 남는다.

황새어울 뒤꼬까리 때 무사히 지냈으니
만지산 전산옥이야 술상 차려 놓개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뜬구름만 흘러도
관당주막 들병장수야 술판 벌여 놓아라

- 정선아라리 가사 중에서

북한강을 좀 더 넓게 바라보기 위해 전망대로 오른다. 강 건너는 양평군 서종면이다. 봄이면 길 따라 피어난 벚꽃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장관이다. 뒤돌아보면 운길산이다. 늘 조용히 산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 산의 명치쯤에 수종사가 있다. 밤이면 깜빡이는 불빛 하나로 고요와 정적을 느끼게 하고,



150
151



슬로라이프대회에 참가한 시민

인생무상도 존한다. 세상에 억은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숲의 정원. 그곳에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 물의 정원에서 "애사-원내" 타독하는 애인을 만났다.

물의 정원 - 축제 - 2014 남양주 슬로라이프 대회

경기도 유일의 슬로시티, 조안면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슬로라이프, 숲의 정원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슬로라이프 대회를 개최했다.

멋들어지게 서있는 이리항 교각 아래가 중앙무대다. 이 무대에서 슬로푸드 전국요리발연대회도 열렸고, 제20회 남양주 시민의 날 기념식도 가졌다. 이외우 시장과 시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무드는 도래는 상으로 인상적이었다.

슬로키즈 오색주먹밥 만들기, 건강한 밥상, 슬로푸드 푸리아 밥상, 날리는 푸킹스를 들 5기에 5강이 넘치는 먹을거리와 볼거리도 많았다. 천황절, 유가농, 로컬푸드, 슬로시티 지역을의 등을 보여주는 120여 부스의 슬로장터는 남양주시민은 물론 경찰, 가차의 나들이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펼쳐진 이 대회는 가족나들이에 안성맞춤이다. 은근히 내년 가을이 기다리진다.

물의 정원 - 에필로그

"물은 흐를까닭이

모든 것은 물결기 기원하며 물로 흘러간다."

17/20

세상의 모든 시름을 묻고 돌아오는 길, 물의 정원은 내 인생의 새 애인이 되었고, 그 사랑은 강의 바깥까지 함께 한 바람으로 기억되어간다. 기억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은 "빨리 빨리"에서 "천천히"로 바뀌고 있다. 소유자적 건는 습관에서 오는 정신적 여유가 바로 힐링이다. 조안면은 마음마다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배이다 작은 축제를 열어 삶의 여유를 느껴게 하는 장미 마을이다.

경기도 유일의 슬로시티 조안면으로 오세요. 탁한 것을 꺼리고 맑은 것을 추구하는 물의 정원으로 나들이 오세요.

시민취재 - 장정하





범종루

남양주^를
기념^다



남양주의 숨은 비경들 명소_

시민공모전

그곳에 가면 향기가 난다_양지리 향나무
산토끼 할아버지 길
백봉힐링숲길을 다니오다
나의 왕숙천벼락소 사랑일기
삼패동 평구마을을 다녀와서
인간미 넘치는 장현의 장
어머니의 마석 5일장
한글범당 봉선사



그곳에 가면 향기가 난다

양지리 향나무





모처럼 쉬는 날, 나는 금곡동 우재국 맞은편 정류장에서 23번 버스를 탄다. 500살 먹은 양지리 향나무를 보러 가기 위해서다. 작년 11월 말경 한 조간지에 소개된 기사를 읽고, 남양주에 이런 멋진 향나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나는 버스 안 빈 자리에 앉아 창문 밖으로 눈길을 돌린다. 저 멀리 보이는 곳마다 울긋불긋 단풍 든 나무를 친지다. 완연한 가을이다.

남양주에 이사 온 후 제일 마음에 든 것은 저 많은 나무들이었다. 눈을 돌리면 건물이나 사람보다는 나무가 더 많았다. 덕분에 아침에 일어나면 청명한 공기가 코와 입을 통해 폐를 가득 채워주었다. 두어 번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허무를 살짝하게 시작할 수 있어 좋았다. 이런 때 살던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감나무가 많은 곳이다. 얼마나 감나무가 많았으면 조선 숙종 임금 때 북산윤로 감을 진상했다는 말이 전해지내려 올 정도일까 싶다. 우리 집 안에만 벌써 종류가 다른 감나무가 세 그루나 있었다. 큰방 담벼락 옆에는 어른 주먹만한 대봉시 나무가, 수돗가에는 돌금남작한 반시 나무, 담배장고 옆에는 아기주먹만 한 고동시 나무가 큰 키를 뽐내며 시원한 그늘을 드리웠다. 팔난기 많은 오빠와 나는 수돗가 몇 평상 위에 누워 입을 차 벌린 채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린 적도 있다. 모두 이 가을에 맺어나는 게 바라는 추억이다.

지난 추억에 빠지는 것도 잠시, 나는 곧 건강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양지리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미리 자료를 찾아봤지만 500살 먹은 향나무가 있는 곳은 오남읍 양지리 530번지, 라고 소개지만 명시되어 있었다. 몇몇 카페와 블로그를 뒤져봤지만 찾아가기 쉽게 설명해놓은 곳은 없었다. 승용차를 가져간 한 카페지기는 네비게이션이 공장 지대에서 길을 잃었다고 써 놓았다. 나는 500살 먹은 향나무는 산삼처럼 사람들을 앞에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구나 싶었다.

23번 버스 안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창문 위에 붙어 있는 안내표를 살펴본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양지리라고 적힌 지명은 없다. 당황한 나는 용기를 내어 운전기사님 앞으로 간다. 모를 때는 그냥 쪽 펴리 보는 게 최선이다.

“알씀 좋 올겠습니다. 혹시 양지리 향나무라고 아세요?”

“알나무요? 알나무는 모르겠고 양지리는 여기서 한 25분 걸립니다. 알아계시면 내일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지배 모이는 운전기사님의 친절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차와 한 김치인 나는 밤 10시가 넘으면 길 밖에도 갈 나가지 않는 편이다. 연변가 급곡동 집에 찾아온 주매와 태담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다. 가끔 가던 고깃집에 들러 맑은 비를 때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오는 길이 험간였다. 오랜만에 후배를 만난 곳에 선다게 수다를 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후배는 언니가 여기 사는 거 맞아? 라고 물었다. 나는 일침을 불리며 이 사운 지 얼마 안됐다고 둘러댔다. 사실 2년도 더 지났으면서.

그때 믿을 생각하면 지금도 진망이 난다. 나는 어깨를 본다. 몇 개의 이름 모를 정류장을 지났는데 아직 30분도 안 지났다. 불안한 마음에 버스기사님께 한 번 더 부탁할까 하다가 그만 둔다. 양지리에 도착할 무렵 알려주신다고 했으니 믿어야지 싶다. 운전하느라 힘드실텐데 자꾸 괴롭히는 것도 해의는 아닐 것 같다. 비스는 몇 좋은 가을 길을 달려 자꾸만 낯선 동네로 달려간다. 나는 걱정도 잠시 있고 귀에 쪽쪽 끼이는 낯선 지명을 굵뽀어 본다. 그 이름도 고운 별 마을 정류장에 잠시 정차한 비스는 새 사람을 내운 후 땀땀 달려갔다. 앞으로 달려갈수록 도로는 좁아지고 낯은 길들이 병풍처럼 둘러싼다. 이따하고 이따한 정포에 풀진들이 가득 전열되어 있다. 이따트는 지 멀리 산 밑에 우뚝서 있을 뿐이다. 세살 사람 사는 곳은 다 마린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마린내 도로가에 세워진 오남읍이라는 안내판을 본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이제 곧 양지리에 도착하겠구나.

하지만 그런 착각이었다. 비스는 오남읍이라는 안내판을 지나 한참을 달려왔는데도, 스커키 측의 아가씨는 이번 정류장은 양지리, 양지리입니다 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안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 영녕이는 종이 꾸시는지 각리에서 들쭉인다. 들쭉이다 못해 급정거라도 하면 곧장 운전기사님 앞으로 빛의 속도로 달려갈 지새다. 체면불구하고 달려가 나는 까구 묻고 싶다. 아저씨, 실마 양지리 지남 건 아니요?

나는 이를 악물고 잡는다.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참아야지. 기사님이 꼭 양지리에 도착하면 내리라고 친절하게 말씀해주실 거야. 실마 양지리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 급곡동 집으로 못 돌아가겠어? 혹시 몰라서 나는 태담에서 지갑을 꺼낸다. 집에서 출발할 때 넣어 둔 5만원권 키체 두 장이 고스란히 주워 있었다. 그래 길을 잃으면 콰백이라도 부르면 되지. 이렇게 위보하는 내 숨을 쉰음이 나온다. 근데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콰백시를 부르지?

착질과 실소를 반복하며 비스에 앉아 있는 내 눈에 바깥 풍경이 재대로 들어올 리 없다. 귀에 들리는 낯선 지명도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시계를 보니 커스를 단서 30분이 다 되어 간다. 그때 드디어 운전기사님이 입을 연다.

“기, 양지리가신다는 분 있죠?”

나는 기척다 싶어 빛의 속도로 운전대 앞으로 달려가 묻는다.

“양지리 다 왔어요?”

“이번 정류장에 내리서 향나무는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입에서 직결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드디어 양지리에 도착한 기쁨도 잠시 나는 새자리에서만 맴돈다, 정류장에 내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 시간도 참 시끄럽다. 땀이 좋은 땅이라는 지명답게 머리 위에서는 파사로운 햇빛이 파구 태러포인다. 나는 맞은편 슈퍼가 나올까, 시치에 있는 부동산 증개소가 나올까 머뭇거리다가 증개소에 들어간다. 허자 증개사는 향나무는 들어왔는데 본 직은 없다. 난감하다. 내 표정을 눈치 챈 시 친절하게 맞은편 슈퍼가 동네 이장이 하는 곳이라며 가보라고 한다. 작은 슈퍼 문 옆에 헌책자부락 고구마 박스가 널려 있다. 슈퍼라기보다는 구멍가게 같다. 나는 길을 건너 슈퍼 앞에서 로스로 플라스틱 박스를 빛는 낫친 시내에게 다가간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장님이 네이버에 블로그 만드신분 있나요?”

윤 모모 이장님이 만든 블로그엔 양지리에 관한 유래가 적혀 있었다.

“여기 이장이 많은데 난 블로그 같은 건 모르는데요.”

“아, 그럴 향나무는 아시죠?”

“향나무는 여기 뒷길로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은 2, 30분이면 갔다 오는데 아줌마는 택시를 타는 게 나을 텐데요.”

내가 택시를 부를까 망설이는 사이, 슈퍼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발향권을 하신다.

“택시는 무슨 택시여, 그냥 길어가 두 다리 성할 때.”

할머니는 친근한 웃음을 지으며 내 등을 자꾸 떠이신다. 나는 반사적으로 할머니께 웃으며 인사를 한다. 떠이던 내 등은 벌써 슈퍼 뒷길 쪽으로 돌아섰다.

먼지가 뽀뽀나는 좁은 길을 혼자 걷는데 별 생각이 다 든다. 사람도 잘 다니지 않고, 아주 가끔 송골차가 다닐 뿐이다. 그래도 대낮이라 다행이다. 송골차가 지나갈 때이나 나는 길가 작은 공장 담벼락에 바짝 붙어 선다. 환전을 집었는데도 양지리 향나무에 대한 안내판 하나 보아지 않는다. 아주 오랜 한 여학생에게 물어도 고개를 흔든다. 나는 길을 서두른다. 시계를 꺼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속 걸기만 한다. 길고 또 길어 작은 공장지대가 끝날 무렵 드디어 양지리 향나무 안내표지판을 본다. 지천 두 다리에 불끈 힘이 솟는다. 문명 슈퍼 이장님은 맞은편 다리를 건너 계속 길어가다가 할다니 마을을 물어보라고 했다.

다리 건너편에는 사람들이 조금 왕래하고 있다. 다행이다. 나는 이유 있게 첫 번째 양지리 향나무 안내판을 디지털 카메라로 인증샷한다. 밤색 화살표 나무관에 흰색 페인트로 찍여진 안내판이 세어 권 예민처럼 반갑다. 나는: 사진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고 계속 걷는다. 다리를 건너자 횡단보도가 나온다. 횡단보도 맞은편에도 화살표 안내판이 보인다. 두 번째 안내판을 따라 걷는데 물속 이런 생각이 든다. 살아가면서 관원길에 있을 때 저렇게 화살표 안내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보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좋으련데,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이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직결로 콧노래가 나온다.

그러나 가벼운 기분도 잠시 환상을 길었는데 세 번째 안내관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깊은 좁아져 산길을 따라 걷는 기분이 든다. 처음 양지리 버스정류장에 내려 이장님 슈리 땀 땀길을 되짚어에서 걷는 것 같다. 맑은 공장들이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약간 다르다면 오르막길이 계속되는 것, 키 작은 나무들과 풀들이 길 맞은편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뿐. 나는 길다가 공장 옆에 달린 식당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 아주머니에게 묻는다.

“양지리 향나무가 이 근처에 있나요?”

“여기가 식다니 길인데, 향나무는 여기서 환상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식당 문을 열고 나와 계속 올라가라며 손짓하신다. 아주머니의 미소에 저절로 기운이 난다. 오르막을 조금 더 걷다보니 ‘식다니 1길’이라는 녹색 안내판이 나온다. 식다니 길은 마을 전체가 불에 타버려 ‘악탄 마을’이란 이름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청담고 시끄러운 이름이다.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도 양지리 향나무 안내관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날 뿐이다. 난감하다. 나는 두 갈래 길을 밟아보다가 손바닥에 힘을 더 넣고 내리친다. 어릴 때 배 보던 방법이다. 나는 손바닥의 힘이 시키는 대로 오른쪽 길로 걸어가 보기로 한다. 시간은 넉넉하니 아니면 다시 내리오면 된다.

가도 가도 길 양쪽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즐비하게 서 있다. 잘못 들어섰나 싶어 슬슬 불안해질 때 어디선가 불꽃 게가 튀어나와 쫓는다. 아이쿠, 캄캄이야. 없던 데도 벌어들라!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나는 이참에 쫓겨기로 한다. 배낭에서 불도 꺼내 마신다. 심호흡을 한 후 다시 걷는다. 심하게 한 번 놀란 뒤에는 김동이, 흰동이, 누렁이 할 것 없이 쫓겨다니며 인사할 여유까지 생긴다. 어떤 녀석은 꼬리는 물론 엉덩이까지 흔들며 반긴다. 사립은 안 보이고 완전 개판이다.

세 번째 안내관이 보이지 않자 오르막을 오를수록 지친다. 등에 땀까지 난다. 두 다리는 꼭지근하다. 제대로 나아가는지 확인할 길 없는 나는 이상한 오기까지 생각한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간다던? 집으로 돌아갈 길이 막막하다. 나는 방걸음에 힘을 더한다. 500살 먹은 향나무를 만나러 가는데 이 정도 고생쯤은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다행히 공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밖에 나와 있는 두 남자를 만났다. 그분들은 다 왔으니 이제 길을 쫓아서 맞은 편 공장 마당을 통해 걸어가라고 하신다. 공장을 빠져나가 왼쪽 길로 죽 가면 향나무가 보인다. 목척지가 눈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동안 안내관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다 보니 기운이 다 빠졌다.

공장 지대가 끝난 후 좁은 산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길 중앙에 얼린 내뿜어 줄술에 가리져 있다. 작은 대문이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다. 아무리 키 작은 도둑이라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이다. 대문을 들어서자 진땀개 한 마리가 퐁퐁 쫓는다. 세 발의 어르신 한 분이 뒤라고 하시는데, 진땀개가 금방 쫓는 걸 범주고 꼬리를 흔들다. 엉덩이까지 흔들는 품으로 바시 사나운 것 같지는 않다. 넓은 배추밭과 번지 모를 곡식을 가득 심어 놓은 곳에 살림집이 보인다. 뽕식 사유지로 할 이질 것 같아 나는 어르신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 뒤 묻는다.



거창 신씨 양도간공파 14세조 묘

“여기가 향나무가 있는 곳인가요?”

어르신은 손짓으로 먼 곳을 가리킨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금곡동에서 향나무를 보러 왔어요. 인터넷에는 거창(居昌) 신씨(愾氏) 사당인 양산제(陽山齋) 옆에 심어진 향나무라는 짧은 내용만 쓰여 있어 궁금했거든요.”

그러자 어르신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

“나는 거창 신씨 양도간공파의 19대 손입니다. 저기 양산제 사당 앞에서 정면에 보이는 묘가 14대 조의 묘이며, 그분에게서 자제 세 분이 태어나셨는데 첫째와 둘째 자제분은 이 근방에 묘가 있고, 셋째 자제분은 북한 장단에 묘가 있지요. 그 셋째 되시는 분이 연산군의 장인이셨지요. 11월 첫째 주가 시제인데, 저 사당에서 지내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손자가 죽으면 주위에 나무를 심었지요.”

향나무를 가리키는 어르신의 말씀에 자부심이 어려 있다. 그리고 보니 인터넷에서 본 향나무 등치 옆에 비석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던 게 생각난다. 태어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손자 옆에 옛 선조들은 향나무를 심었나보다. 표목이 자라 무덤을 잠식하고 아름드리 향나무로 자라기까지 500년의 시간이 흘렀다. 까마득한 세월이다.

내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어르신은 나를 저곳이 바라보고 계신다. 존함을 여쭙봐도 빙긋이 웃기만 하신다. 나는 이참에 땅이 몇 킁푼 되느냐고 질문을 던진다. 곧바로 4만 킁푼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드넓은 땅에 배추와 무, 콩과 여러 가지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다. 햇볕에 잘 탄 어르신의

얼굴은 붉은 황토 빛깔이다. 차애로운 미소까지 머금고 나를 집안 곳곳으로 안내하신다.

대문 일 초입에는 엄소우리가 있다. 옥염소 두 마리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다. 김부른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이르신은 예컨에는 다 많이 키웠다고 하신다. 닭장에는 닭만 있는 게 아니라 거위 두 마리까지 어울림기린다.

“닭과 거위가 서로 싸우지 않나요?”

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는지 이르신은 웃기만 하신다. 흰 강아지 검은 강아지 두 마리가 양지바른 곳에서 뛰어 놀고 있다. 진땀개 새끼나고 했더니 아니란다.

수많은 나무가 둘러싼 산 일, 밑 좋은 곳에 새와 같아서, 옥염소와 닭과 거위와 초로(初老)의 한 자 밝은 자연과 아우러져 살고 있다. 텅 없이 평화로운 풍경이다. 허 멀리 광활 너머 단풍에 물든 나무들의 빛깔이 아름답다. 이르신은 그곳을 손짓하시며 마리 절정은 아니며, 일부러 단풍 빛깔이 다른 나무들을 심었다고 말씀하신다.

“이르신은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이미 사시는군요 나이 들어서 이런 곳에서 글을 쓰면서 살고 싶어요.”

저절로 가슴 속의 말이 입밖으로 튀어나온다.

“배어 있는 땅이 많으니 면제든지 봐요.”

흔쾌히 받아주시는 이르신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하다.

조상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짓고, 넓은 땅에 온갖 곡식을 심고 여러 종의 동물을 키우고, 단풍들 나무조차 미리 빛깔을 맞춰 심고, 갑자기 찾아온 나그네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양지바른 티에 실은 향나무에게 문명 명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 사랑으로 향나무는 500살을 거뜬히 넘겼을 것이다.

이르신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향나무 앞이다. 허름 대문 앞에 놓여졌을 때 땅이 꽤 넓어 한 눈에 향나무가 보이지 않았나보다.

이르신이 물으신다.

“저런 향나무 봤어요?”

“저음이에요.”

향나무 크기에 놀란 내 시선은 잠시 밑둥치를 따라보다가 줄기를 따라간다. 고개를 한껏 치켜들고 꼭대기를 쳐다보는데 입이 딱 벌어진다. 줄기 끝이 높은 하늘과 맞닿아 있다. 순식간에 이릿속이 텅 비워진다. 내가 한참을 그렇게 향나무만 쳐다보고 있자 이르신이 탄탄하신지 한 말씀하신다.

“카메라는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근대 향나무를 쳐다보는 순간 비릿속 잡생각이 다 사라지네요 이게 바로 요즘 말하



귀림 선비사당 '영선재'

는 흰털이 아닐까 싶어요.”

그새아 이르신이 땀뭍어 보이시더니 향나무 잎 활짝으로 가신다.

나는 가림막 바깥에서 혼자 오랫동안 향나무를 바라본다. 높이 13미터, 밑둥치 둘레 5.6미터에 달하는 귀용을 자랑하는 향나무는 잎이 없다. 그 잎 없음이 위안이 된다. 때로는 사람보다 말 없는 나무가 위로가 될 때가 있다. 머문 내어섯 몇 정도가 서로 손을 잡고 어안아야 될 향나무 등치에 기대면 편지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다. 그럴 향나무는 가만히 키키보다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사는 일이 힘들지 않았나고 기적을 뵈어 쓰다듬어 줄 것만 같다.

예로부터 향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을 비롯해 팔로도와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다. 상나무 또는 노송나무로 불리며 절원수나 골원수로 많이 심는다. 강한 활기를 지니고 있어 세사 때 향을 피우는 재료로도 쓰인다. 알지리의 향나무는 우리 민족이 조상을 섬기는 민족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향나무로서는 오래되고 큰 나무로서 생활학적 보존가치가 크므로 1970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 제252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나는 향나무를 여러 각도에서 쳐다보다가 시선을 뺀다. 나무 밑둥치를 뚫다가 중간을 쪼개기도 하고 꼭대기만 찍기도 한다. 현 프레임 속에 나무 한 그루를 다 담기가 힘들어 자꾸만 뒷걸음질을 친다. 뒷발을 만복해서 찍어도 될까 부족한 기분을 간출 수가 없다. 500살 넘는 향나무는 넓게 쳐진 기림막에 가려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하긴 천연기념물이나 향부로 훼손하면 큰일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나는 무덤한 거인을 쳐다모듯 경건하게 향나무를 바라본다. 거인의 팔이 발달은 가슴 하늘은 맑고 푸르다. 눈이 부시다.

나는 이제 김철이 벗겨져 진화색의 속살이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갖다 댄다. 나무 등치 밑에서부터 깊은 상처의 깊이 새겨진 그 곳에 손바닥을 대는 심정으로 가슴 깊은 곳 어디선가 펄떡 울린다. 경기도신원한정연구소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의 후계목을 키워 증식한다니 다행이다. 후계목 증식의 배경으로 “천연기념물 나무는 수목 분류학적, 유전학적, 육종학적 가치와 역사적 및 향토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화합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오래되고 큰 나무이치 현재 지면이나 개발에 따라 훼손 등으로 고사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가림막 앞에 서서 벌써이 향나무를 바라보는데 자꾸 욕심이 난다. 만약 향나무를 모호하. 지 기림막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진작 이르신께 양해를 구한 뒤 향나무 등치 아래 드리누웠을 것이다. 흰털 혹은 구미호는 사람이 된다는데, 500살 벽은 향나무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그런 나 눈물을 짓는다.

“500년 동안 무엇을 보고 느꼈어요?”

오랫동안 흰털하던 향나무는 민지한 얼굴로 곰삭은 지레히 말뚱을 물러줄 것만 같다. 느릿느릿 이어지는 밀물 바다마다이다 그속한 향기가 흘러나와 치친 내 몸을 어부만길 것이다. 나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벅차 눈을 감는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다. 차를 받아보는 그속한 향기가 고를 간질인다. ■

산토끼

조영수 작사

홍-영 작곡

산토끼
산 고개 고개를 너 서 다 로 가
산 고개 고개를 나 님 이 가
강 흥 성 흥 뛰 어 서 너 피 디 로 가
도 일 드 분 참 흥 서 주 우 리 산 언 가

來童謠碑

산토끼 할아버지 길

사랑하는 나의 두 아이에게

호원아, 호경아.

너희들이 모두 잠든 이 밤에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구나. 끈
히 잠든 너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니, 지난 추석 때 밤하늘
을 곱게 빛내던 둥그런 보름달이 떠오른다. 어느 보름 때보다도 더
크고 밝게 빛나서 밤하늘을 환히 비추던 슈퍼 보름달이 말야.

특히 지난 추석에는 슈퍼 보름달뿐만 아니라 금성과 토성도 잘
보일 거라는 뉴스를 보고는 설레는 마음으로 너희들과 함께 추석
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지. 고개가 아픈 줄도 모르고 머리를 뒤로 잘
꼭 젖히고 보았던 밤하늘. 너희들과 함께 보았던,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과 보석처럼 빛나던 별들이 펼쳐진 밤하늘을 엄마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아마도 빌딩 숲을 이루고 탁한 공기가 가득한 곳이었다면 이런
광경은 볼 수 없었을테지. 드넓은 하늘과 맑은 공기가 생기는 우
리 동네였기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거란다. 말의 뜻 그대로 아름다운 고을인 가곡리에서 사
랑하는 너희들과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지금이
엄마는 너무 행복하단다.

호원아, 호경아.

그런데 혹시 너희들은 우리 동네에 산토끼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산토끼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갑작스러운 엄마의 질문에, 눈을 이리 저리 굴리며 골뎠히 생각
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구나. 초등학교 1학년인
호원이는 책이나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할 것 같고, 세
살인 호경이는 형의 뒤를 졸졸 쫓으며 ‘또끼, 또끼’라고 서툰 말을
하며 부신하게 종중거리비 다니겠지.

산토끼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엄마가 이야기를 해줄게. 애들아,
너희들이 곧잘 부르는 산토끼라는 동요 알지?

산토끼 또끼야 어디를 가느냐
강줄강줄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토끼 노래를 나르자 넘어서
노포도산양방승주위 순행어

산토끼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잘 부르면 산토끼라는 동요를 만드신 게로 그 할아버지야. 산토끼 할아버지의 심함은 이말래이지란다. 산토끼는 이말래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개칭 때 만드신 노래야구. 1929년 이말래 선생님은 한 산토끼 딸을 통해 안고 하고 뒷산에 올라가셨는데, 자유롭게 뛰어놀던 산토끼를 보면서 이 노래를 만드셨다는구나.

우리 민족도 하루 빨리 태방이 되어 자유로운 산토끼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말래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며 그 자리에서 가락을 흥얼거리다가 집으로 돌아와 오성지에 곡을 만들게 되었다는구나.

얘들아, 너희들은 이말래 선생님이 산토끼 노래를 만들 당시의 상황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산토끼처럼 마음껏 뛰어다닐 수도 없던 시대였다는 게 말이야.

산토끼 노래가 만들어지고 산토끼 노래가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되자 일제는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탄압까지 했단니.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나? 산토끼 노래가 민족 감정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보 토끼 형상이 우리 국토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산토끼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구나.

엄마는 산토끼가 탄생하게 된 배경 이야기를 알고 다니자, 지금까지는 그냥 흥얼거렸던 동요 산토끼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단다. 밝고 명랑한 동요 산토끼의 노래 속에 담겨진 우리 민족의 역사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말이야.

이런 의미를 지닌 산토끼 할아버지의 묘소에 그분의 동요미가 우리 동네에 있단다. 주옥같은 동요를 만들어서 발표한 일제 강점기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고 나라 사랑의 민족혼을 일깨우신 이말래 선생님이 잠들어 계실 곳.

너희들도 알 거야, 우리 길 옆쪽으로 보이는 근사한 산책로 말이야.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선나무들이 죽 늘어서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 길. 과연 하늘과 맞닿은 길무름 나무들이 상쾌한 공기를 뿜어내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길이야. 그 길을 따라 북 올라가다보면 산토끼 할아버지의 묘소와 시비가 보인다.

엄마는 산토끼 할아버지와 관련한 기억 하나를 잊을 수가 없어. 몇 년 전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올 무렵의 이야기야. 아빠와 엄마는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단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가을이었지. 곧게 뻗은 나뭇잎들이 과연 하늘을 뚫고 있고 이를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까지 시원이던 때인어.

아빠와 엄마는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가곡리의 이곳까지 호개 되었단다. 지금도 그렇듯이 여기는 푸르른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었지. 지금의 길을 둘러



166

167



보고 난 다음, 자연의 품에 꼭 안긴 듯한 파사로움에 취해있을 때,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 옆이 산토끼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길이 산토끼 할아버지 길인 거지.”

그래, 조금 전 너희에게 해줬던 산토끼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할머니에게 들은 거였다. 할머니에게서 산토끼 할아버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시 고개를 돌려 산토끼 할아버지 길을 슬쩍 넘기보았지. 참 아름다운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엄마의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말이야.

어쨌든 아빠와 엄마는, 산토끼 할아버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가 더 마음에 들게 되어서, 결국엔 이곳으로 이사 온 결정하게 되었다. 자연과 동요의 정서가 담긴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

그런데 청하 카곡리의 산토끼 할아버지 길 옆에 살게 되었으면서도, 여기로 이사 온 이후로 너희들과 함께 산토끼 할아버지 길을 거닐어 본 적이 없구나. 이곳에서 몇 년 동안을 살면서 산토끼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산토끼 할아버지 묘소를 둘러볼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런 곳을 지적에 두고 가볼 생각은 커녕, 산토끼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다는 게 갑자기 너희들에게 미안해지는구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책자를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지며 명소를 찾던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 명소는 한 번도 찾지 않은 셈이 되었구나.

호원아, 호겸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이번 주말에는 너희들을 데리고 산토끼 할아버지 길을 걸으며 동요비라도 한 번 보아야겠다. 이일래 선생님께서 딸을 품에 안고 산에 오르셨듯이, 엄마도 너희들의 두 손을 꼭 잡고 산토끼 할아버지 길을 올라야겠구나.

곧게 뻗은 전나무 산책로를 걸으며 우리 함께 산토끼 노래도 불러볼까? 호원이의 노래가 전나무의 나뭇가지를 멀리게 할 정도로 목청껏 부르면, 호겸이도 형을 따라 들쭉을 간질이듯 노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마음답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산토끼 할아버지 길, 이런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엄마는 안타깝다. 산토끼 할아버지 길은 분화 교육의 도시인 남양주,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좋은 여건을 두루 갖춘 남양주의 명소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데도 말이다.

엄마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산토끼 할아버지 길을 알게 되어 동요의 세계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단다. 소수의 사람만이 누리는 이 좋은 걸, 어리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이야.

더 나아가서는 산토끼 할아버지 길이 어린이들의 동요 놀이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단다. 이 길을 통해 동요 산토끼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동요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모여 산토끼 할아버지를 기릴 수 있는 동요 부르기 행사라도 언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동요를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까지 만날 수 있는 산토끼 할아버지 길, 그 길에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본분하게 자라게 될 거라 엄마는 믿는다. 그 길에서 각박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자연과 동요를 사랑하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엄마는 믿는다.

호원아, 호겸아.

아름다운 자연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다독여주는 동요가 녹아든 가곡리에서 우리의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가자꾸나. 지금 너희들이 만들어 가는 추억들이 미래의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밑바탕이 될 거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올라.’

이 다음에 너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엄마도 최선을 다할게. 아름다운 곳에 발길이 닿아 아름다운 곳에서 머물러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엄마가 도와줄게.

나의 사랑하는 호원아, 호겸아.

오늘도 가을 하늘이 맑아, 날이 저물면 밝은 달과 총총한 별들이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미출 것 같은 날, 엄마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한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아! 엄마가 너희들을 너무도 사랑한다! 

남윤영

백봉힐링숲길을
다녀오다



남양주시 별내동에 이사온 지 6개월쯤 되어 간다. 길기 좋은 천 환경도시 남양주임을 확인이라도 해주듯 밤마다 우는 개구리 소리에 웃음이 난다. 낮 해 전부터 친구들과 가벼운 트레킹 여행을 즐기 경춘선과 중앙선 열차를 자주 탔다. 남양주에는 정말 다니울 수 있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가는 곳마다 경치와 공기가 너무 좋아 여기 살고 싶다고 생각한 곳이 너무도 많았다. 그 열함 때문인지 남양주 시민이 어스새 되어 있다.

이사 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무더운 여름이 지난 뒤 친구와 함께 집에서 가까운 홍유릉을 가기로 하고 길을 나섰다. 홍유릉을 구경하고 가볍게 백봉숲길 트레킹을 하기로 했다.

경춘선 별내역에서 3정거장만 가면 홍유릉이 가까운 금곡역이다. 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홍유릉이 있다. 조선왕릉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구한말 격동의 시기를 보낸 조선의 26대 고종과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과 27대 순종과 순명황후, 순정황후의 능이 모셔져 있다. 그리고 그 이후 왕족 후손들이 함께 모셔져 있다.

가던 날 오전에 구름이 끼어 홍유릉을 둘러보는데, 구한말의 어두운 정세라도 반영하듯 조금은 숙연해지는 느낌이었다. 어떻게든 기운이기는 조선을 외세에서 구하려고 노심초사했던 황제와 황후들이었다. 조선의 국모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했던 명성황후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제는 나라도 되찾고 이렇게 세계 속의 한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조국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실 것 같다. 홍유릉의 숲길과 연지 연못가의 쉼터는 한가로이 쉬어가기 좋은 곳이었다. 따스한 커피 한잔을 마시며 그 여유를 즐겼다. 그리고 백봉 홍유릉 옆 약수터 들머리를 찾아 금곡고 뒤 체육관을 찾아 나섰다.

홍유릉 옆 숲길이라 소나무 숲이 울창했다. 약수터로 이어지는 숲길은 가벼운 산책로로 일반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이었다. 사람들도 많지 않아 한적하고 울창한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로 인해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다. 조금 체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백봉(59km)까지 올라가는 것도 참 좋다.

산세가 부드럽고 오솔길 같은 등산로가 편하고 좋다. 이남은 백봉 정상까진 안가고, 쉼내에서 올라오는 갈림길이 있는 잣나무숲

덱터에서 묘적사로 가는 잣솔길로 내려갔다. 백봉에는 유독 잣나무 숲 군락이 여러 군데 있다. 특히 묘적사 뒤편의 잣나무 숲이 잘 좋다. 심미로운 느낌까지 드는 환상적인 곳이다. 그 느낌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시 한 번 묘적사를 향해 갔다. 작은 계곡가를 따라 가는 잣나무 숲 얼음장한 오솔길은 내 눈앞 사이로 미치는 햇살이 반짝반짝 빛을 낸다. 숲의 울창함 때문인지 경사가 가까운 시냇길인데도 야생팬살 같은 눈부심으로 너무도 상쾌했다. 울음줄 흐르는 개울물 소리도 물이론이 미처 내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건강한 숲이란 느낌이 드는 백봉 숲길이다. 시냇물의 산들바람은 확실히 차별화된 속속함과 여유로움이 있었다. 묘적사를 향해 가던 길에 또 웅장한 잣나무 군락지를 만났다. 역광에 빛나는 잣솔은 또 한 번 탄성을 짓게 했다. "아, 너무 좋다! 여기서 돛자리 깔고 한층 타고 가면 좋겠다!" 친구랑 함께 너무 좋아하며 한동안 자리를 잡 주사 없었다. 권타하면서 오시는 분들에 이쪽으로 올라 가면 묘적사 나오는 거 맞나요? 물으니 전혀 밀링된 표정으로 맞다 하시며 친절히 길 안내를 해주신다. 말은 안 해도 서로의 느낌은 비슷한 것 같다.

잣나무 숲을 지나니 임도가 이어진다. 사유지가 많아진 탓에 이곳이 날개밭이 전행되고 있어 아름다운 백봉숲길이 망가지는 것 같아 아쉽다. 다시 계곡길이 이어지며 아름다운 들꽃과 함께 하는 길도 많이 나타난다. 계곡 가운데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니 둘러서 보니 넓은 임판이 있는 폭포 위 덩어리에 친구와 모이는 두 여자 분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 여기서 묘적사 뒤 계곡이네!" 한번 와 봤던 터라 알아보고 개울을 건너 묘적사 정내로 들어섰다. 길에는 백봉 정상에서 미처 북으르다가 묘적사 방향으로 간 거라 그 길이 좀 달랐다. 둘 다 마음에 드는 트레킹길이다. 이번 트레킹길의 흥분과 신선한 길이었다.

신라 때 원효에 의해 창건했다는 고한 묘적사는 조선시대 때 유철이 승군을 훈련시키던 장소였다고 한다. 세종의 비밀경호부대가 양성되던 곳이기도 했다는 흥미로운 사찰이다.

와우음 묘적산 사각 안에 포근히 자리한 묘적사는 따스하고 아늑한 느낌의 사찰이었다.

대웅전 앞의 평토유적 필리 칠층석탑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는 광각다층석탑으로 조선 초기에 건립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태을집 앞마당의 두 그루의 오래된 은행나무 한 줄도 사찰의 역사를 짐작하게 하는 멋진 풍경을 보여준다. 가을이 깊어지는 늦가을에 가면 좋을 듯하다. 백봉스카이 명소로 알려져 방송에서 자주 보여진 묘적사다. 산사에서 하루 머물며 주변의 잣나무 숲에서 명상하고 깨끗한 계곡물에 발도 담가보는 여유로움을 느끼고 오면 좋은 남양주의 명소다. 묘적사의 귀염둥이 털하늘이 뭉툰이 잡아쳐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친구랑 함께 한 우리 동네 남양주 명소 풍경을 열 힐링 백봉숲길 트레킹 여행을 묘적사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백봉숲길은 다양한 코스로 올라 즐길 수 있지만, 구한말 왕족들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풍류유도 둘러보고 풍류들의 울창한 솔솔길도 즐길 수 있는 이 코스가 가장 좋다. 가족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울창한 숲속 풍류물 일약수터길로 올라 깨끗한 약수물을 맛보고 내려와도 좋을 것이다. 욕심을 더 내 조금 더 올라 백봉까지, 아니면 우리처럼 우리 동네 아름다운 고관 묘적사까지 가서 가을을 흠뻑 느끼고 오면 가을날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김귀래





이륜차통행금지

나의 왕숙천벼락소
사랑 일기



왕숙천(王宿川) 벼락소. 나는 지난 해 3월 무렵, 안산 등지에서 30여 년을 살다 남양주 전집으로 이사를 왔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왕숙천이라는 강이 있는 줄 몰랐다. 새 집을 볼색 하던 날, 무동산중개소에서 중개인이 커다란 지도위에 그려진 아파트의 위치를 가리키며 자랑하듯 말했다.

“이곳은 진짜 좋은 집입니다. 왕숙천 강물이 바로 코앞에 흐르고요 물이 좋아 이성계 왕이 차고 갔다고 해서 왕숙천 아님니까? 하하.”

아파트단지에 도착하니 과연 단지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넓고 푸른 강물이 나타났다. 며칠 전 비가 내린 탓인지 강물은 청량한 모습으로 흐르고 있었다. 얇은 수면 쪽에서는 반짝반짝 배를 뒤집으며 노니는 물고기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머이를 구하려는 백호가 살금살금 긴 발을 째이리며 물속을 살피고 있었고, 갈대숲 사이에선 물오리 새끼들이 어미 뒤를 한가롭게 따르고 있었다. 실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래 바로 여기서.’

나는 동행한 사람들의 사정도 잊은 채 혼자 강변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물 한 움큼을 떠서 중얼거렸다. ‘나는 교직원들의 마지막 근무지로 남양주 전집을 선택하였다. 이곳에서 만난 왕숙천 벼락소는 내 인생에 있어 최고의 여행지요, 힐링파크가 될 것이다.’

4월 셋째 주일 날, 내가 속한 제2 남전도회 가정예배가 우리 집에서 있었다. 내가 교회의 새 식구가 되었음을 축하해 주는 자리이다. 참석하신 분은 장로님 네 분을 비롯하여 모두 열두 명으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왕숙천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주 좋은 풍경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네요!”

손님들이 거실 베란다 밖을 바라보며 이구동성으로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그때, 강원도 인제가 고향이라는 김 집사님이 벼락소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고향 내린천도 아름다운데, 진짜 지기는 비경(秘境)이네요!”

나는 기분이 좋았다. 상류 어물 쪽에서 깨끗한 자갈들을 헤치고 물이 흐르다가 깊은 소(澗)에 다다르면 검푸른 듯한 물빛으로 변하는 모습과, 돌 가장자리 절벽을 땅으로 삼아 위태롭게 서 있는





인 뜻을 담고 있다 이 밭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인제의 내린천(內麟川)은 내면과 기린면 사이를 흐르는 강이잖아요. 월림의 한탄강(寒潭江)은 큰 여울이 흐른다는 뜻이구요, 평월의 동강(東江), 양양외 남대천(南大川) 등은 방향에서 따온 거고, 성남의 단천(炭川)은 숲을 굽뎠 곳이라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구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왕숙천이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강이구나 실감하였다.

중간고사가 끝난 6월 초, 하년부장을 맡고 있던 나는 1학기 봉사활동이 일환으로 실시하는 교외 환경보전활동 장소로 남학생 반은 천마산, 여학생 반은 왕숙천변(王宿川邊)을 택하였다. 학교 앞 서점에서부터 B아파트 지점까지의 약 500미터 구간의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오랜만에 교실에서 벗어나 티 트인 강변에 도착하자 푸른 무릎들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먼저 우리를 만났다. 물속에선 예전처럼 배를 뒤집으며 노니는 물고기들의 모습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더욱 은빛으로 빛났다.

그러나 눈을 바로 뜨고 바라본 강의 모습은 어찌한가. 강변 군데군데 가지각색의 페비닐과 플라스틱, 레드병은 물론 스티로폼 조각들이 파편처럼 널려 있었다. 물 한가운데에선 레타이어와 땅가전 유모차도 보였고 동물 사체인 듯한 흉측한 물체까지 불이랑 사이에 걸려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두 시간 동안 대형 쓰레기봉투 두 개를 채우는 것이다. 상의껏 쓰레기를 수거하라는 나의 지시에 따라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밭 벗고 나서는 아이들은 하급관장과 봉사부장 등 몇 명에 불과할 뿐,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쥐고 감당하는가 하면 물 가장자리에 걸린 쓰레기를 건지다가 물이 옷에 조금 필라치면 더럽다고 난리쯤 세우기 일쑤였다.

그래도 양심 있는 친구들 덕분에 가져온 쓰레기봉투가 금방 다 왔다. 목표량을 확인한 후 나는 아이들을 다리 밑 자갈밭 언덕로써 집합시켰다. 행벌에 시간이 남은 듯도 있었지만 오늘 봉사활동에 대한 소감분쓰기(학생들은 모든 체험활동 소감문을 예뻐함에 올려 근거로 남겨야 함)도 도와주고

초나무 위에 흰 의복으로 서너 마리가 앉아 그 철학을 풍식하는 모습은 동양적인 신비함마저 나타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인접 동네에서 오래 전부터 살 있다는 한 장로님이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아아도 다른 강들의 이름은 방향을 가리키거나, 지역 또는 물의 명세 등에서 따왔을 겁니다. 근대 우리 왕숙천은 다르지요. 역사의

이렇게 왕숙천에 대한 사무삼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전세대 아이들에게만 그리 환영받지 않는 일이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나는 전지하세 분위기를 장악하였다.

“우리는 지금 왕숙천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왕숙천은 여러분도 잘 압디시며 그 자연경관이 좋아 이성계 왕이 타고 간 역사적인 곳이다. 쉽게 밀려 유적지라 할 수 있다. 아 강을 우리가 잘 가꾼다면, 옛날처럼 왕이 쉬타 삼 만큼 물이 깨끗하고 정치가 아름다다면 우리 고향은 관광지로써 금방 유명해질 거다.”

나의 열변에 아이들이 ‘와!’ 하며 박수로 호응을 해주었다.

“왕숙천,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아이들 모두 수줍음 하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침방학 때 비로소 《왕숙천벼락소 살리기 운동본부》에 가입했다. 사실 그동안 나는 회원들이 강변을 따라 꽃길을 조성할 때부터 보고만 지내 비만한 마음이 바운 환구석에 있었다. 많은 회원들이 맑을 걸어붙이고 야생화 코스모스와 구절초 심어초 쪽부생이, 들국화 등을 심는 모습을 보고 나도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가입한 지 일주일 만에 총회에 참석했는데 처음 뵈게 되는 회장님의 인사말이 가슴을 울렸다. 카레지기 비네임인 ‘왕희장’ 담겨 목소리가 우렁찼다.

“반반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는 왕숙천을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

회장님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을 이었다.

“슬은 전설이 깃든 벼락소와 왕숙천이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생태로 보호돼 아름다울 뿐, 조류, 그리고 온실한 물고기들이 지식하고 사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장님 말씀처럼 내 힘을 가꾼다는 마음으로 왕숙천을 사랑할 것이라 고나 자신과 약속했다.

창마가 삼남 지 며칠 후인 8월 초순 경, 순천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사를 온 아들 집을 구경 하시러 방문하셨다. 날씨가 무더운 낮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아버지께 특별한 경험을 전해 드리기 위해 나는 아버지를 강변으로 안내했다. 미리 준비한 낚싯대 두 자루를 갖고선, 아버지께서는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나의 설득에 특별히 기부하시질 않았다. 오히려 빙그레 웃으시며 고기가 잡히느냐 고 의심을 했을 뿐이다.

강원도 출신이 고향인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낚시하러 가는 걸 좋아했다. 아버지께서 잡은 물고기를 관리하며 어항 안에서 비라미, 메카, 얼음시, 모래부시 등 종류별로 새어보는 게 내 일무였다. 파라끼기가 멀어지면 나는 측석에서 메뚜기, 방아개비 등 곤충을 잡아 아버지께 드리곤 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분득 질문하셨다.

“아들, 이 날에 꿈이 뭐라 했지?”

“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음, 내년엔 중학교 올라가니까 미리 한자 공부해야 한다.”

“예, 아버지.”

아마치해서 낚시를 통해 인생을 배워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 '조코는 강물처럼'이란 영화를 보셨으면 어떨을까, 영화 속 주인공 백필재인처럼 아름답게 줄을 날리던 장면은 나는 잊지 못한다. 과묵하기로 유명하신 아버지였기에 강물에 낚시줄을 드리운 채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지랄기쁜 일이 없었다. 피어 년이 흐른 지금 아버지의 집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참만감이 나는 낚시줄에 손맛이 오는데도 그것을 알아채는 것도 잊고 있었다.

왕숙천변 산책로에 권 야생화가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던 10월 밤, 전경문화원 주차로 다산길 걷기행사가 있어 나는 아내와 참가하였다. 장소는 우리 시의 관광지 <다산길 13코스> 중 11코스 수목원길로 상봉대에서 대림리까지의 약 6km 구간이다. 그런데 이 코스의 황 가운뎃가 바로 벼락소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강 수변에서 피어오르는 물의 과정이 사람은 물론 식물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공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일까, 벼락소를 아래에 훑고 서 있는 절마산 차의 곳곳에 울긋불긋 물들어있는 단풍이 다른 곳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우리 내외를 포함한 한 무리의 시민들이 벼락소일에 나다랐을 때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벼락소라는 이름은 하늘로 올라가던 용이 비를 내리고 이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해요. 혹은 벼락이 치는 바람에 바위가 쪼개져서 이곳 깊은 물속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벼락소라 불린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어쨌거나 둘 다 미련의 전설이 깃든 곳이지요"

사람들이 저마다 재미있는 전설이라며 수군대다가 곧 벼락소를 배경으로 명풍처럼 솔리져지 있는 단풍 물든 산을 환영하기에 바빴다. 우리 시의 슬로건인 '개(快)한 도시, 환경과 문화가 살아있는 남양주'는 꼭 이곳을 두고 이르는 말인 것 같았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을 후, 기온이 북 떨어진다. 나는 근무 도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옛날 이자 친구의 동생으로부터 온, 일종의 부음(訃告)으로 언니의 69세를 지낸 후에 나한테 늦게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언니가요, 선생님이 첫사랑이었다고 하면서요, 이야기 많이 했어요."

휴대폰 너머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언니와 꼭 닮았다고 느껴졌다.

"언니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하늘나라로 갔으니 아픈 것두 없으실 거고, 고향가실 때 경춘공원묘지에 한번 들러 주시기를 부탁해요."

그 언니란 사람은 내가 중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2년대 말, 공작천(孔作川)에서 만난 여학생이다. 당시 우리는 불안개 피어오르는 공작천을 바라보며 안갯속처럼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공감을 하며 담담 가아워했다. 마니 그보다 몇 이류 없이 슬픈 감정에 휩쓴 했던 스타일이 서로를 가깝게 만들었는데 모른다, 우리가 자주 데이트를 즐긴 곳이 공작천의 명소인 이너오커야 카페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감을 증시하는 부모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몇 년 시간이 되어 세상을 정리하는데 일의 동료교사가 오늘은 왜 미리 일찍 떠간느냐고 물었다. 나는 웃으면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단지 혼자 숨을 한 잔 먹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마음속

으로, 벼락소 카페에 들러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더듬어 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바로 그 길로 카페에 도착했다. 창가에 앉아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벼락소를 바라보니 이곳이 마치 옛날 공지천 같았다. 그 물 속에서 번지는 파문처럼 그녀하고 함께했던 추억이 오롯이 떠올랐다. 떠오른 추억은 이내 시상(詩想)으로 변했다. 나는 갖고 있던 수첩에 그것을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갔다. 그리곤 집에 돌아와 새벽까지 다음과 같은 줄자를 완성하였다.  박명서

왕숙천 벼락소에서

물안개 피어나는 벼락소에
하루가 저문다.
무엇엔가 이끌리어
이른 퇴근길 한숨에 달려온 카페
벽등 불 밝힌 창가에 앉아
구성진 선율에 몸을 맡겨본다.
그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내 눈길은 조금하듯 창밖을 향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이
기울인 술잔엔
노을빛 그리움이 반사된다.
독길 따라 넓은 원을 그리며
네온싸인 하나 둘씩 커지면
전설처럼 깊고 슬픈 지소(池) 밑에
한 때 수줍던 사랑이 흐르고
이내 쓸어담지 못한 추억은
회황하게 비치는 불빛 속에 사라진다.
이렇듯 기다리는 일도 사랑인 것을
무작정 보고 싶다는 것만으로
회황다고 했었지,
다지는 안 올 것 같았던
내 스무 살 피끓었던 사랑이여,
취기로 손 휘적어 바라본
공허한 말하늘 달무리 구름 사이로
못 다한 그리움 한 올 풀어내
강물 저편 위에 띄워보낸다.

삼패동 평구마을을 다녀와서



평양구의 평구마을

평양구상(마을상대칭)

평양동은 당장동 1(동)이며 행정동은 삼패동이다.
 자연마을명은 평구, 보포리 혹은 소구리 마을로 불리는데 이는 고려사 역사상에서 나오는 평구도(지역)의 삼패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
 되어 이후 세종실록 지리지에 관해(관)촌천, 평수와 평동지명으로 가는 기록인 양해동, 지역수 동쪽 70리(지명)에 평구역이 위치해 있
 어 고려시대 이후 출근 평구라는 지명을 사용해 있으며 마을 앞쪽에 최고리를 일컫다하여 보포리 마을이라 칭하기도 한다. 구한
 에 이르러 평양 군현이지가 산으로 두양사 불공속에 포함되어 호안인 남양기 때문에 평양이라 부른다는 설이기도 전해진다.
 또는 마을 모양이 마치 평지인처럼 생겼기때문에 평지라 소구리라 불리기도 하지만 만약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일 무리한
 때문인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마을 동쪽으로 평이 생겼다고 일컫다하여 남인이라는 지명도 있으며 현안면으로는 평구(남)일 7(리)
 터지 있었으나 1905년 을축년 대홍수 이후 막을 지면으로 옮겨진 후 없어졌다. 평구마을 앞에는
 는 평구도(지역)동쪽 7(리)에 177호로 지정한 청룡강서 문외동과 초기(강서, 강서동, 강서
 강서면, 강서동)의 문외과 신도비가 있어 백산일구의 평양(남)임을 입증하며
 매년 수백명의 풍수교육생들의 현상 검사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나는 문학시간에 정철의 관동별곡을 배운 적이 있다. 나는 관동별곡을 읽으며 '아,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관동별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평구역[楊州] 말을 가라 흑슈[隸州]로 도라드니'라는 구절에서 평구역이 현재 남양주시 삼패동에 위치한 평구마을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사실을 문학 선생님께 알려줬더니 선생님께서 평구역이 지금의 평구마을이라는 것에 놀라워하셨다.

나는 내가 살고있는 남양주시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우리고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과거 평구역이었던 '남양주시 삼패동 평구마을'을 직접 다니오게 되었다.

'남양주시 삼패동 평구마을'의 입구에는 평구마을을 설명해 주는 안내관이 있었는데, 안내판을 읽고 평구마을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안내판의 내용을 요약하면, 평구마을은 쇠꼬리 혹은 소쿠리 마을로도 불린다고 하는데, 이는 고려사 병자삼역조에 나오는 평구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구전에 의하면 옛날 금송아지가 산으로 도망쳐 동굴에 숨어 꼬리만 남았기에 쇠꼬리라고 불린다고도 전해진다.

또는 마을의 모양이 마치 삼패기 안 같이 생겼서 소쿠리라고도 불리지만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는 것은 발음의 유사성 때문으로 보인다고 한다.

또, 마을 동쪽에 능이 생겼다면 것을 보고 상안이라고도 불리우며, 한강변으로는 평구장터가 있었으나 1925년 을축년 대홍수 이후 덕소지역으로 옮긴 후 없어졌다고 한다.

중앙관청의 공문을 지방관청에 전달하며 외국 사신의 왕래와 관리의 여행 또는 부임 때 마필을 공급하던 곳을 역이라고 한다. 마패는 역참에서 역출과 역마를 징발할 수 있는 증빙이었으며, 이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만이 휴대할 수 있었으므로 압행어사의 신분증명이 되기도 하는 도구였다. 마패의 말그림이 수만점 말을 빌려 탈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가 높을수록 마패에 말그림이 많았다.

평구마을 일원에는 경기도 지청 문화재 기념물 177호로 지정된 청중 김씨 문의공파 5기의 묘역과 선도비가 있다. 황룡 김씨 문의



신도비

공파에는 김식(1482~1520), 김육(1580~1658), 김좌명(1616~1671), 김성용(1699~1764), 김시묵(722~1772)이 있다. 그래서인지 마을에는 문의공파뿐만 아니라 청풍 김씨들의 신도비와 묘역을 안내하는 안내관이 참 많았다.

평구마을은 많은 조상님들의 묘가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 배산임수의 명당터다. 그래서 매년 수백 명의 풍수 교육생들이 마을을 찾아온다고 한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김육선생의 묘역이었다.

배산임수의 명당자리에 묘역이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햇빛도 잘 받고 정말 좋은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에서 김식, 김시문 선생의 묘를 찾아 들어가면 청풍 김씨 남골 묘역을 볼 수가 있다.

이 남골 묘역은 정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조상님들의 묘를 깔끔하게 가꾸는 일이 그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그밖에도 많은 분들의 묘역과 신도비를 찾고 견학했다.

평구마을에는 정말 많은 청풍 김씨 조상들의 묘가 있었고 그 조상님들은 모두 살아 계실 때,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었다.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어서 과거에 높은 지위의 중앙 관리들과 암행어사들이 평구마을을 역으로 정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정충 김씨 문의공파 묘역의 묘

182

183

이번 공모전으로 인해, 남양주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을 견학 한 것이 뿌듯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남양주에 이런 아늑하고 멋진 마을이 있다는 것에 감탄했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 남양주시 삼패동이 원래 양주지역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평구역이 고려 시대에는 양주에서 평창이나 봉화 방면으로 갈 수 있는 평구도의 중심 역이었고 조선 시대에는 찰방(총6품)이 소재하는 평구도의 중심 역으로서 한양·양근·지평·홍천에 이어지는 역로와 평구역에서 가평·한양·양주 등에 이어지는 역로의 소관 11개 역을 관할하는 중로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구마을이라는 곳을 처음 견학한 나는 미숙한 점이 많아 평구마을 마을회관의 어르신들께 여쭙어 가며 묘역들을 찾아 다녔다. 어르신들이 평창히 친절하셨고 너무나도 많은 고마움을 느꼈다. 견학하기 전에는 '처음 가는 마을에 너무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나 자신이 얻은 것이 정말 많은 것 같다.

나의 정철의 관동별곡 속의 평구역, 평구마을 기행문을 여기서 마친다. 감사합니다.☞

박경린



인간미 넘치는
장현의 장



한적하고 평화로운 장현은 2일과 7일이 되면 시끌벅적하고 번잡하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물벼 앞으로 향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북적북적하다. 이렇게 북적북적한 이유는 장현장 때문이다. 해산물이나 나물 같은 식품도 팔고, 다양한 의류품, 장난감 등도 판다. 장현장은 마치 원하는 모든 것이 나오는 주머니 같다.

나는 장현장을 정말 좋아한다. 왜냐하면 장현장을 돌다보면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고, 삭막했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무개를 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하게 울건을 파는 대형마트와는 다르다. 엄마와 함께 장현장을 돌다가 잠꼭이 필요해서 할머니께 잠꼭을 신 척이 있는데, 할머니께서 어찌나 손이 크신지 봉지가 터질 듯 가득 담아주셨다. 그렇게 담아주시고도 내게 예쁘다며 손에 쥐고 계셨던 대주를 하나 주셨다. 할머니가 주신 대주는 내 마음에 꼭 딱히 빠지지 않는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알아가는 질 없는 삭막한 현실은 장현장과는 거리가 멀다. 장현장 사람들은 모두 웃고 기뻐하며 물건을 사 간다. 이 따뜻한 인심에 많은 것을 얻어간다.

내가 장현장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먹거리 때문이다. 만능 주머니 같은 장현장은 역시 먹거리도 많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는 바로 부꾸미이다. 메밀전병에 김치와 당면 등의 속 재료를 넣어 김밥처럼 만든 것인데, 한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는 맛이다. 골깃한 메밀전병과 배콤한 김치속이 잘 어울리려나. 씹을수록 맛있다. 나는 부꾸미를 한 번에 10개나 먹은 적도 있었다. 부꾸미는 1,000원으로 가격도 저렴하다.

그리고 또 파베기도 배놓을 수가 없다. 장현장의 끝부분에 위치한 파베기 길은 파베기를 포함하여 튀김 등을 파는데 그 중에서도 파베기가 일품이다. 달콤하고 빵이 부드럽다. 따뜻하고 갓 튀겨 바삭바삭하다.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린다. 어떤 사과즙이나 빵집도 장현장의 파베기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할 것이다. 파베기를 먹고 나면 2일과 7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내가 장현장을 좋아하는 세 번째 이유는 장현장은 저렴하고 질이 좋다. 우리엄마는 장현장에서만 잠꼭을 산다. 할머니께서 인심이 후하시고 인심이 좋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장현장에서 파는 잠꼭이 저렴하고 질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했다. 할머니께서 직접



농사지으신 것을 파셔서 그런지 저렴하고 맛있는 것 같다. 추석과 설날 같은 큰 연휴에 장이 서면 사람들이 평소보다 두 배로 붐비는 것도 물가가 비싼 대형마트보다 장현장이 훨씬 가격이 낮아서 그런 것 같다.

식품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생활용품도 굉장히 저렴하다. 학생이라서 교복에 입을 스타킹이 많이 필요한데, 스타킹은 매우 비싸다. 한 개에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한다. 그런데 장현장에서는 10개에 12,000원에 살 수 있다. 또 양말도 값이 싸서 장현장이 열리면 양말을 한 움큼 사간다. 또 아이들 옷은 정말 싸게 팔아서 우리 이모가 한 아름 사간다. 이모는 장현에 살지 않는데도 장현장에 반해 버렸다.

저렴하게 옷을 구입해서 살기 힘든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살기 힘든 요즘 장현장은 정말 우리 같은 서민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같다.

요즘 진점이 도시화되고 있다, 곧 있으면 지하철도 들어오고 영화관이나 대형마트들은 이미 건립되어 있다. 도시화 되면 정말 편리하고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다. 하지만 인간미 넘치고 정을 느낄 수 있는 딱딱한 일상의 한줄기 빛, 장현장은 대형마트나 도시화된 건물보다도 소중하다. 장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남양주의 명소 중의 명소이다. 장현인들의 사랑, 장현장이 열리는 2일과 7일이 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

김초아

186

187



어머니의
마석 5일장

엄마는 아리도 아프시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소리 같으셨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바깥을 그리워하셨다. 그런 엄마를 볼 때 마다 가슴이 저러왔다. “지영아, 요즘도 아직 옛날처럼 열리니?” 뜬금없이 장박을 바라보다가 나에게 물으셨다. “뭐가 열려?” “장박이야.” “5일장?” “그래 그릇.” 가슴 엄마는 옛 일을 그리워하시며 장에서 장사를 하며 보냈던 옛 추억들을 떠올리시곤 했다. 추운 바람이 불어 창문을 닫으려 해도 엄마는 그 옛날이 그리워서인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다.

20년 전부터 엄마는 5일장에서 나물을 파셨다. 그곳에서 엄마는 막내 예쁜 아가씨로 공했고 다른 나물 파는 할머니에게 예뻐파 사람을 독차지했었다. “아가씨, 오늘은 김심 뭐 싸왔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찹쌀 싸왔죠.” “아이고 항상 신세만 지내. 배고 고마우이.” 그렇게 장이 설 때나 서지 않을 때나 항상 나물을 파시는 할머니들을 위해 엄마는 찹쌀, 된장떡개, 비빔밥과 같이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싸가셨다. “엄마, 왜 맨날 할머니들한테만 맛있는 거 주는 거야?” 이려고 친했던 나는 괜히 질투가 나고, 할머니들이 미웠었다. 우리도 먹을 것이 부족했고 먹고 싶은 걸 다 먹지 못했는데 할머니들에겐 하루가 멀다 하고 김심을 챙기드셨으니 말이다.

“지영아, 우리가 비록 남들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진 못하긴해. 그런데 엄마는 저기 개신 할머니들만 보면 몰아가신 엄마가 떠올라서……. 미안해 지영아, 엄마가 우리 지영이 더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엄마는 외할머니 얘기만 하면 항상 우셨다. 일찍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남매를 업고 안으면서 남의 집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생활을 유지하셨던 외할머니, 그렇게 첫째이모부터 막내 우리엄마까지 다 시집보내고 난 후, 그제서야 외할머니는 편안하게 쉬실 수 있으셨다. 그리고 엄마도 취직을 했고 효도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즈음 외할머니는 계속 앓고 계시던 걸때 때문에 효도 한번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엄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쓰러지셨다. 그리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외할머니를 찾았고, 묘지에 가서야 목놓아 우셨다. 그래서 항상 엄마는 외할머니를 가슴속에 품고 사셨고, 그 때문에 장터에 개신 할머니들을 쫓겼다고 나이를 먹고 칠이 들

어시아 생각이 들었다.

골터에서 엄마는 나를 많이 사랑 못하셨어도 그 분취기를 항상 즐기셨다. 10이년간 단 휘면도 힘들었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 동네 같은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정이 많고, 풍어 남천이라고 하셨었다. 그리고 다른 장들은 밭내도 심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났다고 했지만, 마시장은 엄마가 장사를 했던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싸움도 없었다고 했었다. 엄마는 매일 장사를 하고 오시면 입이 닳도록 칭찬만 하셨다. “지영아, 여기 마시장은 달라도 정말 많이 달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들 착하고 친절한지 어찌 보면 경쟁자인데도 말이야. 소담만 아프다고 해도 바로 약도 사다주고 정말 좋은 곳이야. 여기만 오면 고향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정말 좋고 행복해.” 비록 장사 일은 많이 힘들었을 테지만, 이렇게 행복해 하는 엄마를 보면, 이따기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하니깐 그만 하시라고 말리고 싶다가도 그냥 계속 하시게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오래 가지 못했다. 10년 전, 엄마 아버지가 정말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그것도 평소처럼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고, 엄마는 혼수상태에 빠지셨다. 형제자매가 없었던 나는 혼자서 살래준마부터 퇴직까지 알아보느라 슬피한 새도 없었고, 엄마가 매일 가던 마시장을 생각할 거울은 더더욱 없었다. 아버지 살래이술 혼자서 위로이 마치고, 나는 정말 심심 숨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가신 것도 너무 서러운데 엄마까지 못 깨어나면 난 어떡하……. 그냥 나도 자라라 죽어버릴까……. 목사 선생님이 보키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신 날 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제만 복시나 하는 밤에 보편만 더 기다리기로 했다. 그 시간 동안 복시 보를 엄마의 마지막을 위해 잠을 생키러 왔다. 거의 10년 만에 찾은 엄마의 집이었다.

그런데 길 앞에 할머니들이 바글바글 개셨었다. “할머니들 여기서 뭐하고 개세요?” “애구, 지영아, 너 엄마가 상을 안 나온 직 한살 됐다. 뭘 일 생길 거 아니냐?” 엄마가 상사를 그만둔지 근 10년이 다 되거지만 계속 언약을 이어가던 할머니들 때문인지 엄마가 안 오는걸 아시곤 찾아오셨던 것이었다.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할머니들을 보자 눈물이 왁글 쏟아졌다. 그리고 여태껏 잊었던 지초자종을 다 심명드렸다. 할머니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다들 눈물을 흘리셨고, 병원에 함께 가차고 하셨다. 괜시 엄마의 모습을 보면 할머니들이 더 힘들어 지실까봐 계속 말렸지만 어쩌면 마시장이 된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병원에 가서 엄마를 보자 할머니들은 거의 동쪽에 가까운 침대로 우셨다. “마이고 지영애끼야. 어찌다 이렇게 됐나. 우리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렇게 할머니들은 계속 우시며 언바에게 허위없이 미안하다고만 하셨다.

그렇게 할머니들이 다녀가셨고 며칠 뒤 정말 기적처럼 엄마는 눈을 뜨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의 10년을 병원에서 치내고 계신다. 10년 전 의사선생님은 요양을 위해 이보 가평의 별원을 소개시켜 주셨다. 가평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후 나와 엄마는 떠나기 전에 집에 들렀다. 필립 모두 가족처럼 깨어난 우리 엄마를 반겨주셨다. 안아주시고 악수해주시고, 심지어는 침실도 만들어주셨다. 좋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엄마이시던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들



마석 5일장(박종원 사진)

190
191

도 같이 우셨다.

우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 할머니들은 김치, 나물, 녹즙과 같이 몸에 좋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셨다. “어머니, 힘드신데 뭐 이렇게 많이 짰어, 그냥 인사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쁜 지영애 미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보내, 입에 안 맞고 써도 꼭 챙겨 먹어야해. 그래야 빨리 나아서 우리 죽기 전에 놀러오고 그러지.” “그런 말 하지 말래두! 우리 어머니들은 나 빼고 안 죽어, 그 니깐 어머님들도 건강하게 나 돌아올 때까지 잘 케서야 해요.” 그렇게 요란하면서 슬픈 작별 인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는 지금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간간히 날라오는 부고장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시고 많이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그 옛날의 마석장을 많이 그리워하신다. “지영아, 이담에 엄마 다 나오면, 제대로 걸어다닐 수 있으면 꼭 다시 한 번 마석장 같이 가보자. 가서 어머님들한테 점심도 얻어먹고 얘기도 하자.” “그래, 엄마 그리니깐 빨리 나아야지.” 엄마가 빨리 나아서 같이 장을 구경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

이혜인

한글법당 봉선사



내가 처음 봉선사에 가본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맞은 석가탄신일, 그날 나는 강원도에서 올라오신 할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봉선사로 향했다. 그 당시엔 내가 많이 어려서 봉선사에 가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 않고 결끄러웠고, 그런 나를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달래주셨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봉선사 입구 주차장에 다다랐고, 우리는 차를 타고 다 같이 내려서 입구까지 걸어갔다.

봉선사 입구에는 다리를 네 개 가진 일주문이 마치 수문장처럼 딱하니 자리하고 있었고, 그 웅장한 모습에 우리 가족은 모두 압도된 듯이 멍하니 서서 한동안 그문을 쳐다보았다. 한편 어머니께서는 준비해 오신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어 일주문을 찍고 계셨다. 나도 얼떨결에 어머니께 이끌리서 일주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내 모습을 보시며 따뜻한 햇살 같은 미소를 지으셨고, 나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아이처럼 웃었다.

일주문을 지나 우리는 봉선사 사찰로 가는 길을 걸었다. 주변에는 마치 경호원처럼 부도탑과 비석들이 우뚝 서 있었고, 나는 그 석탑을 보면서 한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몰라서 할머니께 물어보았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하나씩 다 읽어 주셨지만, 아직 그뻔 인물들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도 아는 척을 하였던다. 비석과 부도탑 길의 마지막에는 비석이 있었는데 한글로 된 그 비석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그래서 나는 할머니께 물어보았다.

“저 비석은 왜 한글로 되어있어요?”

할머니께서는 ‘춘원 이광수기념비’라고 써진 비석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글쎄다, 할미도 잘 모르겠구나. 이마도 유명한 문하가라 그러지 않을까?”

나는 왠지 궁금해서 그 비석의 이력을 기억해 두었다.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 비석을 검색해 보니 일제강점기 당시 ‘무정’을 썼던 춘원 이광수였다. 춘원 선생은 이 서철의 운허스님의 육촌지간이었고, 운허스님은 독립운동가셨고, 춘원선생은 친일파로 낙인찍힌 분이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결국 운허스님이 이 비석을 세우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혈육을 생각하는 운허스님의 따뜻한 마음이 와닿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나도 운허스님처럼 가족



봉선사 빔조루

들을 아껴야지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사찰로 향하기 전에 연꽃이 피어있는 작은 연못을 만났다. 난 신기해서 그곳으로 가까이 가보았고 연못 아래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웅장하게 퍼지는 신비로움을 느끼며 난간에 팔을 걸치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그러자 개구리 울음소리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었고, 난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그러다가 연꽃 무리를 발견했고 나는 신기해 할머니께 물어보았다.

“저게 무슨 꽃이에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꽃처럼 환하게 웃으셨다.

“연꽃이란다. 연못에서 자라는 꽃으로 특히 불교에서 귀하게 여기는 꽃이지.”

나는 연꽃의 옆모습과 위에서 보는 모습을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연꽃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웠고, 주변연못의 환경과 어우러져서 자연적인 쾌락을 뿜내었다. 지금도 간간히 생각나는 그 모습을 나는 쉽게 잊을 수가 없었고, 또 가고 싶어지게 만드는 광경이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어머니께서는 연못을 찍고 개졌고 아버지와의 난 연못을 구경하다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할머니와 함께 연못을 배



봉선사 범종

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다시 길을 재촉해서 봉선사의 정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사찰의 모습은 사극에서 봤던 것과 많이 흡사했지만, 나에게서는 또 다른 별천지였다. 봉선사로 들어가기 전에 보았던 회담은 마치 양반집의 문간재와 비슷해 보였고, 그래서 나는 절이라는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회담을 지나서 안쪽에서 본 봉선사의 모습은 자연이 품은 절집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전각들을 구경하며 차차다 갑탄사를 한아디씩 내뻐었다.

우리는 다시 큰 법당을 향하여 나아갔다. 도중에 청풍루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길게 늘어선 촛불들의 길김다리를 볼 수 있었고, 양초들의 다양한 색깔과 환한 불빛을 보며 나는 아버지께 물어보았다.

“왜 이렇게 촛불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급제다 이마도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니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나는 왠지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취해버린 건지 그 광경에 외경심이 들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아나타나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간단한 사진 한 장만 찍고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큰법당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렸다. 큰법당 앞에는 촛불을 올릴 때 쓰는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에 촛불이 길러서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촛불에는 석가탄신일을 축하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들과 대화해 보고 싶어졌다. 그들이 어떻게 석가탄신일을 알고 이렇게 절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 일천한 영어실력으로는 턱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다. 큰법당에 붙어 있는 주련은 한글로 되어 있어서 잘 읽을 수 있었다. ‘운누리티끌세어서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를 보고 정말 우리말을 사랑하는 절이라고 생각했다. 원래는 큰법당도 ‘대웅전’이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그런데 운허스님께서 주련과 전각의 이름을 전부 한글로 고쳐섰다고 한다. 어렸든 우리는 큰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금색의 부처상을 보고 그때의 어린 나도 어떤 걸음



과 엄숙함을 느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전각이 있었다. 어떤 한 남자가 긴 열주를 한 손에 쥐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나는 다시 한번 절로 경외심이 들었고, 저 기도가 부디 이루어지길 나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우리가 공물을 드리고 나온 후에 우리는 봉선사의 유명한 건물 중 하나인 '관사관무헌'으로 향했다. 이 건물은 조선 시대에 왕의 위패를 모셨던 절인 봉선사의 주지스님께 조선왕실에서 '봉향관사'라는 작위를 수여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주지스님의 키치인 이 전각은 그 사절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아직도 '관사관무헌'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나는 봉선사를 과연 왕의 위패를 모셨만하다고 생각했고, 조선 왕실에서 봉선사 주지스님께 작위를 내릴만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들은 봉선사를 내려가면서 나는 체력적으로 지친 할머니를 위해서 부족하면서 밭고와 밭종이 있는 밭종무를 발견했고, 이것만 보고 가자고 가족들을 설득했다. 랜지 봉선사에서 내려가기 싫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밭종무에 매달린 밭종은 매우 컸으며 또한 매우 묵직해 보였다. 나는 랜지 저 종이 봉선사를 지키는 땅꾸 같다고 생각했고, 설명을 보니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어진 종이라서 그런지 명함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으며, 어떤 소리가 날지 저절로 궁금해해서 종을 쳐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허락 없이 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는 시하에 있는 선열당에서 길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물론 나에게서는 생소한 음식들이었지만 봉선사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답고 장엄한 풍경 속에서 먹는 음식은 꿀맛 같았다. 그 후에 우리는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차를 타고 귀가했고, 나는 그날의 추억을 명민히 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봉선사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어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고 봉선사는 조선시대부터 우리 고장에 자리 잡은 사찰로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봉선사의 운허스님께서 항일 투쟁 운동을 전개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지켜낸 의미 있는 절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런 전통 있고 자랑스러운 절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매우 뿌듯했고 이런 남양주의 명소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봉선사의 머리까지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꼭 부처님의 증생들을 향한 사비로움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았으며, 우리 고장의 봉선사가 우리 민족의 혼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 각부짐을 느꼈다. ■



남양주
기원다



남양주의 정자목과 당산목을 찾아
조선 왕릉의 도시, 남양주
남양주 3·1운동사
한음 이덕형 선생, 시의 세계

남양주의 숨은 비경들 명소_ **전문가집필**





남양주의 정자목과
당산목을 찾아서

사람은 누구나 나그네가 되어 길을 쉬이 떠나고 돌아오는 것이 보람이다. 그래서 터벅터벅 고산길을 걷다보면, 언덕에 무아한 자대로 반기는 아름답드리나무를 만나면 왠지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요즈음이야 온통 들레길이다 해서 표지판을 따르면 마을을 쉽게 만나고 벗어나지만 불과 2~30년 전만하더라도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도 오밤비를 두른 성황당 나무가 근처에 마을이 있다고 알려주니 만도의 숨을 쉬기도 했다.

아무리 산업화가 되고, 인색한 세상이라고 까칠한 말을 하지만, 나그네를 반기는 것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다. 느티나무의 둘째만큼 마을 인심도 후했다. 나무의 크기는 마을 인심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했다.

정자목은 마을의 심터이자 교육장

한 어촌 그 나무 아래 마을 어른들이 그늘을 쬐고 있으면, 아이나 젊은이들은 큰 인사를 하고 지나간다. 어른들은 그 아이가 어느 쉼 아이고,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 시시콜콜한 정보를 주고받고, 야단 칠 일이 있으면 풀리 야단을 치고, 다독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나무들을 정자목이라 한다. 양반들은 산위나 강가의 정자에 앉아 시류를 논할 때 뉘조들은 나무그늘 아래 모여 마을의 대소사를 이야기 했다.

이에 반해 어느 나무는 마을 안녕 기원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나무들을 당산목이라 한다.

남양주시가 출범할 때는 인구가 40만 명 안팎이었는데, 어느덧 65만 명에 달한다. 그만큼 도시화가 빨라졌다는 이야기다.

오랜 역사를 자연스럽게 지키던 자연마을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저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던 마을나무가 아파트 단지에 갇히기도 하고, 신설된 도로에 밀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자연히 정자목이나 당산목의 역할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희귀목과 고령수를 보호하라

100년 이상 된 나무를 고령수(高齡樹)라 한다. 이 나무들은 그 기능과 가치에 따라 정자목, 당산유으로 나눈다. 희귀성, 나이, 선화와 인화에 따라 천연기념물, 시도나무, 시산수나무, 마을나무로 분류하고 보호수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국의 보호수는 1만 그루가 된다.

남양주시는 68개소 61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됐다. 1982년 10월 12일에 57그루가 일괄로 지정됐고, 2004년에 1그루, 2009년에 3그루가 새로이 확보해 줄었다.

수종으로는 느티나무가 28그루로 가장 많고 은행나무 13그루, 소나무 7그루, 향나무 7그루, 상수리나무 2그루, 퉁나무 2그루, 보라수나무 1그루, 허나무 1그루, 수종(樹種)은 8종이다. 화도읍 기림리 보광사의 소나무는 유일한 반송이다.

나이로는 진접읍 연평리 산4번지에 위치한 은행나무가 675년으로 남양주 최장수나무이며, 높이로는 별내면 정하리 205번지에 위치한 525년 은행나무가 37m로 최장신 나무이다.

500년 이상 나이를 자랑하는 보호수도 은행나무 6그루, 느티나무 4그루, 향나무 1그루, 허나무 1그루 등 12그루나 된다.

치이별로는 화도읍 12그루, 진접읍 9그루, 수동면 9그루, 조안면 6그루, 와부읍 5그루, 진건읍 5그루, 오남읍 4그루, 별내면 3그루, 우석동 2그루, 호평동 1그루, 지남동 1그루, 일패동 1그루, 가운데1그루, 퇴계원면 1그루 등으로 아직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자연마을일수록 고령수가 많음이 편지 자연스럽다. 당산목인 가운데의 옹나무와 수동면 지둔리의 시무나무 2그루를 제외한 59그루가 정자목이다. 오남읍 양지리 사다니 마을의 향나무는 천연기념물이다.

남양주시의 대표 정자목과 당산목을 찾아 나무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 본다.

사라진 마을의 언덕을 지키는... 가운데 가재울 옹나무



가운데 가재울 마을의 옹나무를 찾았을 때 마을은 사라졌고, 행한만이 남는다. 마을 잃은 언덕의 교회와 배밭에서 새를 쫓는 종소리 외엔 들리던 노랫소리만 귀에 맴돈다.

이 마을은 택지개발에 묶여 마을 사람들의 손을 떠나 있었다. 그러곤 올 5월 마을사람들이 모두 떠났다. 당면 마을을 언덕 위에서 보며 옹나무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저 성냥에 빛을 쬐었다.

이 옹나무는 아주 특이하다. 가지 하다는 하늘을 향하고, 다른 가지는 땅을 향한다.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별난 기운이 있었기에 가

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신령함이 있다.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시 만나 매년 대동제를 치낼 것을 약속했다.

이 은행나무의 나이는 1천년에 달한다고 1993년 산림청 보고가 있었지만 표지판에는 400년으로 돼 있다. 은행나무 앞에는 2년에 한 번씩 산치성을 지내는 제당이 있고, 입구에는 재수를 씻는 우물이 있다.

은행나무는 흔히 임나무라고 하며, 느릅나무과의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전국에 자생하며 중국, 일본, 몽고 등지에 분포한다. 생장이 빠르고 이식이 잘되며 중성토양을 좋아하는 장수나무이다.

잎은 어긋나며 길이 13cm, 너비 5cm의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톱니가 있다. 가을에 노랗고 빨갭게 물드는 단풍이 매우 아름답다. 암수한몸이며 암꽃은 가지 끝에 1-2개씩, 수꽃은 새로 자란 가지 밑에 10여 개씩 모여서 핀다. 수땀이 길고 나무의 자태가 단정하며, 가지가 길고 넓이 좁은 수 정자목, 가로수 등으로 이용된다. 어린잎은 이른 봄에 밤을 써먹으면 입맛을 돋운다.

미음나무 청지기... 500년 은행나무



수석동 외마름 마을은 미음을 기억하는 이들보다는 음식청이 많은 풍속마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을의 흔적은 사라지고, 말이면 불야성 간관찰로 준비하게 늘어선 선종속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한국전쟁 이전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내려온 옛사공들의 애환과 그들에게 음식과 술을 팔았던 주박(신상객주)이 있었던 곳으로 영업의 형태만 다를 뿐 그 모습은 여전하다.

5백년을 넘게 기림매(황곡)라는 보곡에 병들려 있었던 백사장도 기억할 것이며, 강의 흐름을 바꿔 놓았던 을축년(1928년) 홍수도 보았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 묘로 사용했던 정치군인 원용덕(元裕德, 1908~1968)의 일생에 죽은지심을 느꼈을 지도 모른다. 한강과 마을의 변화가 강 건너 팔주

와 하남의 발전을 맡없이 지켜 본 산증인이다. 이 은행나무는 1980년대 경기도나부로 지정이 됐다. 밀양 박씨 선조가 심은 것으로 보여진다. 은행나무에서 밧지 않은 언덕에 밀양 박씨의 표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성을 인정하고 도나부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관정을 받았다.

현재 남양주시 보호수지정관리대장에는 남양주 2호로, 소유자는 평강 채씨 용교공파종친회이며, 관리자는 지금동장이다.

정희왕후의 명으로 심고 하마비까지 세우게 한... 봉선사 느티나무



봉선사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종의 본산이며 제25교구 본사로 고려 광종20년(969) 법연국사가 창건하고 운악사(雲岳寺)라 했다.

조선조 세조가 송하하자 철희왕후는 세조의 님을 위로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사를 하고 전황의 능을 받들어 모신다는 마음으로 원광인 봉선사(奉先寺)를 세우고, 이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전한다. 걸 입구에 들어서면 마치 느티나무가 일주문처럼 서있다. 이 나무의 수령은 500년을 넘는다.

느티나무 옆에는 조선시대 송요나 길문 앞에 세웠던 하마비가 있다. 이 비가 보이면 왕은 물론 누구라도 말에서 내려야 하는 석미로 1988년 지표조사 중에 사찰 입구 주차장 땅 속에서 발견되어 현 위치에 새웠다.

한음 이덕형의 별장을 지키던... 송촌리 송송골 은행나무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을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의 형성은 산을 위로하고 물을 앞으로 한다하여 배산임수(背山臨水)에 위치한다. 이러한 형국에 집을 짓고 별관의 터전을 삼는 것이 양기(陽氣)라고 한다.

운길산을 위로하고 북한강을 마주보며 운석한 삶을 누렸던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의 '송송골'. 이 마을은 오철 이항복과 깊은 우정을 나눈 한음 이덕형이 말년에 대아당(大雅堂)이란 별장을 짓고 홀이머니와 함께 지냈다고 한다. 지금은 집터만 남았고 마을 사람들은 '한음별서(漢陰別墅)'라 한다.

대북당 이이첨의 모함으로 삭탈관직을 당한 한음이 한양을 떠나 송촌리 강가에 도착하자 신선이 이덕형을 기다리고있다가 서울 한 수 지어주오는 떠났다. 그러자 기다란 호랑이가 한강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음이 나타나자 길을 인도하여 별시까지 무사히 달도하게 하였다는 설화도 있다.

송송골은 일전채판 때 원군으로 참가한 이어송(李如松)을 조선에 보낼 때, 자신의 이름이 있는 '송



(松)자가 붙은 이름은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음이 '송송곶'이라고 했으며 하며 자신의 호도 쌍송(雙松)이라고 지었다.

한음은 이곳에 머물며 나라를 걱정했다. 자연과 술로 벗을 삼다가 52세에 눈을 감는다. 조선조 문사들의 이야기를 엮은 '말원록'에 "한음이 세실을 비리던 날 흰 기운이 온 집에 가득 차고 오색명봉한 구름이 하늘을 덮어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였다. 시중의 백성들은 한음의 별세를 하늘이 예석하게 여겨 이러한 일이 밀어날 줄 믿고 장사를 견어지우고 거리에 나리 통곡했다. 한음의 도지동(桃桔洞: 서울 중구 도동) 자택에는 부조를 바치려는 백성들로 장사전을 이루었다."고 난세에 영웅의 죽음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이 별서터에는 4백년을 마을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은행나무 한 쌍이 있다. 1982년 10월 보호수로 지정될 때는 곧나무였다. 표지판에는 남양주 19호, 수령 400년, 높이 15m, 가슴높이둘레 5.5m로 적고 있다. 풍파로 좌측의 나무는 고사위기에 있으며, 우측의 나무도 대대적인 외과수술을 받았다. 은행나무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한음의 자취와 마을과 사람이야기를 은행나무 한 쌍이 전해주고 있다.

마을의 피부병을 없앤... 녹촌리 옷골 375년 느티나무 형제

두리나라 어느 곳을 가던 마을은 산이 에워싸고, 마을을 가로지르거나 휘히 흐른 냇가 흐른다. 마을의 전경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은 오랜 시간 불려왔던 마을의 이름이다.

이러한 이름중에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또한 마을의 형국과 관련 있는 보하골, 백봉산에 사슴이 많아 녹동, 조선중기 왕자였던 능원대군의 묘에 주변의 궁말이 있다. 마을의 형상과 변화를 똑똑히 길가에 서서 바라보았던, 375년 느티나무 형제는 마을 치성을 받는 고귀한 신분이다. 녹촌리 옷골



(상촌)에는 정월 16일 거리제와 음력 9월 9일 산치성을 이 나무에서 드린다.

정월 16일의 거리제는 부스럼과 관련이 있다. 마을 사람에 의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먼 옛날에 마을에 괴무병인 부스럼이 들었다. 마을에서는 고민이 많았다. 그때 스님이 지나가다 나쁜 수가 있으니,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다. 제수는 무나물 3월 서, 밥 3그릇, 복이 1마리, 콩을 섞은 백설기 1알이다. 마을의 만년과 가가호호 부스럼을 피하기 위한 소지를 올린다. 제관은 돼질시대에는 구장이 현대에는 반장이 맡는다. 이 거리제에는 개고기를 제수로 사용하는데, 봉개는 아니며, 꼬기와 앞부분을 사용했다고 한다. 부스럼이라는

액을 막기 위해 지낸 정월의 거리제는 역막이고사이기도 하다.

음력 9월 9일은 아홉이 겹치는 중구절(重九節)이다. 예로부터 우리조상들은 휴수는 양이라 길일로 삼았다. 1월 1일을 원단(원단), 3월 3일 삼짱날, 5월 5일 단오(수릿날),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구가 그것이다. 이 중구는 삼짱날에 왔던 제비가 떠나는 날이며, 중앙절(中央節), 중광절(重光節)이라고 한다. 일부지역에서는 오갈 때 없이 구천을 떠도는 혼령들의 제사를 지내는 날로 여긴다. 중구는 손이 없는 날이기 때문이다. 녹촌리도 이날 마을제인 산치성을 지낸다. 산치성 기간에 제주인 사주와 화주는 매일 목욕을 하고 비린 것을 밟지 않으며, 부침이 집근하자 못하도록 마을에 들어온 사람은 나가지도 못하게 했으며, 들어 온 사람은 제에 참석을 말렸다. 제주의 집 문간에는 금줄을 대신한 부침토를 놓아 액을 막는다. 제수는 삼색과일로 내주, 감, 밤을 썼으며, 소머리, 복이 3마리를 사용했으나 요즈음은 돼치머리로 대신한다. 제주는 조라술로 엇질(옛기름)으로 담갔다. 남양주시의 자료에는 정자목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당산목의 역할도 하고 있는 나무가 녹촌리 느티나무 형새다.

도시의 상징 아파트 담장에서 여는 말무더미 산신제... 신목(神木) 덕소4리 향나무

하북읍 덕소4리 읍계마을에는 특별한 향나무가 있다. 이 나무를 마을사람들은 500년은 되었을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50년 전부터 당산나무가 됐다. 이 향나무에 제년 음력 10월 5일에 말무더미 산



신제사(山神祭)를 올린다. 제사의 제(祭)는 땅의 신에게, 사(祀)는 하늘의 신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 마을 역시 하늘과 땅이 지성을 통하여 소통되기를 기원한다. 향나무는 원래 당산목이 아니었다. 이 나무가 마을의 당산목이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이 마을제사는 원래 마을의 안산인 금대산(金臺山)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서 지냈으나, 5~60년전 이 산에 전도관의 신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신앙촌이 들어서면서 좌를 밀러나 그 바위에서 제를 지낼 수 없게 됐다. 마을 사람들은 대동회의를 거쳐 커다란 바위의 일부를 쪼개어 지금의 당집에 두고 제를 지내는 기지를 보였다. 당시 당산목은 팽나무였다. 하지만 이 나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사가 되어 이 향나무로 옮겨 지내게

된 것이다. 이 향나무는 원래 마을과 금대산 입구에 서있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덕소주공아파트(단지)와 도로, 그리고 주차장에 가려져 있고 마치 아파트 담벼락에 끼워있듯이 비스듬히 서 있다.

나무의 높이는 대략 10m인량, 둘레는 4m에 달한다. 향나무를 중심으로 왼쪽에 우물, 뒤편에 신당이 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보호수도 시에서 지정한 고령수도 아니다. 마을사람들은 수 백 년 마을 제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이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글을 마치며

보호수는 산림청이 정한 법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수종별 나이, 나무의 크기에 따라 품격이 정해진다. 다만,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 중 고사(古事)나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종은 이 기준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남양주시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61그루의 보호수 외에 위에 예시한 와부읍 덕소 4리의 향나무 치열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고령수들이 더러 있다. 도농복합에서 도시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남양주시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고사목이 되기 직 카치가 있는 나무들을 발굴하여 품격에 맞게 보호수로 지정보호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선다. ■

김동환(매일일보 기자)



조선 왕릉의 도서,
남양주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거처야 하는 마지막 통과 의례가 죽음이다. 이 땅에 인간이 정착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의식은 노비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래서 동시성 문화권은 저마다 죽음과 관련된 독특한 의식과 문화를 전통으로 보존하고 있다.

조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나라다. 부모가 살아신 효로 죽어선 예로 자신을 다스려야 자식의 도리라 믿었다. 조상에 대한 최고의 효와 예를 실천하기 위해 선비들은 주유야풍(遺糶褒風)이라 하여 낮에는 유교경전을 밤에는 풍수학을 공부할 정도였다.

왕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왕의 죽음을 최고의 예로 장례를 준비하고, 검양저택으로 무덤을 만들고, 경건하게 제사를 지냄으로 왕릉을 확고히 했다. 왕실의 장례와 제례는 통치의 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왕이나 왕비가 승하(昇遐, 왕과 왕비의 죽음)하면 조정에서는 임시 기관인 국강도감, 빈전훈전도감, 산릉도감을 두어 국장절차를 의논하고 3년(27개월)까지 최고의 예로 진행했다.

조선왕릉은 남북한에 42기에 달한다. 그중 태조의 원비 신의왕후 한씨의 제릉(舊陵)과 2대 정종과 정안왕후의 후릉(厚陵)이 북한 개성에 있다. 이 2기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조선왕릉 40기가 2009년 6월 30일자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올해로(2014) 5주년을 맞이한다.

208

209

조선왕릉 5년 전 세계문화유산 등재… 외국전문가 '신의 정원'이라 극찬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를 외국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은 27명의 왕이 518년간 경영을 했으며, 왕과 왕비, 후궁, 왕자와 공주의 묘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왕조다. 묘역은 성분에 따라 능(陵), 원(園), 묘(墓)로 구분한다.

능은 왕과 왕비(추존왕과 왕비 포함), 원은 왕을 낳은 후궁이나 왕이 되지 못한 세자의 13기의 무덤을, 묘는 연산군과 광해군을 포함한 왕자, 공주, 후궁이 묻힌 6기의 만년유해를 말한다. 이 무덤



염평대왕

들은 대부분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둘째, 조선왕릉은 거짓이 없는 진실의 역사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는 물론 장례와 능침 조성을 기록한 의례의 그림대로 그 장소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셋째, 당시 조선이 문을 닫은 지 90년이 됐지만, 표역에서 유교식으로 제향(제사)을 지내고 있다는 것이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조선왕릉을 "Garden of a spirit" ~"신(神)의 정원(庭園)" 즉, '돌이 가신 왕과 왕비의 영혼이 거닐만한 정원'이라 극찬했다.

조선왕릉은 어떻게 꾸몄나... 임금이 1박2일 안에 돌아올 거리에 두어

조선왕릉은 산자와 죽은자의 공간으로 풍수와 도합설을 중시했다. 우리나라에 이 확신이 들어온 시기는 통일신라 직전 도선(道詵)국사가 당나라에서 풍수도합설을 도입한 이후 자연스럽게 조선까지 이어진다. 비산비야(非山非野)라 하여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낮은 언덕'에 조성한 것이 조선왕릉의 가장 큰 특징이다. 조선왕릉은 산릉(山陵)이라고도 한다.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평해군묘

210
211

는 조선왕릉은 선왕의 장례를 치루고 1막 2일 안에 돌아올 수 있는 도성 밖 10리에서 100리 이내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무덤을 꾸미는 방식은 세종의 오례의와 성종 때 만포한 국조오례의, 영조 때 발간한 숙오례의,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바탕으로 했다.

왕릉의 공간은 '진입공간(산자)-제향공간(산자+죽은자)-능침공간(죽은자)'으로 나누었다. 진입공간은 '외금천교-외홍삼문-재실', 제향공간은 '홍삼문-신어로-신어계-수라칭-수복칭-절자각', 능침공간은 '신교-언덕(강岡)-봉분(능침)-잉(甍)'으로 구성했다.

능의 형식은 무덤방(현실)을 둘러 꾸미는 석실(태조-태종, 문종)과 생석회, 고운 모래, 황토를 3:1:1로 혼합한 삼물로 다지는 회격실(세종, 세조-고종)으로 나뉘고, 왕이나 왕비가 홀로 누운 단릉, 함께 누운 합장릉, 나란히 누운 쌍릉, 셋이 나란히 누운 삼연릉, 위아래로 누운 동원상하릉, 서로 다른 언덕에 누운 동원이강 6가지로 구분한다.

부속건물은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 능을 관리하고 경비하는 능지기의 수복칭(수복방), 제사음식을 잠시 보관하고 국물을 대우는 수라칭(수라간), 능표(왕릉표석)를 보호하는 비각이 있다. 왕릉의 능표(비석 碑石 또는 석비 石碑)와 비각은 숙종 이후 세우기 시작했으며, 영조는 선대왕들의 능표를 대부분 세웠다.

정자각은 제함의 공간

홍살문에서 정자각으로 가는 길엔 신어로(神御路)가 있다. 왼쪽 높고 넓은 길이 죽은 왕의 영혼이 다닌다는 설로, 오른쪽에는 조금 낮은 살이있는 왕의 길인 어로라 하며, 신도와 이도로도 부른다.

종교와 사치처럼 직선의 형태를 이루다가 정자각 앞에 이르러 동쪽으로 90도 구부러진다.

정자각은 왕이 제사를 진행하는 정청(正廳), 왕이 절름하는 배위청(拜位廳) 두 개의 건물이 마치 '고부대 정(正)'자를 닮았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신어를 따라 배위청에 다다르면 신계와 어계가 있는데, 신어로와 같은 기능을 한다. 반대편 계단은 서계로 수라간에서 제수를 옮기거나 대축에서 축문을 대용 배 오르고 내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능침은 3단 또는 2단으로 구분, 누워있는 왕의 공간

조선왕릉 능침은 무덤의 주인공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장비한 국조오례의에 따라 초계(상계, 왕의 공간), 중계(문인의 공간), 하계(부인의 공간) 3단으로 나누어 상징물도 새겼다. 제2대 명조 이후에는 국조상례보본에 따라 세계(상계, 왕의 공간), 외계(하계, 문부인의 공간) 2단으로 축소된다.

초계의 곡장(당장)과 봉분 사이 좌우에는 돌로 만든 호랑이(석호)와 양(석양)을 두 마리씩 4마리로 배치했다. 이는 음양(陰陽)의 원리를 적용했으며, 양(+)에 속하는 호랑이는 눈을 지키는 수호신이고, 음(-)에 속하는 양은 명당의 좋은 기운을 지키고 바람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봉분 밑은 봉분을 보호하는 돌레돌인 12면 방풍석과 돌용다리인 난간석을 동시에 설치하거나 방풍석을 없애고 난간석만 두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방풍석의 일곱격인 언석은 일격인 구름무늬 중앙에 문관이 새겼고, 그 문관의 북쪽(오자)에는 12 띠 동물상을 새겼다. 난간석만 두는 능에는 난간석주에 12간지를 한자로 새겨 대신한다. 쥐(자)가 북쪽이고 말(오)이 남쪽이다.

봉분 정면에는 무덤 주인공의 휘티인 혼유석(混遊石)이 있고, 혼유석 좌우에는 촛대처럼 생긴 받주석이 있는데, 이는 무덤의 주인공이 밤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중계의 한 가운데 장명등(長明燈)이 있고, 좌우에 문인석과 돌말(석마)을 새겼다. 장명등은 명당을 환히 밝힌다는 의미고, 하계에는 칼을 한 부인석이 눈을 부라리고 새겼으며, 그 뒤에 역시 돌말을 세워 작은 문제가 생기면 언젠가 대처하고 궁궐로 달려가겠다는 의미가 돋보인다.

언덕 아래에는 축문을 태우는 예감(豫坎), 산신과 지신에 제사를 지냈던 산신석이 있다. 산신석은 3년 상을 마치면 용도가 깨진다. 예감은 세종 20래년부터 축문을 분연으니 명조 33년 이후 태우는 것으로 변화한다. 또한 세종 이전의 왕릉에는 정자각 뒤편에 소전대(燒錢臺)를 설치해 축문을 태웠다.

능역의 숲은 조선왕실의 상징… 태종부터 조경

조선왕릉은 건물과 석물이 화려하지 않다. 유양과 풍수 사상을 기본으로 죽은 왕을 기념하고 업적에 대한 존경, 사악한 것으로부터 영혼보호, 무덤 훼손방지, 그리고 죽은 왕이 복을 준다는 사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신인(神人)과 신수(神獸), 신비한 힘을 지닌 상형을 부여 능역을 보호하고, 왕의 영원한 안락의 공간으로 꾸었다. 이는 죽은 왕의 마지막 위엄이며, 죽은 왕의 마지막 별궁(別宮)이기도 하다.

능역의 배경을 이루는 숲은 숲술이 으뜸이다. 불분을 중심으로 한 능역의 공간은 집대사의 공간임을 알리고 사망의 숲과 경계를 이루고,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 심은 들레나무로 삼국시에는 도래 숲이라 한다.

태종이 태조의 능을 조성하면서 능역에 소나무를 심으라고 두 말이나 강조하여 오늘날에 이른다. 소나무는 길장생(吉壤生)의 하나로 왕조의 영원성을 나타내며, 왕의 상징인 일월오봉도의 좌우쪽에 붉은 소나무를 배치한 것도 그러하다.

정자각을 중심으로 한 제향 공간의 주변에는 소나무, 진나무, 신갈나무 등 고목층 심고, 밑에는 매죽나무, 필죽, 김달래를, 냇가에는 오리나무 등을 심어 관리하였다.

능원의 때(잔디)는 한국형잔디가 주종을 이룬다. 조선 시대에도 양묘장과 수목원이 있었다. 중국 사신의 기차인 보화관(寶華館, 초기에는 태평관, 서대문구 독립문 근처에서 분경과 능원의 잔디와 꽃과 나무를 재배했다. 소나무는 동서 2월에 옮겨 심었고, 잔디는 필요에 따라 음력 8월에 파종하기도 하였다.

남양주 묵헌리 일대는 향과 숲을 보급한 향탄산(香炭山)

조선왕릉 제사에서 초헌관이 제일 처음 하는 행위는 향을 피우는 의식이다. 그래서 유교가 흥치 이념이 된 조선시대 이후 초상을 기리는 제사에 향이 빠지지 않았다. 향냄새를 받고 정자각 능원에 누워있던 왕이 깨어 정자각 신자로 내려온다는 믿을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향을 피우는 풍습은 6세기 초로 올라간다.

삼국유사에 양나라로 보냈던 사신이 향을 가지고 왔는데 이름도 쓰일새도 못했다. 두루 물어보게 하였더니 곡호사가 말했다. '이것은 향이런 것입니다. 태우면 강한 향기가 나는데, 신성한 곳까지 두루 퍼집니다. 원하는 바를 빌면 반드시 명험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차츰 향은 부침(市斤)을 없애고, 톳산을 남게 해 친지신병과 연결하는 풍토라고 믿었고, 가을 하기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향을 주변에는 향탄산 또는 향탄소라 하여 향과 숲을 보급하는 곳을 따로 정했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를 두었다.



관해군의 모신묘

남양주시 화도읍 권마산 일대는 돌구름과 인근 왕릉에 보급하던 향단산이 있었던 곳이다. 인조9년(1631)에 발간한 건원릉지에 "북봉 동쪽에 있는 권마산 가오곡(화도읍 가곡1리), 남쪽으로 마치고 개, 북현리에 이르고 현상에 이르는 거리가 향단산 일대에 속하는 금표를 새웠다."고 적었다.

훗날 숙종은 재위 19년(1693)년 10월에 참봉 이수반과 애조낭관 조복경을 임회인으로 하고 함께 둘러보고 경계를 정했다고 한다. 북현리가 일명 북갓골이라 부른 것은 여기서 온 듯하고, 권터라는 지명은 향과 숲을 관리하던 별칭으로 보인다.

4릉, 2원, 2대원군, 3후궁 묘역이 있고… 공빈과 관해군 모자 송릉리에 있어

남양주시에는 제6대 단종의 비 정신왕후의 사릉, 제7대 세조의 정희왕후의 광릉, 제26대 고종대왕 제의 명성대왕후의 흥릉, 제27대 순종효황제와 순명효황후, 순정효황후의 유릉 3기의 신의 정원이 있다.

제15대 광해군과 그의 권형 임해군, 이 둘의 생모 공빈 김씨의 성묘, 관해군의 이복동생이자 인조

의 생부인 추존왕 원종(元宗, 원원대원군)의 부인 인빈 김씨의 증강원, 제23대 순조의 생모 수안 마씨의 위정원이 전한, 전집권에 있다.

제14대 선조의 아버지 세종대원군, 고종의 생부 통신대원군의 묘역과 제11대 중종의 후궁 정명 마씨와 아들 목성군, 17대 효종의 후궁 인빈 마씨, 제19대 성종의 후궁 형인 김씨의 묘역 또한 화도, 변내, 전한, 전림 등에 분포되어 있다. 정조의 비 효의왕후(후릉도)의 아버지 김시목의 묘가 와부읍 삼패동에 있어 조선왕실의 묘역이 유난히 많은 곳이다.

조선왕실의 꽃과 나무 인큐베이터… 사릉(思陵)

- 사릉은 추존왕비의 능… 일만평분의 길만으로 무덤 단층원릉
- 재초에 의해 폐위된 지 240년 만에 복원… 동래정씨 묘역에 안장
- 2014년 일만에 공개… 궁과 왕릉에 꽃과 나무 공급하는 생태공원

사릉은 조선 제6대 단종(端宗)의 비 정순왕후(貞純王后, 1440-1453-1455-1521)의 능으로 남양주 시 길건읍 사릉로 180번지(송동리)에 위치하며, 사적 제202호다.

214
215

왕비가 총로 있는 단릉(端陵)이다, 능침과 정화각, 홍살문이 밀착선으로 있어 전반적으로 인절간이 있으나 다른 왕릉보다는 단층하다. 훗날 단종의 함께 복원이 되었으나 추존왕(비)릉의 사례에 따라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능상(능침)의 직할도 길만으로 조성됐고, 능역의 규모도 그렇다. 단종의 왕릉과 닮은꼴이다.

왕비의 공간인 내계(內界)는 처장(당상)과 봉분 사이에 석호와 석양을 동시에 켜 바리씩 배치했고, 무인석은 없다. 또한, 봉분을 보호하는 별문석과 난간석도 두르지 않았다. 혼유석과 망주석을 새웠다. 문인의 공간인 외계(外界)는 좌우에 문헌석과 석마를 1쌍씩을 새웠다. 4대 장명등을 배치했고, 장명등은 숙종이후부터 8자에서 3자으로 바뀌는 양식을 따랐다.

사릉의 바위 오른쪽 언덕에는 동래 정씨의 가족 무덤이 있다. 원래 정릉을 조성하려면 주변이요역이나 주거지는 10리 밖으로 내보내야 하나, 숙종이 정릉(貞陵, 태조의 계비) 앞에 있었던 무덤들을 옮기지 않은 예에 따라 그대로 두었다고, 숙종24년 11월 29일자 칙령에 전한다.

이 무덤은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아들이며, 왕비를 어머니처럼 보셨던 철야수의 선영이기도 하다.

단종을 그리워하는 눈물로 새긴… 정순왕후의 애뜻한 삶

단종(端宗)의 비 정순왕후(貞純王后)는 세종 22년(1440)에 평음시 칠보면(당시 대원현 하산)에서

태어났다. 성품이 공손하고 겸손하며, 효우(孝友)가 깊어 가히 충효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인물이라 하여 단종1년(1453)에 15세에 간대되어 이듬해에 왕비가 된다. 단종이 왕비보다 한 살 아래다.

왕비가 된 기행도 잠시 이듬해 둘째 작은아들이 수양대군이 재유정란을 일으키, 단종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실왕이 되고, 의덕(懿德)황대비에 오른다. 세조 3년(1457) 6월 사육신사건으로 단종이 노산군으로 내려앉자 노산군부인이 된다.

2년 뒤 단종복위운동이 실패했으나 밧지된다. 단종은 영월로 유배의 길을 떠난다. 이어 여섯째 작은아미지 근실대군은 단종을 왕위에 다시 올리려고 하다가 붙잡힌다. 결국 단종은 죽임을 당한다. 왕비도 궁에서 쫓겨나 동대문 밖 낙산 동양봉(東陽峰, 송인봉) 기슭에 초막을 짓고 회안, 처심, 세지 세 서너마 어렵게 살았다.

“정동한 새가 되어 궁궐에서 나오니
 짙은 의로운 불이 깊은 산중에 있구나,
 밤마다 잠들려도 그럴 겨를이 없으니
 수없이 배가 가도 불남 없는 이 한만 남는고,
 새소리 맞은 새벽 피켄 초가달만 밝은데
 괴로운 나는 불 꺼져야면 너와만 붙었구나,
 하강도 너가 먹어 슬픈 자연 꽃같은데
 주일 많은 사람이 귀만 귀도 귀개 듣는고!”

-단종의 사냥가-

단종이 영월 정봉포에서 자신의 처지 참 노래했다. 이제 단종의 마음편이었을까 왕비 또한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15세에 단종과 혼인을 하고 19세에 왕비가 됐으니 늙은 그리움이 스며든 시대.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안 왕비는 소복을 입고 매일 아침저녁 이 봉우리에 올라 단종의 유배지인 동쪽을 향해 봉곡을 했다. 이 봉곡소리가 산 아래까지 들리면, 이 마을 이인들이 짱 한 번치고 가슴 편 번치며 함께 슬피했다. 이를 동정곡(同情哭)이라 한다.

경계천의 머리 다리 중 종로구 송인동과 중구 왕학동을 잇는 영도교(永道橋)가 있다. 단종과 왕후는 ‘머리 다리에서 이별한 후 다시는 못 만났다.’ 하여 ‘영월하 이별한 다리’라고 영리고(永離橋)로 부르다 ‘영원히 건널 수 없는 다리’인 영도교로 바뀌었다.

왕비의 머릿골 삼촌하는 부녀자들은 재수를 공급했으나 나라에서 이도 박자, 영도교 근처에 여인들이만 드나드는 ‘여인시장’을 열어 왕비를 도왔다.는 신화도 전한다. 동양봉 인근을 ‘자주굴’이라 부른다. 왕비는 세조가 전한 영민천이란 길과 곡식도 마니하고, 생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었기에 그럴까 부른다.

나는 우는 듯 웃으며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당신이 개신 그곳으로 갈 일 밖에 없네요
 깊고 어두운 숲을 지나고 한계 자욱한
 강을 건너는 어나면 길이라지만
 혼연한 마음에 한달음에라도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다만 삼사에 깃드는 걱정은 헤어진 지
 꼬박 예순다섯 해,
 이제는 어든 두 살 백발노인이 되어버린 나를
 행여 당신이 알아보지 못할까 하는 것뿐입니다”

- 김별아의 소설 '영영 이별 영이별' 중

왕비는 말년에 종로구 숭인동 청룡사에 머물면서 노산군의 명복을 빌다가 중종18년(1521) 6월 4일(음) 82세에 생을 마쳤다. 시누이인 경혜공주(단종의 누나)의 시댁 동래 정씨 묘역에 대군부인의 예로 장사지냈다.

216
217

반듯하고 거스를 없는 왕비... 폐위 240년 만에 복권

단종과 정순왕후의 복위 논의가 두 차례나 있었다. 제11대 중종 초기 조광조 등 사림파가 그랬고, 제18대 현종 때 송시열과 김수항도 복위를 주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마침내 숙종24년(1698)년 12월에 단종과 왕비는 폐위 된지 240년 만에 복권이 된다. '반듯한 정(定), 거스를 없이 흐르는 순(順)', 정순왕후라는 시호도 받고 창덕궁을 거쳐 종묘 영녕전으로 모셔졌다.

평생 단종을 생각하며 인생을 보냈다 하여 능호도 사릉(思陵)이라 했다. 단종과 정순왕후라는 정식 묘호와 시호도 얻었으니 한은 풀어졌을까. 아직도 460여리 어나면 단종과 둘은 합치지 못하고 '단종애사'의 한 가운데 있다. 남양주시와 남양주문화원에서는 1997년 사릉의 소나무 두 그루를 영월 장릉에 옮겨 심었다. 정령송(精靈松), 그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 하고 두 영혼을 만나게 한 것이다.

사릉은 조선왕실 꽃과 나무의 인큐베이터

사릉은 출삼이 유명하다. 산책로에는 4계절 우리의 들꽃을 만날 수 있다. 그곳에는 조선의 왕릉과

상권에 조경하는 우리의 꽃과 나무를 재배하는 영묘장이 있다. 최송은 원년기념품으로 개발된 귀한 나무들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은행도 운영하고, 고유의 자생식물, 야생화를 수집하고 재배하는 우리 의 전통 꽃과 나무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당은 비공개 장경이었으나, 2013년 1월에 동구릉의 송릉(18대 현종과 명성 왕후), 내장릉의 장릉(13대 정종과 인순왕후) 등과 함께 공개됐다. 이곳은 아유유래 숲길을 거닐며, 왕비와 이야기할 수 있다. 봄가을엔 사경하는 야경과 사진전과 주화전도 개최한다. 올해(2014년) 개재유신 5주년을 맞아 전통 정원을 꾸민다.

사당에는 특별한 전시관이 있다. 다른 왕릉들은 왕릉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지만 '조선왕릉 자연 생태관'을 운영하고 있다. 왕릉에서 사경하는 나무, 곤충, 새, 동물의 표본을 전시하고 있어, 조선왕릉의 자연 생태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조선왕릉 최대의 혁신… 광릉(光陵)

- '내 무덤엔 돌을 사용하지 마라' - 세조의 짜임한 유언
- 광릉 숲은 높은 왕릉의 부족함을 채운다 - 비포(非圃)
- 세조가 밝은 능이다 - 조선왕릉 최초의 동원이길 형식

광릉은 조선조 6대 세조(재위 1417~1455~1468)와 정희왕후(貞禧王后, 1418~1489)의 능으로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4번지(부평리) 주위산 아래 위치한다.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197호로 지정 됐으며, 2009년 6월 30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광릉은 15년 시간의 차이를 두고 승타(昇塔, 왕과 왕비의 죽음을 상징)한 왕과 왕비가 같은 관음과 다보 언덕에 누웠다. 동원이갈(洞圍圓閣) 형식으로 남다르다.

광릉 이전의 왕릉은 난간(태조 건원릉, 선의왕후 세릉, 선덕왕후 정릉, 문종 현릉), 명릉(정종 후릉, 대종 원릉), 함장릉(세종 영릉)이었으며, 무덤방(현강-현궁)을 돌(석신)로 꾸민다.

하지만 '내 죽으면 돌이 찍어야 하니 무덤방을 석정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석물을 간소화 하고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무덤방을 피다석(회석)으로 바꿨고, 불분을 보호하는 명동식도 없애고, 울타리인 난간식만 둘렀다. 비록 불인의 능에는 2,000명이 잔여분이 동원됐으나 이후 평균 6,000명에서 절반인 3,000명 정도도 충분했다. 이는 결미를 절약하고 민생을 위해 한 결과를 낳았다.

간소의 함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명동식을 생략하니 동원신라시대부터 유행한 왕릉 수호의 상징인, 12피 높음(12직신상)을 어디에 세겨야 하는 것이다. 눈이 날에 난간석을 받치는 돌이 좌주에 그림을, 예종부터는 난간석주에 글자를 새기는 전통을 낳았다. 이 세우는 조선말기까지 이어진 원대 혁신이다.

218
219

광릉 - 왼쪽이 세조릉, 오른쪽이 왕비인 정희왕후의 능이다

하지만 병풍석이 사라지니 봉분이 자주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원인은 봉분의 흙을 석실방식으로 쌓아 쉽게 흘러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성종은 봉분의 너비와 높이를 조절하므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도 불안했던지 성종의 선릉부터 효종의 (구)영릉(寧陵, 동구릉 원릉자리)까지는 병풍석을 두름 수밖에 없었고, 현종의 숭릉 이후에는 두르거나 말거나를 번복한다.

조선왕릉 유일의 하마바… 전나무 숲이 아름다워

광릉의 입구에는 조선왕릉 유일의 하마바가 있고, 동쪽에는 연못이 있다. 이 연못은 풍수학적으로 물을 보충하는 비보와 방화수, 능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광릉지(光陵誌)에는 이 연못과 재실주변에 진달래, 전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심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광릉의 자랑거리인 전나무 숲이 있다.

조선의 왕릉에 소나무와 전나무 등 침엽수의 조경은 태조의 건원릉 이후부터다. 태조가 1408년 5

월 24일 승하해 건원릉에 9월 9일 국장을 치렀다. 태종은 이해 동자제를 치내고 관공을 하고는 “정자각과 건원릉에 소나무나 전나무를 심지 않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심도록 해라.” 했기 때문이며, 나무의 꽃을 음력 2월에 심었다고 설화에 전한다.

왕릉의 홍살문을 사나면 왼쪽 언덕에 왕비, 오른쪽 언덕에 왕비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정자각을 한 가운데 위치한다.

그런데 왕릉은 다른 왕릉에 있는 제례를 지낼 때 사용하는 신어로(神御路)가 어떤 이유인지 없다. 신로는 들어가신 왕과 왕비의 영혼을 위해 세워두는 길이고, 어로는 길아 있는 왕이 제례에 걷는 길이다.

정희왕후 승하… ‘정자각과 홍살문을 어디에 둘 것인가’ 갑론을박

예종 즉위년(1488) 9월 8일 세조가 수강궁에서 승하하고 왕릉에 장사를 치냈고, 15년 뒤 성종14년(1483)년 3월 30일 왕비가 은양행궁에서 일가를 치렀다.

승려는 세조의 왼쪽 언덕으로 정해졌으나 세사를 치대는 정자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에 빠진다. 세조의 정자각을 왕과 왕비의 능 가운데로 옮기야 한다는 주장과 왕비의 능이 다른 언덕에 있으므로 정자각을 새로 세우고 능소도 각각 달리 풀어야 한다는 뜻을 서로 굽히지 않았다.

다른 일(동례-상례)과 같은 일(집례-제례)을 함께 볼 수 없다는 피레 때문이다. 왕비가 죽은 지 한 달을 넘긴 5월 1일에 능의 이름은 함께 쓰지 정자각을 새로 짓기로 했다. 하지만 성종은 5월 10일 개조를 불리 다시 모음을 삼았다. 세조는 기존의 정자각에, 왕비는 3년 일(사실은 27개월)까지 임시로 사용할 가(假) 정자각을 짓고 살이 끝나면 왕비의 가정자각과 세조의 정자각을 만들고 왕과 왕비 무덤이 중간에 새로이 짓는 것으로 5월 27일 최종 결정을 냈다. 두 날간의 갑론을박은 여기서 끝이 난다.

세조와 정희왕후의 생애

세조는 제4대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종17년(1417)에 태어나 안평대군으로 부르다 수양대군으로 바꾸어 불렀다. 제5대 문종이 승하한 후 어린 단종이 1452년 왕위에 오르자 이듬해 10월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총서, 황보인 등을 죽이고, 친동생 광평대군을 강화로 유배를 보냈다.

그리곤 스스로 임의정파 명조관사를 겸직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1455년 단종에게 친위표서를 내리개 하의 왕위에 오른다.

세조는 폐허가된 왕궁길과 새 순채정미로 국문을 강화하고, 서적원간, 토지화 관제 등을 개혁하는 등 많은 치적을 남겼다. 앞날에는 왕위 권력의 고지를 벗기 위해 불교를 의거했고, 왕실시찰인 원자

차를 살권하고, 간접도감을 설치 불경을 간행한다. 1408년 9월 병세가 악화되자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52세에 승하했다.

정희왕후는 가평부원군 윤번의 딸로 태종 18년(1418)에 태어났고, 세종 6년(1424) 수양대군과 거래를 하며 남양부대부인에 봉해졌으며, 세조가 즉위하자 폐비가 된다. 예종이 14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조선 최초로 수양정정을 했다. 하지만 아들 예종이 즉위 11개월 만에 승하하고, 예종의 장남이던 이경세사(성종이 덕종으로 추존)의 차남 사음산군(성종)을 그날로 즉위시켜 7년간 개혁해서 섭정을 했다. 온양행궁에서 성종 14년(1483) 66세에 승하했다. 초상묘소 이경세사(덕종), 예종, 이죽상수가 있다.

광릉 숲은 세조가 조성… 봉선사는 광릉의 원찰

광릉 숲은 1468년 세조의 광릉이 들어서면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 이 숲은 500년이 넘도록 줄곧 포기 뽑는 것조차 금지된 황도로 잘 보존된 중요한 숲이다. 조선왕실에서는 광릉을 궁궐으로 사방 15리(약 3000ha)의 숲을 무속림으로 지정, 조선말까지 엄격하게 보호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천연과 임업을 연구하는 시험림과 학술보존림이 됐다. 해방 후 혼란한 시기와 6·25전쟁에도 잘 건졌으며,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7년 광릉수목원으로 변질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후 1999년 5월 24일 국립수목원으로 승격했다.

특히 크나래, 참수하늘소 등 천연기념물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난위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천연생물의 보물창고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됐다.

수목원 가까이에는 '선왕의 능을 밟음이 모신다'는 '봉오선왕지묘(奉慰先王之後)'라는 뜻으로 세조 왕릉의 원찰인 봉선사(奉先寺)가 있다.

대한제국을 세우다… 흥유릉, 고종황제의 홍릉(洪陵)과 순종황제의 유릉(裕陵)

- 7월 연기에 3만 옮긴 명성황후… 고종황제와 24년 만에 해후
- 1900년부터 미리 만든 주릉(壽陵)… 원형을 뒤 궁궐처럼 꾸미
- 명나라 황제의 황릉을 본떠… 기린, 해지, 사자 상상의 동물 배치

흥유릉(興裕陵)은 남양주시 흥유릉로 352-11(금곡동) 고적산과 백봉산 아래 위치하며, 흥릉과 유릉을 일컫는다. 흥릉은 조선 26대 고종대황제와 명성대황후, 유릉은 27대 순종고황제와 순명고황후,

계비 순성효황후의 능이다. 1970년 5월 26일 시차 제207호로 지정됐고, 2000년 6월 30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곳은 마지막 황태자인 이근(영원장, 의민황태자)이 무후와 명랑의 아들로 2005년 작고한 황서손(皇嗣孫) 이구, 고종의 아들 의민왕, 딸 덕혜공주 등도 함께 있어 구한말 황실 미궁의 아리사를 짓고 있다.

홍유릉은 다른 왕릉들과 그 모습이나 형식이 많이 다르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우고 자신을 황제라 일컬었던 만큼 중국 명나라 황제의 능을 본떠 만든 때문이다.

황제의 능과 시조인 홍릉을 보면 황릉이 어떻게 꾸민는지 알 수 있고, 특히 고종황제 홍릉이 상설과 철화를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다.

홍릉은 고종이 붕어(崩御, 황제의 죽음)를 일찍이 10년 전에 미리 조성을 했고, 묻히자면 후 7번이나 국상(國喪)을 언기하고 3번이나 옮긴 명성황후의 사연은 애초하기야 하다.

홍릉은 1900년에 미리 만든 황릉… 대한제국의 자존심

홍릉은 1914년 고종의 죽음에 맞춰 새웠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홍릉은 1900년에 미리 만든 수릉(壽陵)이다. 수릉은 왕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정한 능자리를 말한다.

고종은 을미사변(1875년)으로 시지한 광비의 국경을 2년간이나 미루다 대한제국(1897년)을 선포하고, 청양리 명성황후의 홍릉을 황릉으로 꾸미고 싶었다. 고종은 북경에 특사를 파견 황릉(皇陵)을 그리오도록 했다. 하지만 그곳을 이루지 못하고, 일반 황릉에 황제의 침관(寢殿)을 부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고종은 청양리 홍릉이 자신과 함께 묻히기에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1900년 산릉원찰도감을 세운 후 금곡을 길척로 이거 황릉에 길벗은 직불과 침관을 짓도록 했다. 그해 명성황후의 능을 옮기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19년 고종황제가 붕어하자 명성황후를 먼저 옮기고 자신의 국상을 치르려 해 직금의 모습은 신후게 된 것이다.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홍릉은 대한제국의 자존심이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명성황후의 억울한 죽음… 을미사변

1895년(양) 10월 8일 새벽 5시경, 철북궁 광화문에서 한방의 문청이 울린다. 작한말 여우사냥, 조선폭사 기유라와 일본인 사객 48명에 의해 명성황후 단발의 사약을 맬리는 신호였다. 그 날엔들은 왕비의 거처인 건청궁에 난입, 옥호루로 미션한 왕비를 앞질러고 누워서 숨겨 참대웠다. 바다 남



홍문

222

223

은 왕비의 유해는 제대로 수습되지도 못한 채 헛된 옷을 시신삼아 강북궁 지하에서 보관되었다. 이 반행을 을미사변(乙未事變) 또는 을미지변(乙未之變)이라 한다.

이 사건 이후 왜와 김홍집 내각의 압력으로 고종은 이를 뒤(10일) 왕후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조서(詔書)를 내렸다. 하지만 왕후의 폐위를 크게 반발한 이는 왕세자(순종황제)였다. 다음날 붓이기는 척 다시 빈(嬪)으로 올랐다.

이 사건은 당시 궁에 있었던 외국인들에 의해 일본인의 저지른 사건임이 전 세계가 알게 됐다. 이에 김홍집 내각은 (양)11월 26일 다시 왕비로 올리고, 장례준비에 들어간다.

조선의 국모 장례 7번 연기… 동구릉, 청량리, 금곡으로 3번 옮긴 사연

왕비 시해 55일 만인 (양)12월 1일 왕비의 죽음을 발표하고, 왕비의 장례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리고 왕후의 이름을 순경(順敬), 능호를 숙릉(肅陵)이라 했다. 산릉은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동구릉의 숭릉(崇陵, 조선 18대 현종과 명성왕후)의 오른쪽 언덕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12월 28일(음 11월 15일) 산릉공사가 시작되었다.

산릉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변수가 생겼다. 이른바 춘생문(春生門)사건이 일어난다. 을미사변에 연루된 자들을 색출하고, 친일정권인 김홍집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던 중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경복궁에서 미국대사관으로 피신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한 고종은 3월 3일(음 1월 28일) 경복궁비의 산역을 명수게 한다. 첫 번째 중단이다.

이 사건 후 고종은 아관파천(1896년 2월 11일~1897년 2월 20일)을 단행한다. 그 사이 을미사건으로 부르는 김홍집 내각의 유길준, 정병하, 조희연을 해보하이 죽이고, 시신을 광화문 앞에 내걸었다. 고종은 다시 정권을 잡아야 한다.

아관파천 중 황비 서기 1년을 맞이한다. 고종과 무활위 의정부 대신들은 한 자리에 모여 왕비의 인산(因山, 왕과 왕비의 갈래)이 중단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새로운 능터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1896년 12월 26일 궁내부 대신 이재순 등이 그곳을 간성현 근에 두 번째 능터를 청양리로 정한다. 1897년 1월 6일 왕비의 시호를 문성(文成), 능호를 흥릉(興陵)으로 바꿨다.

산역이 시작되고, 3월 2일 왕비의 시호를 문성에서 명성(明成)으로 바꾼다. 하지만 왕비의 능을 조성하던 중 유해가 발견 되고, 길일을 찾는 등 6차례나 중단 된다. 청양리 흥릉 국장은 모두 7차례나 연기한다.

공사도중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 황제 즉위식을 마친다. 명성황후(明成皇后)가 된다. 1897년 11월 21일 밤언하여 다음날 청양리 흥릉에 묻힌다. 서해를 당한지 2년 1개월 만이다.

황후의 국장을 마친지 2년 7개월이 흘렀다. 1900년 6월 21일 특진관 이재순이 고종과 독대를 한다. 청양리 흥릉이 험소하여 황제와 함께 누울 수 없고, 길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종은 이를 받아들여 천도도감을 설치하고, 길지를 골라내도록 했다. 남양주의 화성, 금곡, 군장리, 평구 등 26곳이 추천되었고, 8월 24일 고지산 아래 금곡으로 최종 선정되고 봉토를 했다. 세 번째 능터다.

금곡 산릉 공사가 거의 완공 될 쯤 갑자기 불길손을 내세워 군장리(1900년 11월)로 옮기고, 재공사에 들어갔으나 청석(靑石)이 발견돼 다시 4월에 금곡으로 다시 옮기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1901년 까지 고종은 황릉에 맞는 모든 의식을 대부분 완성했다. 황제의 살상인 침전과 원형 언뜻을 완공했고, 문무인석, 크여리, 사자 등 석의물(石儀物)을 제작하여 전별영(前別營)에 보관했다.

고종의 봉어... 24년 만에 만난 부부

1929년 1월 21일 고종황제가 덕수궁 함녕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왕위에 오른 이후 47년이고, 보령(寶齡, 왕의 나이) 67세다. 고종이 살아서 죽을 췌던 황릉을 조성하기 위해 청양리 흥릉과 전별영의

석물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능상의 혼유석, 향석, 망주석, 장명등과 능표등은 청량리 홍릉에서 가져왔다.

당시 매일신보(1919.2.26.)는 이물을 옮기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구 홍릉에 있는 석물 중에 혼유석, 비석, 향석, 망주석, 들길명 등을 21일에 금곡 신 홍릉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는데, 석물은 모두 충남 남포에서 나는 돌로 (중략) 혼유석의 무게는 6톤이나 되고, 비석도 무게가 3톤가량 되어서 운반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여, 특별한 수레를 만들었고, 소 20필과 사람 30명이 들어서 운반하는데 2-3일간 청량리 밖에도 나오지 못했다. (하략)”

결국 신작로를 만들어 옮겼다. 지금의 정춘국도의 도로명은 그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이 승하(昇遐)한 뒤 1919년 1월 26일 명성황후가 먼저 홍릉에 오고, 1월 30일 오후 4시부터 산역을 시작하여 풀을 베고 땅을 팠으며 2월 12일 광증이 완성되었다. 3월 3일 발인하여 3월 4일 오후 4시에 청량리 홍릉에서 고종황제는 황후의 오른쪽에 놓인다. 황후와 생이별 24년만이다.

황릉은 어떻게 꾸몄나… 홍릉을 중심으로

홍릉의 모델이 중국 남경의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묘를 본받았다는 설과, 북경의 명13릉의 하나인 홍무제의 장릉이라는 설이 있다. 고종이 북사를 북경으로 보낸 것을 보아 홍무제의 장릉이 설득력 있다.

정문을 지나 숲을 지나면 원형의 연못이 보인다. 연못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며 홍살문이 있다. 홍살문 건너편에는 웅장한 건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침전(寢殿)이다. 일반 왕릉에서의 정자가(正字)과는 그 규모나 건물의 모양이 다르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일자형 건물이기 때문이다.

작은 차의 공간인 능침에는 3면의 단장을 세웠고, 봉분아래에는 일반 왕릉에서 볼 수 있는 병풍석과 돌난간을 12방위로 둘렀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과 향로석을, 혼유석 앞에는 망주석과 장명등을 세웠다. 일반 왕릉에 보이던 양과 호랑이 돌상이 보이지 않고, 향로석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병풍석은 연꽃과 모란으로 아름답게 새겼다.

문무석과 마석(馬石)은 침전 앞에, 소대와 산신제사를 치던 뒤편에 좌우에 배치했다. 침전 오른쪽에는 비각과 수복정을 설치하였고, 비각과 봉분 사이에는 우물이 있다. 이 우물은 계수를 정리하거나 화제에 대비한다.

침전 왼쪽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재궁(齋宮, 재실)인 어재실(御齋室)이 있다. 이렇게 살찐 것은 말자(고종)가 평소애 생활하던 궁전처럼 꾸몄기 때문이다. 고종이 죽어서도 후세를 걱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침전 내부에는 당가(唐家)를 설치했으며, 침상과 일일오봉도를 배치했다.

그러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침전 앞 복원에 있다. 침전에서 홍살문까지 이어주는 돌길인 신어도를 따라 좌우에 나란히 세운 돌상이다. 침전으로부터 ‘문무석-기린-코끼리-해치-사자-너타빌’ 순서로 세웠다.

코끼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던 모습이라 쉽게 알아보겠고, 낙타 또한 등에 달린 혹으로 짐작하겠으나, 기린은 목이 길지도 않고, 사자 또한 길기를 세운 용맹스런 모습을 상상하면 오산이다. 기린, 사자, 해태는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황릉을 지키는 상징… 영수석(靈獸石)

황릉의 능침에는 왕릉을 지키는 신수(神獸)인 양과 호랑이 대신 기린, 사자, 해태 등 상상의 동물로 대체했다. 이들 동물을 영수석이라 한다.

기린(麒麟)은 일반 왕릉의 수호신인 호랑이 역할을 담당한다. 기린은 동양에서 봉황, 가북, 용과 같이 4대 상서로운 동물로 여긴다. 산해경(山海經)에 기린은 '모양은 사슴 같고, 머리에 뿔이 한개 있는 동물로 뿔과 입에는 뿔어내는 신기(神氣)와 몸의 반질, 살코기 모양의 날개가 있다.'라고 설명한다.

해치는 선악을 판단하는 동물로 사자와 모습은 비슷하나 머리 가운데 뿔이 있다. 중국 고문서 이물지(異物志)에는 '동북 변방에 사는 짐승으로 짐작하며, 사슴이 싸우는 모습을 보다 따르지 못한 사함을 잘못 들이 받는다.'라 서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마를 막는 백사(辟邪)의 동물로 여겨 궁궐 등에 장식했다. 통릉의 해치 역시 그 기능으로 세웠다.

사자(獅子)는 선인주수(仙人龜獸)의 하나로 양을 칼보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를 전해 중국 북경 천안문의 광장에 세운 화표주(華表柱, 조선왕릉의 방주석과 같은 역할)의 머리장식으로 세웠다. 통릉의 수문장 역할을 한다.

황릉은 황릉이다. 건박했던 구한말 우아곡절 끝에 동구동, 칠달리길 거쳐 1900년부터 1년간 명성황후의 원릉 터와 고종황제의 수릉 터로 조성됐으며, 중국에서 장인을 불러 명나라 황실의 조각수법에 따라 석의물도 제작했다. 그동안 일제의 총수와 일인 형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오해도 많았다. 하지만 민족자결을 주장했던 고종의 미지가 담긴 황릉이 바로 공릉이다. 고종의 국장이 있던 날, 백성들은 31만세운동으로 고종에게 숭(崇)을 표현해 그의 마지막 길을 보냈다.

금곡동의 시민단체 명성황후 국장재현… 넋을 위로해

황릉은 대한제국의 자존심이며, 명성황후에 대한 고종황제의 사상이 배인 광릉이다. 특히 명성황후의 예절한 삶의 마지막 정평을 찍은 국장행렬은 2008년 11월 9일 재현해 세상에 알렸다. 황후의 국장이 있는 지 111년 만이다.

이 행사는 금곡동의 시민단체인 통유릉문화재집행위원회가 주관했고, '통유릉문화재'의 하이라이



유릉

226

227

트로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다.

400여 명의 민관군으로 구성된 행렬은 행사 당일 오전 10시 금곡동 주민자치센터를 출발, 홍유봉 테거리, 남양주시청을 돌아 홍릉 앞에서 노제(路祭)를 지내는 노정을 담았다.

홍유봉 문화제의 명성황후 국장행렬은 마치 1897년 11월과 1919년 2월을 영사기로 돌리는 듯한 남양주시의 새로운 문화브랜드다.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황제의 유릉

- 조선 518년의 영화를 뒤로… 장례식날 6·10만세 사건 일어나
- 일제에 의해 만든 황릉… 국운을 아예 꺾으려 비스듬히 조성
- 고종과 순종은 부친자전… 황후의 능호를 사용하고 전화로 분상

유릉은 제27대 순종효황제(純宗孝皇帝)와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민씨(閔氏), 계비(繼妃) 순정

그렇후(뒤에후후) 유씨(尹氏)가 한 봉분 앞에 두른 동생(3살)도 뒤 조천후 유일한 양종이다.

유릉은 어떻게 만들었나

유릉은 홍릉과 같이 황새봉의 세도로 조성하였다. 동 입구 오른쪽에는 허재석이 있고, 길을 따라 올라가면 홍살문 좌측에 2개의 묘개로 덮인 어수정이 있다. 홍살문 왼쪽 앞 옆으로 깎아낸 듯한 것으로 보이는 용이 파인 돌이 놓여 있다. 홍살문 좌측에는 관위가 있고, 선도를 따라 양쪽으로 석등을 배치하였다. 홍릉이 조선 왕릉 특유의 전통적인 수법으로 만들어진 데 비하여 유릉은 특정한 양식 모델로 해 조각된 것처럼 보인다. 중앙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심전이 있다. 심전 안의 심장에는 2마리의 용이 얹혀있고, 화려한 용상계 문양이 선명하고 세련된 단청이 조화롭다.

심전 우측에는 능표각이 있고, 좌측에는 조대가 위치한다. 심전 너머 능침은 사향으로 심전과 일차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15도 정도 기울어졌다. 심전과 세례로갈 비스듬하게 설치한 작은 조선 왕릉의 무리들이여 멀에러하는 일체의 음모로 조성되었다는 일설도 있다. 봉분에는 곡장(曲牆)을 두르고, 전화문과 모란문을 새긴 생동석과 난간석을 12간석으로 둘렀으며, 봉분 앞에는 상석을 놓았다. 유우에는 양주석이 있고, 상석 앞에는 사각 장명등이 있다. 내한계곡기의 고종황제의 홍릉과 일세에 의해 만들어진 순종황제의 유릉은 무엇이 다른가 세심히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이다.

유릉의 사람들

순종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둘째 아들로 1874년에 창덕궁에서 태어났다. 1875년 황세자로 책봉되었지만, 2년 뒤 황태자로 책봉. 1907년 즉위하여 연호를 순희(順熙)라 하였다. 재위 4년 동안 일제의 간섭으로 허약미로 자리를 지키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318년 조선왕조의 문을 닫는다.

재위기간에 일본에게 국경 전만에 걸쳐 관심을 받았고, 야관정치와 밀착된 정미청조야을 강제로 해질하였다. 1911년 대라우지(李熙) 등같은 이완용(李完用)과 한일합방 조약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 순정효황후이 즉부 윤대영(尹德榮)을 시켜 황제의 옥새로 남긴하게 하였다.

이왕(李熙)으로 강등된 순종황제는 창덕궁에 있다가 1926년 4월 25일 53세로 승하하였다. 순종황제의 장례식당 전국에서 5~10만세사건이 일어났고, 6월 11일 봉안 된 유릉에 안장했다.

순정효황후는 어흥부원군 민대호의 딸로 1882년 11세에 생지인으로 책봉되었고 1877년 황태자비에 책봉되었으나, 순종 즉위 전인 1904년 33세로 승하하였다. 같은 해 11월 29일 양주군 용마산 대동기슭(지금의 어림이대공원 내)에 묻혀 유감현(柳康顯)이라 하였다가 순종이 즉위하자 유릉으로 1926년 순종황제가 순하하여 명성황후의 선례에 따라 5월 6일 금곡 유릉으로 먼저 옮긴 후 함장

를 했다.

순경효황후는 태봉부원군 윤태영의 딸로 1906년 13세에 왕태자비에 책봉되고, 순종이 즉위하자 황후가 되었다. 1910년 국권이 강탈될 때 병중 상태에서 이천회의를 잇듣고 있었는데 이 때 권인파들이 순종에게 합방조약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자 옥새를 치마 속에 감추고 내놓지 않다가 원국 숙부 송낙영에게 강제로 빼앗겼다.

일제의 강침 이후 이왕비(李王妃)로 강등되었다. 민년에 왕교에 귀의해 봉녕(奉寧) 대지원(大地川)로 불리며 창덕궁 낙선재에서 이생을 보냈다. 1960년 낙선재에서 승하하여 유릉에 안장되었다.

유릉은 조선시대의 예를 따르지 않고 독특하게 매장됐다. 일반적인 왕릉은 땅이 오른쪽, 왕비가 왼쪽에 누워야 하나 순종황제를 중앙에 두고 효정황후가 오른쪽, 효정황후가 왼쪽에 있는 1릉 3실이 되어버렸다.

고종과 순종 전화로 문상하다

고종의 강령을 지키고 자주 흥통에 문상을 하치 못한 순종은 시련에 빠졌다. 물론 3년 동안 궁에 흥전을 두고 문상을 했지만 산봉에 직접 인사를 올리는 것보다 나은 리가 없었다. 그러자 순종은 전화를 창덕궁에서 관북의 흥통까지 연결하여 수화기에 대고 곡을 하면 흥통의 권리가 종화기를 화성기에 연결해 흥통 앞에 두어 곡소리가 울리 피지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화 문상의 원조는 고종이다. 고종을 황세 자리에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순조의 아들 문조익황제(효명세자·주촌왕 익종, 현종의 아버지)의 비 신정익황후가 죽은 뒤 동궁을 승릉(昇陵)에 전화로 문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화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1896년 공내부에 100회선짜리 자이식 교환기가 설치되면서 전화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시 전화기는 텔레폰(Telephone)의 한자식 발음을 딴 '덕률풍(德律風)' 또는 '독률풍(獨律風)'이라 부르거나 사단들 사이에서 말을 전하는 기계라는 뜻의 '전화기(傳話機)'라는 별호의 이름으로 불렸다. 문명의 이기였던 시절 전화기를 통해 문상을 했더니 고종과 순종의 무전자전 기치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글을 마치며

고종황제는 죽은 후 왕이나 황제로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1910년 8월 29일 정중국치 국권을 강탈당한 날 일본의 권할은 고종황제를 이태왕, 순종황제를 이왕이라 세리고 이왕가라는 치욕적

인 호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황실의 무덤도 묘로 격화했다. 총독부는 고종의 능호를 이라할 리 없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청량리에서 먼저 옮기고 홍릉이라는 능호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순종황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효정황후의 능동의 유릉을 사용했다.

청량리에서 이전한 능표에는 아예 고종황제는 없었다. 이미 나라를 빼앗긴 이왕에게 황제라는 칭호 역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70세 고령으로 능참봉을 자처한 고영근이 물래 황제이름을 새겨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학자들 간에 홍릉의 모델이 주원장의 표릉이나 홍무제의 장릉이냐는 논의도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홍릉이 조성된 지 95년이 지나고 있다. 홍릉과 유릉에 대한 정확한 역사관과 능재복원을 정립해야 할 속제가 아직 남아있다. ■

한철수(구지옛생활연구소장)

<참조문헌>

조선왕조실록(오대산본), 조선왕릉학술통합보고서(1-V, 2009-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고종황제의 금주 홍릉 연구(장경희, 사물어노, 2017, 역사학연구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기대농원지(1988, 경기도), 광릉정각과 및 비각 수리보고서, 2010, 문화재청, 청량리홍릉터의 역사와 의미(2013, 국립산림과학원), 조선왕릉-경관포인트선정 및 문화콘텐츠 마련 연구보고서-(2009, 문화재청), 역사의 향기(1982, 남양주군), 남양주시시(2002, 남양주시), 고려조선능지(복을수, 1991, 대성당), 유네스코세계유산(2009, 문화재청), 경기도제천조미습(2008, 경기도박물관) 등 다수.





230
231

남양주 3·1운동사



“삼천(오동)은 보(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 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나자 조선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삼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서울에 이어 만세운동이 처음 일어난 곳은 개성이었다. 3월 3일 개성에 이어 7일에는 시흥에서 보통학교 학생들이 시위와 더불어 동맹휴학을 했으며 9일에는 인천, 10일에는 양평, 11일에는 안성과 양성, 14일에는 남양주시의 이전 행정지명인 경기도 양주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남양주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3월 13일 양주군 미금면(茂金面) 평내리(坪內里)에서는 구장 이승익(李昇翼)이 평내리 주민을 소집해 놓고 조선총독부 하세기와(長谷川好慶) 총독이 각 지역에 하달한 고유문(告諭文)을 읽어 내려갔다. “국민들은 쓸데없는 유언비에 열중하여 되지도 않은 일에 광분하지 말라. 제국은 건승국이므로 일한(日韓) 합병에 관하여는 조금도 변경이 없다.” 고유문 내용물들은 주민들은 아유를 거부했다.

곳곳에서 “우리도 만세를 부릅시다.”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이날 우보현(禹輔顯), 정기섭(丁基燮), 김명하(金永夏)를 중심으로 1

백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본격적인 시위는 14일에 일어났다. 다음날 모인 150여 명의 주민들은 평내리에서 만세를 부른 후 면사무소가 있는 금곡리(金谷里)로 향했다. 하지만 금곡으로 향하던 이들은 일본 헌병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승익, 김명하, 우보현, 이보영(李輔永), 이석준(李錫俊), 정기섭 등 다수 주민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승익 징역 10월, 김명하와 우보현, 이보영, 이석준은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3·1만세운동 제반

옥중 순국하다

경내리 주민들이 만세운동으로 잡혀간 남 와부면(瓦夫面) 송촌리(松村里)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14일 이정성(李正成), 이준경(李春經), 김현덕(金顯德), 김정하(金正夏)는 용진교회 교인 등 와부주민의 함께 만세운동을 벌인 후 체약가와 독립선언서를 준비하는 등 15일 와부면 일대를 순회하는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15일 날이 밝자 이들은 이정성, 이준경, 김현덕, 김덕어(金德夜), 정일섭(鄭一섭), 이갑동(李甲東), 오성준(吳成俊), 김덕오(金德五), 이철순(李哲淳), 김윤경(金允京), 허건홍(李健洪) 등 주민 100여명과 함께 선중리(仙中里), 우안리(烏安里), 능내리(陵內里), 광당리(廣堂里)를 거쳐 명소계사가 있는 덕소리(德須里)로 향했다.

중간에 김태현(金泰顯), 김현유(金顯裕), 박정식(朴正植), 문광재(文光宰), 이내현(李在顯), 박수만(朴壽萬) 등이 합류하는 등 조안리와 그 부근의 마을을 지날 때는 어느덧 시위대가 300여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덕소리에 도착한 이들은 만사부소 주위를 돌며 '조선독립만세'를 목격했 의했다.

그리와 시골에서 작열 증동한 일본 헌병이 이들을 막아치고 선두에 있는 김윤경과 이정성, 정일섭을 붙잡아 갔다. 실낱 눈궁은 체포된 인사의 처방을 요구하며 총칼로 위협하는 일본 헌병에 맞서 주재소까지 압박해 들어갔다. 하지만 피기감을 느낀 헌병들이 공포탄을 발사하면서 시위를 강제로 진압했다.

주민 40명이 연행됐고 이 가운데 17명이 기소됐다. 시위를 주도한 이준경(李春經)과 김현모(金顯模), 이철성 등은 1년 6월의 형을 언도 받았다. 함께 만세운동에 나섰던 김덕어, 김덕오, 김윤경, 김현유, 박수만, 오성준, 이갑동, 이철순, 정일섭 등은 징역 8월에 처해졌으며 조안에서 합류한 박정식도 징역 8월, 다만 이내현은 처음에 징역 8월이었다가 형이 늘어 11월형을 받았다. 하지만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문광재(文光宰)는 재판을 만나 그만 옥중에서 사망했다.

일본 헌병 발포로 10여명 사상

이렇게 와부면 만세운동이 일경의 흥간 아래 좌일됐지만 양주군의 만세운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파도면(和道面)에서도 만세운동을 위해 여흥주민들이 집합하게 옮겨지고 있었다. 월산교회 이인하, 이매하, 김우동, 김일규(金一圭)와 월산리(月山里) 주민 이남용(李南溶), 이승보, 이재하, 허덕재, 이배준, 윤인명, 홍순환, 윤태익 등이 거사를 모의했다.

하지만 16명 일경에 의해 거사가 좌절에 당겨졌고 이승보, 이재하, 이태하가 그만 체포되고 받았다. 18일 밤 200여 명의 주민들을 명소계사가 있는 마시우리(磨寺隅里)로 향했다. 구영식(具永植), 권근(權根) 등 남내리(南內里) 주민과 갈성원(葛成院), 김원석(金元石), 이승연(李承演), 담궁우용

(南宮又鼎), 윤준(尹俊), 이윤원(李允源) 등 월산리 주민이 앞장섰다.

마석우리 현병 주개소 앞에 다다르자 시위대가 어느덧 1천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이들은 검거자 석방을 요구하며 독립만세를 힘껏 외쳤다. 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가열되자 일본 현병은 시위군중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 그 자리에



화도읍 월산교회 전경

서 유상규(兪相奎), 이교직(李敎植), 이달용, 손복산(孫福山), 신명희(申榮熙) 등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칼터너, 윤균, 윤정석, 원대현, 이제혁 등 많은 주민들이 중상을 입었다.

날이 새기도 전에 일본 현병은 시위에 나선 마을 주민을 잡으러 나섰다. 거사를 계획한 김립규 이외 시위에 참여한 이승보, 강선원, 윤성준, 남궁우용, 김원석, 권은, 이윤원, 이복현, 강순필 등 마을 주민이 다수 일본 현병에 검거됐다. 붙잡힌 권은, 김원석, 강선원, 남궁우용, 윤성준, 이승보 등은 수개월 간 옥고를 치렀고, 운동을 주도한 김립규는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지만 모친 교문을 건타다 못해 그해 7월 그만 옥중에서 순국했다.

‘괴고는 대정 8년(1919년) 3월 18일 오후 10시경 이달용이라는 자의 권유에 의하여 손병희 등이 선연 고취한 조선독립운동의 취지에 관동하여 참치변혁을 목적으로 수 십 명의 군중과 함께 경기도 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에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함으로써 치안을 방패한 것이다.’ 같은 해 5월 24일 경성북실법원이 김립규에게 내린 판결이다.

화도만세운동 전국에 영향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가 발행한 「삼일운동사」에 따르면 3·18 화도만세운동은 서울 가까운 곳에서 처음 발생한 처참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양주군 만세운동은 다소 추증했지만 고양, 부천, 용인, 이천, 김포, 파주, 포천, 연천, 광주, 여주, 장인 등지에서 일제히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당초 학원 중심으로 동맹휴학을 하는 등 소극적 만세운동이던 것이 3·18 화도만세운동을 계기로 대항화 또는 격렬한 양상을 띠게 됐다. 화도만세운동 참사로 한 동안 양주군 만세운동이 침잠했다. 라

지만 3월 24일 다시 만세운동이 터져 나왔다. 진접면(津接面) 금곡리에서 청년 13명이 애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진건·진접·별내 만세운동



진접면 금곡리 청년들이 시위를 한지 4일 뒤, 3월 18일 진접면 부평리(富坪里)에 사는 이재일(李載日)에게 풍선사 승리들이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1통의 격문이 남아있었다. “금년 3월 조선 독립을 위하여 시위운동을 일으키고 조선 독립만세를 부릅시다.”는 내용이였다. 이재일은 즉시 마을 사람에게 격문을 돌렸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만세운동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격사일은 3월 31일로 정해졌다.

당일 시위 장소인 광장천변(光長川邊)에는 600여 명이 인근 주민들이 운집했다. 최대복(崔大福), 박동봉(朴冬夢), 최대복(崔大福), 유희상(柳熙相), 이흥옥(李興祿), 최영갑(崔永甲), 양삼동(梁三同) 등이 앞장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즉시 출동한 일본 헌병은 시위를 주도한 이재일과 양삼동 등 8명 권원을 사냥하듯 나아왔다. 이 일로 이재일은 1년, 이흥옥은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이일에 앞서 서울 종로에서 약총상(藥桶上)을 하는 김석보(金錫魯)와 이순재(李淳載), 김성암(金成岩), 강완수(姜完洙) 등 풍선사 승리들은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 임시사무소(臨時事務所)' 명의로 “지금 과리강화회의에서는 12개국이 독립국이 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도 이 기회에 국력운동을 하면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진접면 일대에 배포하기로 미리 의결을 모았다.

이들은 3월 20일 풍선사 서기실에 비밀리에 모여 약 200여 정도의 유인물을 인쇄해 승리 강완수 등 2명이 그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부평리, 진접리(津接里) 등 인근 4개 동리 민가에 격문을 배포했다. 문건을 배포한 후 동조지 모험에 나선던 승리들은 바로 일본 헌병에 체포됐다. 결국 이순재는 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강완수와 김성수도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 받았다.

풍선사 승리들이 유인물을 배포한 20일 진건면(鎭乾面) 오남리(梧南里)에 사는 나상규(羅相圭), 손삼남(孫三男), 임본성(任本成), 이종갑(李鍾甲), 여원필(呂元弼), 권노적(權魯赤), 한백석(韓百石) 등 주민 수십 명도 모아서 만세운동을 했다. 또 같은 날 별내면(別內面) 서계원리(西溪院里)에서도 200여 명이 시위를 벌여 5명이 체포됐다.

19살 청년의 기개

지금론 외정부로 편입 돼 있는 당시 별내면 고산리(高山里)에 살던 19세 청년 유해정(柳海正)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3월 4순 어느 날 유해정은 붓을 들고 일월에게 편지를 썼다. “임금님을 속이고 한국을 강탈한 나머지 태황제 고종 폐하를 독살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이가 갈람을 참을 수 없다. 만국이 구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기를 여한다면 분개한 백성이 일제히 쟁기하여 불의의 나라에 보복할 것이다. 너도 한 자부히 감을 품었으니, 한 번 죽음으로써 원한을 씻을 날이 있을 것이다. 미국 삼화사의 위원은 조선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연합국이 손을 잡고 그 죄를 물을 때에는 호랑이 앞의 토끼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기개 넘치는 글을 썼다.

유해정은 편지에서 일본 천황을 ‘일본왕권하(日本王權下)’ 또는 ‘왕(王)’이라 부르고 고종 황제를 ‘태황제폐하(太皇帝陛下)’라 호칭했다. 이 편지는 5월 27일 도쿄 부정 시무과에 도착했으며 그해 4월 9일 궁내성 궁내대신 전방 총무과로 전달됐다. 이 용서(奉許)사건으로 유해정은 천황에 대한 불경 행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갇혔다.

만세운동 횃불로 타오르다

일제의 탄압이 기셀수록 만세운동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다. 광지에서 시위를 할 경우 일경이 폭력 진압으로 희생이 늘어나자 시위 거당자들은 시위 현장을 전으로 변경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어떤 이는 횃불을 들고 어떤 이는 태극기를 휘둘렀다. 수백 명의 군중이 북소리에 맞춰 횃불을 들고 전에서 만세를 부르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이들은 김저허리 올라오는 일경을 마들리고 신속하게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이런 개별리적 산발행동시위는 경기도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고양군, 이천군, 양주군, 부천군, 수원군, 개성군, 강화군, 철원군, 파주군, 김포군, 양주군, 천위군, 이천군, 여주군 등에서 산발행동시위가 이루어졌다.

한편 수원군에서는 가생조합 소속 김향화(金香花)가 집번 차 자혜병원으로 가던 도중 여러 기생들과 함께 일제히 만세를 불렀으며, 귀가할 때에도 주재소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는 일본 헌병이 만세운동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당시 정황으로 보면 옥숨을 내건 행동에 다름 아니었다.

제암리·화수리 학살사건

이렇듯 경기도의 만세운동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 때

문에 경기도가 입은 피해 또한 상당했다. 1919년 4월 15일 일본군 보병 79연대 중위 아리타(有田俊夫)가 수원군 향남면(현재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提峯里)에서 마을 주민 21명을 교회에 모아 놓고 총칼로 학살하게 학살했다.

경기 남부에서 시위가 격화된 것은 3월 말경이었다. 3월 26일 수원군 송산면 사갈리(현재 화성시)에 사는 총면 등 주민 120명은 구장 통명선(通命善) 집에 모여 만세운동을 결의한 뒤 이날 밤 11시까지 만세 운동을 벌였다. 시위는 27일에 이어 28일까지 많은 주민이 시위 대열에 가담하면서 즐거이 차게 이어졌고 어느덧 군중은 7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시위를 진압하러 수원경찰서 노구치(野口廣三) 순사부장과 수원군 읍덕면 남양리 주계소 마스우치(井内) 순사 그리고 마스우치를 따라 순사보 조종환(趙鍾桓), 김학음(金學馨)이 나타났다. 이들은 시위 군중에게 권총을 뽑아 들고 총면, 풍요선, 예종리를 체포했다. 총면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일경에 항의 했다.

그리자 노구치 순사부장이 총면의 오른쪽 어깨를 쏘아 쓰러뜨렸으며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총면의 동생 총준옥이 "우리 형이 총을 맞았는데 보고만 있을 것인가? 총 쏜 눈을 죽여 주시오!"라고 울부짖었다. 자전기를 타고 달아나던 노구치를 군중이 에워쌌다. 노구치는 분노한 군중들의 타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위는 날로 격화됐다. 3월 30일 제암리 주민 안정옥, 반봉환, 안진순, 홍원희 등은 수원 발안정(현재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과 수원 수촌리(현재 화성시 살안면) 주민과 함께 발안 주계소 앞에서 투석전을 벌이다 일경의 간에 제암리의 김덕용이 몇구리를 쏘았고 홍원희, 반봉후, 안봉순, 갈대실, 김정현, 김성립 등이 체포됐다.

시위가 4월로 넘어가면서 만세운동은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4월 1일 수원 팔단면 고주리(현재 화성시)의 권덕산, 제암리의 전례산, 수원 가재리(현재 화성시 팔단면)의 당계봉에서 저녁 7시를 기해 일제히 봉화가 타올랐다.

4월 3일에는 일본인 순사 한 명이 더 살해됐다. 이날 오전 11시30분경 수촌리, 석포리, 우정면 주곡리 주민 300여 명은 석포리를 거쳐 조암(朝岩) 정터에 이르렀다. 어느덧 2천 명으로 불어난 군중 앞에 차희식(車喜植)이 나타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삼창했다. 군중은 감격스러워 하며 만세 삼창을 따라하고 조선이 독립되었다고 기뻐했다.

이들은 장안면사무소에 다다라 서류와 집기를 모두 불태웠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장안면장 권현옥을 앞세워 인근 평방산으로 오른 뒤 장안면과 우정면을 따라보며 만세를 불렀다. 장안면을 출발한 시위행렬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했다. 이때 군중 속에서 "우리가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는 것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에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나온 행동입니다. 앞 사람이 죽으면 뒷사람은 굴하지 말고 전진합시다."라는 미장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위대는 각병헌(車炳憲)을 앞세워 우정면사무소로 향했다. 이들은 면사무소에 도착해 서류를 불사르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일제적으로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한가리(韓角里) 작은 산으로 향했는데 산이 사람으로 뒤덮였다. 이들은 여기서 우정읍 화수리(花樹里) 주계소 습격을 계획했다.

“우리가 주재소에 가면 아마 헌병이나 일본군대가 와서 말포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 죽는 자가 생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후퇴하지 말고 사망자를 발판으로 하여 총을 쓴 일본군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누군가가 배수의 진을 권듯한 비장한 목소리로 군중을 향해 우렁차게 소리를 냈어났다. 이때 군중들도 화답하듯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다.

최장섭(崔長燮)은 우정면(雨汀邑) 한각리(韓角里)의 송지문(宋志文), 박재남(朴在男), 김백민(金伯民), 김석봉(金石峰)과 함께 2천5백여 명 시위대의 선봉에 섰다. 이들이 주재소로 쳐들어가자 일본인 순사부장 천단태방(天端太郎)이 처음에는 공포를 쏘아 군중을 해산시키려다 나중에 실단을 쏘았다. 군중 속에서 송 노인이 쓰러지고 두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

최장섭이 큰 목소리로 “저 놈들 죽여라!”고 외친 후 돌을 집어 던졌다. 이 말에 군중이 다시 집결하여 일본 경찰과 석전(石戰)을 벌였다. 이윽고 최장섭이 던진 돌이 천단의 머리를 맞았다. 천단은 이내 총을 떨어뜨리고 인이어 남아온 돌에 쓰러졌다. 일본 순사가 잇따라 죽지 보복이 시작됐다.

씻지 못할 만행

4월 5일 새벽 3시반경 일경은 장안면 수촌리를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일경은 천도교 전교실과 감리교 예배당은 물론 민가에도 불을 질러 마을 전체 42호 가운데 38호를 불태웠다. 같은 날 밤안 장터에서 벌어진 민세운동에서는 유학자(儒學者) 이정근과 그의 제자 2명이 일본 헌병의 칼에 부상을 느꼈다. 의의 보복은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장안면, 우정읍 일대를 휩쓸었다.

4월 11일 새벽 일경은 우정읍 화수리를 습격했다. 민가에 불을 지르자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거나 칼로 썰러 마을 주민 수십 명을 학살했다. 40가구가 모여 살던 화수리는 사건 이후 모두 불타 18가구만 남았으며, 사건 이전까지는 비교적 부촌(富村)이었으나 이후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했다. 제암리 학살은 그의 연장선상이었다.

4월 15일 교회에서 마을 주민을 학살한 아리타 중위는 시체를 모두 불태우고 또 가옥 31채마저 불태워 제암리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잔학한 만행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아리타는 곧 바로 10분 거리에 있는 고주리로 올라가 김흥연과 김주업 등 일가족 6명을 포박한 뒤 집 뒤 언덕으로 끌고가 참살했다. 김주업의 부인 한 씨는 결혼한 지 3일 만에 너무나 잔학한 가족들의 참살 현장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아 그날로 자리에 누워 3일 만에 죽고 말았다.

3·1운동, 세계사에 영향을 주다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연해주, 만주, 하와이, 멕시코, 미국 필라델피아



3-1 만세운동 재현

아 동 전 세계로 퍼지나갔다. 만세운동이 거센수목 일제는 악랄하게 진압을 서둘렀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만세운동 당시 피살된 사람은 7,509명, 부상자 15,961명, 체포된 사람 46,948명, 만세시위에 참가한 인원 2,023,008명 그리고 할리코 불탄 민가가 715호와 교회 47개소, 학교 2개소라고 밝혔다.

일제의 통계에 의하면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202만 명이며 시위가 열린 횟수는 1,542회에 달한다. 그리고 전국 218개 군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212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피해범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진압 과정에서 553명이 사망했고 1만2천명이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 학자는 3·1운동이 중국의 5·4 운동과 인도의 반영운동, 그 밖에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5·4 운동 '북경 학생 천안문 대회 선언문'에는 "과리 강화 회의가 열렸을 때 정의, 인도, 중정이 세계에 널리 퍼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파라딘 바가 아니었던가? 정도(청다오)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중일 비밀 조약, 군사 협정, 기타 불평등 조약들을 폐지함이 정당하고 공정하다. 그러나 힘 앞에 정의가 무너지 참자 5대국이 우리 열국을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해전국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대접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 암사스, 로렌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외쳤다. '되찾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아프리카 해협을 찾기 위한 투쟁에서 이탈리아인들도 ‘죽음’을 외쳤다. 조선인들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부르짖었다. “독립을 하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도의 독립운동가 자라왈랄 배우가 자신의 말에게 쓴 편지에는 “살려낸 아침이 나라라는 뜻으로 지낸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일본은 처음 얼마 전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으나 곧이어 마라를 드러냈고 조선 민족은 독립 항쟁을 즐기자게 계속됐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 만세 운동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맨주먹으로 적에 항거하여 승리를 이루었다. 3·1운동은 조선 민족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고, 수없이 죽어가고 일본 정권에 감히가서 고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굽하지 않았던 숭고한 독립 운동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이상을 위해 희생하고 순국했다. 일본인에 억압당한 조선 민족의 역사는 실로 쓰러진 압록의 시대이다. 조선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분장 대학을 나온 젊은 여학생이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듣는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라고 3·1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

화도 3·1운동 계승 ‘햇불대행진’

240
241

남양주에서 일어난 평내만세운동과 와부만세운동, 화도만세운동, 진접만세운동, 길전만세운동, 별내만세운동은 3·1운동을 선악으로 확산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특히 화도만세운동은 서기(史記)들도 그 가치와 의의할 만큼 경기도 권역에 영향을 끼쳤으며, 화도만세운동을 계승한 남양주 한세햇불운동은 당시 만세운동의 주역인 원산교회를 중심으로 지금도 해마다 열리고 있다.

당초 남양주 3·1운동 기념행사는 와부만세운동의 주역인 용진교회와 화도만세운동의 중심인 원산교회, 남양주문화원 등이 세달각 행사를 치렀었다. 그러던 것이 1987년 3·1운동 70주년을 기점으로 남양주문화원과 원산교회가 공동으로 3·1운동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으며, 용진교회는 이전과 같이 독자적으로 3·1운동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남양주 3·1운동 기념행사가 명맥을 잇는 가운데 남양주 3·1운동 기념행사는 1993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3·1운동 80주년 1년 전 원산교회에 부임한 김중호 목사는 3·1운동 기념행사를 햇불만세운동으로 행사의 형식과 내용을 탈바꿈시켰다. 기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부른 뒤 독립유공자나 유가족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던 행사에서 벗어나 좀 더 3·1운동 정신을 외세길 수 있도록, 그날의 3·1운동을 1993년부터 햇불만세운동으로 재현한 것이다.

남양주 3·1운동 기념행사가 햇불대행진으로 성격이 바뀌자 행사 1년만인 2000년에는 당시 4대 일간지가 보도를 하는 등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상징적이었던 행진거는 다소 통일되지 보이는 햇불행진에 대해 처음 주변을 만들은 냉담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남양주문화원과 원산교회가 공동주최하는 햇불대행진은 이후 화도동부면영회가 공동

주관자로 참여하면서 참가자가 대대적으로 늘어났다. 당초 마을주민과 화광중학교 학생들이 남양주 문화원 단과제, 원산교회 교인, 일부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하던 행사가 이제는 400여 명 규모로 행사가 확대됐다. 그리고 인근 부대 군인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매우 절연한 찾방이 상관을 이루기 시작했다.

화도 햇볕대행진은 매년 2월 28일, 원산교회를 출발점으로 당시 화도만세운동의 격전지 아척우리 광장까지 약 4km 구간을 행렬은 군인 중 열살년이 전투에 시민 마을 어르신들과 화광중학교 학생들, 정치인들, 시민들이 함께 행진하는 행사로, 남양주 3.1운동을 계승한 대표적 행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화도 3.1운동 기념행사를 햇볕대행진으로 기획한 원산교회 김중호 목사는 25년간 화도 3.1운동 기념행사를 남양주문화원과 주관했고 백불만세운동으로 재현한지도 15년이 되었지만, 화도 3.1운동의 본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설이 아깝지 않다며, 당시 가장 희생이 컸던 화도읍 일대리 지역에 3.1운동 기념광장이나 기념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남양주 3.1운동사에 또 한 획을 그은 와우만세운동의 주역 동진교회는 2000년 무렵까지 비록 해를 열어 열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3.1운동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이제는 3.1운동 기념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교회 관계자에 의하면 독립유공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일부 유족이 남아있기는 하나 광역에서 유가족들을 초대하는 행사가 3월 1일 도에서도 열려주지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잘 사는 나라 돼야

남양주 3.1운동이 전국 만세운동에 끼친 영향은 미지 않다. 남양주는 이제 목숨을 바쳐 만세운동을 했던 선열(先烈)의 뜻을 이어 받아, 각 고장에서 활발하게 파승사업을 펼치는 것은 물론 이를 민방에 알릴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기념공원도 만들고 기념관도 건립해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나아가시는 자리하는 후세들에게 남양주가 독립운동의 성지였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는 선열의를 칭찬하지 못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편입을 칭찬하지 못한 까닭에 조국은 지금도 깊은 일운에 묻혀서 지고 있으며 그 혼자에 고통 받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학문 그 어느 분야도 이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유럽(특히 프랑스)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는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걸고 용서하지 않았다.

1940년 나치로부터 프랑스가 해방되지 프랑스 정부는 죽자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처형했다. 이 결과 100만 여명의 나치 부역자가 투옥되었고, 이중 5700명은 사망, 2700명은 종신징역노동, 1만여명은 유기형 강제노동, 22800명은 징역, 5만 명은 국민권을 박탈했다. 더 나아가서 나치에 부역한 언

론에 대한 지단은 더욱 살벌했다. 나치에 부역하지 않고 나치 질령기간에 사긴 계간한 극소수의 언론론을 제외하고 모든 언론을 국유화 시키고 부역 정황에 따라 총살형, 3산몰수, 종신형 등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은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일제 강점기 당시 경찰 가운데 80%가 해방이후 헌직에 복귀했다.

드넓은 언론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입판대에 올라 가차 없이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애국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반역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야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실업과와 그 후손이 대대손손 살사는 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자손들은 햇빛고 굶주리며 대를 이어 가난에 신달리는 나라. 화려한 경제성장 이면에 가려진 나무도 어두운 한국의 역사. 3·1운동의 실지 남양주는 늦고도 모 늦었지만 이러한 신헌의 고귀한 뜻을 연구하고 밝혀, 자긍심 넘치는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해방대행진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이것에 대항해 일어난 운동이 바로 3·1만세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꼭 95년 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이 독립국이며 한국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세계만방에 알리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이를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필제의 총칼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다.■

남성운(월간 <지치와 협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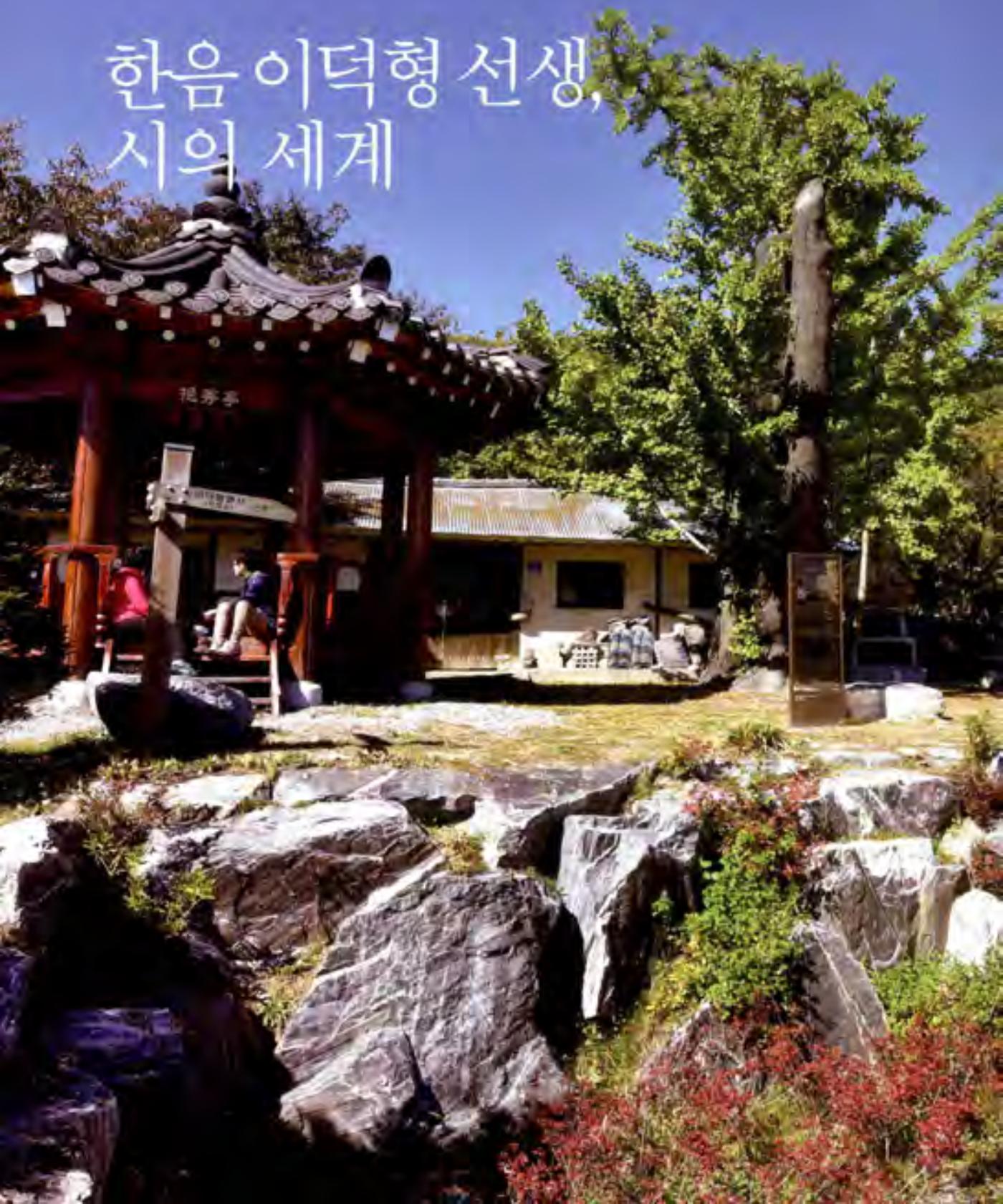
<참조문헌>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2008 역사비평사, '간담, 청산의 길 묻는 아래 2014 휘모래, '저속인어 귀야 빌' 2005 두레
'중국현대사' 1989 까치, '중국근현대사' 1989 집월서각, '현대한국사' 1973 선구문화사, '세계사편력' 2005 집월
'한국독립운동지형사' 1020 휴먼사, '기미독립선언서 1919 조선민족대표, '동아시아를 만든 일기 지시감' 2008 활비,
'중화권개사 근대권' 2008 일조각, '프랑스인권선언' 1789, '조선혁명사화' 1933 자유출판사,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
한다! 1983 미래문화사, 한국기독교의 역사 제1호 1987 한국기독교 안사연구소, '독립운동사자료집 1971~1976 독립운
동사립한위원회, '한국민족운동사료' 국회도서관, 논문 '윤당 어운형과 3·1운동' 2009 장준식
논문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2001 성주현

<참고기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로패,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공문전자사료원
국가기록관 대통령기록처,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권질문,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윤양희문화선생기념사업회, 남양주문화원, 남양주시청, 용인교회, 원진교회

한음 이덕형 선생, 시의 세계



들어가는 길

풍수자리에도 도통했던 한음 이덕형 선생(이하 한음)은 경계에 서 둘러나 부친을 모시고 효도하고 여생을 즐기며 살만한 여러 지역을 살펴보면 중마침내 길지 중의 길지를 찾아냈으니, 그곳이 다름 아닌 집 앞에는 용진강(북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뒤에는 상서로운 서기가 시리는 운길산이 펼쳐주어 선수가 빼어난 용진 사재촌 '한음마을'이었다.

한음은 나라일 가운데서도 특히 임진병화를 당하여 오늘날 중국으로 내몰린 경상도로 동분서주하는 와중에도 봄이 되면 용진 사재촌을 찾았다. 절경에서 절경으로 이어지는 한강줄기를 타고 용진강을 이어 오는 뱃전에서 시(詩)가 흐르는가 하면, 수종사로 이어지는 운길산 오름길에서도 시가 피어나고, 수종사 주지스님과 불교를 논하면서도 시가 오갔다. 또한 원릿길도 멀다 알고 찾아오는 영천의 노계 박인로와 문학을 논하고 시를 지었다.

한음에게는 운길산, 수종사, 용진강, 용진강의 사재(苜蓿)를 배경으로 한 사재촌 일대가 효의 근본이면서 문학의 집이요 시의 신실이었던 셈이다.

244
245

타고난 문학적 재능

한음 이덕형 선생(1561~1613)의 나이 14세 때 외숙부가 사는 포천에서 글을 읽었는데, 이때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뉘어오다'로 유명한 봉래향사언 형제가 지나는 길에 14세의 소년 한음이 보통이 아님을 알아보고, 봉래가 시한수를 먼저 지어 부르니 곧 이 즉시 시를 지어 이에 응답했다.¹⁾

둔 넓어 어스름 일제 깔리고 峯巒昏光澤 야광모경바
물 맑으니 산 그림자 얹어도 미간다. 水明山影亦 수명산영다
푸른 숲에는 하얀 연기 이는데 綠陰白煙起 하음백연기
향리보문-풍말에는 길이 무서니 뵈. 芳馥雨三峯 眞遙望山가

1) 『한음선생문고』상, 시(詩)주어백한음문학, 동화서당, 1996, 74쪽.



한음마을 별서터

이에 한음보다 빠른 냇이나 연상인 봉래 형제는 한음을 보고, “그대는 나의 적수가 아니라 나의 스승이다.”라고 감탄해 따지않았다고 한다. 이 시는 두서너 채의 집이 있는 불가의 푸른 숲에 저녁밥 짓는 연기가 낮게 일고 있는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눈에 선하도록 소박하게 묘사하여 소년의 시 치고는 너무나 뛰어나다.

운길산아래 별서를 짓고

한음은 조선의사 최연소인 31세에 대제학, 42세에 영의정에 오른 후 45세 되던 1605년 부권을 모시고 용진(龍津) 사재촌의 한적하고 소박한 별서(別墅)로 왔다. 김의 이름을 '대아당(大雅堂)'이라 붙였고, '읍수(逸秀)'와 '이로(怡老)'라는 두 개의 정자를 지었다. '읍수(逸秀)'는 '주위의 빼어난 경치를 이곳에 가져 온다'라는 의미에서이고, '이로(怡老)'는 '벼슬에서 물러나 여생을 즐긴다'는 뜻에서

다. 서실(書室) 이름을 '애일(愛日)'이라 한 것은 '하루하루의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여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는 뜻에서다. 한음은 이곳에 명나라의 이름 높은 선비들이 쓴 좋은 글들 액자에 넣어 감상하면서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다.

이곳의 별서는 산수(山水)의 경관이 몹시 좋아 비슬에서 물러난 후 부친을 모시고 여생을 보내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이곳에 터를 잡은 것은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4년 풍진(김포)에서 작고하신 모친의 묘소가 윤길산 아래로 흐르는 용진강 건너편 10리쯤 되는 양평군 옥왕리산에 있어 성묘하기도 쉽거니와, 윤길산에 오르면 모친의 묘소가 바라보이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모친이 묻혀 있는 그곳 묘소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바로 그해 왜군의 화를 피해 자결하신 부인의 묘가 있어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었다.

한음은 자신으로 중국에 가셔도 이곳 한음마을 용진 사제촌을 생각하면서 '유란에서 밤에 읊다'라는 시를 지어 그리움을 달래었다.*

유란(楡巖)에도 늙은 나 죽았건만 북풍만은 차갑구나, 楡巖雪盡北風寒 유란실긴북풍한
 여란(驪岩)의 청동아래 길도독 달소 나누었네, 驪岩靑位語夜獨 역점청동어아란
 아득한 천리의 용진(龍津)에 뜬 달을, 恒恨龍津千里月 초창용진천리월
 한해에 두 곳에서 나누어 보겠네, 一年分作兩處看 일년분작량양간

246

247

한음은 원사 이정구, 창식 이준 뿐만 아니라 미수 허목, 다산 정약용 등을 비롯한 후세의 학자들로 부터도 칭송을 받았다. 정약용은 한음 이덕형 선생의 학문과 높은 인격에 감동하여 '고영의정한음이 공화상간(故領議政漢陰李公肅像讚)'을 지어 바쳤다. 다산 정약용은 한음의 7대손인 복암(茯菴) 이기양(李基讓)과 박역한 사이였고, 자신의 거처에서 미지않은 곳에 한음 별서(別墅)가 있었기에 친근한 마음으로 한음 선생을 찬미했을 것이다. 다산의 '한음화상찬'은 아래와 같다:†

젊은 나이로 재실 지위에 올랐지만 黜陟效妙之齡 안등교묘지형
 백성들이 마치 노유(老儒)처럼 두려웠고 而民望之如魯翁 이민망지위기속
 은총은 폐부를 말한 듯이 신속하였지만 誨誨如腹之剖 총넉폐부지파
 벗들은 그를 선비로 대하였네 而友視之如儒者 아우시지위유부
 뼈를 깎을 듯한 유언이 떠돌아도 沒言雖背 卽언사공
 임금은 그의 분심 의심 하지 않았고 而睿照不疑其素節 이에조불의기소
 살을 도려내는 생언을 하여도 誦言既興 贊언평기

* 『한음선생문집』상, 99쪽

† 정약용, 『고영의정(高靈公傳) 찬문(贊文)』(기초(基礎) 문집권(文集卷), 『다산이론집』, 제 12권 101면).

은구(銀丘)였지만 장죽은 하지 않았네 而竹藏不加於銀丘 이은(李恩)의 방죽
 그의 높은 승상이 큰 절개가 龍非高而大節 시비(詩碑)의 존재
 모든 이의 마음을 만족하게 복종시키지 않았던들 博群志乎歡伏 비군(非君)으로 임복
 싸부리 하늘이 등보고 귀신이 도왔더라도 龍天觀神龍 수천(守天)고신비
 누가 그에게 그런 복을 주었을 것인가 而孰予之福龍哉 이숙(이숙)이 지사(支使)목재
 아름답다 풍성한 광대벽에 광대 있는 보조개 龍龍龍龍龍龍 龍龍龍龍龍龍 龍龍龍龍龍龍
 장대한 계구(階)에다 근엄하기까지 하였으니 龍龍龍龍龍龍 龍龍龍龍龍龍 龍龍龍龍龍龍
 후세 사람들이 後之人 후지(後)인
 그누군을 같이 공경하지 않을 손가 釋敢不秩無再(釋) 주갑(周甲)불(不)진(進)연(連)계(界)정(正)

시비에 새겨진 시조 한수

용진 사재촌의 별서터가 있는 한음마을에 한음의 호망한 기개가 나타나내주고 있는 시비(詩碑)가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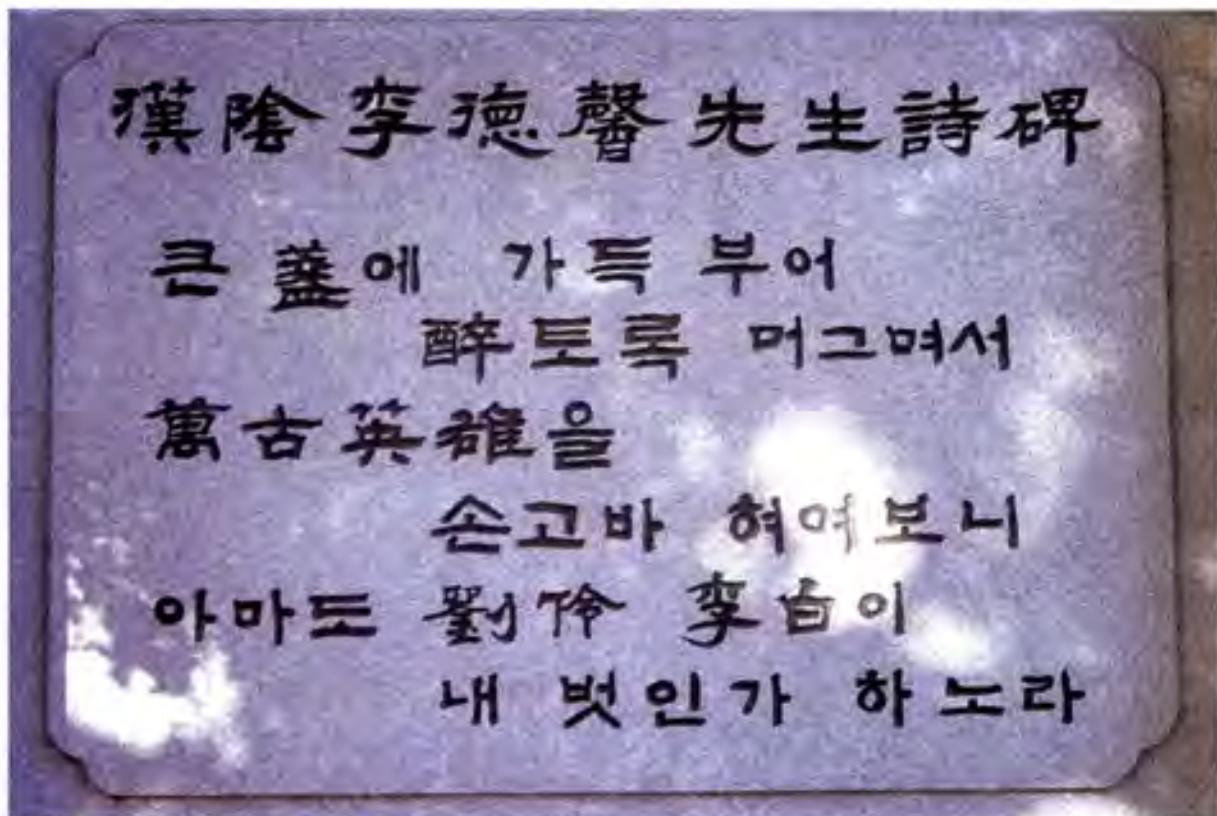
큰 절(峯)에 가득 부어 龍(龍)도루 버그마시
 만고양동(萬古良童)을 은고(銀丘)하어보시
 아이노 유림(劉林)이백(李百)이 내 벗인가 하노라

잡다한 속세를 벗어나 용진 사재촌의 산과 강과 숲이 어우러진 소박한 흥취가 이 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 이수선한 난국에 온 권지를 둘러보니 잡다한 세상에 초연하여 초연지기로 일생을 마친 중국의 시인인 유림이나 이태백이 영웅호걸이요 진정한 나의 벗이란 뜻이다. 이것은 공이 지은 국문시조 2수 중 하나로서 당대의 한음이 품었던 영웅적인 기상, 의분, 좌절감, 정취, 장서가 이 시조를 통해서 표출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큰 절’은 ‘뜻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해석이 된다. 그런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이 세상에 없으니 ‘마음의 큰 그릇’에 ‘뜻을 상징하는 숲’을 마음껏 담아본다는 것으로 본다. 과연 참된 영웅이 무엇인지를 노래한 이 시에서 공의 호망한 기개가 엿보인다.

한음은 45세 되는 1605년, 용진(龍津) 사재(沙堤)가 내려다보이는 운길산 아래에 별서(別墅)를 지어 부친을 이곳에 모셨다. 공이 지은 서정시의 대부분이 운길산과 용진강이 이루는 빼어난 산수(山水)를 배경으로 이뤄진다. 특히 운길산과 용진강 사재는 공에게 시적인 상상력을 주고도 남음이 있는 곳이었으며, 시국이 몹시 어지러웠던 1613년 광해군 정국으로부터 풀려나 이곳에서 여생까지

* 『1614년 10월 16일』 영주(英州) 유림(劉林) 묘지, 장정인쇄사, 1998, 179쪽.



한음 이덕형 선생 시비

보냈으나...

위의 시조를 지은 시기는 한음의 나이 51세 되던 1611년 4월, 정인홍의 죄를 논한 것으로 인해 영의정에서 좌의정으로 강직된 해이다. 이때 한음은 용진에 내려왔고, 이를 알고 이곳을 찾아온 노계 박인보로 하여금 용진 사제(莎堤)에서 '사제곡(莎堤曲)'과 '누항사(陋巷詞)'를 짓게 하고, 이해 가을에는 공이 '신해년 가을 용진에 배를 띄워(辛亥秋泛舟于龍津)'란 한시를 지어 읊은 해이기도 하다.*

늦으랴에 거룻배 타고 석양을 누비는데 晚罷扁舟放夕陽 민가편주방석양
 아이들 예닐곱이 나란히 뒤따르네 兒童六七又成行 관동륙칠우성행
 국화꽃 단풍잎 가을 산 아름답고 黃花赤葉秋山麗 황화적엽추산미
 바깥길리에 물고기들 흥취 끝이 없네 白魚銀鱗野興長 백주은린야흥장

*『한음선생문고』상, 시 219쪽.

노계 박인로, 천릿길도 머다알고

노계 박인로의 '사제곡(莎提曲)'은 한음 51세, 노계 역시 51세 때 지어진 것이다. 한음과 노계가 1561년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로서 비록 같은 직책이 한문은 영의정으로서, 다른 한문은 수군만호로서 신분의 차이가 났지만 한음은 여기에 개의치 않는 대범한 인물이었다.

여기에 임진국란을 당하여 모두 함께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했다는 일체감위에 문학적인 동지에 로서의 친밀감은 한층 더했을 것이다. 아래의 사제곡은 노계가 그의 벗 한음이 정세에서 물러나 용진의 사제에 은거하고 있을 때인 1611년 신해년 가을 한음을 찾아가 용진강에 배를 띄우고 함께 지은 것이다.⁶⁾

산영(山影)의 추안(秋晩)이노, 유희(幽棲)를 들대업시
 운길산(雲吉山) 들길에, 막대잡고 쉬어올나
 김바소요(金巴素요)후비, 원하(源鶴)을 벗을삼아
 교송(喬松)을 버키어, 사우(四隅)모도라 보나
 권공(元功)이 경교(景巧)후야, 몇 빛을 향하는가
 권 구를 팔근대는, 권 권(元元)이 피어나라
 도부라 나지마, 봉봉곡곡(蜂蜂谷谷)이
 평면(平面)에 비빛려든 (이하 생략)

노계의 사제곡은 노계 박인로가 사제촌 일대의 아름다운 생활상을 읊은 노래의 일부로서 노계문집에는 “노계공이 한음상공을 대신하여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되어있어 이것이 한음상공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⁷⁾

꿈속에서도 밟아보는 용진의 길

한음은 사신으로 이역만리 중국 땅에 머물면서도 운길산 아래의 용진 사제촌을 잊지 못하여 꿈속에서도 용진의 길을 밟아 보았으며, 사제촌에 두고 온 존자아이 역시 못내 그리웠다.⁸⁾

6) 김병우, 『노계 시문학 연구』, 도서출판 비서당, 2006, 47쪽.

7) 황윤기, 『노계 박인로 연구』, 『충북문화유산연구』, 2014, 119쪽. 『노계 박인로 연구』, 『한양사학』, 2012년.

백수 되어 천리 밖 나그네 되었으니 白首共爲千里客 백수공위천리객
 국화꽃 피었던만 가을 기약도 잊었네 黃花又負一秋期 황화우부일주기
 꿈속에서도 밟아보는 용진의 길 夢闌猶踏龍津路 봉안유담룡진로
 멀리 떠나온 이 물,
 손자아이 자꾸 자꾸 눈앞에 밟혀오네 身沒頻懷犀角兒 신원빈회서각아

한음이 용진 사제촌에 별서터를 마련한 것은 이곳의 빼어난 산수의 경관 때문만이 아니라 벼슬에서 물러난 후 부친을 모시고 여생을 보내기 위함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마을 앞에 가로질러 흐르는 용진 강 건너 10리쯤 되는 중은동(목왕리) 산에 모셔 있는 모친의 묘소를 조석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였다.

운길산 수종사에 오르는 길 중턱에 서면 강 건너 목왕리 산에 있는 모친의 묘가 눈앞에 곧바로 들어온다. 한음의 모친께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와중에 작고하신 모친이 묻혀있는 그곳 묘소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바로 그 해 왜군의 화를 피해 자결하신 한산 이씨 부인의 묘가 바로 아래쪽에 있어 애절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한음은 복사꽃 만발한 어느 봄날 운길산 중턱에 서서 강 건너 중은동(목왕리) 산을 바라보니 시 한 수가 머리에 팸돌았다.⁹⁾

운길산은 중은동에 이웃해 있고 雲吉隣中隱 운길란중은
 용진은 월계와 접해있네 龍津接月溪 용진접월계
 세속에 복사꽃 만발하면 桃花春滿塵 도화춘만간
 길 잃은 나그네 몇 번이나 보게 될지 幾見客來迷 기견래미

이 시는 목왕리 율래길인 '물소리길'의 여울 옆에 세워진 시비에 새겨져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¹⁰⁾

한음의 고향에 대한 향수는 남다르다. 그 마나면 이역만리에서 오직 생각나는 것은 벼슬아치들의 중심지인 한양 도성이 아니라 선영을 중심으로 한 중은동과 용진 사제촌이었다. 온갖 시름을 달래기 위해 술잔을 동아술로 했으나 고향에 대한 시름을 달랠 수는 없었다.¹¹⁾

술잔은 동이 술다 했어도 남불래 매가 타는데 酌闌樽酒魂猶斷 작란준주혼감단
 노래는 여구로 마치니, 뉘었뉘었 날이 직무네 歌闌纏酌日欲西 가결려구일유서

9) 『한음선생문고』상 75쪽

10) 이 시에는 한음씨가 40여년을 맞아 일평군방에서 물소리길 계류에 머물어 건립한 것이나

11) 『한음선생문고』상 157쪽.

해 저문 용추엔 기리기 때 작을 지고 龍樓照水龍樓少 제안용추성안소
 하늘 낮은 조림엔 칠 구름 감도리라 天低鳥樹深雲連 천저조림동문미
 그대 때문에 되래 신령 생각이 나니 因君起此松檜想 인군반지송추란
 떠나온 생각 고향 시를 밭밭금만 쫓아가네 離思鄉心逐馬蹄 리사향심추마제

한음은 임진왜란에 공을 세운 송운(사명당)대사를 비롯한 수많은 스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이곳 사제촌에서 돌길을 따라 수종사에 차주 들렀다. 이때 수종사의 주지가 되어 사제촌(莎堤村)의 한음을 인사차 찾아온 덕인(德仁) 스님에게 준 시를 보면 한음과 수종사의 스님과 사제촌을 둘러싼 가을 풍광이 그대로 드리난다.¹⁸⁾

운길산 스님이 사립문을 두드리네 僧徒西曉扣柴扉 승종서림구시관
 앞 개울 얼어 불고 온 산은 백설인데 凍澗前溪凍滿山 동함전계설만산
 만길산산에 쌍연대(雙蓮帶) 매있네 萬曆寺樓雙蓮帶 만길청라쌍연대
 늘그마의 한가로움 누리봄죽 하련만 千畝分占春無備 불병분경모년환

한음은 7년여의 임진왜란을 수습하는데 큰 공훈을 세웠으나 극심한 정경에서 오는 국정의 혼미에 몹시 상심했다. 봄날이 가는 어느 초여름 한음은 이곳 수종사를 찾아 주지 스님에게 무국충정에 서 오는 자신의 괴로운 심경을 들어내는 한편의 시를 지어 주었다.¹⁹⁾

산들바람 일고 엷은 구름미는 개있건만 風輕雲淡雨晴時 불경운담우청시
 사립문 향하는 길음편이 다시금 미디네 柴門向步更遲 기향시문보경지
 구십일의 봄날을 시를 속에 보내며 九十日春裝袖酒 구십일순수리과
 운길산 꽃구경은 시지를 또 놀쳤구나 又城西樓賞花暇 우고시임설화기

어느 맑디맑은 봄날, 복사꽃 만발한 운길산도 못 오르고 90일의 봄날을 집안에서 시를시름 보내어 비련 안타까움이 이 시에서 묻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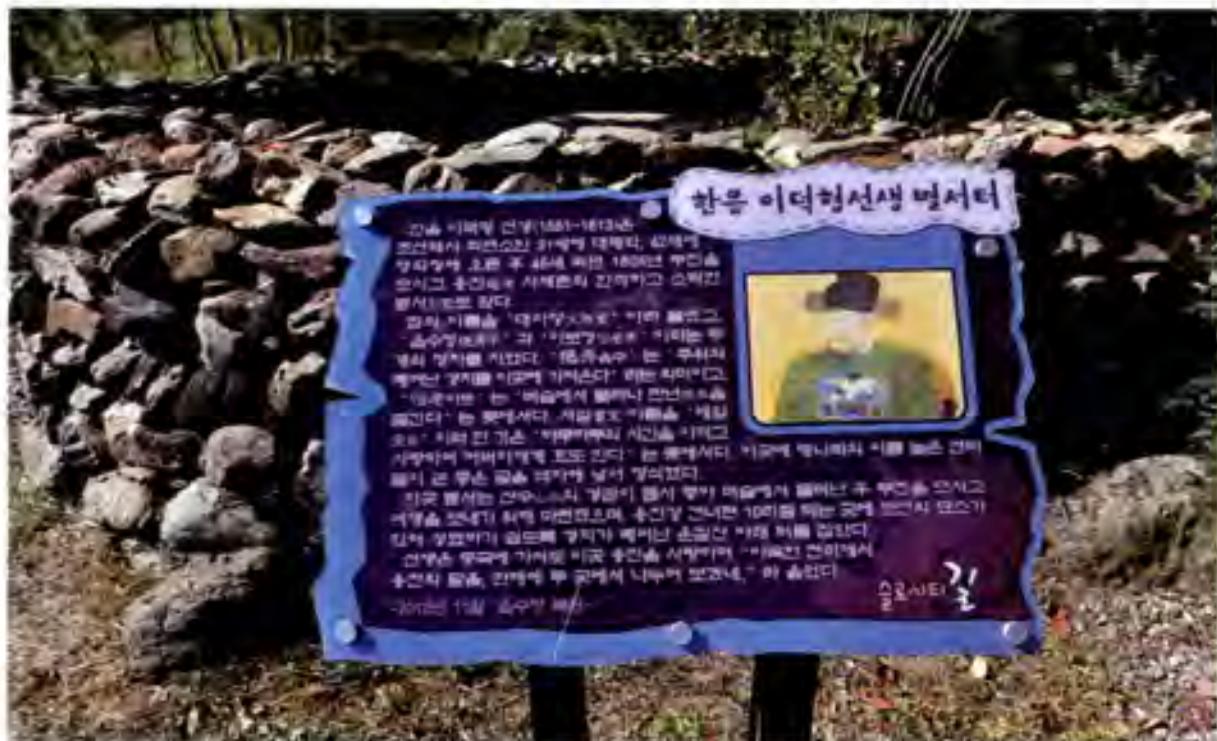
못다 이룬 그 큰 꿈

한음은 임진왜란을 겪은 후 튼튼한 국방을 위해 중종산성(북한산성) 수축을 주장하여 이후의 병

18) 『한음선정문고』 권 10, 49쪽

19) 『한음선정문고』 권 10, 49쪽





한음마을입구안내문

란에 대비케 했으며, 명나라와 일본의 앞선 무기제조법과 군사훈련을 도입하여 이를 적용했다. 당시 농업위주였던 조선의 경제를 뒤바꾸기 위해 은광의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대마도 정벌을 앞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음은 전쟁 이전보다 전쟁이 끝난 이후가 건지기 힘들었다. 전쟁이 끝나니 차마다 꿈로 다름에 몰두하고, 건란 극복에 공이 많았던 아들을 시기하여 중상모략을 하다가 마침내 역적이란 누명을 씌워 한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런 와중에 한음은 착탄관직 되어, 피보지도 못한 나라를 접은 후 그 큰 영웅의 뜻을 텅 빈 배에 몽땅 실어 날려 보내야만 했다.¹⁰⁾

몸이 혼미했던 광해군 정국에서 올바른 신하들은 역적으로 몰려 죽거나 유배되어 가는 와중에 한음은 파직이 되어 송촌리 한음마을인 용전 사계촌으로 돌아와 기뻐이치 가는 무국충정의 나날을 보내다가 1613년 시월 구일 오시에 뜻더한 영웅의 꿈을 안고 53세를 일기로 영면하시었다.

10) 『한음선생문고』상권 77쪽

세살일 땀은 따라 빈하고 三歲時汗隨空
 살은 세월 따라 흐르네, 江波隨江流 空處歲月流
 고금의 영웅들이 쓴 뜻, 高麗英雄書 寫盡
 달 빈 배에 뽕밭 심어 보낸다, 露空 蠶桑 亦種 汝

이런 아귀를 때문에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별서터를 찾아 아련한 유적을 돌아보고 그때 그날을 되새기 보는 탐방객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나오는 길

한음은 세상을 바르게 바꿀만한 영웅적인 기질이 있음에도 시대가 허락해 주지 않아 젊은 나이에 품었던 '강한 의기(義氣)'를 빈 배에 뽕밭 심어 붓다 이를 한음 안고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했다. 그래서 한음이 남겨놓은 어렴풋한 유적들을 찾아 돌아보는 세인들은 이를 안타까워하는가 하면 때론 가슴 아파하기도 한다.

한음이 별세하자 죽마고우였던 오성은 한음묘지명에서 "세인들이 그의 행적을 알겠 수는 있어도 그 이름은 영원히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윤길산, 수종사, 윤진감, 사재(容堤)를 배경으로 한 사재촌 일대가 한음에게는 효의 근본 터전이자 문학의 집이요 시의 산실이었던 셈이다.■

이명환 (문학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광주이씨 한음상공파총회장)

<참고문헌>

- 김장관, 『노계 시문학 논고』, 도서출판 박이정, 2000.
 『校誼 (校本) 容堤 容記』, 정우봉 유장관 공서, 삼영인쇄사, 1968.
 『漢陰先生文編』 上·下, 廣州李氏左議政公孫宗會, 1972.
 황순기, 『노계 박연의 연구』, 국학자료원, 1979.

시민취재원 권영란, 박종주, 박희일, 목기득, 리미란, 이호성, 장정희, 조규준
기획위원 김현성, 오미영, 홍영철, 하시백, 이종호, 한광수
윤문 이상미
사진 중앙사진연구회, 최대길, 오병희

남양주를 거닐다_명소

책연년 | 2015년 1월 15일
책연 곳 | 남양주사
책연 이 | 남양주시장 이석우
관감-인쇄 | 두성사

본 책의문의 저작권 및 관련된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본 책자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허점보여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정릉로 1037 남양주서점 판매소통과
전화 | (031)500-2004, 2054
팩스 | (031)507-8040
홈페이지 | <http://www.ny.go.kr>
ISBN 978-89-96936-3-5
값 12,000원

“名所



서울을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만나게 되는 열 동네 치고는 도심과 훌쩍 다른 풍경들을 선보입니다.
심산유곡을 지나온 남북의 장대한 한강 줄기가 한곳으로 모이는 두물머리를 비롯하여,
조선의 이태조가 활시위를 당기며 사냥을 즐기던 천마산과 속령산의 고봉준령이 여전하고,
천혜의 자연 경관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는 고을마다 수레님이 고개, 장대울, 새우젓골, 돌모루처럼
듣기만 해도 정감이 가는 지명들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



9 788996 630533
ISBN 978-89-968305-3-5

₩ 12000원
03290